

朝鮮國初 大提學 文衡

春亭卞季良先生

鳳陽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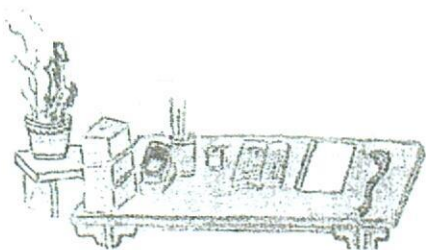
이 책자는 여조(麗朝:1322-1430)의 역사적 배경으로 이조 초기{李朝初期:태종(太宗, 세종(世宗))}, 관학학맥(官學學脈)의 태두(泰斗)로서 석학(碩學), 문형(文衡)이신 16대 조(代祖:諱 季良, 諡 文肅) 춘정(春亭)선생의 생애(生涯)와 중심 사상(思想) 및 학문 세계(學問世界)를 고찰하고 나라에 세운 위훈(偉勳)의 공을 후세에 기리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2003년(癸未) 12월 일 文肅公派 宗親會長 秉永(興壽)>

※ 참고문헌(參考文獻)

- 춘정문집(春亭文集:影印合本) : 重刊本
- 춘정문집(影印本) 해제(解題) : 崔根德
- 왕조실록(王朝實錄) : 政府影印記錄文
- 밀양 변씨(密陽卞氏) 보첩(譜牒) : 大宗會
- 한국인의 족보(族譜) : 日新閣
- 유교사상연구(儒敎思想研究) : 儒敎學會
- 변계량 철학사상(哲學思想)연구 : 金弘旻
- 변계량 경세사상(經世思想)연구 : 金弘旻
- 영남 학맥(嶺南學脈) : 每日新聞特輯
- 청구영언(靑丘永言) : 名文堂(김천택)
- 밀주승람(密州勝覽) : 密陽文化院
- 밀양 지명고(密陽地名攷) : 密陽文化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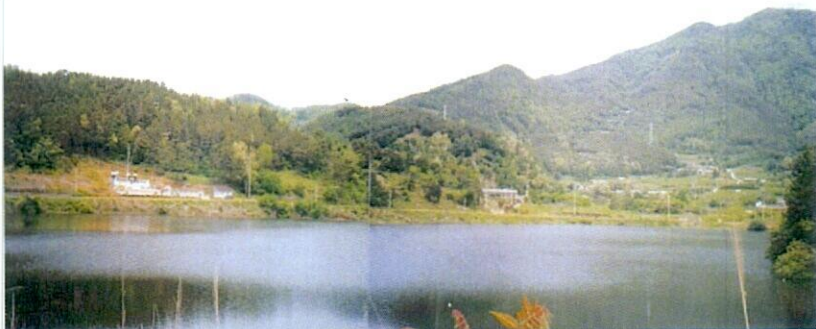


영 정(影 幀)



諱 : 季 良 (휘: 계량)
號 : 春 亭 (호: 춘정)
字 : 巨 卿 (자: 거경)
諡號 : 文 肅 (시호: 문숙)

관향(貫鄉:출생지 밀양시 초동면 성만리(구령리).



▲구령리(龜齡里)



◀선대(先代) 六位 壇所
(諱: 高迪. 益成. 和景.
株. 原. 玉蘭)
2001년(辛巳) 10. 20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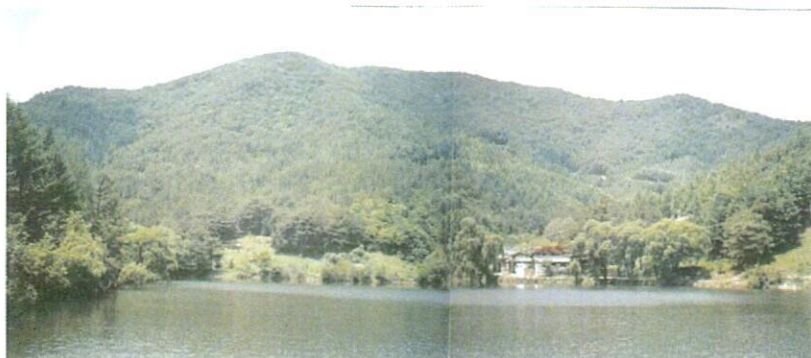


◀密陽卞氏三賢遺墟碑閣
(경남문화재 27호)
判書公: 諱: 玉蘭
春堂公: " : 仲良
春亭公: " : 季良
1937년(丁丑) 7. 건립
2003년(癸未) 10. 중수



◀봉명대(奉命台)
왕명이 내려오면 문숙공이
이 대(台)에서 의관 정재하
여 왕명을 받들어 봉명하고
괘인정(掛印亭)에서 인(印)
을 행겨 상경길에 올랐다.
1937년(丁丑) 건립
2001년(辛巳) 중건

춘정선생 배향지(配享地: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부곡(釜谷)전경



◀봉양서원(鳳陽書院)
상족 송현사(崇賢祠)에
영정(影禎) 봉안.
歲祀: 매년 음3월 15일.
1905년(乙巳)創建.
1938년(戊寅)重建.
1997년(丁丑)齋重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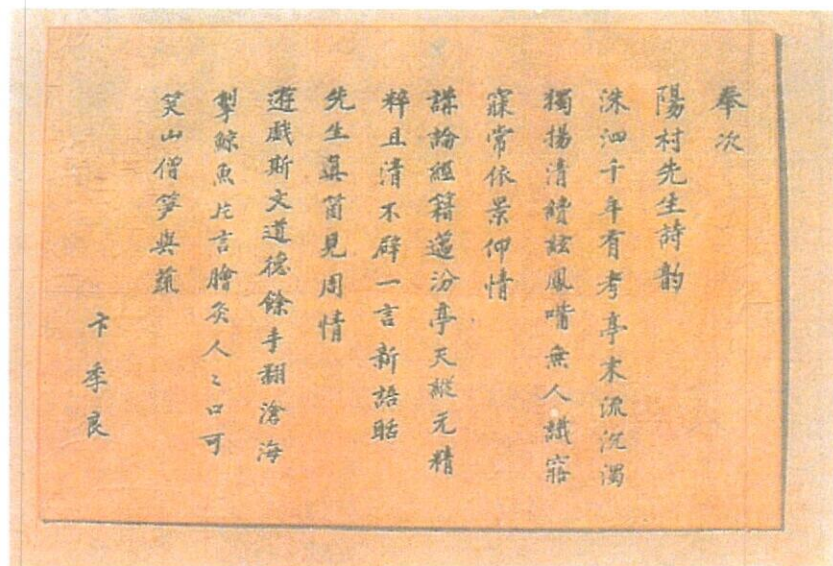
◀송모비(崇慕碑)
서원 경내 송현사당
아래에 위치.
2000년(庚辰) 3. 14
에 건립.

춘정선생 제단(祭壇)



위치 :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봉양서원 동쪽 부곡등(釜谷嶺))
 <해설 - 유적(遺蹟) 86쪽 참조>

춘정선생 친필(親筆)



양촌(陽村) 권근(權近)선생의 차운시(次韻詩)
 <해설 - 학문세계 203쪽 참조>

〈遺墨 1〉 與或人(己丑八月 出 趙判書寅永家藏)

前後如左

八覽之今新秋

金其政收行其政收行

棟唐官美其外其外

由少去金其政收行

其政收行其政收行

其政收行其政收行

其政收行

金其政收行其政收行

多其政收行其政收行

其政收行其政收行

其政收行其政收行

其政收行其政收行

其政收行其政收行

其政收行其政收行

其政收行其政收行

其政收行

시 조(時調)-{청구영언(靑丘永言)}

내해 좋다 하고 남 슬흔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하고 의(義) 아니면 쫓지 말라
우리는 천성을 지켜 삼긴대로 하리라.

註 : 슬흔일 : 싫은일

천성(天性) : 하늘에서 받은 좋은 성질(성리학적 천(天) 사상)

삼긴대로 : 생긴 대로(原形). 본래의 타고난 좋은 성질대로.

※ 춘정선생은 성리학을 튼튼히 닦으시며 천사상(天思想)과 심성설(心性說)을 강조하고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적 입장을 취했으며 민본사상(民本思想)을 숭상(崇尚)하고 경세(經世)의 요諦(要諦)로 삼았다. 즉 [심(心)과 성(性)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 귀착시키고 심성(心性)에 있어 리(理)의 본성(本性)은 착하지만 기(氣)의 성질은 나쁘게 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학문을 닦아 올바르게 하고 성리학적 천 사상(天思想)에 입각하여 천성(天性)을 지키고 천인합일정신(天人合一精神), 즉 오성(五性)에 순응하고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일렀다.

註 :本性 : 五性(五常) - 仁・義・禮・智・信

五倫 - (天人合一精神)

추정선생 가훈(家訓)

春亭先生家訓

人生非金石少年能幾時

既壯不努力白首而無志

勤信書之訓雪螢寤窮取學

癸未秋十七世孫秉永謹書



문헌초(文獻抄) : 密州勝覽·地名攷·遺墟碑銘

遺跡文獻抄

奉命始曲池下之肅公季良在王命
必於此臺曰奉命又敬池涿納曲水
故曰曲池也遺址尚存也
氣為茂子之韓家之第百載奉命始抑印
高當可以指認而士林無美楠寓萊之地
以人無心徒見之歎呼可悲也
遺墟碑

賀東清和節十七世孫素之謹書



序

부군(府君) 춘정(春亭:諱 季良)선생은 권양촌(權陽村:諱 近), 하호정(河浩亭:諱 崙)과 함께 소위 관각(館閣) 3걸(三傑)로 일컬어지는 선초(鮮初)를 대표하는 석학(碩學), 문형(文衡), 유신(儒臣)으로서 태종(太宗), 세종(世宗)조 때 나라에 끼친 위훈탁절(偉勳卓絶)의 공(功)은 실로 위대하였다.

그러나 왕조 교체 격변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입지에서 갈등하셨고 부군(府君)의 선고(先考:諱 玉蘭)는 이조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었으나 형(兄:諱 仲良)은 이원계(李元桂:이성계 형)의 사위이면서도 정포은(鄭圃隱:諱 夢周)선생과 절의(節義)를 함께 하였으니 부친에 대한 효와 형의 남다른 사랑 속에 갈등하시고 원래 연약한 체질인데다가 두 번(1392년:이조 개창기, 1398년:1차 왕자의 난)씩 이나 관직을 버리고 수년간씩 은거(隱居)해야 하는 생애(生涯)에 최대의 시련을 겪으셨다.

그 후 태종이 즉위한 후 차차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선배들의 요청과 조정(朝廷)의 부름에 따라 다시 관직에 나아가게 되셨고 1400년대에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과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을 겸직함으로써 최초의 전문형(典文衡)으로 승양 받았으며 세종(世宗) 때는 집현전(集賢殿) 대제학(大提學) 까지 겸임함으로써 20여 년 동안 문형(文衡)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린(交隣)의 외교문서와 사명(辭命), 조명(詔命)과 기타 대소 문한(文翰)의 제작, 고려사 개수(高麗史改修), 태조, 정종, 태종 실록의 편찬, 과거 시험의 관장, 제사(祭祀) 연향(宴享) 등의 의례(儀禮)와 예악(禮樂) 전반을 주관하고 궁중 음악용 연향가사(宴享歌詞) 및 악장(樂章) 등 사장학(詞章學)의 업적을 많이 남겨셨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구편제에 예속된 집현전(集賢殿)을 새로운 목적으로 설치 확충하여 인재양성(人材養成)의 기반을 튼튼히 갖추었고 아울러 사가독서(賜暇讀書:선발된 젊은 인사의 휴가 연수제도)의 호당(湖堂) 제도를 마련하셨다. 그리고 대마도의 왜구 본거지 정벌(征伐) 건의, 효행록(孝行錄) 간행, 진법계발(陣法啓發) 등 왕조의 문

물 정비를 주도하고 사대주의(事大主義) 사상에서 명(明)나라의 천자(天子)만이 제천(祭天:하늘에 올리는 제사)을 할 수 있다는 조정(朝廷)의 관례를 뒤엎고 우리 나라도 독립 주권국가이므로 임금의 제천 할 수 있다고 헌책(獻策)하고 실행에 옮긴 원단제천론(圓壇祭天論)을 제창한 민족 주체사상가이시며 유시(遺詩)에서 군데군데 발견할 수 있는 애민정신(愛民精神)과 민본사상(民本思想)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임금이 변한사(卞寒士:가난한 선비)라 칭하며 여러 번 면포 의류 등의 생활 하사품(下賜品)을 받을 만큼 청렴결백한 삶을 영위하면서 당대의 관리(官吏), 학자, 문인으로서 정계(政界), 학계(學界) 및 사회에 남긴 업적은 매우 컸다.

한편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세종조(世宗朝)는 기이(奇異)한 행동의 세자이던 양녕대군(壤寧大君:禔)을 폐하고 충명한 충녕대군(忠寧大君:世宗)을 왕위에 계승하는데 교육을 담당하던 선생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후에 세종(世宗)은 황희, 허조, 맹사성 등 청렴한 정치인을 전진 배치하여 중앙집권제도를 확립하고 문교 외교사명 문한 등에 부군(府君)의 석학(碩學)을 등용하여 안 밖 정치의 튼튼한 기조를 이루고 정사(政事)가 활성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어명(御命)으로 발간된 춘정문집(春亭文集)과 그 밖의 왕조실록(王朝實錄), 관향(貫鄉)의 관련 고문헌(古文獻) 등 귀감(龜鑑)의 보전(寶典)으로 전해진 근엄한 내용들을 토대로 단편적이거나 선생의 생애(生涯)와 중심사상 및 학문 세계를 살펴 후인들에게 유업(遺業)의 체감(體感)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편집하였다. 한편 문집의 완역(完譯)과 심도(深度)있는 연구는 앞으로의 학계(學界) 및 독지가(篤志家)의 과제로 남기며 미흡하나마 삼가 이 책자가 뜻하는 바 후세(後世)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03년(癸未) 12월 일

春亭公 十七世孫 秉永(興壽) 謹書

목 차

· 영정(影幀) 및 유적(遺蹟)	1
· 序	13
· 목차	15
 I. 춘정선생(春亭先生)의 생애(生涯)	17
1. 여말(麗末) 선초(鮮初) 동북아(東北亞)의 역사적 배경	17
가. 국제정세	17
나. 국내정세	19
다. 당대(當代) 역사의 대표적 인물	22
2. 출생(出生)	34
3. 출사(出仕)	36
4. 후세 사가(史家)들의 평가(評價)	66
 II. 춘정선생의 유적(遺蹟)	72
1. 춘정선생 문집(文集)	72
2. 춘정선생 관향(貫鄕) 유적(遺蹟)	75
3. 춘정선생 배향(配享)	84
가. 최초 배향(配享) : 병암서원(屏巖書院:거창 가조)	84
나. 현 배향지(配享地) : 봉양서원(鳳陽書院:청도 풍각)	85
 III. 춘정선생의 중심 사상(思想)	100
1. 한민족(韓民族)의 천사상(天思想)의 고찰(考察)	100
가. 고대 국가의 천사상(天思想)	100
나. 제천의식(祭天儀式) 및 천사상(天思想)	102
다. 천 사상(天思想)의 자연관(自然觀)	103
라. 성리학(性理學)에 비친 천사상(天思想)	105
마. 종교적 의미의 천사상(天思想)	106
바. 한민족 천사상(天思想)의 특징	107
2. 경세사상(經世思想)	108
가. 개요(사상적 배경)	108
나. 주체사상(主體思想)	110
다. 민본사상(民本思想)	113
라. 치도론(治道論)	124
3. 경학사상(經學思想)	142

4. 철학사상(哲學思想)	147
가. 자연인식(自然認識)	148
나. 인간관(人間觀)	158
IV. 춘정선생 학문세계(學問世界)	169
1. 춘정선생의 학문적(學問的) 위치	170
가. 학문의 연원(淵源)	170
나. 관학(官學)의 태두(泰斗) 전문형(典文衡)	171
2. 문집(文集)을 바탕으로 본 문학세계	178
가. 시조(時調)	178
나. 한시(漢詩)	180
다. 악장(樂章)	189
라. 가사(歌詞)	196
3. 유학자(儒學者)들의 업적으로 본 학맥(學脈)	197
가. 학맥개요(學脈概要)	197
나. 유학자(儒學者)들의 학문적 업적과 영향	201
(1) 관학과(官學派)	201
(2) 사학과(私學派)	218
4. 문집(文集) 독해(讀解)	220
가. 한시(漢詩) 선정(選定) 50수(首)	220
나. 書, 遺墨(서, 유묵) 해설	250
V. 편집후기(編輯後記)	263
부 록(附錄)	265
1. 유적 문헌초(遺跡文獻抄)	267
가. 봉명대(奉命台) 곡지(曲池)	267
나. 패인정(掛印亭)	267
다. 춘정선생 가훈(家訓)	268
2. 密陽卞氏三賢遺墟碑銘(밀양변씨삼현유허비명)	270
3. 시비(詩碑: 춘당공(春堂公)·춘정공(春亭公))	277
4. 후손 세거내력(世居來歷)	278
가. 세계도표(世系圖表: 종가(宗家), 중가(仲家), 계가(季家))	278
나. 문헌기록(文獻記錄)	285
5. 문집목록(文集目錄)	310

I. 춘정선생(春亭先生)의 생애(生涯)

목 차

1. 여말(麗末) 선초(鮮初)의 역사적 배경 (국제, 국내)
2. 출생
3. 출사(出仕:벼슬) : 년보(年譜)
4. 후세 사가(史家)들의 평가(評價)
 - 수문전 대제학 정척(鄭陟) 행장
 - 왕조실록 기록문
 - 영의정 심상규(沈象奎) 중간서

1. 여말(麗末) 선초(鮮初) 동북아(東北亞)의 역사적 배경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동북아 삼국 즉 중국대륙, 한반도, 왜국(倭國)의 삼각 관계 국제 정세 속에서 유구한 역사가 이어져 왔다. 특히 13세기-14세기에는 중국대륙에 원(元)에 이연 명(明) 나라의 사대(事大) 및 조공(朝貢), 일본의 왜구(倭寇:해적 배 군사)의 계속된 침략, 국내의 여조(麗朝) 교체 격변기를 거치는 가운데 고려말 13세기 중엽{공민왕(恭愍王)}에서 이조 14세기 중엽{세종(世宗)}까지 약 100여 년간에 십 수명의 문과 급제 인물을 배출한 변씨문(卞氏門)의 등장은 왕조 교체 격변기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표 1 참조>

가. 국제정세

- 왜국(倭國:일본)

먼 옛날부터 한반도의 인접인 외국(倭國)은 간헐적인 해안

침범과 약탈은 있었으나 13세기에 들면서부터 도서(島嶼) 일본은 소위 왜구(倭寇:왜국의 해적 배)로서 한반도 이남의 동, 남, 서해안까지 빈번한 침략으로 괴롭혀 왔으며 이러한 만행은 16세기까지 이어져 갔다.

1271년(고려 원종12)에는 원나라 장수 혼도(忻都)가 와서 왜구 정벌(征伐)에 지원되었으며 2년 뒤(1273년)에도 탐라(耽羅:제주도 옛 이름) 왜구 정벌에 나섰고 이듬해는 1만5천명의 혼도 병력과 혼성군을 편성하여 김방경(金方慶)으로 하여금 전함 300척으로 일본 정벌에 나섰다.

1350년(고려충정왕2)부터는 왜구(倭寇)의 침략이 더욱 격화되기 시작하여 향후 40여 년 간 계속되기에 이르렀고 그 여세는 규모가 큰 때는 함선 500여 척까지 동원되었고 경상도 동, 남해와 전라, 충청도, 경기 강화도에까지 미쳐 내륙으로도 깊숙이 들어와 해주 목사 살해(1373), 전주 함락(1377), 진주, 풍천, 서천, 상주 등에 이르기까지 관아(官衙:관청) 및 민가의 방화와 약탈, 부녀자 납치 등 그 만행은 극에 달해 해인사에 보관 중이던 역대 실록을 옮기게 되었고 왕의 피신처를 답사할 정도로 극심했으며 조정(朝廷)에서는 여러 번 사신(使臣)을 보내어 만행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별 무 효과였다.

· 중국대륙-(元·明 1368)

중국대륙은 고대로부터 한반도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여 왔으며 특히 13세기에 와서는 원(元)나라의 행패가 극심하여 왕과 공주를 수시로 불러드릴 뿐 아니라 사신(使臣)이 와서 고려의 국왕인(國王印)을 능사로 빼앗아 갔으며 엄인(閹人:거세된 궁인), 동녀(童女:처녀), 말, 인삼, 포(布:배)를 수시 또는 정기로 조공(朝貢)을 받아 갔었다.

1349년 2월(충정왕)에는 원나라에 억류된 강능대군(江陵大

君(祔):공민왕)은 노국공주(魯國公主)와 결혼하게 되었고, 당시의 고려국은 외형상 주권은 있으나 내정간섭은 극에 달하여 후에 명(明)나라에까지 이르렀고 1359년(공민왕8) 5월에는 예성강, 웅진 등에 왜구의 침범과 더불어 그 해 11월에는 요(遼), 번(蕃)의 유민(遺民) 2300여 호(戶)가 귀순한 가운데 12월에는 10만의 홍건적(紅巾賊)이 압록강을 건너 노략질을 하며 서경(西京:평양)을 함락시키고 만행을 저질렀으나 이듬해 1월에 서경(西京)을 수복하고 2월에 잔병을 소탕하였으나 3월에 또 다시 서해도서(島嶼)에 침범함으로 그 해 11월에 왕은 임진현(臨津縣) 백악신궁(白岳新宮)으로 이거(移居)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대소변란(大小變亂)이 계속되어 오다가 1368년(공민왕17)에 원(元)나라는 패망하고 명(明)나라가 세워졌으나 중국대륙의 대국주의(大國主義)의 행패는 그대로 이어져 왔고 사대주의에 따른 조공(朝貢)으로 민란(民亂)이 일어날 정도로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다.

나. 국내정세

나라 안에서는 1356년(공민왕5)에 반원정책(反元政策)으로 북청(北靑:압록강서쪽8참(站:역마울))지방을 수복(收復)하였으나 외세의 침입과 혼란은 계속되어 이를 평정하는데 급급하였고, 최영(崔瑩), 이성계(李成桂)장군의 활약이 매우 컸다.

그러나 신돈(辛旽)의 집권시대(1365-1371)에는 그 폐해가 많았으며 1374년(공민왕23)에 친원파(親元派)와 친명파(親明派)의 외교정쟁(外交政爭)이 시작되었고 결국 1388(우왕4)에 친원파(親元派) 최영(崔瑩)장군의 요동반도 원정(遠征)중 3월에 평양을 출발하여 5월에 압록강 위하도에 주둔하였으나 이성계(李成桂)의 회군(回軍)으로 왕을 폐하고 창(昌)을 책립하였으며 12월에는 최영장군을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이성계는 이듬해 1월, 경상도원수 박장(朴藏)을 시켜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정벌(征伐)하여 왜선(倭船) 300여 척을 소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해(1389) 12월에는 폐왕인 우. 창왕을 살해하여 추종하던 충신들의 음모를 예방하고, 관제개혁(官制改革)을 단행하는 한편 조민수(曹敏修:左侍中) 이색(李穡:檢校侍中) 등을 숙청하고 정도전(鄭道傳:學者), 배극렴(裴克廉:守侍中) 등을 기용하여 새 왕조 개창세력(開創勢力)으로 결집하였으며 1392(공양왕4) 4월에는 정적(政敵)인 고려 충신 정몽주(鄭夢周:門下侍中)를 제거하고 마침내 이성계는 7월 17일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계자(季子:동계왕후아들)인 방석(芳碩)을 세자(世子)로 책봉하고 이듬해 2월에 국호(國號)를 조선으로 하고 1394년(태조3)에 도읍을 한양(漢陽:서울)으로 정하였다. ※일시 개성으로 돌아갔다가 1405년에 재건함.

1396년(태조5)에는 10월부터 동래, 평해, 울진 등 동해안에 왜구가 침입, 극심한 노략질을 함으로 12월에 김사형(金士衡:좌의정)을 시켜 대마도를 정벌하여 왜 만호(萬戶), 배 60척을 투항 받는 전과를 올려 민생을 돌보기에 힘썼으나 잇다른 왕자의 난(王子亂:1차(1398년 8월 방원의 정도전 일파 참살). 2차(1400년 1월 방간의 박포(朴苞)일파 처형)으로 조정이 어지럽게 되어 많은 선비들이 희생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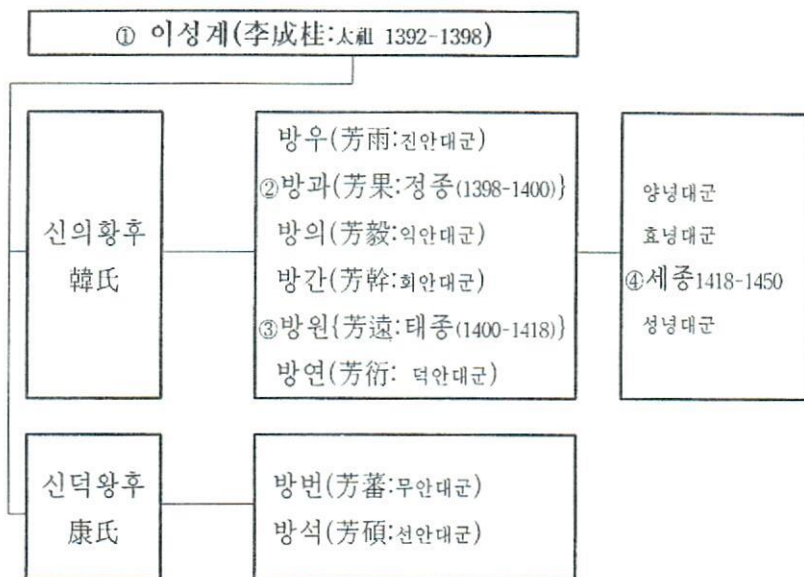
그러나 1401년 태종(太宗:芳遠)이 즉위하고 정적(政敵) 숙청이 끝나면서 차차 안정되어 갔으며, 당대의 유능한 인물들이 참정(參政)에 협조하기 시작하였고 1405년(태종5)에는 다시 한양국도(漢陽國都)를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과 명나라의 조공(朝貢) 독촉은 여전하여 1408년(태종8) 4월에는 미녀(美女)를 징집하여 보내고 이듬해 11월에 말(馬) 1만 필을 보내는 등 대륙의 횡포가 심했으나 개혁작업은 계속되어 새로운 왕조의 모습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왕조 교체기의 대 변혁으로 인한 나라안의 정치 불안, 왜구의 계속된 침입과 약탈, 대륙의 강압과 분수에 넘치는 조공의 독촉, 빈번한 가뭄으로 아사자(餓死者)의 발생, 한양도읍(漢陽都邑) 건설에 따른 물자와 노력동원 등 실로 백성은 도탄(塗炭)에 이르러 그 참담(慘憺)함은 형언할 수 없었으나 한편 뜻 있는 학자들의 문화의 전통은 이어갔다.

◇ 당대의 문화사적(文化事蹟)

- 1346년(충목왕2) : 6월 연복사(演福寺)의 중을 완성 10월 三조(朝:충열, 충선, 충숙)의 실록을 편찬.(李齊賢)
- 1348년(충목왕4) : 동동(動動), 서경별곡(西京別曲), 정석가(鄭石歌), 이상곡(履霜曲), 청산별곡(靑山別曲), 만전춘(滿殿春), 가시리 사모곡(思母曲) 등 출간.
- 1394년(태조3) : 동국역대제현비록촬요(東國歷代諸賢秘錄撮要) (權仲和),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鄭道傳)
- 1395년(태조4) : 고려사찬진(高麗史撰進:37)(鄭道傳)
- 1401-16년(태종) : 편년삼국사(編年三國史)(河崙)
 동국사략(東國史略)(河崙)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權近)
 ※ 향교정비 및 십학(十學)을 돕
 태조실록(太祖實錄)(河崙)
 ※ 아악서(雅樂書:국악원) 정비보강
 동국략운(東國略韻)(河崙)
 ※ 주자소(鑄字所:인쇄소)설치(최초)

다. 당대(當代) 역사의 대표적 인물



◎ 이성계{李成桂:태조(太祖) 1335-1408}

조선의 1대왕(재위:1392-1398)으로 함경도 영흥(永興) 출신이며 자(字:중결(仲潔), 호(號:송헌(松軒)이다. 1356년(공민5)에 아버지{자춘(子春:2남)와 함께 내부(來附:와서 붙음)하여 이듬해 유인우(柳仁雨)가 압록강 서쪽 8참(站)을 치고 쌍성(雙城) 등지를 회복할 때 내응(來應)하여 공을 세워 후에 아버지의 벼슬, 금오위상장군(金吾衛上將軍:정3품), 동북면상만호(東北面上萬戶)를 이어받아 1361년(공민10)에 박의(朴儀)의 반란과 홍건적(紅巾敵)을 격파하였고, 그 후 왜구 등 잦은 변란을 평정하여 공을 세웠다.

1388년(우왕14)에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에 올라 최영(崔瑩)과 함께 공을 세우고 명나라 철령위(鐵嶺衛) 설치문제로 요동 정벌이 결정되자 출정(出征)을 반대했으나 거절당하고

우군도통사(友軍都統使)가 되어
북진하다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반란(回軍反亂)으로 최영
(崔瑩)을 제거하고 그 후 1391
년(공양3)에 삼군도총제사(三軍
都摠制使)가 되어 권력을 장악
하고 정도전(鄭道傳), 조준(趙
俊) 등과 전제개혁(田制改革)을
단행하고 신진세력과 함께 1392
년(공양4) 4월에 정몽주(鄭夢周)
를 제거하고 그 해 7월 스스로
새 왕조의 태조(太祖)가 되고
이듬해 국호(國號)를 조선(朝鮮)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이라 정하고 1394년(태조3)에 서울을 한양(漢陽)으로 옮겼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방과(芳果:정종(定宗))에게
선위한 뒤 상왕(上王)이 되고 1400년 방원(芳遠)이 즉위하자
태상왕(太上王)이 되었다.

1402년(태종2)에 왕자들의 권력다툼으로 동북면에 가서 오
랫동안 머물다 돌아와 불가(佛家)에 귀의하여 여생을 보냈다.

사대주의(事大主義), 배불숭유(排佛崇儒:불교배척 유교숭상), 농
본주의(農本主義)를 건국이념으로 삼아 500년 근본정책이 되
게 하였고 관제(官制) 병제(兵制) 전제(田制)의 조정 등 초기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묘호(廟號)는 태조(太祖)이고 능(陵)은 건원능(健元陵)이다.

◎세종(世宗:휘 도(諱 陶), 시호 장헌(諡號 莊憲) 1397-1450)

태종의 셋째 아들,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소생, 비(妃)는 소
헌왕후(昭憲王后:청천부원군(淸川府院君:심온(沈溫)의 딸)이다.

1418년(태종18) 8월 22세 때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고

의정부(議政府)의 신권(臣權: 의정부 결의사항은 왕도 따라야 했다) 독주를 견제하고 왕권 강화를 위하여 황희(黃喜), 맹사성(孟思誠), 허조(許稠) 등의 청백리(清白吏)를 등용하는 한편 변계량(卞季良) 석학(碩學)을 등용하여 집현전(集賢殿: 국립학문연구기관)을 설치 학대 개편하고 신숙주(申叔舟), 정인지(鄭麟趾), 성삼문(成三問), 최항(崔恒) 등 우수 장년층의 학자를 등용하여 정



<세종대왕>

치자문, 왕실교육, 서적 편찬 등 이상적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 아울러 정음청(正音廳: 어학연구기관)을 설치하여 한글을 창제하고 음악에도 힘써 1424년(세종6)에 악기도감(樂器圖監)을 설치하여 장려하고 악장(樂章), 연향가사(宴享歌詞) 등을 짓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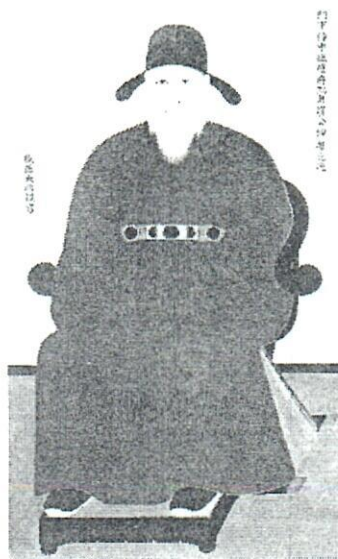
한편 역사기록인 실록 편찬에 역점을 두고 그 보관을 위해 4대 사고(史庫: 춘추관(春秋館), 충주(忠州), 전주(全州), 성주(星州))를 설치하고 또 과학 진흥을 위하여 측우기(測雨器)의 제작, 궁중과 학관인 함경각(欽敬閣)을 설치하고 혼천의(渾天儀: 천문관측기계), 해, 물시계의 발명, 원(元)의 수시력(授時曆)과 명(明)의 대통력(大統曆) 및 아라비아 회회력(回回曆)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 역서인 칠정산내외편(七政山內外篇)을 편찬하여 농사에 활용토록 하고 그 이외도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 천문, 역법, 의상(儀象)) 간행, 공법상정소(貢法祥定所: 토지등금세율)를 두어 조세개혁을 단행하고 의창(義倉: 구호창고) 설치, 의료제도의 제정, 명나라 조공(朝貢: 처녀진헌(進獻), 금, 은)을 개선 마(馬), 포(布)로 대체하였다.

한편 국방을 위하여 여진(女眞)은 화전(和戰) 양면으로 응하고 두만강 변방의 6진(鎭:김종서)을 개척하여 국토를 확장하고 압록강 유역에 4군(郡:최윤덕, 이천)을 설치하여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선을 이루었다. 남쪽 변방에는 1419년(세종1)에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이종무로 하여금 정벌케 하여 1426년(세종8)에 삼포(三浦)를 개항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1443년(세종25)에 우리 나라 최초의 통신사(通信使:변효문(卞孝文))를 보내어 소사다모리(宗貞盛;도주(島主)) 사이에 계해조약(癸亥條約)을 체결하고 1년에 입항 세전선(歲遣船)을 50척, 세사미(歲賜米) 200섬으로 제한하고 무역과 출입을 통제하였다.

능(陵)은 영릉(英陵: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으로 처음 광주(廣州)에 있던 것을 1469년(예종1)에 옮겼다.

◎ 최영{崔瑩:문하시중(門下侍中) 1316-1388}

고려말 명장(名將) 충신(忠臣)이다. 시호(諡號)는 무민(武愍)으로 혼란한 정세 속에서 대소난(大小亂)을 평정하여 1354년(공민3)에 대호군(大護軍:종3품)에 올라 서북면병마부사(西北面兵馬副使)가 되어 원나라에 속했던 압록강 서쪽의 8참(站:역마을 요충지)을 수복하고 1358년(공민7)에 전라지역 왜구 400여 척을 격파하고 이듬해 12월에 홍건적(紅巾敵)이 서경(西京:평양)을 함락하자 이듬해 1360



<최영(崔瑩)>

년(공민9)에 이방실(李芳實:西北面兵馬使)과 함께 물리쳤다. 그러나 이듬해 10월에 또 홍건적 10만이 창궐 개경까지 위협하므로 이성계와 함께 물리치고 훈(勳) 1등에 올랐고 1363년(공민12)에 홍왕사난(興王寺亂:金輔)을 평정하고 이듬해 원나라에 있던 최유의 난(崔濡亂:덕흥군 왕추대) 1만을 압록강 의주에서 섬멸, 1365년(공민14)에 강화에서 왜구와 싸우던 중 신돈(辛旽)의 모함으로 좌천되었으나 1371년(공민20)에 신돈이 처형되자 복직하고 또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1374년(공민23)에 판삼사사(判三司事:종1품), 1381년(우왕7)에 영삼사사(領三司事:정1품)가 되었다.

그 뒤 벼슬을 사퇴하였다가 1388년(우왕14) 1월에 문하시중(門下侍中: 최고 의결기관의 장)에 올랐다. 3월에 명이 강계에 철령위(鐵嶺衛:군사요새)를 설치하려 하자 요동 공격을 계획하고 조민수(曹敏修)를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 이성계(李成桂)를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 최영(崔瑩)을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로 정명군(征明軍)을 편성하여 3월에 좌, 우군이 평양을 출발, 5월에 위화도에 주둔하였으나 이성계의 회군 반란으로 개성에서 맞아 싸우다가 체포되어 고양 등지에 유배되었다가 그 해 12월에 개성에서 참형(斬刑)되었다.

◎ 정몽주{鄭夢周:문하시중
(門下侍中)1337-1392}

고려말 문신(文臣), 학자(學者)로서 자(字)는 달가(達可)요, 호(號)는 포은(圃隱)이고, 시호(諡號)는 문충(文忠)이다. 1360년(공민9)에 문과에 장원 급제 후 벼슬에 나아가 문신



鄭夢周先生遺像

(文臣)으로서 승승장구(乘勝長驅)하여 1376년(우왕2)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올랐다.

당시 이인임(李仁任)의 배명친원(排明親元:명배척원친교) 외교정책을 반대하다가 언양(彦陽)으로 유배되었다. 그 후 이듬해 복귀하여 사신으로 규슈(九州) 지방장관 이마가와(今川了俊)와 교섭하여 왜구에 잡혀 간 고려 백성 수 백명을 귀국시켰다.

1379년(우왕5)부터 전공판서(典工判書), 진현제학(進賢提學), 예의판서(禮儀判書),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전법판서(典法判書),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하고 1386년(우왕12)에 동지공거(同知貢舉:과거시험 책임관)로 승진하고 이듬해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가 되어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옹립하고 1390년(공양2)에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에 올랐다.

1392년 4월 낙마(落馬)로 인하여 병환 중이던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다 실패하고 선죽교에서 격살(擊殺)되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사회윤리와 도덕기반을 다지고 고려 삼은(三隱:포은(圃隱:정몽주), 목은(牧隱:이색), 도은(陶隱:이승인)의 한 사람으로서 1401년(태종1)에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고 저서로는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 이색{李穡:대학자, 영예문
춘추관사(大學者, 領藝文春秋館
事) 1328-1396}

고려 말 대학자로서 호(號)는 목은(牧隱)이며 우리 나라에서 중국의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한 유일한 인물이며 당대의 으뜸가는 학식과 경



<목은(牧隱) 이색(李穡)>

운을 갖추었다.

일찍이 성균관(成均館)에서 명강(名講)을 통해 후학 교육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정도전(鄭道傳)을 비롯하여 당대의 관, 학계의 큰 인물들은 모두 그의 문하에서 나왔으며 1367년(공민 16)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올랐다.

1389년(공양1)에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가 되었으나 곧 부자(父子)가 과직되었다가 이듬해 4월 유배, 5월 하옥(下獄), 11월 유사(宥赦:죄를 풀어 줌) 등 구 세대 숙청의 회오리 곡절 끝에 1391년(공양3) 12월에 영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를 역임하고 1396년(태조5) 5월에 여생을 마쳤다.

◎ 이승인(李崇仁:성균관 대학자(成均館大學者) 1349-1392)

고려 말 대학자로서 호(號)는 도은(陶隱)이며,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그는 성리학을 토착화시키는 한편 20대 초에 성균관 교수로서 포은(圃隱)과 함께 명강(名講)을 겨루었다. 그리고 문하에 걸출한 인재들이 모여 사학(私學:길재(吉再))을 주도하고 관학(官學:변계량(卞季良))을 관장한 제자백가(諸子百家:많은 학자와 그 저서)의 학문을 통달한 학자이며 영천의 포은(圃隱:정몽주), 봉화의 삼봉(三峰:정도전), 진주의 호정(浩亭:하륜)과도 깊은 교우 관계를 맺었고 그의 문장은 스승인 이색(李穡)과도 쌍벽을 이루었다.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

1386년(공민12)에 정조사(正朝使:사신), 1389년(공양1)에 예문

관제학(藝文館提學)으로 있다가 1390년(공양2)에 이색과 함께 하옥(下獄)된 후 풀려나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있다가 1392년 4월 정몽주 격살과 함께 유배당한 이송인은 가장 가까웠던 정도전으로 하여금 정치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배 길의 도은(陶隱)을 심복 황거정(黃巨正)을 시켜 살해하니 44세였다.

※ 삼태성(三台星) 삼은학자(三隱學者)

고려 말 성리학계의 삼태성(三台星:정몽주, 이색, 이송인)으로 칭송되고 대유학자(大儒學者) 삼은(三隱:刪隱, 牧隱, 陶隱)으로 불리는 당대의 문신(文臣)으로서 나라를 이끌던 인물 이었으나 대륙의 원(元)과 명(明)의 교체 정치세력에 의한 고려의 외교노선의 혼란, 내륙 깊숙이 들어온 왜구의 창궐, 홍건적의 만행, 일당 세력의 빈번한 반란 등 국내 정세가 극도로 어수선한 가운데 명분론(名分論)의 불사이성(不事二姓)의 절의과는 현실론(現實論)의 역성혁명(易姓革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신진세력에 밀려 왕조교체기의 구질서(舊秩序:고려의 귀족, 불교) 숙청의 대열에 얹혀 대의(大意)를 펴지 못하고 사라진 인물이었다.

◎ 정도전(鄭道傳:영의정(領議政) 1342-1398)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유학자(儒學者), 사상가(思想家), 정치가(政治家)이며, 자(字)는 종지(宗之), 호(號)는 삼봉(三峰)이고, 부친인 형부판서(刑部判書) 이운경(李云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일찍이 이색(李穡)의 문인(門人)으로 1362년(공민11)에 진사에 나아가 1370년(공민19)에 성균박사(成均博士), 1375년(우왕1)에 성균사예(成均司藝), 예문응교(藝文應), 지제교(知制교) 등 제직(諸職)을 역임하다가 친원배명(親元排明:원나라 친교 명나라 배척)정책을 반대하여 나주로 유배되었다가 2년 후 풀려나

1382년(우왕8)에 이성계(李成桂:동북면, 도지휘사(都指揮使))의 참모로 인연을 맺고 이성계를 보위할 경세철학(經世哲學)의 야망을 키우게 된다.

그 후 1391년(공양3)의 군제개혁(軍制改革) 때 사병(私兵)을 철폐하고 중앙군으로 이성계(李成桂)를 삼군도총제사(三軍都摠制使), 휘하 배극명(裴克廉)을 중군총제사(中軍摠制使), 조준(趙浚)을 좌군총제사(左軍摠制使), 정도전(鄭道傳)을 우군총제사(右軍摠制使)로 하여 권력을 완전 장악하고 드디어 1392년 7월 남은(南問) 등 신진세력과 함께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와 같이 새 왕조 개창기 때 구 질서(舊秩序:귀족세대, 불교)를 개혁하면서 스승, 친구 구별 없이 무차별 숙청하고 상류층의 광대한 전장(田庄:논, 밭, 토지)과 사찰들의 넓은 토지소유의 횡포를 국가에 회수하여 재분배하고 사병(私兵)의 철폐 등 원한이 쌓인 구 세력과 세자의 문제로 인한 방원(芳遠) 등의 불만이 1398년(태조7) 8월에 일어난 왕자의 난으로 남은과 함께 두 아들(셋째 제외)과 같이 피살되었다.

그는 경국전(經國典:나라의 통치법규)을 저술, 조선왕조의 통치 규범을 확립하고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의 정착, 경세학(經世學), 성리(性理) 사상의 학문, 계룡산 도읍계획을 바꾸어 한양천도(漢陽遷都)에서 서울 종합개발이 그의 구상(궁전, 궁문, 48 방 등)에서 나온 큰 업적을 남겼으나 태종과 사림파의 배척으로 묻혀졌다가 1865년(고종2)의 경복궁 중수(重修) 때 대왕대비 조씨에 의해 복권되었다.

저서로는 삼봉집(三峰集)이 전해오고 있다.<학문세계(學問世界) 참조>

◎ 권근(權近:학자, 문형(文衡) 1352-1409)

이조 초기 관각이사(館閣二事:예문관대제학, 성균관대사성)에 오른

대학자로서 호(號)는 양촌(陽村)이다.

일찍이 17세 때인 1368년(공민17)에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고 1375년(우왕1)에는 당시 중국(원, 명)에 대한 외교 노선의 갈등으로 정계(政界)가 혼미할 때 정도전, 정몽주와 함께 친명정책(親明政策)에 참여하여 신상을 지키고 승승장구한 벼슬을 하다가, 1392년의 왕조 교체기에 새 왕조에 참여하고, 1396년(태조5) 7월에는 표전(表箋:임금께 올리는 전문) 외교문제로 명나라에 압송되어 들어가 두 나라 관계 호전에 공을 세웠다.

그 후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총1품),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을 역임하였으며 후에 양관(兩館:예문, 성균관)을 겸한 우리 나라 최초의 문형의 길을 닦았다.

저서로는 양촌집(陽村集) 외 다수임.<학문세계(學問世界) 참조>

◎ 하륜{하崧:영의정(領議政, 정치가) 1347-1416}

고려 말 이조초기 대학자이며 정치가로서 호(號)는 호정(浩亭)이며, 진주 출신인 그는 19세 때인 1385년(공민14)에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그 때의 좌주(座主:과거시험 책임관)가 이색(李穡)으로서 문생(門生)의 인연이 되어 문하(門下)에서 수학하면서 만난 문우(文友)가 정도전(鄭道傳)과 권근(權近)이었다.

그 후 밀직사동지(密直司同知)였던 하륜은 훈구파(勳舊派:최영)의 친원(親元)에 비해 소장유자(小壯儒者)들은 친명과(親明派)였으므로 요동반도 공격의 부당성을 주장하다가 양양으로 귀양가기도 했다. 1392년의 이성계의 역성혁명(易姓革命) 때 전라도 관찰사(觀察使)로 있으면서 태조와 태종에게 발탁되어 무학 국사(國師)의 계룡산 도읍계획을 무산시키고 한양천도를 이룩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되며 특히 방원(芳遠:태종)의 장인 이제(李穡)와는 친구인 관계로 그의 집에서 둘째 사위인 방원을 소개받아 그로 인하여 사제관계를 내면적으로 유지되

었다.

그 후 하륜은 영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로 있으면서 1407년(태종7)에 어전중시(御前重試:임금이 참여한 시험)에서 춘정선생이 제1인이 되어 상을 받았는데 그 때 좌주(座主)가 하륜이었고, 평생 사제의 관계를 맺어 후에 그의 관학학맥(官學學脈)을 이어받게 된다.<학문세계(學問世界) 참조>

◇이조 개창기(開創期) 이성계를 둘러싼 배극엄(裒克廉), 조준(趙浚), 정도전(鄭道傳), 남은(南問) 등의 핵심세력에 친(親明) 정책을 지지한 권근 하륜 등의 인맥이 참가한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성공으로 조선왕조는 유교입국(儒敎立國)의 기치와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의 틀 속에 군제개편(軍制改編), 토지재분배의 경제개혁, 농본제(農本制) 등 문물제도를 정비하여 세종조(世宗朝) 후반의 훌륭한 치적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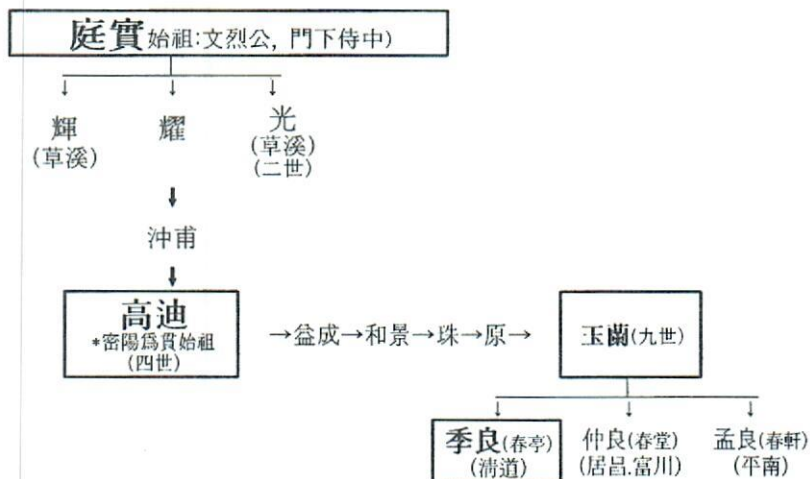
◆ 이조 핵심 중앙관서(中央官署)

- 의정부(議政府) : 국사를 상의하는 최고기관, 총백관(摠百官), 평서민(平庶民), 경방국(經邦國).
- 승정원(承政院) : 왕의 비서기관, 왕명의 출납.
- 승문원(承文院) : 교린(交隣:외교) 문서관장.
- 예문관(藝文館) : 칙명(勅命) 사령(辭令)의 제찬 기관.
- 춘추관(春秋館) : 시정(時政)의 기록기관. 사기(史記).
- 경연청(經筵廳) : 왕이 수학(修學)을 위한 논강(論講).
- ※ 經筵 : 왕이 강론(講論)을 듣는 자리.
- 사헌부(司憲府) : 관리들의 기강 및 풍속확립. 감찰업무.
- 의금부(義禁府) : 죄를 추국(推鞠:죄상을 취조)-검찰청
- 사간원(司諫院) : 임금을 간(諫:잘못을 직언)하고 백관을 탄핵 {彈劾:논죄(論罪)}

<표 1> 당대 역사적 인물(卞氏門 : 三품이상)

연대순	관직 및 품계
빈(贇)	고려말 충신. 문하평리(門下評理) 두문동(杜門洞) 72현의 한 분 (정삼품)
옥난(玉蘭)	이조초 호조(戶曹). 예조(예曹). 이조(吏曹) 판서 1393년 검교판중 추원사(檢校判中樞院事) ※개국 원종공신 (종一品)
남용(南龍)	이조초 한성판윤(漢城判尹). 1401년 왕자의 난으로 장남(綱)과 함 께 참화. (정삼품)
중량(仲良)	고려말 학자. 충신. 밀직사좌승지(密直司左丞旨) 1398년 왕자의 난 때 참화 (정삼품)
계량(季良)	이조초 대학자, 문장가(文章家), 문형(文衡), 예문관대제학, 성균관 대사성, 집현전대제학. 1426년 승정대부(崇政大夫). 세자이사(世子 貳師) (종一品)
효문(孝文)	세종조(世宗朝) 학자. 직제학(直提學) 1443년 일본 통신사. (한일 최초 수교) (정삼품)
효경(孝敬)	1441년 이조참판(吏曹參判) (종삼품)

◆ 密陽卞氏世系圖



2. 출생(出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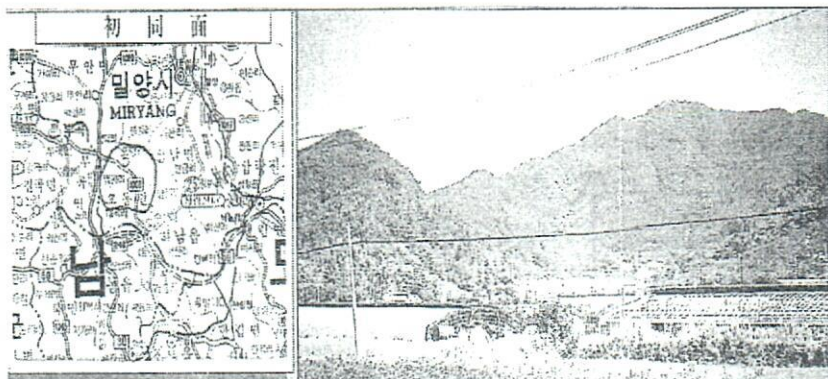
◎ 세계(世系) 및 밀양변씨 위관(密陽卞氏爲貫)

변씨(卞氏:草溪, 密陽)의 기원은 당나라 현종(顯宗:742-755) 때 벼슬하여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오르고 8학사의 한 분(卞源)으로 효경(孝經) 전수를 위하여 신라 35대 경덕왕 2년에 사신으로 와서 귀국하지 않고 신라에 정착하였음이 우리나라의 변성(卞姓)의 최초이다.

그 후 누대(累代)는 고증과 문헌의 빈약으로 소목(昭穆)을 밝히지 못하다가 서기 985년(고려성종4)에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내고 팔계(八溪:초계옛이름)군(君)에 봉해진 정실(庭實:諡文烈)공을 시조(始祖)로 하여 본관을 초계로 계대(繼代)하고 오던 중 시조공의 증손인 고적(高迪:太學進士)께서 밀양관부(密陽官府) 서쪽 30리, 구령리(龜齡里)에 1140년(고려인종18)경 합천 초계에서 이곳으로 이거(移居)하여 본관을 초계에서 분적(分籍)하고 밀양(密陽)이라 하였다.(구령리(밀양시 초동면 성만리))

◎. 출생(환경)

◆ 출생지, 관향(貫鄉:밀양시 초동면 성만리)



선생은 1369년(고려공민왕18:乙酉)에 밀양부 구령리(密陽府龜齡里:밀양시 초동면 성만리(구령))에서 위로 밀양변씨검교공(密陽卞氏檢校公:諱 玉蘭)과 정경부인(貞敬夫人) 창녕조씨(曹氏)의 슬하에서 태어나시니 휘(諱)는 계량(季良)이요, 호(號)는 춘정(春亭)이고, 자(字)는 거경(巨卿)이며, 시호(諡號)는 문숙(文肅)이다. 부친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벼슬길에서 진주판관(晉州判官), 전라안렴사(全羅按廉使), 수원부사(水原府使)로 있으면서 자주 고향 길을 오르내리며 늦깎이 막내로 총애를 받았고 일찍이 총명(聰明)을 더하여 4세 때 고시(古詩)를 외우고 6세 때 작시(作詩)하는 범상(凡常)을 갖추었고 이미 14세 때 진사에 나아가고, 17세 때 문과(文科)에 올랐다.

※부친(諱 玉蘭)의 행장(行狀)요약 : 조선왕조실록(1집)<표 2>

◆ 참고 문헌(文獻)

▽春亭 先生 記蹟

高麗恭愍王十八年乙酉三月日先生于慶尙道密陽府西龜齡里第先生上戶長公(諱庭實)草溪人自六世祖生員(諱高迪)公始徙密陽仍貫彦考檢校(諱玉蘭)公娶昌寧曹氏濟危寶副詞碩女之先生出也甫孩氣異於凡兒(出行狀)<春亭續集. 卷2>

註) 춘정선생 출생 기록문

선생은 고려 공민왕 18년(1369) 3월에 경상 도 밀양부 서쪽 구령리에서 시조공 (휘 정실) 초계 변씨의 六세조 생원 (휘 고적) 공부터 밀양을 관향으로 하여 대대로 살았으며 부친 검교공(휘 옥난)과 모친 창녕 조씨의 슬하에서 출생했거릴 때부터 남다르게 신통하고 총기있고 범상하였다.(행장에서 뽑음)<춘정속집 권 2>

3. 출사(出仕: 벼슬에 나아감)

◆ 관직개요(官職概要)

춘정선생은 어린 나이로 문과(文科)에 오른 후 평생토록 벼슬길에 나아가면서 고려조(高麗朝) 말, 1387년(우왕13)에 첫 출사(出仕)한 후 이씨조선의 4조(四朝; 태조, 정종, 태종, 세종)를 거치면서 온갖 파란만장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살았으며 이는 타(他)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학문(學問)의 고매한 인품과 20여년의 난공불락의 성을 쌓는 석학(碩學) 문형(文衡)으로서의 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1392년, 왕조 교체기의 혼란 속에 부친(諱 玉蘭: 개국 원종공신)과 형(諱 仲良: 고려충신, 절의파)의 정치적 입지(立志)의 갈등 속에 건강도 나쁜 가운데 관직을 버리고 1392년부터 은거(隱居) 하였고, 1395년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삼년상을 치르고 다시 출사(出仕) 하였다가 1398년 1차 왕자의 난 때 귀양갔다 돌아온 형의 참화로 슬퍼하며 또 다시 3년여의 은거 생활로 생애 최대의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그 후 조정의 스승들의 권유로 다시 출사하게 되었고 1407년(태종7) 친시(親試: 어전시험)에서 제1인이 되어 3단계 뛰어 넘는 파격적인 대우와 승승장구의 벼슬길로 나아갔으나 한 때(1412, 태종12) 가정 일로 헌사(憲司)의 탄핵(彈劾)이 있었으나, 문한(文翰) 책임자의 중요성을 들어 임금은 윤허하지 않았다. 그 후 세종조에 이르러 승정대부(崇政大夫: 종1품)에 올라 계속 문형(文衡)을 지키면서 나라에 큰 업적을 남기고 1430년(세종12: 庚戌) 향년 62세로 서거(逝去)하였다.

<표 2> 검교공(檢校公: 諱.玉蘭) 행장(行狀)

※ 관향(貫鄉)은 밀양이며 증찬성사(贈贊成事) 변원(卞元)의 아들이며 감찰어사(監察御史) 변현인(卞玄人)의 후손이다.

- 1322년{고려충숙(忠肅9) 壬戌} : 고향(밀양)에서 출생
- 1346년{고려충목(忠穆2) 丙戌} : 첫 벼슬 액정내시백(掖庭內侍伯)
예빈시승(禮賓寺丞)
- 1360년{고려공민(恭愍9) 庚子} : 진주판관(晉州判官)
- 1367년{고려공민(恭愍16) 丁未} : 전법정랑(典法正郎)
전라도안렴사(全羅道按廉使)
- 1368년{고려공민(恭愍17) 戊申} : 화녕소윤(和寧小尹)
- 1372년{고려공민(恭愍21) 壬子} : 수원부사(水原府使)
- 1375년{고려우왕(禔王1) 乙卯} : 선공판사(繕工判事)
- 1376년{고려우왕(禔王2) 丙辰} : 내부판사(內部判事)
청주목사(淸州牧使)
- 1380년{고려우왕(禔王6) 庚申} : (충주목사忠州牧使)
- 1390년{고려공양(恭讓1) 庚午} : 호조, 병조판서(戶曹, 兵曹判書)
- 1392년{이조태조(太祖1) 壬申} : 이조판서(吏曹判書)

※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

- 1393년{이조태조(太祖2) 癸酉} : 검교판중추원사(檢校判中樞院使)
- 1395년{조선태조(太祖4) 乙亥} : 1월23일 향년(享年)74세 서거.

▽ 천품이 강명(剛明)하고 마음가짐이 어질고 인자하여 고향마을 사람들이 그의 효성과 우애를 칭찬하였고 서울과 지방의 벼슬을 역임하며 업적이 훌륭하였으며 자제 훈계의 유언으로, “임금을 섬기는데는 지성으로 해야 하고 관직을 맡아서는 부지런해야 하며 세도에 아부하여 재물을 모으려 하지 말라” 고 하였다. 아들은 둘이 있는데 모두 급제하여 중량(仲良)은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이르렀고 계량(季良)은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으로 있다.

<조선왕조실록 제1집: (원전1집(原典一輯) 74면)>

◆ 참고 : 고 문헌 보첩(譜牒)에는 3형제(맹량(孟良;장남))로 등재 되어있음.

◆ 연보(年譜)

다음 기록 연보(年譜)는 춘정문집(春亭文集) 초간(初刊) 때 문헌(文獻)의 산일(散逸: 흩어져 없어짐)로 없던 연보(年譜)를 국조실록(國朝實錄)과 원집(原集), 행장(行狀) 및 타 문중(門中) 서원(書院) 등의 소장(所藏)된 문헌(文獻)을 수집하여 엮은 속집(續集: 卷二)에서 발췌한 것임.<편집자>

- ▶4세 : 1372년(공민21) 4세 때 고시(古詩)를 외우고 6세 때 작시(作詩)를 하여 총명을 더했다.

◎ 등과(登科)

- ▶14세 : 1382년(우왕8)에 진사(進士) 및 이듬해 생원(生員) 시험에 합격하고 계속 성균관(成均館)에서 수학(修學)함.
※당시 성균관 스승은 포은(圃隱: 정몽주) 목은(牧隱: 이색)이었다.
- ▶17세 : 1385년(우왕11) 문과에 급제 당시 지공거(知貢舉: 과거 시험관)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으로서 고려 시대의 등과자(登科者)는 지공거와 관습적인 사생(師生: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포은을 스승으로 모시고 받들게 되었으며 진사(進士) 이후 계속 성균관(成均館)에서 수학(修學)을 계속 하였다
- ▶19세 : 첫벼슬 : 1387년(우왕13)
징사랑(徵仕郎: 八품품계) 전교서(典校署: 비서실, 경적(經籍) 축소(祝敎) 관장) 주부(主簿: 서기)로 임명

▽ 예 : 벼슬명을 일컬을 때

징사랑(徵仕郎), 전교서(典校署), 주부(主簿)
(품계 명칭) (소속 관청) (직책)

- ▶20세 : 1388년(공민14)에 평소에 존경하던 최영(崔瑩)장군의 처형으로 안타까워 시(詩)를 지었다.(哭崔侍中瑩)

▽당시 국내 정치는 무장(武將) 이성계(李成桂)의 위권(威權)이 날로 치솟고 청년 우왕(禑王)은 주색과 사냥에 빠져 고려왕조는 날로 황폐해지고 있을 때 중국대륙의 원(元)은 한북(漢北)으로 밀려나고 일단(一團)의 군세(軍勢)인 주원장이 명(明)나라를 탄생시켜(1368) 굳건히 자리잡고 있었다. 한반도 고려는 대륙의 패잔병인 홍건적(紅巾賊)에 의해 분탕질을 당하고 있을 때 조정에는 명(明)이 철령위(鐵嶺衛:군사지휘요새)를 설치하여 북변(北邊)을 요동에 귀속시키려 하자 친원파(親元派) 최영(崔瑩)장군이 대노하여 정명군(征明軍:명나라 토벌군)을 일으켜 북벌을 시도하였으나 휘하인 이성계장군의 위화도(威化島:압록강 하류의 섬)의 회군(回軍)으로 우왕이 폐출되고 1388년 12월에 최영은 참형(斬刑)에 처해졌다.

▽哭崔侍中瑩(곡취시중영) : 곡하노라 문하시중 최영장군

舊威臣國贊星星(분위광국빈성성) 위엄 떨쳐 나라 바로 잡으려
니 귀밑 수염 성성하였지
學語街童盡識名(학어가동진식명) 말 배우는 거리의 아이들도
그 이름 알고있다네.
一片壯心應不死(일편장심응불사) 한 조각 애국의 장한 마음은
응당 죽지 않고
千秋永與太山橫(천추영흥태산橫) 천추에 길이 일어 큰산도 비
켜 주리라.

<春亭文集 卷二>

- ▶21세 : 1389년(공양원년)에 비순위(備巡衛)랑장(郎將:정 6품)겸 진덕박사(進德博士:정7품)로 올랐으나 국내의 정치 혼란은 극에 달해 이색(李穡) 부자와 조민수를 파직하고 12월에 폐왕된 우(禑) 창(昌)을 살해했다.

- ▶22세 : 1390년(공양2)에 새 왕조 개창(開創) 세력은 구 왕조세력의 제거를 위한 숙청이 계속되는 가운데 9월에는 한양천도(漢陽遷都)를 확정하였다.
- ▶23세 : 춘정선생은 선고(先考:옥난(玉蘭))는 호조(戶曹), 병조(兵曹) 판서를 역임하고 있었으나 스승들은 숙청되어가고 형(춘당(春堂))의 처신도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많은 갈등으로 고민하며 어수선했음을 시(詩)로 남기고 있다.

▽ 辛未年苦寒 : 신미년(1391) 고생추위

積雪千江凍 : 눈은 쌓이고 모든 강은 얼어붙는데
 嚴風萬竅號 : 혹독한 바람은 온 세상을 부르짖네
 烏鷄飢欲死 : 가마귀 술개는 굶어 죽어가고
 牛馬縮寒毛 : 소와 말은 차가운 털 움추리고
 滄海經年戌 : 창해는 여러 해 수자리였고
 荒山落日樵 : 거친 산은 석양에 불타네
 慈堂安穩未 : 자당(어머니)은 평안하지 아니한데
 回首意忉忉 : 고향을 돌아보니 거듭 근심뿐이네

※1391년 춘정선생이 23세 되던 해, 왕조 교체기의 국내 정세는 숙청 바람이 몰아치고 스승(圃隱, 牧隱, 陶隱)들은 고려의 마지막 숨결 속에 몰락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며 어수선했던 심정을 피력하고 있다.

- ▶24세 : 1392년(태조원년) 4월 정몽주(鄭夢周) 격살되다.
- ↓
 26세 고려말 대학자로서 끝까지 왕조를 부등켜 안았던 충신이다. 1392년 4월, 세자 귀국의 마중을 나간 이성계는 황해도지역 사냥에서 낙마하여 크게 다쳐 병석에 누웠을 때 문병을 가서 정세를 파악하여 정국 대처를 꾀하였으나 미리 김새를 알고 대비한 이방원의 초청 연회(招請宴會)에서 정몽주에

게 마지막 고언(苦言)으로 하여가(何如歌:이런들 어떠하리)를 불러 마음을 돌리려 하였으나 정몽주 선생은 단심가(丹心歌:이 몸이 죽고 죽어...)로 답변 대처하고 이미 참석 전, 조상 신위(神位)의 참배와 부인과 두 아들에게 충효의 유언을 남겼고 록사(錄事:하위직관(비서)) 김경조(金慶祚)와 동행하여 친구 성여완(成汝完)의 집에서 술을 나눈 후 말을 거꾸로 타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 맑은 정신과 정면으로 죽을 수 없다) 선지교(후에 자란 대나무로 선죽교(善竹橋)라 함)에서 방원의 부하 조영규(趙英珪)에게 격살 당하였다.

▽ 丹心歌

단심가

此身死了死了	이 몸이 죽고 죽어
一百番更歿了	일백 번 고쳐 죽어
白骨爲塵土	백골이 진토 되어
魂魂有也無	넋이라도 있고 없고
向主一片丹心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寧有改理也歟	고칠 수가 있으랴.

※춘정선생은 학문과 정치적인 입지(立地), 형(춘당)의 귀양 등 쌓이는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핑계삼아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였다.

1392년 7월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하고 전왕(恭讓)을 공양군(恭壤君)으로 봉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393년 2월에 국호(國號)를 조선(朝鮮)이라 개칭하고 문물정비 개혁을 실시하는 가운데 이씨조선(李氏朝鮮)의 새 왕조는 창신교위(彰信校衛:서반 종5품) 천우위(千牛衛:고려 5위 중 하나. 사령부) 중랑장(中郎將:서반 5품)겸 전의감승(典醫監丞:의료보건8품)을 내렸으나 몰락

된 포은(圃隱:정몽주) 목은(穆隱:이색) 도은(陶隱:이숭인) 선생 등 소위 구파(舊派) 인물의 사제(師弟) 관계의 인연으로 왕조 창건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병을 핑계삼아 나아가지 아니 하였다.

▶27세 : 1395년(태조4.乙亥) 정월 23일 친상(親喪)을 당하고 3년 상을 치름

▶29세 : 1397년(태조6). 그 해 3월에 복궐(伏闕:3년상을 치름)함

◇한편 진사시절 큰 뜻을 품고 태학(太學:성균관의 별칭)에서 각별한 훈도(訓導)를 받았던 스승인 양촌(陽村:權近)등 전조(前朝)의 일부 고관들이 새 왕조에 참여하고 선고(先考)의 영향을 받아 더 이상의 은거(隱居)할 명분이 약해짐에 따라 첫 벼슬에 나가게 되었으며 선생의 학문을 인정받는 벼슬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봉직랑(奉直郎: 종5품의 품계)

교서감승(校書監丞: 규장각. 어제문(御製文).서적 관리 등)

지제교(知製敎: 6품이상 겸직, 왕의 유시(諭示), 교서(校書)등 제술)

▶30세 : 1398년(태조7) 8월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다.

↓
32세 고려 말 대학자이며 이조 개국공신(開國功臣)의 주인공인 정도전은 1392년(태조원년)에 세자책봉(世子冊封)시 이태조의 전비(前妣:첫째왕후)인 한씨(韓氏)의 여섯 아들은 학문이 얕아 후비(后妃) 강씨(康氏)의 둘째 소생 방석(芳碩)을 세자를 삼는데 도와주고 그의 교육을 맡을 뿐 아니라 이태조의 두터운 신임 아래 모든 정책이 그로부터 나왔고 안팎으로 크나 큰 영향을 미쳐 한씨 소생의 왕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오던 중 1398년(태조7) 8월에 정도전 일파가 모여있던 남은(南閤)의 첩집으로 처

들어가 무릎을 꿇린 채 방원의 부하 소근(小斤)에게 남은과 같이 참수(斬首:목베임)를 당하였다.

◇이 난 때 형(春堂:仲良)이 정도전 일파로 몰려 참화를 당하니 다시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면서 3년여의 파란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 ▶33세 : 1401년(태종 원년)에는 그 전해의 2차 왕자의 난
↓ {王子亂:방간(芳幹)유배, 박포(朴苞)처형, 방원(芳遠) 세자피봉(世子被封)}으로 인하여 왕정이 바뀌고 태종(太宗)이 즉위하고 정치적 안정이 되어가자 다시 벼슬에 나아가 활기를 찾기 시작하고 그 후 성균관(成均館) 및 예문관(藝文館:왕의 칙명(勅命),교서(校書)등 담당) 등에서 청직(淸職:학문과 문장을 다루는 직책)을 역임하였다.<成均學正, 知製敎, 司宰少監>
- ▶37세 : 1405년(태종5)에 예문응교(兼藝文應敎:예문관 소속 직책 정4품)를 겸직하였다
- ▶38세 : 1406년(태종6)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예문관소속 (정3품. 堂下))에 승진함
- ▶39세 : 1407년(태종7) 4월 친시(親試:임금이 참여하여 치르는 시험)인 중월부시(仲月賦試:별도해설)에서 제1인이 되다.

◇춘정선생은 영예의 1인자로 뽑혀 3단계나 뛰어넘는 파격적인 예우를 받아 예조우참의(禮曹右參議:정3품), 수문전(修文殿:문한(文翰) 조명(詔命) 등을 취급) 직제학(直提學:정3품)과 지제교(知製敎:왕의 유시(諭示) 교서(校書) 등 제술)를 겸임하여 생의 최대의 대성기(大成期)를 맞이하고 문형(文衡:별도 해설)의 길로 접어든다.

◆왕이 크게 기뻐하여 전 20결(田, 二十結)과 노비(奴婢:

남녀 중) 각 1구(一口)를 하사(下賜)하고 다음 대의 환수(還收)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가 네 재주를 아리따이 여기노니 전(田)과 노(奴)는 경의 자손에게 영원히 전해 가도록 하라.”는 어비(御碑:임금이 내리는 비석)까지 내려 주었다.

▼중월부시(仲月賦試)란?

중추(仲秋:음8월)에 왕이 임석한 가운데 원로 거유(巨儒)인 하륜(河崙:영, 예문, 춘추관사(領, 藝文, 春秋館事):정1품), 성석린(成石璘: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정2품), 이상의 문신(文臣)학자들이 예문관에 모여 시제(詩題) 두 개를 내려 3일 한정으로 제출토록 하여 채점하는 이 시대의 문신들의 풍류 행사로서 춘정선생이 일등으로 당선됨으로서 대학자로 우뚝 섰다. 이때 좌주(座主:시험관)가 하륜(河崙)이었고 문하생으로서 평생 사제(師弟) 관계를 맺게 된다.

※ 이 때부터 봄·가을 행사로 정함.

▼문형(文衡)이란?

이조시대에 학문을 두루 갖추었다는 뜻으로 쓰인 대제학(大提學:정2품)의 영예로운 별칭(別稱)이다. 이조 초기 예문관(藝文館)과 성균관(成均館)이 창설되었으며 이 양관(兩館)의 책임(대제학, 대사성)을 맡아 학문을 다루며 나라의 인재 양성의 교육을 담당하는 석학(碩學)으로서 관, 학계(官, 學界)를 대표하는 최고의 영예로운 칭호이며 품계(品階)는 비록 정2품이지만 의정부 삼공(三公: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육경(六卿:육조판서(六曹判書))보다 높이 쳤다. 그 후 늦게 세종을 거쳐 1478년(성종9)에 홍문관(弘文館)이 창설되면서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호당(湖堂:별도 실명) 출신으로서 3관(三館:예문관, 성균관, 홍문관)을 맡아야만 문형(文衡)의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 문형의 전 단계인 대제학의 후보 선정은 전임 대제학의 추천에 의거 의정부의 3정승(三政丞)과 좌, 우찬성(左右贊成), 좌, 우참찬(左右參贊) 및 육조판서(六曹判書)와

한성부윤(漢城府尹:서울시장) 등이 모여(헌 국무회의) 다수결로 정하므로 국조삼관(國朝三館)을 역임함이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 호당(湖堂)이란?

세종(世宗) 때 젊고 유능한 문신(文臣)을 뽑아 은가(恩假:임금이 내리는 휴가)를 주어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는 연수 제도의 별칭인데 【사가독서(賜暇讀書)라 하여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도 빨랐다.

※춘정선생이 1420년(세종2)에 왕에 건의하여 집현전(集賢殿)을 열고 친히 대제학(大提學)이 되었고 후에 사가독서(賜暇讀書)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였다.<원문 52세 난(欄) 참조>

- ▶40세 : 생원시관 위촉(生員試官委囑), 대간직임사무(臺諫職任事目: 간관(諫官:임금을 간하는 벼슬)의 직무 조항)을 제정, 태조(太祖)의 능(陵)인 건원능(建元陵)의 비음기(碑陰記)를 짓고 여흥부원군 민제묘지(驪興府院君閔齊墓誌:태종의 장인 민제의 묘의 비석 글)의 글을 지었다.

- ▶41세 :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중2품), 동춘추관사겸 동지경연사(同知春秋館事 兼 同知經筵事:중2품), 포은정몽주(圃隱鄭夢周)선생 시문집(詩文集)의 서문(序文)을 쓰고 또 양촌 권근(陽村權近)의 장례 만장(輓章)과 제문(祭文)을 찬(撰)하였다.

◆ 문묘비문찬(文廟碑文撰:공자사당 비문을 지음)

{1409년(태종9) 9월}

- ◇이씨왕조(李氏王朝)는 유교입국(儒敎立國)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기 위하여 1398년(태조7)에 이태조(李太祖)는 한양에 도읍(都邑)을 정하면서 문묘(文廟:유교의 공자 사당)를 건립하였으나 1400년(정종2)에 불타고 1407

년(태종9:정해)에 그 자리에 태종은 묘궁(廟宮)을 신축하였고 그 규모와 내용도 매우 컸으며 성학(聖學) 경전(經典)을 숭상하는 춘정선생으로서는 어명(御命)을 받고 이 문묘비문(文廟碑文)을 찬(撰)하게 된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었다.

◆ 문묘(文廟)의 비문(碑文) 내용

“영락(永樂) 7년 기축년 가을 9월에 우리 국왕 전하께서 신(臣) 계량(季良)에게 명하기를, ‘우리 선고(先考) 태조(太祖)께서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처음으로 방가(邦家:나라, 국가)를 세워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하자 급히 종묘(宗廟:역대 선주를 모신 왕실의 사당, 나라)와 학교를 세웠으니 선성(先聖)을 높이고 문교(文教)를 중하게 여긴 것이다. 내가 큰 통서(統緒:실머리, 대)를 이어서 이루어진 법을 따라 거듭 묘궁(廟宮)을 신축하여 이미 완성되었다.

학관(學官) 최함(崔咸) 등이 돌에 글을 새겨 장래에 보이기를 청하니 너는 이것을 쓰도록 하라.’ 하였다. 신(臣) 계량(季良)이 명을 받고 황공하여 물러와 그 시말(始末)을 물어보니 갑술년에 태조께서 이미 도읍을 세우고 종사(宗社:종묘사직), 조시(朝市:조정과 시장), 성곽(城郭), 궁실(宮室)의 제도가 모두 적당하게 되매 곧 묘학(廟學:종묘와 학교)을 영건(營建:집을 지음)하기를 도모하여 도성 동북 모퉁이에 땅을 정하였는데 산이 그치고 땅이 넓고 물이 둘러 흘러 그 위치는 남쪽으로 향하였다.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에게 명하여 주관하게 하였는데 공인(工人)을 모으고 재목을 다듬어 정축년 3월에 시작하여 무인년 칠월에 끝냈다.

성철(聖哲)은 높은 집이고 종사(從祀)한 이는 옆집이며 학교는 사당 뒤에 있고 가운데는 명륜당(明倫堂)이며 좌우에는 협실(夾室:곁방)이 있고 두 협실 남쪽에는 긴 행랑(行廊)으로 둘러싸였으며 좌협(左夾)의 동쪽에는 청(廳)과 랑(廊)이 있어 사생(師生)의 위치와 정록(正祿)의 거처(居處)가 완비되지 않음이 없고 규모가 광대(宏大)하고 집을 지은 것이 견고하여 무릇 집을 지은 것의 크고 작은 것을 간수(間數)로 계산하면 96간이었다. 밭을 두어 자성(漿盛:제사밥)에 이바지하고 생도(生徒)에게 식량을 주게 하며 부역을 면제한 사람으로 쇄소(灑掃:청소)에 용하게 하고 사령(使令)을 넉넉하게 하였으니 묘학(廟學)의

일이 구비하였다 할 수 있는데 경진년 2월에 불에 났다.

그 해 11월에 전하께서 송경(松京)에서 즉위하매, 학당(學堂)에 나아가 선성(先聖)께 참알(參謁)하고 장자(胄子)에게 명하여 입학하게 하였다. 을유년에 한양(漢陽)에 환도하여 선성선사(先聖先師)께 친히 전(奠)을 드리었고 3년되는 정해년 정월에 사당의 옛터에 신축할 것을 명하였다.

선산군(星山君) 신(臣) 이직(李稷)과 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總制) 신(臣) 박자청(朴子靑)이 역사를 감독하여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독려하고 마음을 다해 계획하고 손수 지휘하니 공사(工師)가 부지런히 일하여 낙달이 지나 사당이 이루어 졌는데 높고 그윽하고 단정하고 큰 것이 옛날에 비하여 더함이 있었다. 신주(神廚: 주방, 부엌)를 사당 서쪽에, 동서문(東西門)을 양서(兩序)의 아래에 짓고 전구(田口)를 더 주었으니 밭은 1만여 무(畝)에 이르고 노비는 3백여 구(口)나 되었다. 의정부좌정승(議政府左政丞) 신(臣) 하륜(河崐)의 의논을 채택하여 성(廊), 기(沂) 두 공(公)을 배향(配享)의 위(位)에 올리고 자장(子張)을 10철(十哲)에 올렸으니 묘궁(廟宮)의 제도가 더욱 유감이 없다. 신은 생각건대 성인(聖人)의 도(道)는 커서 찬양할 수 없으니 비록 억지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천지(天地)를 그리고 일월(日月)을 그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부자(夫子)가 주(周)나라 말년에 출생하여 이어 성인(聖人)의 대성(大成)한 것을 모아 절충(折衷)하고 백왕(百王)의 대전(大典)을 지어 가르침을 남겼으니 공(功)은 화초(化初)에 극진하고 덕택은 무궁하게 흘러 백성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성한 이가 있지 않았으니 재아(宰我)가 '요순(堯舜)보다 어질다'는 것이 까닭이 있는 것이다. 당(唐)나라 이래로 하늘에 닿고 땅에 썩리어 사당의 면모가 서로 잇달아 그 존숭하고 제사하는 것이 변하지 않았다. 하물며 우리 동방(東方)은 상고 적부터 풍속이 예의를 숭상하고 기자(箕子) 팔조(八條)의 가르침에 복종하여 이륜(彝倫: 종묘제기(祭器))의 펼쳐진 것과 전장(典章文物)의 갖추어진 것이 중국과 비길만하였고 우리 부자(夫子)께서 일찍이 이 땅에 살고자 하신 뜻이 있었으니 묘학(廟學)을 영건(營建)하여 문교(文教)를 일으키고 높이는 것이 진실로 다른 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생각건대 태조(太祖) 강헌대왕(康獻大王)께서 천명(天

命)에 응하고 인심(人心)을 순히 하여 큰 기업을 창건하여 동방(東方)을 차지하고 도읍을 정하던 처음에 곧 성인의 사당을 높이고 유술(儒術)을 일으키는 일을 먼저 하였으니 대개 그 덕을 높이고 그 도(道)를 좋아하는 정성이 천성(天性)에서 나온 것이고 탁연(卓然)하게 치도(治道)를 내는 본원(本源)과 당무(當務)의 급한 것에 본바가 있음이니 모책(謀策)을 남기고 유복(裕福)·넉넉한 살림을 전하여 인심(人心)을 화(和)하고 국맥(國脈)을 수(壽)하게 한 소이(所以)이다.

아! 지극하다. 우리 전하께서 인효(仁孝) 겸공(謙恭)하고 강건(剛健) 예철(睿哲) 하시어 빛나게 선업(先業)을 이어받아 정사(政事)에 임한 여가에 경사(經史)를 즐겨 보아 매양 한밤중에 이르도록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격물(格物: 사물의 이치연구), 치지(致知: 지식을 명확히 함),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학을 극진히 하시고 지영(持盈: 가득히 가짐) 수성(守成)의 도를 다하시니 전고(前古)에 찾아보아도 대개 또한 거의 없고 어찌다가 있는 것이다. 세도(世道)가 바야흐로 형통(亨通)하고 인문(人文)이 밝아져서 일시(一時)에 훈친(勳親), 대신(大臣), 백료(百僚), 서부(庶府)에서 숙위(宿衛)의 신하에 이르기까지 배움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태조께서 학문을 높이고 교화를 일으키어 인재를 양육한 것과 우리 전하께서 전왕(前王)의 공열(功烈)을 더욱 넓혀 위에서 몸소 행하여 많은 선비를 고무(鼓舞)시키고 이 백성을 진작시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업(業)을 익히려면 학교가 있어야하고 제사를 받들려면 사당이 있어야만 주선(周旋)하여 오르내리고 초연(愀然: 웅모단정)하게 신명(神明)을 대하여 관감(觀感: 보고느낌) 개발(開發)하여 순서에 따라 힘을 써서 문(門)에서 당(堂)으로 실(室)로 들어가는 것을 구하여 덕(德)을 이루고 재능을 이루어 임금을 요순(堯舜)같이 만들고 백성에게 혜택을 미치는 자가 서로 잇달아 나와 삼대(三代)적의 인재를 배출한 선대함에 도달할 것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보고 듣는 것만을 고치고 바꾸어 한때를 빛나게 할 뿐이겠는가? 실로 우리 조선(朝鮮) 종사(宗社) 만세의 복이라 할 것이다. 신(臣) 계량(季良)은 삼가 절하고 머리 조아려 명(銘)을 드린다. 명에 이르기를 '위대하신 선성(宣聖)이 때에 응하여 났도다. 포희씨(包羲氏)에서 주공(周公)에 이르기까지 그 대성(大成)한 것을 모았도다. 백성이 생긴 이래로

성한 것이 누가 이보다 클 것인가?赫赫(赫赫)하다! 높은 사당이 온 천하에 둘러있고 하물며 기봉(箕封)은 예의를 먼저 하였다. 읍양(杼陽:점손한 태도)과 조두(俎豆:도마뿤)는 예전부터 그러하였다. 하늘이 태조(太祖)를 주었는데 신성(神聖)하고 문무(文武)를 겸전 하였다. 밝게 제명(帝命)을 받아서 능히 큰공을 이루었다. 번성한 신도(神都)여, 한수(漢水)의 근원이로다. 이에 학궁(學宮)을 경영하니 성묘(聖廟)가 가운데 있다. 전(奠)하여 드리고 강(講)하여 익히니 많은 선비가 그림자처럼 따랐도다. 밝고 밝은 우리 임금이 통서(統緒)를 이어받아 공을 더하였다, 빛나는 성학(聖學)이 고금에 같은 이가 드물도다. 높은 신궁(神宮)에 두 공(公)을 올려 제사하였다. 원량(元良)이 입학(入學)하니 국본(國本)이 더욱 높아졌다, 내가 짓고 내가 따라 선성(先聖)을 높이는 도다. 인제가 육성되고 풍속이 아름다워진다. 누가 병이(秉彝:하늘에서 정한 상도(常道))를 지킴)가 없기에 자포자기(自暴自棄)하겠는가? 사람은 날로 학문이 진보되고 세상은 날로 다스림에 나아간다. 삼왕(三王)보다 낮고 오제(五帝)와 같은 것을 날을 정하여 기다릴 수 있다. 화산(華山)은 높이높고 한수(漢水)는 쉬지 않고 흐른다. 나라와 더불어 끝이 없는 것은 오직 성인(聖人)의 사당이다. 돌을 다듬어 말을 새기어 길이 보이는 바로다.” 예문관제학(禮文館提學) 변계량(卞季良)이 지은 것이다.<원전 1집 565면>

◆영락(永樂)七년八月일봉사(封事:1409(태종9)문집권6)

※ 태종이 세자 양녕대군(讓寧大君:제(提))에게 내선(內禪: 왕위 계승 내정)하려는 것을 만류하는 내용으로 세자의 자질을 평가했다.<후에 세종(世宗)이 왕위를 잇게 된다.>

▶42세 : 1410년(태종10)에 하륜(河崙) 유관(柳觀) 정이오(鄭以五) 등과 함께 태조실록(太祖實錄)을 편찬하였다.

▶44세 : 1412(태종12)에 가정대부(嘉靖大夫:종2품)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 검교판한성부사(檢校判漢城府事).

◆임진유월상전사직(壬辰六月上箋辭職)

임진년(壬辰:1412(태종12)) 유월 임금께 전(箋:상서)을 올려 정사(政事)를 사직함.

▽--上命復就傳 旨憲府曰若罷季良
之職於文翰之任誰能當之 ---

※춘정선생이 재취(再娶) 문제로 헌사(憲司)의 탄핵소추(彈劾訴追)를 받고 임금께 전(箋:진정서)을 올려 스스로 벼슬 과직을 간청하였으나 왕은 사헌부(司憲府)를 불러 전지(傳旨)하기를 “성인(聖人)도 작은 허물은 있거늘 하물며 그 아래 가는 사람이야. 만일 지금 변계랑을 과직한다면 문한(文翰)의 임무를 누가 감당하겠는가” 하고 다시 직사(職事)에 나오도록 하고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내용요약(전(箋))

신이 젊어서 병이 많고 사환(仕宦)에 뜻을 끊고 두문불출(杜門不出)하고 신음(呻吟)한지 8,9년이더니 다행이 태조의 명령을 받아 병을 이겨 종사(從仕)하였으나 조금 뒤에 다시 한산(閑散)이 되었습니다. 주상 전하가 대위(代位)에 오르자 시종(侍從)의 반열에 두고 임헌(臨軒)하여 친히 시책(試策)하고 뽑아서 제 일등으로 삼아 세 등급으로 뛰어 옮기고 두 번 전임(轉任)하여 양부(兩府)에 올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

신의 성품이 본래 융졸하고 곧아서 세속에 아첨하지 못하고 또 근신하지 못하여 걸핏하면 시비를 야기하였으나 여러 번 성충(聖聰)을 번거롭게 하여 보전함을 얻었습니다. 또 전월 헌사(憲司)의 탄핵을 당하였으니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아내를 얻은 때문이었습니다.

-- 중략 --

전하가 신에 대하여 공이 없는데 총애하시고 죄가 있으면 용서하시니 비록 천지(天地)의 어짐과 부모의 사랑으로도 어찌 비(比)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에게는 다행이지만 공도(公道)에 어찌 되겠습니까?

대저 전하가 크게 공정하므로 신에게 사(私)를 두고 전하가 지극히 밝음으로서 신에게 어두우니 신이 비록 융렬하고 망령되어 직위를 탐하고 녹을 무릅쓰더라도 어찌 감히 스스로 편안하겠습니까? 신의 오랜 병이 나이와 더

불어 함께 깊어지니 몸을 빌어서 섭양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합니다.

-- 중략 --

엿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신의 직사(職事)를 해면(解免)하고 한산(閑散)에 두어서 첫째는 전하의 사람을 알아 보는 밝음을 나타내고 둘째는 전하의 법을 쓰는 공평함을 밝히고 셋째는 미신(微臣)의 병을 섭양하는 뜻과 그 칠 줄을 아는 밝음을 이루어 주며 공도가 다행하고 신의 몸이 다행하겠습니다.

- ▶45세 : 1413년(태종13) 1월에 돈화문누각(敦化門樓閣)에 중을 완성하고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중2품) 변계량에 명하여 종명(鐘銘)을 짓게 하다.<원전 실록1집. 649면>

▼ 종명(鐘銘:중에 새긴 글) 요약

“금상(今上:임금) 13년 겨울 10월 일에 유사(攸司: 누각 책임관)에 명하여 종(鐘)을 궁문(宮門)에 달게 하시니 대개 고제(古制:옛제도)를 따름이라, 공덕을 새기고 또 군신(君臣)의 조화하는 기회를 엄하게 하는 까닭이 됩니다.

위대하도다!

아! 성하도다! 또 그 피를 내고 힘을 바쳐 공훈의 맹세에 참가한 사람들도 모두 뒤에다 새겨 이를 불후(不朽:썩어 없어지지 않음)에 전함이 옳겠기에 신(臣) 변계량(卞季良)은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명을 지웁니다.

“빛나도다 성조(聖祖)시여! 동토(東土)에 강생하여 하늘의 경명(景命)을 받아 처음으로 큰 복을 열어셨도다. 예전 고려 말년에 정사가 흩어지고 백성이 유리(流離)하매, 하늘이 우리 님의 덕을 돌보아 인심이 돌아왔으나 이때에 참소하는 사특한 무리가 그 못 사람의 마음을 좀 먹어 우리를 모략함이 너무 급하매 화란이 아침저녁으로 압박하였도다. 효도롭다 성자(聖子)여! 묘막에서 오시어 신기(神機)를 결정하니 진실로 어려움이 형통하여 해가 솟아오르듯 넓게 통하여 크게 빛나도다. 이어서 얼아(棼芽:요괴 싹)가 돌아 틈을 타서 위태함에 다달았으나 하늘이 태조에게 후(厚)하여 그 후손을 창성하게 하시고 우리 님에 이르러 저 여러 악당을 쓰러뜨리니 여러 어진이가 피를 합하고 좌우에 도우니 인륜이 크게 퍼지고 종

사(宗社:종묘사직)가 길고 오래리라. 다시 높은 공을 세우는 실로 우리 님이시나 공이 높되 차지 않고 덕이 성하되 차지 않으니 천감(天監:하늘의 밝음)이 매우 밝아 보우(保佑:보살펴 도움)를 이에 아뢰었도다. 제명(帝命:임금의 명)이 거듭 이르니 용위(龍位)를 받음이 이대로다! 금보(金寶:추상존호(追上尊號))는 빛나고 크기가 말(斗)같도다. 천총(天聰)이 잦으심은 전고에 어뜸이라. 내 서울로 돌아와서 조무(祖武:조상이 남긴 업적)를 잘 잇고 조심 조심 효성하여 끝까지 어김없이 기강을 세우시니 모든 법도 밝아졌도다. 신야(晨夜:이른아침 저문밤)를 엄히 하여 이 종을 매달으니 백사(百司:모든 벼슬직)가 직에 힘써 감히 어김없고 면면(綿綿)한 종묘, 사직 천지 같이 길고도 오래리라. 내 절하고 명을 지어 무강(無彊)에 보이노라.” 호조판서(戶曹判書) 한상경(韓尙敬)에게 명하여 이를 쓰게 했다.

▶47세 : 영락(永樂)十三年六月일봉사(封事:1415년(태종15))

춘정선생이 경윤(經綸:임금이 천하를 다스림)을 표명한 내용으로서 육조(六條)를 헌책(獻策:방책을 건의하는 것)하였다.

- 1조. 신조섭(愼調攝) : 왕의 건강을 유념한 충고로서 건강해야만 건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
- 2조. 기천명(基天命) : 하늘의 뜻을 자각하고 그에 바탕한 정치.
- 3조. 광자방(廣咨訪) : 널리 묻고 살펴야 할 여론정치.
- 4조. 근사대(謹事大) : 대국(명나라)을 가까이 하여 국제외교의 정립.
- 5조. 후민생(厚民生) : 민생을 돌보고 항상 시켜야 하는 것.
- 6조. 어군신(御群臣) : 신하를 잘 조정하고 훌륭히 지휘하여 큰 정치를 이룩하는 것.

※춘정선생이 임금이 해야 할 통치이념(統治理念)의 골

간(骨幹)을 건의한 내용이며 문신(文臣)으로서 나라사
랑과 국가 앞날의 번영을 위하여 임금의 처신을 강조
한 매우 용기 있는 내용의 상소문(上疏文)이다.

<춘정선생 중심사상 참조>

◇즉, 통치자(統治者)는 건강해야만 건강한 정신으로 통
치이념(統治理念)을 구현(具現)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유념하고, 하늘이 점지해 준 왕이기에(天思想),
하늘의 뜻(天命:백성을 이롭게 다스리는 것)에 바탕(基礎)한
정치를 해야 하고, 백성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이기에
백성들의 뜻을 헤아려 여론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하고,
큰 나라와 다투어도 손해이니 가까이 하여 외교를 정
립하고 어려운 백성들의 후생을 장려하여 민생을 돌보
고, 신하에게 권력을 너무 주어 탈선치 않도록 조정하
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는데 평소에 간직한 제천(祭天)의
주체사상 및 모든 정치의 요체는 민본에 두어야 한다
는 사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영락(永樂) 十三年 봉사(封事:1415년 태종15)

학교교양지방(學校敎養之方):학교 교육제도개선방책
사관간선지법(史官揀選之法):역사 기록 관리 선출 제도
의 개선 및 보완대책.

※춘정선생은 나라의 장래는 학교교육이 중요하므로 그
에 따른 훌륭한 교육제도를 갖추는 것이 또한 선무(先
務)로서 의당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헌책(獻策)과 역사
의 기록(왕조실록(王朝實錄)은 민족의 전통을 보존하고
나라의 기록 중 가장 중요하므로 그 주체는 사관(史
官)의 자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관 선출(選出)에
유념해야 된다는 헌책(獻策)이다.

◇사대사고(四大史庫)-재해(災害), 병난(兵亂) 등 유실에 대
비 분산 보관.

중앙(춘추관)	전라도(나주)
경상도(성주)	충청도(청주)

◇봉건 왕조시대에 왕에게 상소(上疏)함은 보통의 용기
로는 어려우며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의 결단으

로 이룩되는 큰 모험이었다.

▶48세 : 1416(태종16) 4월 품계(品階)가 승진되어 수문전(修文殿:문학연구기관) 제학(提學:종2품)과 시강원(侍講院:세자교육기관) 좌부빈객(左副賓客:종2품)으로 옮겼다.

그 해는 가뭄이 극심하여 6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오곡이 말라 시들었다. 별의 별 신에게 제를 올렸으나 비는 없고 임금이 크게 걱정하여 조정이 어수선한 때 제천(祭天:하늘에 제사 지내는례)은 천자(天子:명. 황제)만이 할 수 있다는 조정의 관례를 뒤엎고 제천(祭天)하기를 임금께 상소(上疏)하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원단제천론(圓壇祭天論)이다.

◆영락(永樂)十四년병신(丙申)六월초일봉사(封事)

(1416년(태종16) 병신 육월 초하루 상소문)

六月旱甚上封事請祭天六曹諸臣階言其不可 上從先生言 命製祭文賜廐馬一匹.

※ 유월에 가뭄이 심하여 임금께 봉사(封事:상소문)를 올렸다. 어전회의에서 하늘에 제천(祭天)할 것을 상소하였는데 육조(六曹) 신하들은 다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춘정선생의 당당한 제안에 결국 임금도 이에 따라 제천을 한 바 당일로 비가 내려 마굿간 말 한필을 하사하였다.

<춘정속집 권2>

◆봉사문(封事文:상소문) 중 중요부분

國家之法莫大於祭祀祭天之
法莫大於郊天法守舊章比其
先務也由是言之我朝祭天之
求之先世則更曆千餘年而氣
與天通也久矣.-- 春亭文集 卷七 --

※ 나라의 법은 제사(祭祀)보다 큰 것이 없고 제사(祭祀)

의례(禮)는 교천(郊天: 하늘에 제사함)보다 큰 것이 없으며 구장(舊章: 전로부터 내려오는 밝은례)을 지키는 것이 선무(先務)가 된다. 이로 연유해 말하노니 우리 나라의 제천례(祭天禮)를 선세(先世)에서 구한다면 천여년(千餘年)의 역사가 있어 기(氣: 정기)가 천(天)에 통한지 오래이다.

<춘정문집 권7>

◇비록 예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사태가 절박하니 원구단(圓丘壇: 하늘에 제사 올리는 제단)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올리자는 상소에 태종도 마음이 움직여 춘정에게 제문(祭文)을 하명하고 영의정 류정현(柳廷顯)에게 명(命)해 제천(祭天)을 했다.

▼8월에는 경회루(慶會樓)에서 친시문과(親試文科: 어전 문과 시험)를 관장(管掌) 하였고 9월에는 세자 강의를 중용(講中庸)을 건의하고 천문대 관측기구인 간의대명(簡儀臺銘)을 지었다.

▶49세 : 1417년(태종17)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 位階칭호)에 올라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정2품) 겸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 되고 이어 예조판서(禮曹判書) 겸 지경연(知經筵: 임금 앞에서 경서강론) 및 춘추관사(春秋館事)를 역임하면서도 세자시강(世子侍講)을 맡아 생애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큰 업적을 쌓았다.

◇왕으로부터 춘정에게 “옛부터 자식은 바뀌서 가르친다고 했으니 경은 모름지기 잘 교도해서 문리(文理: 사물을 깨닫는 경로)를 통하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를 받고 세자(世子: 양녕대군(제) 찾아들)에게 중용(中庸: 4서의 하나, 군자의 도)을 강(講)하고 그의 그릇된 버릇을 고치기를 뼈아프게 충고하고 사직(社稷: 토신, 곡신)과 종묘(宗廟: 역대 제왕의 사당)와 문소전(文昭殿: 대수차례를 모신 곳)에 맹세토록 하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패행(悖行: 못된 행동)과 기행(奇行: 기이한 행동)을 고치지 못하였고 그 이듬해 세자(양녕대군)는 폐출되고 충명(聰明)한 충녕대군

(忠寧大君:셋째아들)이 책봉되어 부왕으로부터 선위(禪位:왕위 계승)를 받게 되며 이가 곧 역사에 빛나는 세종대왕이시다.

▼4월에는 경회루(慶會樓)에서 복시문과(覆試文科) 시험을 관장하고 33인을 시취(試取)하였다. 윤5월에는 원단제천기우제(圓壇祭天祈雨祭)를 거행하였다. 8월에는 면포(綿布), 마포(麻布) 각 두 필(匹)을하사 받았다.

◆업무 과중의 격려품 하사(下賜:임금의 선물)

▽ 賜綿布麻布各二匹

上曰卞判書寒士且多勤務
特賜之後又紵絲一匹仍傳
旨曰皇帝賜與不宜專用故
承 命楊花渡使宴雨天使

※면포, 마포 두 필 하사

임금이 가로되 변판서는 가난한 선비로서 많은 일을 하여 특사 후에도 모시 한 필을 거둬 내렸다. 왕의 뜻을 전해 가로되 황제의 사여품이라도 전용은 온당치 않다고 하였다. 왕명을 받들어 양화도 나루에 가서 우천사(雨天使:명나라 사신)를 대접했다.

◇국조관각(國朝館閣)의 영사(領事:정1품)는 삼정승(三政丞: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중에서 명목상 겸임함으로서 실제 대제학(大提學)과 대사성(大司成)이 책임자로서 운영된다.

▶50세 : 1418년(태종18)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겸 우빈객(右賓客), 예조판서(禮曹判書) 겸 지경연사(知經筵事),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정2품) 겸 제조의검부사(提調義禁府事) 역임

▼6월 제청(啓請:임금을 뵈고 건의) 때 세자(世子:禪)를

- 폐(廢)하고 충녕대군(忠寧大君: 肅-세종)을 책봉하고
- 세자책봉교(世子冊封敎) 및,
 - 전위세자교(傳位世子敎)를 제진(製進: 지어 올림)하다.

※ 춘정선생이 세자교육을 담당하면서 기이한 성질을 가진 세자(世子: 讓寧大君(提))를 폐하고 총명한 충녕대군(忠寧大君: 세종)을 세자로 책봉하여 나라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우자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 끝내 윤허(允許)하였고 세종이 등극(登極)하여 나라의 튼튼해지는 기반을 보면서 헌수(獻壽), 악장(樂章), 가사(歌詞) 등에 그 기쁨의 글의 내용을 많이 남기고 있다

<문학세계 참조>

▼ 11월에는 악장(樂章: 노래글) 2수(首)를 지음.

- 세자 책봉을 숭앙하는 헌수(獻壽: 장수축하의 하례 글).
(欲以封崇日獻壽)
- 상왕과 대비 양전(兩殿)을 받들어 기리는 찬양문.
(上王及大妃兩殿玉冊)

◇ 이 악장의 제진(製進)을 왕이 기뻐하여 구마(廐馬: 마굿간 말) 한 필(匹)의 하사(下賜)를 내렸다.

▼ 춘정선생이 '사헌부 탄핵(彈劾)에서 처음 참여하면서 참판(參判) 허조(許稠)의 승진에 관한 승정원상달(承政院上達) 뇌물사건에서 재결함에 있어 엄정한 기강(紀綱)으로 속선(速善) 파직(罷職)으로 처리했다.

◆ 공정(公正)한 옥사(獄事)의 처리

遷議政府參贊兼如古仍提調
義禁府事先生議獄明允斷死
刑哀矜不忍異求生道所活者
多聞者歡服上益重之是至十
數年常兼是職.

※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으로 있으면서 의금부의 제조

(提調)를 겸하면서 옥사(獄事:형사업무)를 명확히 밝히고 사형을 선고하는데는 불쌍히 여겨 살릴 길을 구해서 살아난 자가 많았으니 듣는 이가 탄복했고 임금께서 중히 여겨 십 수년 동안 이 직(職)을 겸하게 했다.

▶51세 : 1419년(세종원년) 정월, 하황은곡(賀皇恩曲)을 지음.

▽ 樂章賀皇恩曲製進

世宗元年己亥正月入侍獻壽
宴時 上獻壽 上王歡極夜
深乃罷製進賀皇恩曲將以宴
使臣也.

※악장(樂章:음악에 따라 부른 노래글) 하황은곡(賀皇恩曲)
을 지어 올림

세종 원년 기해(己亥), 상왕(태종)의 헌수(獻壽宴:장수를 축하드리는 잔치) 때 세종이 헌수한 자리에서 춘정선생이 하황은곡(賀皇恩曲:상왕의 은혜를 축하하는 노래 글)의 악장(樂章)을 제진(製進:지어 올림)하였는데 상왕이 환극(歡極:극히 기뻐함)하여 밤이 깊도록 연회(宴會)가 진행되었는데 사신(使臣)도 함께 했다.

◇하황은곡(賀皇恩曲)은 세종(世宗)이 부왕(父王)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훌륭한 인격이 오래도록 이르는 곧고 밝은 다스림이 있을 것이라는 황은(皇恩:태종 선왕(先王)의 은혜)을 경하(慶賀)하는 노래 곡이다. 그리고 세종 초기에는 권섭(權攝)정치로 일부의 왕권은 태종에게 있었다.

※세종의 등극은 춘정선생이 정성으로 상왕(上王:태종)에게 건의하고 항상 바라던 것으로 태종의 훌륭한 판단으로 세자 책봉 후 이어 양위(讓位)한 것에 황홀하고 그 은혜를 높이 찬양한 악장(樂章)이다.

<문학세계 참조>

▼2월에는 문과시장(文科試場:문과 과거 시험장)이 열렸는데 참여하고 33인을 등용(登庸)했는데 그 중 김

숙자(金叔滋)의 경술문장(經術文章)을 높이 평가하고 매양 칭찬했다.

※ 40대 되던 해부터 생원시관(生員試官: 생원시험관)이 되어 생원, 진사 등 유능한 문사(文士)를 시취(試取)했으며 그 후 문과시장(文科試場)에도 많이 참여하였다.

◆ 육월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교서(敎書: 왕명) 유고(諭告: 타이름)문을 지어 올림.

▽ 六月製進諭對馬島主敎

時倭奴侵我南鄙殺掠人民焚
蕩閭舍 上王曰若不掃除何
異漢之見辱凶奴羣臣階以不
可伐之策 上嘉納之命先生
製敎文諭之者再使長川君李
從茂將三軍往征之自是倭慄
伏不敢犯境又議殺俘虜人物
先生亦堅執不可 上從之.

※ 육월 대마도 주에게 교서(敎書: 왕명) 유고문(諭告文: 충고 글)을 지어 올림……(외교문서)
왜구가 우리 남쪽 변경에 침입하여 방화 살인의 분탕질을 함에 상왕이 전하(殿下: 세종)와 더불어 군신들과 정벌(征伐)의 의논에서 모두들 불가라고 했지만 선생께서 정벌계책을 건의하여 왕이 가납(嘉納: 충고를 들어줌)하여 명하고 선생이 교문(敎文: 교서)을 지어 왜구(倭寇)의 죄악을 성토했고 이종무(李從茂)를 하여금 삼군(三軍)을 거느려 정벌케 했는데 풍세불순(風勢不順)으로 대첩 성공은 아니지만 이로부터 왜노(倭奴)가 겁복(慄伏: 두려워 굴복)하고 침범하지 못했고 포로들을 죽일지의 의논 때 선생이 굳은 집념으로 불가라고 건의한 데 임금도 이에 따랐다.

▼ 찬, 낙천정기(撰樂天亭記: 낙천정의 원판 글)를 짓다.

상왕(上王: 태종)의 천명(天命)을 기리는 정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 낙천정자(樂天亭子)에서 수연(壽宴)을 베풀

고 만수무강을 노래하고 천명을 다하는 기쁨의 낙을 즐긴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문집 권5>

▼11월에 선암동(扇巖洞)에 있는 상왕(태종)에게 문안을 갔더니 기꺼이 하며 선생에게 모의(毛衣)의 하사(下賜)를 받았다.

▶52세 : 1420년(세종2)에 연향가사(宴享歌詞:잔치 행사 때 부르는 노래말)를 제진(製進)하였다.

※이 연향가사(宴享歌詞)는 나라의 음악 장려 정책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궁중 행사 때 웅장한 궁중 음악에 맞춰 불려진 노래 글이다.

<문학세계 참조>

◆집현전설치(集賢殿設置)와 대제학겸임(大提學兼任)하다

▽ 集賢殿

二年庚子(先生五十二)兼集賢殿大提學 前此先生上言請置集賢殿揀文臣聰敏者講習經書以備顧問上乃命設是殿於闕內置員十人拜先生是職自後除是職者必待先生薦引.

<春亭續集 卷二>

▽ 집현전

※경자년(庚子:1420.세종2) 52세 되던 해 봄에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겸 의금부사(義禁府事)로 있으면서 집현전 대제학을 겸했다. 전에 왕에게 집현전 설치를 청(請)했고 문신(文臣) 중에 년소하고 충민한 자를 뽑아 경서(經書)를 강습해 고문(顧問)에 대비토록 하자고 했다. 이에 임금이 기꺼히 명을 내려 이 전(殿)을 궐내에 설치하고 관원 열 사람을 두어 선생이 관장토록 하고 이 직(職)에 임명되는 자는 반드시 선생이 뽑도록 했다.

◆ 집현전(集賢殿) 기구(機構)의 내력(來歷)

고려초기 왕의 비서기구(秘書機構)인 제관전(諸館殿)의 한 부서(部署)인 연영전(延英殿)으로 창설되어 그 뒤 집현전(集賢殿:인종), 문한서(文翰署:통합), 보대각(寶大閣:이조 초기)으로 변천되어 유명무실한 왕의 시종(侍從:가깝게 모심)업무에 포함되어 오다가 태종 때 춘정선생이 새로운 임무의 집현전 확장 설치를 상소했으나 이루지 못하다가 세종2년에 젊은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의 특별기구로 새로운 목적의 집현전(集賢殿)을 설치 운용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사가독서(賜暇讀書:임금이 내리는 휴가로 공부에 전념)제도의 준비 실행과 사회 규범을 정립하기 위하여 효행록(孝行錄:효도 행실의 지침)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케하고 효제(孝悌:효도와 우애)를 예의(禮儀)의 장(場)으로 들게끔 하자는 건의를 하여 나온 것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발간이다.

※이조(李朝)의 사회 규범은 성리학을 숭상하며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기초로 하고 효제(孝悌)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는 정책을 폈으며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대부분 글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림책을 만들어 가정에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 그리고 정도전(鄭道傳)이 편찬한 고려사(高麗史)를 다시 개찬(改撰:고쳐지음)하였는데 이를 유관(柳寬)과 함께 2년 만에 끝냈고 국초에 미처 제정하지 못한 여러 의절(儀節:예의 의식절차)이나 규율(規律:법규), 그리고 제향의(祭享儀:제사, 향연의 의식절차), 예문(禮文:나라의 문물제도) 등을 새로 만들고 화산별곡(華山別曲:삼각산 별곡) 등 가사(歌詞:노래 글)도 다수 지어 음악 악장(樂章) 글의 경기체가(景幾體歌:가사체의 글 형식)문학의 시초를 열었다.

▶53세 : 1421년(세종3) 유관(柳觀)과 더불어 고려사개진(高麗史改進)함

▼11월 경연(經筵:임금 앞에 강(講)하는 자리) 때 성리서(性理書)를 강(講)하였다.

▽그리고 신궁(新宮)에서 연회가 있었는데 끝난 후
태상왕(太上王)께서 불러서 뵈오니 그 성(誠)을
기뻐하며 모의(毛衣)와 모관(毛冠)의 하사(下賜)
를 받았다.

- ▶54세 : 1422년(세종4) 5월 태종(太宗)이 승하(昇遐)하여 국
장의례(國葬儀禮)에 참여하다.

▼9월에 태종대왕의 만장(輓章:사자(死者)를 애도하는 글)
을 봉진(奉進:반들어 올림)하고 헌신도비명(獻神道碑
銘:종2품 이상의 묘지 근처에 세워진 비석의 글)을 찬진(撰進:
지어 올림)하다.

- ▶55세 : 1423년(세종5) 7월 이질사직(以疾辭職:병으로 인한 사
직)을 하였으나 윤허(允許:허락)하지 않았다. 12월에는
광효전(廣孝殿)의 대향(大享:큰제사)과 삭망제(朔
望祭:초하루 보름제사) 축문을 개수(改修)하였다.

- ▶56세 : 1424년(세종6) 태상왕(太上王:태종) 대상제(大祥祭)
와 헌능비문(獻陵碑文:능에 올리는 비석글)을 찬(撰)하고
11월에 지지(地志:땅의 기록문서)를 찬진(撰進)하였다.

▼12월에 악기도감(樂器都監:악기취급 관청)이 설치되었
는데 그에 따른 연향가사(宴享歌詞:나라의 잔치 노래
글)를 제진(製進)함.

▽宴享歌十曲 甲辰十二月

我應天國于東聖繼神治益隆 **荷天福祿** -- 1곡절

-- 이하 구곡(九曲) 생략 -- (↑ 후렴)

※연향가 십곡 1424년(세종6) 12월

우리의 천국 동방의 성인(왕을 지칭) 밝음의

정치는 음성하게 이어지니

후렴: (하늘이 준 천복과 녹봉(祿俸)이라.)

--이하 생략--

<문학세계 참조>

- ▶57세 : 1425년(세종7) 화산별곡(華山別曲:삼각산 별곡)의 악장(樂章:노래 글)을 짓다.

<악부용 연향가사(樂部用宴享歌詞)>

※세종조(世宗朝)에서 악기도감(樂器都監:악기취급 및 제조 관청)을 설치하고 음악을 장려하였다. 대소 연향(宴享: 궁중 잔치)에서 우렁찬 궁중음악에 맞추어 연향가사(宴享歌詞)를 읊는 풍류의 악장(樂章)으로 화산 별곡은 경기체가(景幾體歌) 형식의 글이다.

- ▶58세 : 1426년(세종8) 숭정대부(崇政大夫:종1품)에 올라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友軍都摠制府事:우군총사령관(종1품)) 겸 세자이사(世子貳師:세자교육 담당)의 벼슬을 더하였고 그 후 에도 줄곧 문형(文衡)을 쥐고 있었다. 10월에는 병약한 몸의 보신용으로 노루를 하사 받았다. 그리고 사가독서(賜家讀書) 제도의 시행을 별칭(別稱)으로 호당(湖堂)이라 정하고 인원선발 및 운영제도의 규범(規範)을 제정하여 인물양성의 기틀을 다졌다.

- ▶59세 : 1427년(세종9)에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友軍都摠制府事)로 있으면서 군량미를 아껴 어렵게 사는 천민

(賤民)을 구호하였다.

※춘정 문집에 전해오는 초서(草書) 유묵(遺墨) 중 정미년(丁未:1427,세종9)에 쓴 글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표제 유묵 참조)

▽ 丁未 元月 十九日

餉額外諸賤亦綽然有以應之其餘以
施及市民受貨通值賤之益.

<卞季良 述>

※정미(1427년) 1월 19일

군량 외 양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천민들이 또한 침착하고 여유 있는 자세로 욕심부리지 않고 응하는지라 그 여분을 백성에게 보급하니 재화의 통용가치가 천민에게 쓰일 수록 그 값이 더 하도다.

<변계량 지음>

▶60세 : 1428년(세종10) 기자묘비문(箕子廟碑文)을 찬(撰)하고 국초에 미처 제정하지 못한 여러 의절(儀節:예의 의식 절차), 규율(規律:법규), 제향의(祭享儀:제사 향연의식 절차) 예문(禮文:나라의 문물제도) 등을 새로 제정하는 한편 효행록(孝行錄)을 간행하였다.

▶61세 : 1429년(세종11) 임금이 명을 내려 춘정선생을 5일에 한 번 대궐에 참여토록 했다.

▽ 命五日一參

上曰老大臣凌晨詣闕
病必生矣有是 命.

※명. 다섯에 한번씩 궁중에 참석.

임금이 가로되 노 대신이 차가운 이른 새벽에 대궐에 들락거리니 병이 나기 마련이라고 하며 결석을 명하였다.

▶62세 : 경술년(庚戌 1430년 세종12) 4월 23일(癸巳)에 향년 62세로 임종(臨終:세상을 하직함)하였다.

▽문집에 기록된 내용 : 춘정문집속집 권2.

十二年庚戌先生六十二歲.四月以疾辭職是月以疾終二十三日癸巳也.○上聞訃悼甚撤朝三日命攸司致賻及棺東宮亦賻米豆三十石前此先生專摠修太宗實事以先生素多疾病而居第在興德寺傍故移史庫於寺至是又移議政府使黃喜孟思誠監焉. 六月葬於臨江縣仇和里先隴側良坐之原先生所卜也賜諡仍賜祭世子亦遣宮致祭(祭文但見下).諡曰文肅勤學好問爲文執心決斷爲肅.

※ 세종12년(1430) 경술(庚戌)해 선생 62세.-

4월에 병환으로 정사를 사직하고 그 달 23일에 향년 62세로 임종했으니 계사(癸巳)였다. 왕이 부음을 듣고 심히 애도하고 사흘 아침을 거두고 부의관(賻儀棺)을 내렸고 또 동궁(東宮:세자 문종) 역시 부의미(賻儀米)와 콩 30석을 내렸다. 이 전에도 선생은 태종실록을 전담 총괄사업 할 때 본디 많은 병고로 집에 있으면서 흥덕사 곁에 옮겨진 사고(史庫:역사기록 및 나라의 중요 기록문서 보관소)와 절에서 더할 수 없이 지성껏 했으며 의정부사로 옮긴 황회와 맹사성 등이 이를 지켜왔다. 6월에 있는 장례는 임강현 구화리(경기도 장단군) 선영 곁 둔덕간좌(艮坐)에 안장되었다. 세종대왕이 제문을 내렸고 세자 또한 제문으로 치제했다. 시호(諡號)는 문숙(文肅)인데 근학호문(勤學好問:부지런히 배우고 물기를 좋아함)이 문(文)이고 집심결단(執心決斷:단단한 한몫 마음과 결단)이 숙(肅)이라 했다.

◆춘정선생은 생애의 대부분을 요직에 몸담았으면서도 늘 검소하고 음식과 의복이 부족하여 임금이 보살펴 내려 줄 정도로 청빈(淸貧)한 삶을 이어가면서 백성을 사랑하고 민중 주체사상을 일깨우며 나라 안 밖의 살림을 걱정하여 문물제도를 고치고 임금의 나라 다스림을 보필하고자 여러 차례 봉사(封事)를 올리며 충성을 다하면서 한 때를 풍미하고 마지

막 당대의 사대부 장례 절차에 따라 그 해 유월 임강현 구화리의 선영 둔덕 간좌(艮坐)에 영면(永眠)하였는데, 위대한 삶의 자취는 문집 속에서 배어나고 다음 차례 사상과 문학 세계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후세의 사가(史家)들은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4. 후세 사가(史家)들의 평가(評價)

◇수문전, 대제학(修文殿, 大提學) 정척(鄭陟:1390-1475.제자)

선생의 행장(行狀:생전의 공적 기록문)을 지었는데 그 말미 서술에서 …….

※선생은 어릴 적부터 총명이 남달리 뛰어났고 학문을 좋아해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성리(性理)를 연구하는 것으로 책무(責務)를 삼았다. 날마다 포은(圃隱:정몽주), 목은(牧隱:이색), 도은(陶隱:이승인), 양촌(陽村:권근) 제현(諸賢)과 노닐어 사우연원(師友淵源:스승과 벗의 근원)의 올바름을 얻었다. 들은바가 더욱 넓고 이룩한 바가 더욱 깊어 문형(文衡)을 20여 년이나 맡았고 사대교린(事大交隣:큰 나라와의 우호국제외교)의 사명(辭命:임금의 뜻을 담은 외교문서)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조정에서는 매양 사표(辭表:학식, 덕행이 모범됨)의 정절(精切:참되고 적절함)함을 일컬어 칭찬했다.

선생은 마음가짐이 굳건하고 강어(強禦:강력한 대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도량이 남달리 넓고 소절(小節:세소한 예절)에 구애되지 않았다. 세원(洗冤:완통한 죄를 씻어 주는 것),택물(澤物:은택을 입는 것), 흥학천현(興學薦賢:학문을 일시키고 인재를 천거)을 자기 책임으로 삼아 한 때의 명사(名士)가 그의 문하(門下)에서 나왔다.

◇조선 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록문(世宗(卷48)12年庚戌4月癸巳條)

(세종12(1430)년 4월 23일(癸巳:일진)의 기록조문임.)

※계량(季良)이 문형(文衡)을 맡기를 20여 년이었으며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사명(詞命:辭命과 동일)이 많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시관(試官;과거 시험관)으로 사(士:인제)를 취(取:선발)함에 한결같이 지극히 공정하게 하고 의혹(疑惑:의심으로 분별하기 어려움)을 재결(裁決)함에 있어 왕왕 사람들의 의표(意表:예상 밖)를 찔렀다.

◇영의정(領議政) 문장가 심상규(沈象奎:1766-1838)

1824년(純祖24 甲申)에 거창 병암서원(屏巖書院) 유림(儒林)이 주동이 되어 간행된 춘정선생 문집의 중간서(重刊序)를 썼는데 다음과 같이 높은 학문을 예찬했다.

【국조관각(國朝館閣) 중에 예문관(藝文館)이 가장 먼저 설치되었고 성균관(成均館)은 자제(子弟) 교육을 맡았다. 그러므로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은 국자감(國子監:성균관)의 장(長)을 겸했으니 이가 전문형(典文衡:법적 문형)이 된다. 양촌권문충공(陽村權文忠公:권근)이 비록 선생에 앞서 예문, 성균을 겸했지만 문형(文衡)이라 이름 붙인 것은 선생이 실상 처음이다. 오로지 문방(文枋:교육 터전의 권리)을 맡아 문형(文衡)이라 이름하게 된 것은 그 시초가 선생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선생은 백세(百世) 문원(文苑:문단. 예문관, 홍문관의 별칭)의 숭배의 대상이다.】

◇춘정선생 장례식 때 세종대왕(世宗大王)이 내린 사제문(賜祭文:임금이 내린 제문)

▽賜祭文 世宗庚戌六月.

臣之效忠既能盡於弼亮君之報禮亦當極於哀榮夫豈私恩實是彝典惟卿性質榮總學識精明既早遇昭考之知而益勵寡躬之輔善爲辭命當加潤色之華祇事朝廷獲紆褒嘉之寵矧貳師於儲宮又知館於春秋茲倚任之方深奈沈痾之益篤卒聞訃哀良用痛傷卽令輟朝兼以議謚遂○命

禮官以致祝庸示侑辭以如存嗚乎一鑑忽亡慨英靈之何往九泉已隔惟恤章之載加.

※임금이 내린 제문(祭文)

신(臣)의 충성을 다 함은 이미 능히 보필을 다 하였으니 임금의 보예(報禮:예의의 보답)는 또한 마땅히 영예(榮譽)의 슬퍼함을 다해야 하거늘 어찌 사사로이 입은 은혜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리오. 생각해 보면 경(卿)께서는 성질이 영결고, 충명하고, 학식이 정명(精明)하였고 이미 일찍부터 밝은 상고함의 깨달음이 있었으며, 과인(寡人:임금)을 보필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사명(辭命)을 잘 이행하였으니 마땅히 빛나는 영화를 더 해야 할 것이다. 조정(朝廷)을 잘 받들어 칭찬과 기릴 충애를 얻었다. 하물며 저궁(儲宮:세자의 궁)에서 이사(貳師:세자교육담당 책임관)를 하였고 또 춘추관(春秋館:역사기록담당)의 일을 맡겨 의지하고 있었는데 어찌할꼬? 질병이 깊어져 더욱 위독하다더니 끝내는 부애(訃哀:부음의 애통함)를 듣고 말았도다. 마음이 상하여 아프고 슬퍼하며 즉시로 철조(輟朝:임금의 아침수라를 거둠)를 명령하고 의논 끝에 예관(禮官)을 명하여 위로의 말을 보내자니 살아 있는 것 같구나. 아! 일감(一鑑:한 생각)이 홀망하다 영혼은 어디 가셨는가? 구천(九泉:황천)이 가리었으니 글을 보내도 도착할까? 근심되네.

※세자(世子:문종)의 제문(祭文) 생략함.

◆ 춘정선생의 삶을 통해 본 업적(業績)의 특징(特徵)

1. 이조(李朝) 개창기의 정치 혼란 속에서 입지(立地) 선택의 갈등으로 인한 벼슬을 버린 공백(은거(隱居)생활)과 그 후 신왕조(新王朝) 참여로 역성혁명(易姓革命)의 부당성 논란과 함께 정도전 하륜에 이은 후세 사림절의파(士林節義派) 학자들에 인한 평가가 저하된 경향이다.

2. 정도전 하륜으로 이어지는 관학(官學)의 확충과 세종조(世宗朝)에 이르러 집현전(集賢殿)의 설치 확충 및 호당(湖

堂:사가독서(賜家讀書)제도의 연구기관의 별칭)제도의 확립으로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였다.

※ 후에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술의 신장, 국가 근본인 농업정책의 확충 등 세종조의 크나큰 업적으로 연결된다.

3. 유교입국(儒敎立國)의 제반 문물제도(文物制度)의 정립과 당대의 문장가(文章家)로서 모든 문한(文翰)과 조명(詔命:임금의 하명기록문서) 및 외교사명(外交辭命)을 담당했다.

4. 음악정책의 확충에 따른 우리 나라 가사문학(歌詞文學:경기체가(景幾體歌))의 시초를 열어 국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편집자>

◆ 춘정선생 묘역(墓域) : 경기도 장단군 임강현 구화리

구화리(仇和里)의 묘역은 고(考) 판서공(判書公;휘 옥난(諱玉蘭))의 묘역(墓域)이 자리한 곳으로 1395년(태조4)에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기 때문에 그 예우로 이태조(李太祖)의 하사(下賜) 묘원(墓園)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춘당공(春堂公)과 춘정(春亭)선생의 묘역이 별도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그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통일 후의 복원의 과제가 남게 된다.

※<별지 3> 묘산도(墓山圖) 참조

※<별지 4> 춘정선생 관직요약

<별지 3> 묘산도(墓山圖)



상단 : 판서경공(諱 玉蘭)

우하 : 춘당공(諱 仲良)

좌하 : 춘정공(諱 季良)

<별지 4> 춘정(春亭)선생 관직요약(官職要約)

출생	: 1369년(恭愍王18:己酉): 考檢校(諱 玉蘭) 貞敬夫人昌寧曹氏膝下出生 고검교(휘 옥난) 정경부인 창녕조씨 슬하 출생
14세	: 1382(우왕8:壬子): 진사(進士), 이듬 해 생원(生員)
17세	: 1385(우왕11:己丑): 문과(文科) 급제(及第: 知貢舉--圃隱 鄭夢周)
19세	: 1387(우왕13:丁卯): 징사랑(徵仕郎) 전교서(典校署) 주부(主簿)
21세	: 1389(공양왕:己巳): 비순위(備巡衛) 랑장(郎將) 진덕박사(進德博士)
24세	: 1392(태조원:壬申): 창신교위(彰信校尉) 천우위(千牛衛) 중랑장(中郎將)겸 전의감승(典醫監丞) ※병을 핑계 은거(隱居)함
29세	: 1397(태조6:丁丑): 봉직랑(奉直郎) 교서감승(敎書監丞) 지제교(知製敎)
33세	: 1401(태종원:辛巳): 성균학정(成均學正) 지제교(知製敎) 사제소감(司宰少監)
37세	: 1405(태종5:乙酉): 겸 예문응교 (藝文應敎)
38세	: 1406(태종6:丙戌): 예문관 직제학(藝文館 直提學)
39세	: 1407(태종7:丁亥): 4월 친시(親試) 문과 제1인자. 초배(超拜:파격인사) 예조우참의(禮曹右參議) 수문전직제학(修文殿直提學) 지제교(知製敎)
41세	: 1409(태종9:己丑):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겸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44세	: 1412(태종12:壬辰):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 검교판한성부사(檢校判漢城府事)
48세	: 1416(태종16:丙申): 수문전 제학(修文殿提學) 시강원 좌부빈객(侍講院左副賓客)
49세	: 1417(태종7:丁酉):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겸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겸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
50세	: 1418(태종18:戊戌):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겸 우빈객(右賓客) 예조판서(禮曹判書) 겸 지경연사(知經筵事)
52세	: 1420(세종2 :庚子): 겸, 집현전 대제학(集賢殿大提學)
58세	: 1426(세종8 :丙午):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겸 세자이사(世子貳師)
62세	: 1430(세종12:庚戌): 4월23일(癸巳) 임종(臨終). 6월 구화리(仇和里)에 안장 ※ 先塋之側坤向之原公所卜也 -- 文集卷12 (行狀) (선영(先塋)의 옆 간좌곤향(艮坐坤向) 문덕에 공의 산소가 있다)

II. 춘정선생의 유적(遺蹟)

차 례

1. 춘정문집(春亨文集)
 - 문집 발간사(文集發刊史)
 - 문집 권별 내용(文集卷別內容)
2. 관향(貫鄉:출생지) 유적(遺蹟)
3. 춘정선생 배향(配享)
 - 가. 최초 배향지(配享地:거창 가조)
 - 나. 현 배향지(配享地:후손집성촌(청도))
 - 봉양서원(鳳陽書院) 유적(遺蹟)

◇춘정선생의 유적(遺蹟)은 문집 이외에 관향{貫鄉:1140(고려인종)-1570(선조3):후손세거}과 최초 배향{配享:1768(영조44)-1871(고종8)}된 거창 병암서원(屏巖書院:춘당공 후손 세거지)에 형(춘당공)과 함께 배향(配享)되다가 대원군 서원 철폐령(고종8)에 의거 훼손(毀撤)된 후 1938년에 청도 춘정선생 후손 세거 집성촌(鳳岐里)에서 봉양서원(鳳陽書院)을 건립하고 형과 함께 배향(配享)되었다.

1. 춘정선생 문집(文集)

◇ 춘정선생 문집(文集)은 선생이 기세(棄世)한지 12년 후인 1442년(세종24, 임술(壬戌))에 왕명으로 경상감사(慶尙監司) 권맹손(權孟孫)에 의하여 밀양에서 초간(初刊) 13권으로 간행되었으나 유고(遺稿)가 많이 산일(散逸:흩어져 부분 훼손)되었으며, 그 후 춘당공(春堂公)의 후손 집성(集姓) 세거지인 거창군 가조면 병산리에 위치한 병암서원(屏巖書院) 유림(儒林)에 의해 1824년(純祖24)에 12권으로 중간(重刊)되었고, 그 후 1937년(丁丑)에 대구에서 그동안 빠진 부분

과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속집(續集) 4권을 17세 후손 두성(斗星)이
에 의하여 간행되었고, 그리고 1993년(癸酉) 7월에 경산대학교 총장
이던 19세 후손 정환(廷煥)에 의해 영인합본(影印合本)과 해제(解
題)를 달아 발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춘정문집 발간사(春亭文集發刊史)

구 분	연대 · 발간지	참여 인물 및 발간내용	업무담당
초간 (初刊) 13권	왕명:1442년 (세종24 壬戌) 밀양, 관부	문하생 : 정척(鄭陟:1390-1475) 수문전 대제학(修文殿大提學) ※후에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수집, 편집 행장(行狀)
		문하생 : 권맹손(權孟孫:1390-1456) 경상감사(慶尙監司) 재임중-- ※후(1450(세종32) 이조판서(吏曹判書), 중추원사(中樞院使)	기획, 간행 목판(木板)
		유의손(柳義孫) 집현전 직제학 (集賢殿直提學) -- 김서진(金瑞陳) 저작랑(著作郎)-	교열(校閱)
		권제(權躋:1387-1445). 문장가(文章家) 우찬성(右贊成) ※ 권근의 아들	서문(序文)
		안지(安止:1377-1464) 예문관대제학 (藝文館大提學). 영중추원사(領中樞院使) ※여서(女婿)→춘정공 생질(外甥)	발문(跋文)
중간 (重刊) 12권	1824년(純祖 24년 甲申) 거창(병암서원)	병암서원(屏巖書院) 유림(儒林)이 주동이 되어 간행 김시찬(金是瓚) ----- 심상규(沈象奎) -----	교정, 식문 重刊序
속간 (續刊) 4권	1937년(丁丑) 대구	변두성(卞斗星:춘정공 卞九世孫) ※원집에서 빠진 유고(遺稿) 및 기타 관 련 문적(文蹟)에서 가려 뽑아 편집	속집(續集) 간행
합본 影印 單行本	1993년(癸酉) 대구	변정환(卞廷煥:춘정공 卞七世孫) - (慶山大學교(校)總長) -國學研究所- 解題: 崔根德(성균관대학교 교수)-	刊行辭 解說 추가

◇초간(初刊) 때 참여인물은 춘정선생과 정사(政事)를 함께 한 인물이었고, 중
간(重刊) 때는 원집(原集)이 380여 년 동안 오랜 기간에 훼손(毀損)되어 12
권으로 압축되었다.

◆ 문집 권별 내용(文集卷別內容)

◇ 춘정선생 문집(文集)에는 540여 수(首)의 시문(詩文)과 다수의 악장(樂章)이 포함되어 있으며, 초간(初刊) 완질(完帙:13권)은 전하지 않고 그 일부와 중간본(重刊本:12권), 속집(續集:4권)이 전해 오고 있다.

· 중간본(重刊本) : 규장각(奎章閣)에 소장.

· 속집(續集) : 국립도서관에 소장.

※ 권별 항목 : 부록 : 문집목록표 참조

권별(卷別)	내용(內容)	권별(卷別)	내용(內容)
卷1 - 卷4	사(辭), 시문(詩文)	卷11	책문(冊文), 제(祭) 축문(祝文)
卷5	기(記), 서(序) ※ 기록문, 명문(銘文)	卷12	비지(碑誌), 명(銘:빛들글) 발문(跋文:後序)
卷6 - 卷7	봉사(奉事), 상서(上書) ※ 상소문	續集 卷1	악장(樂章:노래글), 시(詩), 기타 기문(記文)
卷8	대책(對策)책문(策問) 교서(敎書) 시문(試問)	" 卷2	년보(年譜), 기문(記文) 유묵(遺墨)
卷9	표(表), 전(箋) ※ 길흉사(吉凶事) 때 왕에게 올리는 四, 六체의 글(書狀)	" 卷3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卷10	청사(靑詞) ※ 도가(道家)에서 제사에 쓰는 文體, 또는 文章. 천동지(靑藤紙)에 붉은 글씨로 씀.	" 卷4	세종실록(世宗實錄) 인조실록(仁祖實錄) 속집식(續集識)

2. 춘정선생 관향(貫鄉:출생지) 유적(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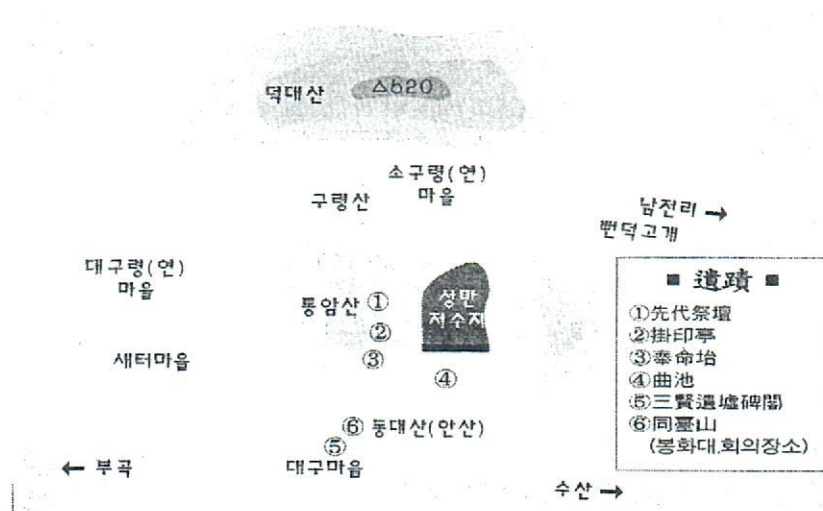
춘정선생의 육세조(六世祖:휘 고적(諱 高迪))는 초계변씨(草溪卞氏)의 시조공(始祖公:諱 庭實, 諡 文烈)의 현손(玄孫)으로서 1140년 경부터 이곳 구령리(龜齡里)에 전거(奠居)하면서 밀양변씨(密陽卞氏)로 관향(貫鄉)을 분적(分籍)하고 15세기 중엽까지 대대로 살면서 많은 유적(遺蹟)들을 남겼으나, 그 후 후손들의 산거(散居)로 이 땅에는 430여 년간의 긴 공백으로 유적들은 훼손(毀撤)되었다.

그러나 경남 거창, 경기 부천, 경북 청도지방의 후손들이 1930년대에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살면서 점차 관향에 대한 선대(先代)의 묘소 찾기 등 관심도가 높았으나, 당시의 교통의 불편 및 여건의 불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중 청도 후손들의 주동으로 유허비각(遺墟碑閣)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었으나, 뜻있는 후손들의 노력은 계속되어 드디어 1999년 12월 14일에 대구(대명2동 일송정식당)에서 밀양변씨대종회(密陽卞氏大宗會)를 결성하고 체계있는 위선(爲先) 사업 계획의 수립과 유적 복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구령리 전경>

◆ 구령리 유적위치(遺跡位置)



※ 구령리(龜齡里)는 1140년(고려 인종)경 밀양변씨(密陽卞氏) 위관시조(爲貫始祖) 변고적(卞高迪)께서 이곳 구령리에 전거(轉居)하면서 六, 七世孫 삼부자(三父子)의 명현(名賢)이 탄생하여 사대부가(士大夫家)를 이룬 곳이다.

▼ 지형의 설명 및 구령리(龜齡里)의 유래

구령리(龜齡里)는 밀양관부(密陽官府)에서 서쪽 삼십리에 위치한 곳으로 북으로 덕대산(德大山:660△ 德城山)이 병풍처럼 둘러 가려있고 서쪽 기슭이 남으로 내려 조그만한 구령산과 통암산(桶岩山)으로 이어지고 다시 건너 대구말동(大龜末洞) 옆 동대산(同臺山:대구말안산)에 이어져 아늑한 골을 이루며 산재한 산들이 거북의 형세, 즉 구령산이 거북의 머리, 통암산이 거북의 등, 동대산이 거북의 꼬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14세기 전후 사대부 명가(士大夫名家)인 변씨문(卞氏門)이 거주할 때 부쳐진 이름으로 전해 오고 있다.

▼ 덕대산(德大山:德城山 660m)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육로(陸路), 수로(水路)의 요충지인 옛 수산현(水山縣)의 진산(鎭山)이다. 신라(新羅) 때 덕여(德女)가 왜구(倭寇)를 방어하던 곳이라 하여 불려진 이름으로 산꼭대기에 분지형의 능선 따라 석축(石築)이 둘레 약 2km, 폭 1.8m, 높이 3m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도 북동쪽에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산 정상에는 수산진(水山津) 나루터, 하남 초동 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축성은 3-4 세기경으로 추정되며 왜구의 방어와 가야제국의 정벌을 위한 낙동강 좌안(左岸)의 요새(要塞)로 활용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기우처(祈雨處)가 되어 근대까지도 가뭄에 비를 비는 풍습이 전래되고 있으며, 또 성내에는 큰 흙무덤이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처녀무덤’ 이라고 불리는데 음력 팔월 보름날에 벌초와 성묘를 하면 노총각이 장가든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소구령(小龜齡), 소구연(小龜淵)

덕대산 아래 펼쳐진 아늑한 골에 위치하여 옛 이름은 마을의 형세가 거북을 닮았다고 하여 구령리(龜齡里)라 불리었고 고려 중기(1140년경)에 밀양변씨(密陽卞氏)의 최초 세거지였고 또 판서(判書) 변옥난(卞玉蘭), 좌승지(左丞旨) 변중량(卞仲良), 대제학(大提學) 변계량(卞季良)의 삼부자(三父子)가 출생한 곳으로 사환(仕宦:벼슬살이) 중에 고향집을 왕래하며 서식(棲息:거주)한 유적(遺蹟)이 많이 전해 오고 있다. 또 이 마을은 구령동안(龜齡洞案)의 발상지였고 조선 후기에 밀성박씨 일파가 입촌하고 있다.

※구령리를 일명 소구연(小龜淵)이라 불린 연원은 현존하는 성만 저수지의 전신은 그 뚝 밑에 지형 상으로

봐서 연못으로 표기된 곡지(曲池)로서 춘정선생께서
인접에 자리한 괘인정(掛印亭)과 함께 유명 인사와 어
울러 유상곡수(流觴曲水:구불어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움)의
연회(宴會)를 즐겼음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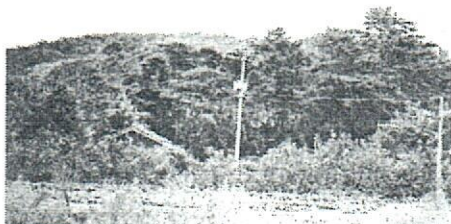
<密州勝覽>

▼ 통암산(桶岩山), 통바우(桶岩)

구령산(龜齡山) 능선을 남으로 이어내려 우뚝 솟은 산으로
그 서편에 대구령동이 있고 남쪽 산기슭에 통바우(桶岩)라 불
리는 큰 바위가 현존하고 있어 불려진 이름으로 고려 인종
(仁宗:1123-1146)의 태봉(胎封:아이의 태 무덤)과 춘정선생의 봉명
대(奉命台), 괘인정(掛印亭), 곡지(曲池) 등의 자취도 전해 오
고 있다.

▼ 대구말(大龜末), 동대산(同臺山:대구말안산)

대구말(大龜末)은 거북
의 꼬리 부분에 해당된다
고 하여 붙인 지명으로
인접 동쪽 동대산(同臺
山:대구말안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 동대산은 속칭
대구말 안쪽 산이라 하여
안산이라고도 '하고 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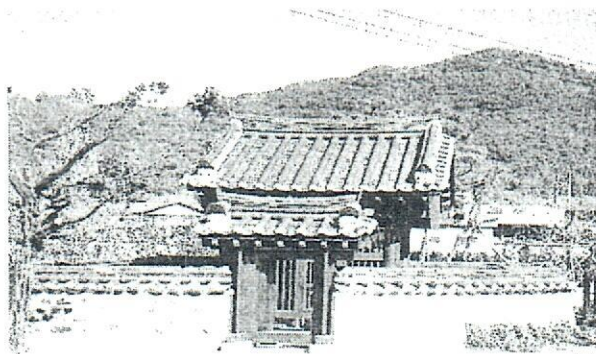
<동대산>

선생께서 유능 인사의 교육 및 회의장소로 삼았고 겸하여 영
남 일대의 통신망으로 이용한 봉수대(烽燧臺:봉화불 피우는 둔덕)
가 있어서 동대(同臺)라 했다고 전한다.(밀양삼현유허비각이
위치하고 있음)

▼ 밀양변씨삼현유허비각(密陽卞氏三賢遺墟碑閣)

이 비각은 대구말(현 신호리) 입구, 동대산 기슭에 수산과 부곡간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서공(判書公) 변옥난(卞玉蘭)과 두 아들(중량(仲良), 계량(季良)) 삼부자(三父子)의 유적(遺蹟)을 기리기 위하여 후손들이 세운 유허(遺墟:옛 터전) 비각(碑閣)이다.

※ 비명(碑銘:비석에 새겨진 글)은 부록(遺墟碑銘) 참조.



1937년(정축)에 춘당공 후손 永殷과 춘정공 후손 鍾台, 斗星, 昌夏가 문중 대표로 이 비를 세우다.

※三父子：判書公：(諱 玉蘭 1322-1395)
 春堂公：(＂ 仲良 1345-1398)
 春亭公：(＂ 季良 1369-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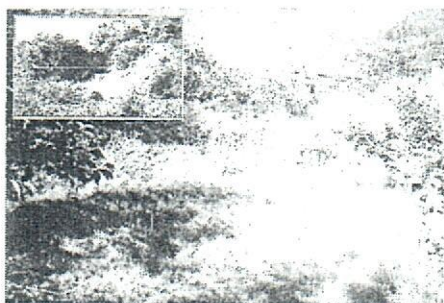
▼ 원문(原文:유허비문) 생략 -

※두 분 선생(춘당, 춘정)의 후손이 항상 그 곳에 거처하지는 못하고 여러 고장으로 흩어져 살게 됨으로서 구령리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서 수백 년 동안 적막하였고 봉명대(奉命台), 패인정(掛印亭)은 아직도 가리켜서 알 수 있는데 사람(士林)이 제사(祭祀)를 받들어 추모(追慕)할 곳이 없고 지나는 사람이 부질없이 산수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탄식할 뿐이니 아! 슬프도다.

<유허비문 말미에서>

▼ 봉명대(奉命台), 패인정(掛印亭), 곡지(曲池)

봉명대(奉命台)는 통암산(桶岩山) 남쪽 기슭에 비교적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인접에는 예부터 '통바위'라 불리는 큰 바위가 현존하고 있으며 그 동쪽에 현존하는 습지가 고 문헌상의 곡지(曲



<습지대(곡지자리)>

池) 자리로 추정됨으로서 인접 패인정(掛印亭)과 함께 변명문가(卞名門家)의 유서(由緒)깊은 유적(遺蹟)으로 전해 오고 있다.<표제사진:봉명대 참조>

▼奉命台曲池卞文肅公季良奉王命必於此台曰奉命…
又鑿池爲流觴曲水故曰曲池，至今遺址尙存…

<密州勝覽 古跡條>

※봉명대, 곡지는 변문숙공(계량)이 왕명이 오면 필히 이 대(台)에서 봉명하고 못에서 뿜려 구불어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운 곡지 등 그 남은 터가 지금도 상존하고 ……., <밀주승람, 고적조>

▼龜爲茂草鞠寥寥幾百載奉命台掛印亭尙可以指認…

<三賢遺墟碑文>

※구령리에는 무성한 잡초만이 수 백년 동안 쓸쓸하였고 봉명대, 패인정은 아직도 가리켜서 알 수 있는데…

<삼현유허비문>

◇밀양 卞씨 삼현(三賢)이 이곳에서 태어난 세거지로서 곡지(曲池)와 패인정(掛印亭)에서 군현(群賢:여러선비)이 모여 시회

(詩會)와 유상곡수(流觴曲水:곡지를 돌이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움)의 낙(樂)을 즐겼으며 동대산(同臺山)에서 유능 인사의 회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다가 나라의 부름이 오면 의관정제(衣冠整齊)하여 봉명대(奉命台)에 나아가 왕명을 받들고 패인정에서 인을 챙겨 상경 길에 올랐다.

▼ 성암리 고분(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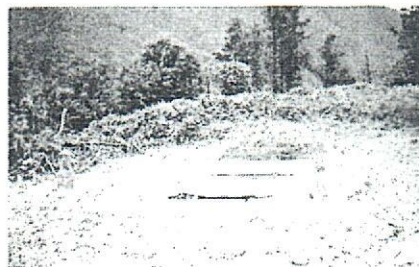
12세기초→13세기 중엽 사이(약150년)에 밀양변씨 선대(先代) 묘로 추정 되는 고분이다. 이 사대부(士大夫)의 함묘(函墓) 고분에서 훼손된 망두석이 성암마을회관 뜰에 보존되었으나 2000년에 도난



당했다. 이 함묘고분(函墓古墳)은 변씨가문(卞氏家門)의 조상묘라고 밀주지(密州誌:밀양지명고(密陽地名攷))에 실려 있으며 연대(年代)나 문헌 정황(文獻情況)으로 보아 춘정선생의 조부(중대광(重大匡:諱 原)의 묘소로 추정되나 비명(碑銘)의 훼손로 복원을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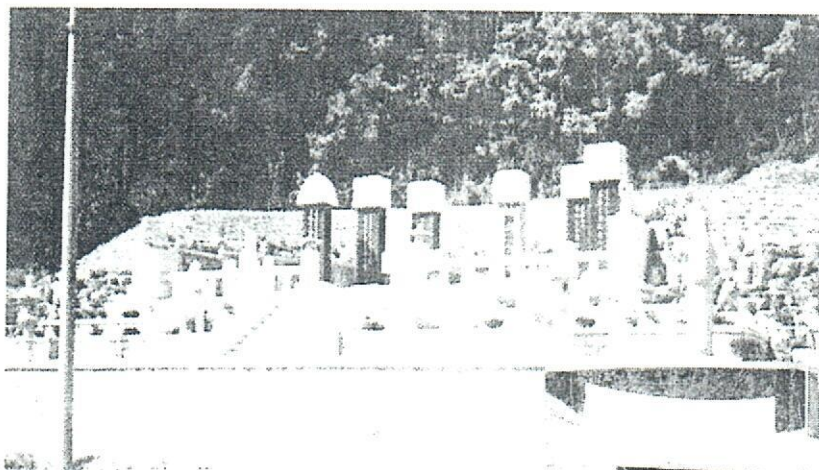
▼ 남전리 함묘고분(函墓古墳)

남전리에 위치한 함묘 고분(函墓古墳)이다. 지석명(誌石銘)은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문헌상의 卞縣監 묘소가 분명하여 문중에서 2001년(庚辰)년에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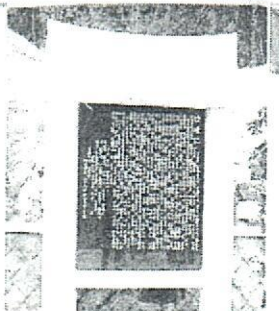
▼ 관향 단소(貫鄉壇所)

※ 始祖公 名幀: 書藝家 如初 金應顯 筆跡
以外名幀, 記文: 二十四世孫 秉永 謹撰書



一世(高迪): 상중앙 ↑
二世(益成): 좌 상
三世(和景): 우 상
四世(珠): 좌중앙
五世(原): 우 하
六世(玉蘭): 좌 하

설단기 →
(設壇記)



◇ 밀양변씨(密陽卞氏) 선대육위(先代六位)의 묘소(墓所)
가 실전(失傳)되어 관향에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세사
(歲祀: 春亨祭(음 3월1일))를 봉행(奉行)하고 있다.

▼ 설단기(設壇記)

이곳은 密陽卞氏의 貫鄉이며 옛적 龜齡里이다. 悠久한 宗史와 勳業에 빛나는 先祖님의 雄志를 받들고자 密陽卞氏先代六位의 壇所를 後孫들의 精誠으로 여기에 모시게 되었다. 爲貫始祖諱高迪公(草溪始祖諱庭實曾孫)께서 1140(高麗仁宗18)년경 이곳 龜齡里에 奠居하신 후 1570(宣祖3)년경 까지 약 四百數十年間 世居하였음은 譜牒文獻을 通해 알 수 있으나 그 後世孫들은 各地로 散居하여 空虛한 貫鄉으로 變했고 무릇 四百餘年 동안 先代의 重厚한 史蹟들은 滅失되었다. 그러나 지

금까지 密州勝覽, 密陽地名攷 등 古文獻과 지역민의 口傳에 의해 密陽卞氏의 遺跡이 確然히 舉論되고 있어 近來 數十年 전부터 뜻 있는 後孫들이 遺跡探查를 試圖하여 왔으며 드디어 1999己卯年에 密陽卞氏大宗會를 結成하고 2000(庚辰)年 六月에는 下南邑 南田里에 先祖 函墓를 發見한 후 2001(辛巳)年 六月에 復元하여 史蹟을 探究中에 있다. 그러나 初同面 星岩里 뒷산의 士大夫의 函墓. 그리고 下南邑 明星里 앞산의 函墓 群址가 渾然히 자리하고 있으나 剗剗物의 毀撤로 復元하지 못하여 哀絶한 마음 禁할 길이 없다. 그리하여 後孫된 道理로서 先代의 位壇을 쌓고 肅然히 參拜코자 한다. 六世孫 諱 玉蘭(議政府左贊成), 七世孫 諱 仲良(密直司左丞旨), 諱 季良(大提學, 文衡)의 父子三賢의 幽宅은 京畿道 長端郡 臨江縣 仇和里(以北)에 위치하나 이미 諱 仲良, 季良 兩公 位壇은 陝川 冶爐面 敦平里와 淸道 豐角面 鳳岐里의 後孫 世居地에 모셔졌고 이번에 諱 玉蘭位를 여기에 같이 모시었다.

아! 훌륭하도다. 그 高貴한 遺德이 到處에 배어있는 이곳 原鄉에는 대구마을 三賢遺墟碑閣(慶南文化財27號)과 더불어 桶岩山 앞자락의 奉命埕, 인접한 掛印亭, 星萬貯水池 아래에 위치했던 曲池와 대구마을 남쪽의 同臺山 등 많은 遺跡이 傳해 오고 李朝 初期 나라에 세워진 偉勳卓絶의 功은 우리의 民族史에 큰 빛이 되었다.

이곳을 찾는 後裔들이여!

뿌리의 源泉이 솟아나는 거룩한 崇祖의 이 殿堂에 이르면 龜鑑의 崇高한 倫紀가 恒常 子孫 萬代로 영원히 이어가리라.

西紀 2001(辛巳)年 10月 日

密陽卞氏大宗會 初代會長

二十六世孫(玄松) 亨植

3. 춘정선생 배향(配享)

가. 최초 배향(配享) : 병암서원(屏巖書院:거창 가조)

(춘당공 후손 세거지, 경남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춘당공(春堂公) 후손 세거지인 이곳 거창군 일원의 변문(卍門) 후손들이 가조면을 중심으로 주축이 되어 창건된 병암서원(屏巖書院:가조면 병산리)은 당대(當代) 유림(儒林)의 위세(威勢)가 30여간(餘間)의 강당을 운영할 정도의 규모로 매우 컸다. 당시의 어려운 여건에서 서집(書集)발간을 위한 준비된 책판(冊板)이 오늘날 문화재로 지정되어 남아있으며 서원(書院) 경내의 사당(祠堂)에는 춘당공(春堂公), 춘정공(春亭公) 형제 분과 춘당공 후손 구산공(龜山公)의 삼위(三位)가 배향(配享) 되어 있었다.

▼ 병암서원(屏巖書院) 사적(事蹟)

1707년(肅宗33 丁亥): 陽川에서 創建

1767년(英祖43 丁亥): 屏山으로 移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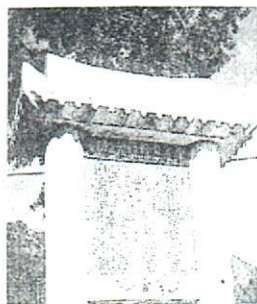
1768년(英祖44 戊子): 春堂, 春亭, 龜山 三公位 配享

※ 祠堂 앞 양쪽 三十餘間 講堂建立

1825년(純祖25 乙酉): 春亭文集 重刊

1871년(高宗8 辛未): 書院撤廢令에 의거 毀撤

※ 장서각(藏書閣) 현위치로 이전



<屏巖書院 遺址碑>
1997년(丁丑)에 건립

▼ 춘정선생 봉안문(奉安文:屏巖書院) 安東後人金鍊行 敬撰

麗季文章國初提學黼黻皇猷筆鏤盛德
丕聞教化始燦文物凡在後學俾及遺澤

※여말(麗末)의 문장이요 국초(國初)에 제학(提學)이니 왕도(王道)를 빛내시고 성덕(盛德)을 보필했다. 교화(敎化)를 선양하여 문물(文物) 처음 찬란터니 무릇 후세 학자에게 유택(遺澤)이 전해졌다.

▼ 상향축문(常享祝文:屏巖書院) : 崇祿大夫判東寧府事李敏輔撰

棣萼材望笙鏞文章經邦贊化肇煥東方

※형제 모두 재망(材望) 떨쳐 아름다운 문장이니 나라 경영 교화 찬조(贊助) 실로 동방 빛냈다네.

▼ 장서각(藏書閣)

(경남문화재 169호)

1764년(英祖40.甲申) : 創建

1871년(高宗8. 辛未) : 移建

1986년(丙寅) : 현위치 重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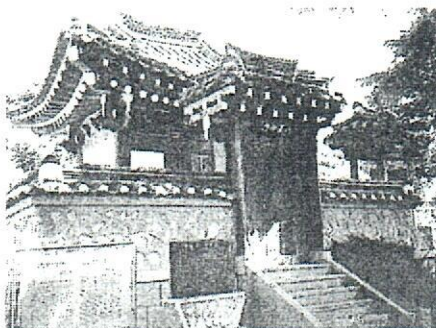
※ 所藏冊版

春堂文集 : 19 板

春亭文集 : 160 板

龜山集 : 19 板

계 198 板



나. 현 배향지(配享地) 봉양서원(鳳陽書院:청도군 풍각)

봉양서원이 위치한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는 춘정선생의 五世孫 구암(龜岩:諱 寶, 太學進士)공께서 1570년(宣祖3)경 밀양 구령리에서 이곳 옛 이름 풍산현 동곡(豐山縣 桐谷:봉기리)으로 이거한 곳이다.



<풍각면 봉기리 전경>



鳳陽書院

위쪽부터

1. 사당 (崇賢祠)
영정(影幀: 春堂, 春亭公)봉안(奉安)
2. 경지문(景止門)
3. 본제(本齋)
4. 동재(東齋)
5. 서재(西齋: 釜鳳齋)

※세사(歲祀): 매년 음력 3월 15일(儒林에서 享祀)

▼ 연혁: 鳳陽書院

- 1905년(乙巳): 創建(鳳陽書堂):봉양서당으로 창건
- 1935년(乙亥): 春亭公祭壇設置:춘정공 제단 설치
- 1938년(戊寅): 重建(鳳陽書院) 兩位(春堂, 春亭)奉安
중건 (봉양서원) 양위 (춘당, 춘정) 봉안
- 1953년(癸巳): 崇賢祠創建:송현사당 창건
- 1997년(丁丑): 西齋重建:서쪽 제실 중건
- 1998년(戊寅): 兩位影幀奉安:양위 영정 봉안
- 2000년(庚辰): 서원경내(書院境內) 춘정선생 송모비(崇慕碑) 건립(建立)

▽ 봉양서원기(鳳陽書院記)

春亭先生卞文肅公之後孫世居清道之鳳岐村今且垂五百年矣先生之墓舊在臨江縣仇和里而經亂失傳故在今三十年前就其所居村西數弓間釜谷防爲壇以薦歲事隨立齋舍其前而扁曰鳳陽書堂以其在鳳飛山之下故云旣而士林聞者而爲先生之於吾邦自爲景慕公尊之賢凡厥有事不可任諸本孫而私之相與移走會集以共禮事文物如是積幾年復以爲先生曾已入享于居昌之屏巖書院而其仲氏春堂先生同與奉安中撤而墟矣今此堂旣爲先生而作則亦可因是以復書院之制遂命本孫更建廟宇于堂之後側而并奉春堂春亭兄弟先生一如屏巖舊例定以春秋享祀亦依昔時儀節則書堂之號自可陞爲書院而不異矣議旣定役旣完士林復謂其不可無記事之文走後孫鍾建秀克秀弘遠來責余以承乏竊惟兩先生堂金火替禪之際一則爲前朝効節一則爲後朝登庸其事有似相反而其隨所處而求必無慊於義則一也何者春堂之於麗朝位至密直納言之秩其生死固當與國同其休戚無疑春亭則通籍未幾年名不登於朝班而革命之事決於內禪自無可死之地與必死之義至其受知○新主歷數華顯掌文衡修禮制五百年休明之治實有賴焉是乃天之所命而非人之所得爲也詩讀春堂公在謫憶第詩可以見其相期而不以相反也明矣今且以鳳陽之號言之同一鳳也而有或縹縹高逝有或覽德而下其覽德而下集於朝陽之梧桐以呈文明之詳固其德之盛也其縹縹而逝或不幸而遇枳棘鳳之爲鳳固自若也又何必以其所值而軒輊其間哉以是而爲先生論抑亦無不可乎余旣不能辭是請則謹書所感如此以聽于尙論之

謂如何云.(歲青蛇股仲節聞韶金槐記 瑞典金熙淵書)

※ 봉양서원 기록문

춘정선생 변문숙공의 후손 세거지인 청도의 봉기촌은 지금부터 500년이 되었으나 선생의 묘가 옛 임강현 구화리에 있었으나 난리를 겪고 실전된 고로 30년전 세거촌에서 서쪽 얼마 안되는 부곡골에 세사를 모시고 제실을 함께 세웠는데, 그 전에 봉비산 밑에 작은 봉양서당이 있었던 고로 이미 사림에서 이름나고 우리 나라에서 높이 받들어 우러러 사모하는 현인이고, 본손이 상오 의논하여 와서 맡기기에, 무릇 그 일은 모든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한가지 이것은 예에 관한 일이라 마지못하고 문물을 찾으니 이러하였다.

선생은 여러 해(1768-1871) 동안 복부초혼(復部招魂)되어 일찍이 거창의 병암서원에 입향(入享)하여 중형 춘당 선생과 함께 봉안 중 훼손(毀撤: 1871 고종8)되어 공허하던 중 이에 이미 선생을 위해 만들어진 서당을 본손들이 결의하여 다시 세워 서원으로 중건하고 사당의 뒤 측에 나란히 춘당, 춘정 형제 선생을 하나같이 옛 병암서원 전례대로 봄가을 제사를 올려 옛날의 의절을 따랐다. 공사가 완료되고 의논이 정해져 서당의 이름을 서원으로 승격시켰는데 사림에서 다시 이르기를 기록문이 없어 아니 되기에 후손 종건, 수극, 수홍이 멀리서 와서 나에게 책임을 지우니 이를 할 수 없이 잇기로 하였다.

가만히 생각컨데 양 선생 집은 금화와 같은 서로 대신 못할 때 즈음하여 한쪽은 전조(前朝: 고려)의 절의를 지켰고 한쪽은 후조(後朝: 이조)에 등용되었으니 그 사유는 상반하여 가는 곳마다 곧 이에 전답치 못하였다. 누가 춘당 선생의 고려조 밀직사 낭언(納言: 비서)의 벼슬에 있으면서 생사의 확고한 당위성은 나라와 더불어 안락과 환난의 의문을 몰랐으리오. 춘정선생도 곧 수년동안 혁명(왕조교체)의 결단 반열에 못 끼워 벼슬에 오르지 못하다가 무혈성공으로 죽음을 각오한 의(義)의 깨달음에 새

로운 밝은 주역으로 등장하여 문형을 장악하고 500년 밝은 통치의 의례제도(儀禮制度)를 만든 것은 진실로 신화를 얻었으니 이는 하늘의 소명으로 사람에게 의한 소득이 아니리라. 시(詩)를 읽으면 춘당공 귀양살이 때 억제(億弟:동생을 그리며)시를 볼 수 있는데 그 때 상반함이 아닌 두터운 정을 베풀었다. 그 밝음이 지금의 봉양서원의 이름은 봉새와 동일한 말이다. 이에 옥색 높게 펼 펼한 그 덕행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니 그 아래 아침 햇빛이 모인 오동골에 펼쳐진 문명의 고루한 상스러운 덕이 번성하리라. 그 펼쳐지는 표표함은 탕자나무 가시를 만나는 불행에도 태연자약한 봉새이다. 또 하필 그 곳이 가지는 우열의 곡절을 들으니 비로소 이것은 선생의 인격과 논거가 가하지 아니함이 없도다. 나는 이미 글이 능하지 못하여 이에 청하건데 삼가 쓴 글의 소감이 이러하니 듣건데 옛 어른들의 언론과 인격을 논함으로 이르게 함이 어찌리오.

청사은, 중절, 문소 김황 찬, 서흥 김희연 쓰다.

◇ 춘당(春堂:諱 仲良)선생은 동생인 춘정(春亭:諱 季良)과 우애를 나누며 유시(遺詩)를 남겼다.

億弟

동생을 그리워하며.

海郡驚時變無端涕在衫 : 해변고을 변난 생겨 놀랍더니
무단히 눈물 옷깃 적신다.

江雲白勝雪春水碧於藍 : 강은 눈빛보다 더 희고 춘수는
남빛보다 푸르구나.

歸夢宣堂北孤踪竹嶺南 : 귀향 꿈은 선당 북쪽 아른대
고 외로운 발자취 죽령 남쪽
해맨다

監丞安穩未相億正難堪 : 감승 벼슬 편치 않으니 실로
참기 어렵구나.

※선당(宣堂) : 어머니가 거처하는 곳

죽령(竹嶺) : 서울에 이르는 국도(國道)

감승(監丞) : 고려말 성균관 전신인 국자감(國子監)의
벼슬로 대유학자임을 알 수 있다.

▼ 춘정선생 제단(祭壇)

- 위치 : 봉양서원 동측
(釜谷嶺)
- 1935년(乙亥) 건립
- 2003년(癸未) 8 重建
- 歲記 : 매년 음.十月十
日 (入鄉祖 및
先代 동일 奉行)



<부곡동(釜谷嶺:가마실) 등곡(桐谷)>

△부곡제단상향문(釜谷祭壇常享文)-成者惠

儒苑重望華國鉅手闢我後學
厥澤孔厚瞻省封壇感慕采新

※유림에 쌓인 덕망 우리 나라 대학자로서 문하창유(門下窓牖)에 가르친 후학들은 그 은혜가 두텁게 통하고 제단에 살피 우리러보니 느껴지는 감모가 새롭게 깊으도다.

△부곡제단비음기(釜谷祭壇碑陰記)

釜谷祭壇碑陰記 : 成者惠

藏在臨江縣仇和里先兆側負良阡而兵燹屢禍子姓漂泊不幸失其處春露春霜香火靡及茹痛飲恨厥惟久矣相與謀立一壇以奉先生祀而不但臨江地遠仇和之里亦莫能的指以其近而易於經紀遂就鰲山之釜谷既壇而合享先

生及夫人權氏朴氏又碑以表之俾耆憲書于陰辭終不獲夫爲壇之祭寔出權宜我東士大夫多遵以幸而論者以地非仇和疑之然竊嘗聞人之精靈如水於地無處不枉焉則惟誠所寓輒隨應之固不可以山川限之況此釜谷一區累累連壟以先生視之是兒孫成列神理人情本不相遠其必左右從侍出入扶持安知先生之故判右軍都摠制府事文肅公春亭卞先生衣之不悅豫于茲雲車風馬徊徨眷顧肯歆苾芬於無窮也歟嗚乎憾矣先生諱季良字巨卿密陽人也皇考曰玉蘭判中樞院事贈右贊成夫人權氏籍安東府使總女朴氏籍密陽都節制使彥忠女先生生于高麗恭愍己酉歿于我○獻陵庚戌遊鄭圃隱李牧隱及權陽邨之門早擢第位望通顯嘗以藝文集賢大提學專掌詞命二十餘載若其履歷之詳國有乘家有牒茲不敢贅。

※부곡 제단 비석 뒷면 기록문 : 성기덕

관우군 도총제부사 문숙공 변 선생의 묘는 경기도 임강현 구화리 선영 측방 간좌(艮坐)에 있는데 전쟁과 환난 홍망에 잠기어 그곳이 불행히 실전되어 분향을 못하여 슬프고 한이 되어 오래도록 그리한데 서로 의논하여 단을 모아 선생의 제사를 받들고 비단 임강현 구화리는 멀어서 대저 못하고 그 가까이 근처 쉽게 경륜하여 오산의 부곡단에 선생과 부인 권씨, 박씨와 같이 합향하고 또 비석의 표시는 성기덕의 글로 마무리 했는데 보듬히 단에 제사를 모시게 되니 임시편의의 우리 동방 사대부들이 많이 따르는 관행인데 구화리는 아니더라도 연유로 가만히 생각컨대 듣는 이의 정령은 물과 같아 굽히지 않는 곳이 없고 오직 성스러운 이곳은 참으로 잘 이루어져 산천의 한은 아니된다. 이 부곡 일대는 누누의 후손 무덤을 선생이 바라보고 문득 신성한 이치인 바 인정은 본

래 상원하지 아니하여 서로 모시고 돕고 편안함을 아니
선생은 회열치 아니하고 여기에서 차 타고, 말 타고 회
황하여 기꺼이 음향하고 그 향기가 무궁하도다.

아! 슬퍼다. 자 거경, 밀양인 휘 계량선생이시여, 부친
은 옥난이며, 판 중추원사 증 우찬성이고, 부인은 안동부
사의 딸 권씨와 밀양도절제사 은충여의 박씨이고, 선생
은 고려 공민왕 기유(己酉:1369)에 태어나고 경술(庚戌:
1430)에 돌아가시고, 정포은(鄭圃隱:경몽주), 이목은(李牧隱:
이승인), 권양촌(權陽村:권근)의 문하에서 배워 급제하고 지
위와 명망이 높았고 예문 집현 대제학과 모든 사명을 장
악한지 20여년의 그 이력의 상세함은 나라(실록), 가첩
(족보)에 많은데 이에 감히 붙이지 못할 지어다.

◆ 영정봉안(影幀奉安:春堂公, 春亭公)

춘당공 후손 거창 종중과 춘정공 후손 청도 종중은 상호
협의하여 거룩한 중시조(中始祖)의 음덕(陰德)을 기리고 오랜
역사에 빛나는 양 문중의 화합과 승조정신을 함양하기 위하
여 후손들의 구심탑(求心塔)인 봉양서원 숭현사(崇賢祠)에 배
향(配享)된 춘당, 춘정 양공위(兩公位)의 위패(位牌) 배후(背
後)에 존엄(尊嚴)한 형제분의 영정(影幀)을 모시었다.

▼ 영정봉안(影幀奉安) 취지문(趣旨文)

우리 변문(卞門)은 신라시대 원조(元祖:諱 源):743, 景德2 癸
未)로부터 240여 년, 시조공(諱 庭實 985 乙酉)으로부터 1010
여 년, 합하여 1250여 년의 종사가 이어져 왔다. 이 기간 중
에 희성(稀誠)의 소 문중으로서는 드물게 학문과 벼슬이 번창
했던 시기는 13세기 중엽부터 15세기 초 까지 약 150 년간이
었다. 이 때는 시조공의 8세손부터 12세손의 선대들이 세거

(世居)하던 기간이었고 특히 10세손의 대약진으로 사대부(士大夫)의 명성을 널리 떨쳤는데 이는 역사상 고려 말엽부터 이조 초기의 시대이다.

시조공 9세손에서 두 현조(顯祖: 南龍, 玉蘭)를 비롯 10세손에서 열 한 분의 문과급제 인물을 배출한 화려한 변문(卞門)이었으나 왕조교체 격변기의 운신의 제약으로 업적이 묻혀져 찾을 길 없고 오늘날 후손들은 안타까울 뿐이다.

춘당(春堂), 춘정(春亭)공은 밀양고을에서 배출된 우뚝한 형제의 대학자 분으로서 춘당공은 충절과 의(義)를 바탕 한 정몽주 선생과 운명을 같이하여 후세에 이르러 사학과(私學派) 학맥의 원류가 되었고, 춘정공은 성리학의 기초를 튼튼히 닦으시며 관학의 확충과 인재양성에 공헌하시고 그 높은 학문과 문장은 당대의 제1인으로서 나라의 대소사명(大小辭命)과 외교문서는 물론 화산별곡(華山別曲)등을 지어 경기체가(景幾體歌)의 시초를 열었으며 20여 년의 문형(文衡)의 자리에서 이룩한 큰 업적은 조선왕조민족사에 기리 빛이 되었다.

그러나 후대의 변문(卞門) 세손들은 왕자난(王子亂), 사화(士禍) 등 선조들의 희생을 보면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면서도 벼슬의 사양과 초야의 은거(隱居)로서 후세교육과 자신의 인격도야에 전념하였으며 아침할 줄 모르고 결백한 신념과 고집으로 굳어져 갔다. 고전소설(古典小說) 춘향전에 호탕(豪宕)하지만 장엄한 강성관료의 큰 보수기질을 방만하게 표현하고 변성(卞姓)으로 귀착시킨 당대의 문학자도 지성의 시야에서 관찰한 이러한 변씨(卞氏) 특성을 찬미한 것이므로 별로 싫지 않다.

오늘날 우리들은 조상의 음덕(蔭德)을 기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함이 조상을 빛내는 도리인가를 성찰하고 나의 발전은 물론 후대의 피어나는 새싹들을 큰 재목으로 키울 몫은 바로 후손 된 우리의 책임임을 깊이 깨달아야 하리라.

이곳 명당(名堂) 가마실 아련한 종문장도(宗門壯途)가
다소곳이 열려있는 오동골

우리 후손들은 뿌리의 원류(源流)를 찾아
비슬영산(毘瑟靈山)의 정기(精氣)가
봉양(鳳陽)에 잠겨있는 부곡등(釜谷嶺) 숭현사에
겸허히 두 현조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혈연천재(血緣千載)의 윤기(倫紀)를 한데 모아
자손만대로 이어갈 구심탐으로 쌓아 올리고
크나큰 공덕의 귀감(龜鑑)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戊寅 暮春(1998. 음3월)

春亭公 十七世孫 秉永 謹識

▼ 영정봉안(影幀奉安) 사업 추진 일지

- 1997년. 음 3월 15일 : 춘향제(春享祭)시 발의
1998년. 1월 31일 : 양 문중 합동회의(추진위원회 구성).
1998년. 2월 17일 : 영정제작(影幀製作) 계약체결, 영상표현의 학
술적 검토 (문집, 기타 문헌)
1998년. 3월 6일 : 영정 봉안 의식절차협의 (告由祭)
1998년. 3월 31일 : 영정제작 최종 점검 (畫室)
1998년. 4월 10일 : 영정봉안 고유제(告由祭) 봉행

▼ 영정봉안 고유문(影幀奉安 告由文)

密陽의 큰 고을 西쪽 三十里, 龜齡里에 密陽卞氏 兄弟의 두
學者 분이 우뚝하였으니 일컬어 春堂, 春亭公의 두 顯祖이다.
春堂公은 圃隱 鄭夢周 門下에서 受學하시고 陶隱 李崇仁,
陽村 權近과 講論하시니 高邁한 學問의 淵源이 명확하고 義

理가 뚜렷하여 社稷守護의 목숨 건 漏洩로서 그 높은 忠節이 當世 함께 빛나시다.

春亭公은 麗末의 文章이요 國初의 文衡이니 盛德을 보필하고 教化를 宣揚하여 무릇 官學 學脈의 巨峰을 이루시고 文物이 燦爛하니 後世의 學者에게 遺澤이 傳해졌고 朝鮮王朝 民族史에 기리 빛이 되셨다.

이제 우리 後孫들은 그림던 影像을 모시고 크나 큰 蔭德을 쌓고져 이에 享祀를 올려 精誠을 드리오니 祠堂 안에 임의 影幀 坐定하시와 길이길이 후손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1998(戊寅)년 (음) 3 월 14일 午時

鳳陽書院 崇賢祠 春亭公 十七世孫 秉永 謹識

◆ 춘정선생 숭모비(崇慕碑)

춘정선생이 배향된 봉양서원 경내 숭현사(崇賢祠) 입구 계단 앞에 세워진 숭모비는 묘소를 배경으로 한 신도비(神道碑)는 아니겠으나 이북 외지(外地:장단군 임강현 구화리)에서 전할 뿐 그런 대로 이곳 숭모비는 서원 경내를 중후(重厚)하게 분위기를 일구어 숭고한 조상의 얼을 담고 있다.

▼ 崇慕碑 除幕式 告由文(신명에게 고하는 글)

文肅公 春亭先生 十六代祖 할아버지---

570년이 흐르는 지금 나라에 거룩한 業績을 이 땅에 남기시고 1430년(世宗12 庚戌) 四月 二十三日에 우리 후손들을 오늘에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朝廷의 士大夫 葬禮節次에 따라 그 해 六月 葬禮에는 세종대왕과 세자가 祭文과 賻儀棺, 그리고 賻儀 米豆 三十石을 내리시고 臨江縣 仇和里 先塋側

艮坐之原에 고히 잠드셨으나
오늘날 우리 후손들은 永眠處
에 配享을 못하고 확인할 수
없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1935년 乙亥에 文肅公
春亭先生 祭壇을 이곳 釜谷嶺
에 모시었고 그 이전 1768년(英
祖44) 戊子年에 거창 屏巖書院



<2000년(庚辰) 建立>

에 春堂, 春亭, 龜山, 三公位가 配享되어 왔으나 아깝게도
1871년(高宗8 辛未年)에 서원 撤廢令에 의해 훼손된 후 空虛
하던 차에 1938년(戊寅)에 鳳陽書院을 중건하면서 春堂, 春亭,
兩公位를 배향하였고, 1998년 戊寅에 崇賢祠의 位牌 背後에
그립던 양공위의 影幀을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업적을 담은
儀物의 石碑를 아쉬워하던 중 오늘 이제 후손들의 精誠을 한
데 모아 우리 나라 최초가 되신 20여 년의 典型 文衡의 업적
에서 만 백성이 추앙하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터전을 이
룩한 集賢殿을 1420년(世宗2 庚子)에 왕에 건의하여 할아버지
께서 열어시고 인재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外交
詞命은 勿論 性理學의 기초 위에 나라의 儀禮制定과 高麗史
修撰 및 歷代 王朝實錄의 編纂에 참여하시고 成均館 및 지방
鄉校의 확충으로 官學 學脈의 巨峰을 이루시고 禮曹判書, 世
子貳師, 都統制府事를 더하여 많은 功勳을 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1442년(世宗24 壬戌)에 왕명으로 文集이 初刊되었
고 그 후 1824년(純祖24 甲申)에 密陽卞氏 居昌 屏巖書院에서
540餘首의 詩文과 樂章이 포함된 原集 12卷이 重刊되었고 그
후 1937년 丁丑年에 대구에서 후손 斗星 등이 文集에서 빠진
작품을 왕조실록과 기타 文獻에서 자료를 뽑아 年譜 등 續集
4卷이 刊行되어 오늘날 寶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하창유(門下窓牖)에도 기리 그 높은 학문을 받들고 있으니 차마 가려 분간하기 어려운 크나 큰 업적들이 千秋에 빛이 되어 이곳 鳳陽에 머무시고 우리 후손들의 오랜 한을 仇和里의 神道の 銘은 아닐지라도 坐定하신 崇賢祠의 神域의 길목에 功德의 龜鑑을 정성껏 빗돌에 새겨 崇慕의 銘으로 謙虛히 奉모 하오니 길이 길이 후손들을 돌봐 주시고 음향 하옵서.

庚辰年(陰) 三月 十四日 午時:(2000. 4. 18. 12:00)

鳳陽書院 崇慕碑 癸坐

春亭公 十七世孫 秉永 謹識

▼ 숭모비명(崇慕碑銘:비석에 새겨진 글)

선생은 密陽官府 西쪽 三十里(초동, 성만)에서 위로 密陽卞氏檢校公(諱 玉蘭)과 貞敬夫人 昌寧曹氏의 슬하에서 태어나시니 一三六九年(恭愍18) 乙酉였다.

諱는 季良이요, 號는 春亭이며, 字는 巨卿이고, 諡號는 文肅이다. 일찍이 六歲 때 作詩하는 총명과 凡常을 겸하였고, 一三八二年(禔王8) 十四歲때 進士 生員을 거쳐 十七歲 되던 해 一三八五年(禔王11:知貢舉, 鄭夢周)에 文科에 급제하고, 二年 후인 一三八七年(禔王13)에 첫 벼슬 徵仕郎 典校署 主簿로 出仕하였으며, 항상 교육과 文字 撰述의 관계직을 겸하였다.

先生은 王朝 交替 激變期에 運身의 制約은 따랐으나 朝鮮朝 에 들어와 그 높은 學問과 德行이 항상 같이 하였고, 當代의 巨儒들과 交遊하면서 修學한 性理學者요, 陽村 權近과 함께 소위 官閣三傑로 일컬어지는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碩學이며 儒臣이었다.

一四00년대(太宗, 世宗)에 藝文館 大提學과 成均館 大司成을 겸직함으로서 우리 나라 최초의 文衡으로 崇仰 받았으며,

世宗 때는 集賢殿 大提學까지 겸임함으로서 二十餘年 동안 文衡의 자리를 지키면서 事大交隣의 外交文書 및 文翰과 宮中 府中の 大小 辭命의 제작, 高麗史 改修, 太祖, 太宗 實錄 編纂, 科擧試驗의 관장, 祭祀 宴享 등 禮樂 規範의 관장, 集賢殿 설치와 孝行錄의 간행, 대마도의 倭寇 본거지 征伐 건의, 賜暇讀書의 인물 양성제도의 실행 등 새 王朝의 문물 정비를 주도하였고 圓壇祭天論을 제창하여 民族 주체사상을 일깨우며 항상 愛民精神과 청렴결백한 삶을 영위하면서 當代의 宦人, 學者, 文章家, 敎育學者로서 官學 學脈의 거봉을 이루어 泰斗로 숭앙 받았으며 華山別曲 등 歌辭體의 文學은 우리나라 京畿體歌의 시초를 열었다.

先生은 一代를 통하여 一四〇七年(太宗7) 四月 三十九歲 되던 해에 親試(仲月賦試)에서 第一人이 되어 田, 奴, 御碑를 下賜받아 跳躍의 幸을 누렸으며, 一四二六年(世宗8) 五十八歲 되던 해에 崇政大夫에 올라 判右軍都摠制府事 겸 世子貳師를 더 하였고 줄곧 文衡으로 文廟, 箕子陵碑文과 樂天亭記를 撰하여 末年의 글 香氣를 듬뿍 피웠다. 그리고 興德寺 史庫에서 太宗實錄 편찬을 마무리하시다가, 그 해 一四三〇年(世宗12) 四月 二十三日 癸巳에 棄世하시자 士大夫 葬禮 절차에 따라 그 해 六月 長端郡 仇和里 先考의 塋域 良坐에 王의 祭文과 賻儀棺, 世子の 祭文 및 賻儀米斗 三十石을 내려 성대한 儀式 속에 고이 잠드셨다.

그 후 先生의 文集은 王命으로 내려 一四四二年(世宗24)에 密陽에서 初刊되었고 一八二四年(純祖24)에 거창 屏巖書院에서 十二卷으로 重刊되었고, 一九三七年에 대구에서 그 간의 빠진 자료를 모아 續輯 四卷이 간행되어 寶典으로 오늘에 전하고 있다.

그리고 一九三五年 乙亥에 先生의 祭壇을 이곳에 모시었고

一九三七年 丁丑에 貫鄉 龜齡里에 判書公(諱 玉蘭), 春堂公(諱 仲良) 春亭公(諱 季良)의 父子三賢의 遺墟碑가 세워져 오늘날 文化財로 지정되어 남아 있으며, 그 이전 一七六八年(英祖44) 戊子에 거창 屏巖書院에서 春堂公과 함께 配享되어 왔으나 아깝게도 一八七一年(高宗8) 辛未에 書院 철폐령에 의해 毀撤된 후 空虛하던 차에, 一九三八年 戊寅에 鳳陽書院을 重建하면서 春堂, 春亭 양 公位를 配享하였고, 一九九八年 戊寅에 崇賢祠에 양 公位의 그림던 影幀을 모셨다.

門下 儒林에도 기리 그 높은 學問을 받들어 歲祀를 올린 지 어언 六十餘年! 차마 가려 분간하기 어려운 크나 큰 업적들이 六百年 향기로 피어 仇和里 神道の 銘은 아닐지라도 崇慕의 銘으로 여기에 겸허히 奉祀하나이다.

이곳 明堂 가마실.

琵琶 靈山の 精氣가 南脈으로 이어 鳳陽에 감고 도는 崇賢祠 神域 아래 거룩한 卓節 功勳을 빗돌에 정갈히 새겨 千載의 龜鑑으로 바쳐 머리 숙여 崇拜하나니 萬代로 이를 後裔들의 血緣倫紀가 항상 이곳에 머무리라.

2000年(庚辰) 4月 18日(음 3. 14)

春亭公 十七世孫 秉 永 謹撰書

Ⅲ. 춘정선생의 증심 사상(思想)

목 차

1. 한 민족 천 사상(天思想)의 고찰(考察).
 - 고대국가의 천 사상 · 성리학에 비친 천 사상
 - 제천의식 및 천 사상 · 종교적 의미의 천 사상
 - 천사상의 자연관 · 한 민족 천(天)사상 특징
2. 경세사상(經世思想)
 - 주체사상 · 민본(民本) 사상 · 치도론(治道論)
3. 경학사상(經學思想)
 - 이연구성리위무(以研窮性理爲務)
4. 철학사상(哲學思想)
 - 자연인식(自然人識) · 인간 관(人間觀)

◇춘정선생의 문집(文集)에서 사상(思想)의 유추(類推)는 봉사(封事: 임금에게 올리는 밀봉 글), 상서(上書: 상소문), 대책(對策: 책문), 전(箋: 진정, 해명서 등) 등의 글에서 사상적 면모를 엿볼 수 있으며 경세가(經世家)이며 능리(能吏)로서 문장(文章)과 경전(經典)에 형통(亨通)하여 성리학(性理學)적 영향을 받은 천 사상(天思想)과 경세사상(經世思想), 경학사상(經學思想), 철학사상(哲學思想)의 면모(面貌)를 살펴본다.

1. 한민족(韓民族)의 천사상(天思想)의 고찰(考察)

가. 고대 국가의 천사상(天思想)

고대 인간들은 농경시대의 정착과 혈연(血緣)을 바탕으로 한 삶의 유지 상태에서 최초의 문명의식이 깨어나면서 하늘

에 대한 세 가지 의식(意識)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즉,

① 아득히 보이는 하늘(可視的天)

■ 하늘 높은 줄 알고 땅 넓은 줄 모른다.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② 같이 울고 웃는 행동의 하늘(人格的天)

■ 하늘이 무심하다.

■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다.

③ 생각하는 하늘(形而上天)

■ 하늘에 순응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라.

■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늘에 대한 속담으로 이어진 배경에서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었다. 우리 나라의 건국설화(建國說話)에도,

① 하늘에 항인(恒因)이라는 천제(天帝)가 있다.(三國遺事)

② 천제(天帝)는 항웅(恒雄)이라는 서자(庶子)가 있다.

③ 천제(天帝)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뜻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

「庶子恒雄數意天下探求人世父知子意」

④ 천제(天帝)는 홍익인간(弘益人間)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인간 세상에 보낸다.

⑤ 천제(天帝)는 천부인(天符印)을 아들에게 줌으로서 인간을 다스리는 능력을 부여한다.

「下視三危太白可以弘益人間及授天符印三個遺往理之」

- ⑥ 항웅(恒雄)이 무리 삼천명(三千名)을 이끌고 태백산정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와 이곳을 신시(神市)라 이르니 이 이가 항웅천왕이다.

「雄率徒三千降於太白山頂神壇樹
下謂之神市是爲恒雄天王也」

※하늘나라의 주재자(主宰者)인 하느님(天帝)은 널리 인
간을 이익 되게 하려는 덕(德)을 지닌 분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샤머니즘(Shamanism)에서도 즉 원시종교(原始宗教)의 한 형태로 동북아의 여러 종족 사이에 분포되어 온 것으로 우리 만족의 고유사상(固有思想)과 토속신앙(土俗信仰)은 이 샤머니즘을 기조(基調)로 하고 있으며 단군 설화에서 단군은 하느님의 손자이고 항웅(恒雄)과 웅녀(熊女: 땅의 수호신, 여성 신)의 결합으로 낳으시니 천지인합일 사상(天地人合一思想)을 내포하고 있다.

※샤머니즘에서의 천(天)은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관장하고 있는 최고의 성소(聖所)이고 천제(天帝: 하느님, 한울림, 하나님)는 인간을 선(善)으로 이끄는 선신(善神)이다. 그래서 원시보본(原始報本)으로 하늘의 제사를 받들게 되었다.

나. 제천의식(祭天儀式) 및 천사상(天思想)

옛 기록에 보면 우리 만족이 세운 국가에는 예외 없이 하늘에 제사(祭祀)를 드리고 있다. 부여(夫餘)에서는 영고(迎鼓, 고구려(高句麗)에서는 동맹(東盟), 예(濊)에서는 무천(舞天), 마한(馬韓)에서는 시월제(十月祭)라 하였고, 그 이외에도 군사

(軍士)가 있으면 제천(祭天)하고 국가 중대사(重大事)에도 성대한 제천의식(祭天儀式)이 있었다.

고대 단군 설화(檀君說話)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대 국가의 건국신화에 시조(始祖)가 천제(天帝:하늘을 다스리는 제왕)이거나 천제(天帝)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천(天)을 절대적 초월적 실체(實體)로 인식하고 천제(天帝)를 인격화해서 숭앙(崇仰)하며 그의 자손이 나라를 다스리므로 민족 자존을 강조하고 국왕이 제주(祭主)가 된 제천례(祭天禮)는 권위를 인정받는 나라의 큰 잔치의 행사로서 기구(祈求:소원을 기도하고 추구함)를 드림으로서 복을 받고 춤을 추며 즐기로서 전 백성과 뜻을 같이하고 화합(和合)하는 것이었다.

그 후 천(天)에 대한 생각은 외래사조(外來思潮)에 의해 다소 변화되어 유교(儒敎)에서는 도덕적으로 강화되고 불교(佛敎)에서는 내세관(來世觀)과 연결 덧붙여 나갔다.

그리고 천지인합일(天地人合一:하늘(恒因)과 땅(熊女)의 아들 단군(檀君)) 사상을 제시하는 형이상학(形而上學)적 시도는 전통 사상의 오랜 과제로 그 맥락(脈絡)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하늘에 대한 공경은 농경민족의 피할 수 없는 습속(習俗)이지만 그 정신적 배경은 천상(天上)의 연장이 지상의 국가이고 천상(天上)의 천제(天帝)에 의해 인사 백반(人事百般)이 지배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었으며 후세에 이르러서도 제천의식(祭天儀式)에는 예외 없이 풍부한 음식과 노래, 춤으로 천신(天神)을 기쁘게 하고 인간도 즐거움을 함께 하며 제사(祭祀)의 신성성(神聖性)을 고양시키고 민족의 자존과 대 단합(大團合)을 강조하고 있다.

다. 천 사상(天思想)의 자연관(自然觀)

삼재(三災:불길한 운성, 즉, 물, 불, 바람의 재해 또는 병난(兵難), 질병(疾疫), 기근(饑饉))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일식(日食) 월식(月食)과 혜성

으로부터의 변화, 땅에서 일어나는 재변(災變:가뭄 지진 태풍 홍수 화재 등)에 따른 인간의 재앙(災殃:부상, 질병, 아사, 기타)을 다스릴 책임자는 천명(天命: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天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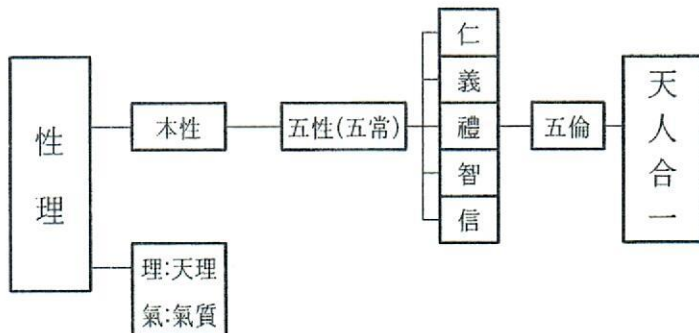
이 사상은 삼국 시대로부터 이조 초기까지 중국과의 사대(事大:큰 나라를 섬김) 관계가 유지되면서부터이고 중국은 천자(天子)국이며 조선은 제후국(諸侯國)으로 인식하며 조선의 왕은 제천(祭天)할 수 없다는 것이고, 1407년(태종7) 10월 일식변이(日食變異) 때 임금은 정승에게, “나는 소국(小國)의 임금일 따름이다.(豫則小國君耳)”하고 그 책임을 중국 천자에게 돌리고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점차 세월이 지나 갈수록 모든 재이(災異)는 중국과 조선이 대등한 공통이라는 의식으로 굳어져 갔다. 특히 조선시대 어느 임금보다 학문이 밝았던 세종조(世宗朝) 때는 천명(天命)을 어겨 일어난다는 재이(災異)를 밝히기 위하여 천문관측 연구에 힘썼으며 간의대(簡儀臺:천문 관측을 위한 석대(石臺))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한 때는 이 천문관측은 천자(天子)인 중국 황제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세종은 우리 나라에 온 사신(使臣)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경회루(慶會樓)의 북쪽에 있는 이 간의대(簡儀臺:높이31자, 길이47자, 너비32자)의 둘레에 축대를 쌓아 올려 숨기려고 노력하였다.

※나라의 재앙(災殃)이 오면 모든 책임은 임금에게 있고 천명(天命)을 어겨 자기의 부도덕을 채찍 하였으며 중국과의 사대(事大) 관계는 얼마나 많은 침략과 찬탈을 당하며 조공을 바치고 사신에게마저 나라의 체면과 민족 자존이 상하는 굴욕을 당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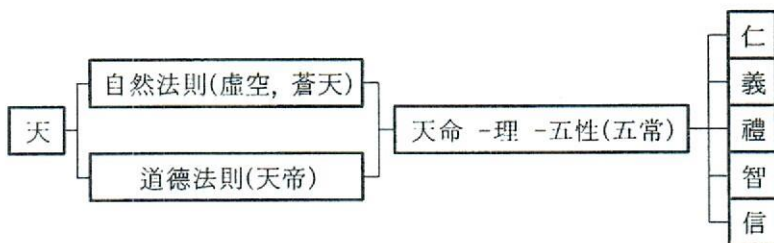
라. 성리학(性理學)에 비친 천사상(天思想)

※ 지면관계로 단편적인 내용만 수록함.

1. 일반개념(一般概念)



2. 천명도설(天命圖說)



※ 성리(性理)란 ?

- 사전(辭典) -- ① 인성(人性)과 천리(天理)
 ② 인성(人性)의 원리(原理)
 ※ 송, 명(宋明)대에 형이상학적 유교의 한 계통
- 옥편(玉篇) -- ① -성명(性命:인성(人性), 천명(天命), 천부(天賦))
 -천리(天理:천지자연의 이치)
 -기질(氣質: 타고난 성질)
 ② -마음(心:인성의 원리)

◇ 조선시대의 일부 성리학자들은 천명(天命)은 리(理)이고, 리(理)는 오성(五性)으로 통한다고 하였다. (천명도설(天命圖說)) 그러나 여러 학설 중 공통 개념으로의 성리(性理)는 본성(本性)은 오성(五性:五常)으로 귀착시켜 즉,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은 곧 오륜(五倫)으로 통하고 이것이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정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 사상은 천지(天地)의 소생으로서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천(天)과 지(地)와 함께 생을 영위하며 자연과 조화로움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한국 성리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오륜(五倫:사람이 밟을 다섯 가지의 도(五典, 五常))

부자유친 (父子有親)

군신유의 (君臣有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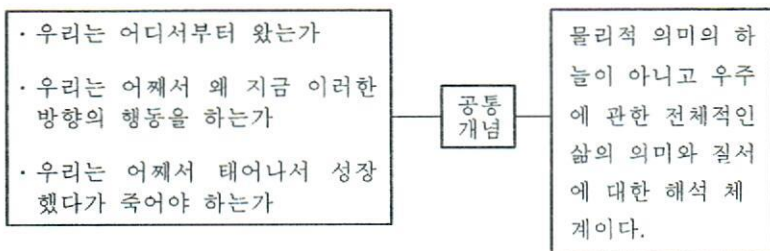
부부유별 (夫婦有別)

장유유서 (長幼有序)

붕우유신 (朋友有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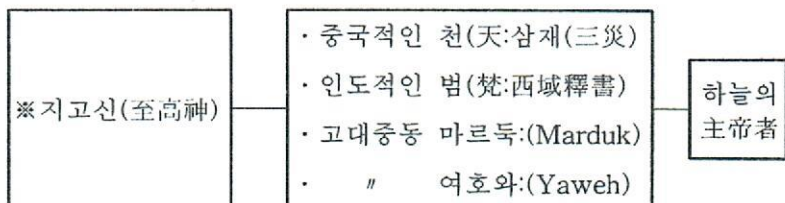
마. 종교적 의미의 천사상(天思想)

◇ 하늘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의 질서와 인간존재의 의미를 되물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왔으며 주변 세계를 해석하는 총체적 상징으로서 세계관을 의미한다. 이는 곧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져준다.



◇천(하늘님)

└ 지고신(至高神:High being)→자연변화→감지(感知) 제사
└ 접신(接神:무속신(巫俗神)) →감각과 감성→직접 의사소통



바. 한민족 천사상(天思想)의 특징

- ① 신화적(神話的) 천(天) 사상으로 인간 외적인 하늘 위에서 주제(主帝)하는 신(神)으로 여겨 창조주(創造主)의 중국적 삼재(三才:天地人)의 뜻을 내포한다.

※ 예 :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 ② 민족주의(民族主義)적 주체 의식을 지닌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뜻을 지니며 항웅(恒雄)이 하늘에서 아버지 항인천제(恒因天帝)로부터 천명(天命:천부인(天符印))을 받고 무리 3천명을 이끌고 태백산(太白山:백두산)에 내려왔다.

※ 「단군 개국신화(檀君開國神話)」

- ③ 우리 민족의 민족적 신화는 언제나 그 고향을 태백산 국조 단군(國祖檀君)의 탄생지 아사달(阿斯達)에 두며 전통적 산악 신앙(山岳信仰)은 하늘님이 먼저 내려오신 높은 영산(靈山)에 대한 신앙이다.

태백산, 곧 우리가 천제(天祭)를 지낼 이 곳 이름하여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고향이며 할거할 내일의 인류 세계의 중심지다.

◇ 결 론

한국적인 천(天) 사상은 복합적이거나 하늘에 대한 초인적이고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절대 존재에서 유출된 인간의 삶의 도(道)를 일깨워 주고(性理學), 종교적 의미에서의 천(天) 사상 역시 세계 종교사(宗教史)의 주도적 유형에 흡수되지 않고 지고신(至高神)의 전통을 굳건히 지니고 자리 매김함으로써 천제의식(天祭儀式)에서의 특정한 사상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족의 시원(始源)이 하나이듯이 백두산 천지를 정점으로 하여 단일민족으로서 영원히 그 맥을 이어 발전하여 갈 것이다.

2. 경세사상(經世思想)

가. 개요(사상적 배경)

춘정선생은 고려말에 출사(出仕:벼슬에 나아 감) 하였으나 늦게 신왕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신진기예(新進氣銳:성질이 굳세어 남에 지지 않음)의 실무자로서 [새나라 만들기 사업]에서 문물제도(文物制度)의 세칙(細則:세부 규칙), 절목(節目:규칙 조목)과 관각(館閣), 관변공서(官邊公署)의 사목(事目:공공업무 규칙)이나 규율(規律:규정) 왕실의 의절(儀節:법도 예절) 국가의 예경(禮經:예에 관한 경륜)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제도 설정 작업에 참여하여 그 재략(才略)과 능력을 인정받았고 사대교린(事大交隣:강대국 선린 외교), 즉, 전환기의 외교사명(外交詞命:외교 문서)을 작성함에 있어 유교적 대의 명분에 입각한 박식(博識)과 유려(流麗)한 필치(筆致)를 구사(驅使)하여 국초(國初)의 국제관계 정립에 큰 공을 세웠다.

춘정선생의 경세관(經世觀)은 철저하게 유교적(儒敎的) 정치이념(政治理念)에 기초하였으며 이조 초기의 관학파(官學派) 유학자(儒學者)들이 그러했듯이 총체적인 사상의 흐름 속에 주자학적(朱子學

的) 경세사상(經世思想)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천제의식(天祭儀式)에 의한 주체사상(主體思想)을 강조하고 중국과의 사대교린(事大交隣)에 있어 어차피(於此彼) 버티어도 손해니 적절하게 조종하여 선린(善隣)의 방책을 강조하고 치도(治道)에 있어 민본(民本)에 기초하고 천(天)의 명(命)을 받고 군주에 오른 제왕(帝王)은 천(天)의 계시(啓示)에 따라야 하는데 이 천(天)의 계시(啓示)의 요체는 그 근원을 민본통치(民本統治)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 봉사(奉事)와 상소문(上疏文), 대책(對策) 등을 자료로 삼아 그 사상을 추출(抽出)해 본다.

◇ 문집(文集)의 참고권별 항목(參考卷別項目)

(많은 내용 중 대표적인 항목만 발췌함)

文集卷六(문집권6)

▷ 永樂七年八月 日 封事(영락7년 8월 일 봉사)

1409(태종9):세자내선(世子內禪:세자 선위(禪位))

▷ 永樂十三年六月 日 封事(영락13년6월 일 봉사)

1415년(태종15) 상소(上疏) 六條

1 愼調攝(신조섭) 2 基天命(기천명)

3 廣咨訪(광자방) 4 謹事大(근사대)

5 厚民生(후민생) 6 御君臣(어군신)

文集卷六(문집권6)

▷ 請築堤堰上書(청축제연상서)

1415년(태종15) 경농수리위제언(耕農水利爲堤堰)

文集卷七(문집권7)

▷ 永樂十三年 封事(영락13년 봉사)

1415년(태종15) 학교교양지방(學校教養之方)

▷ 永樂十四年丙申六月初一日封事(영락14년병신육월초1일

봉사)

1416년(태종16) 원단제천론(圓壇祭天論)

▷ 永樂十七年七月 日 封事(영락17년7월 일 봉사)

1419년(세종원년) 상소(上疏) 三條

1 仁(인) 2 明(명) 3 勤(근)

▷ 永樂十九年 月 日 封事(영락19년 월 일 봉사)

1421년(세종3) 상소(上疏) 四條

1 保身(보신) 2 學問(학문) 3 定宗稱孫(정종칭손)

4 大闕紀綱(대궐기강)

文集卷八(문집권8)

▷ 殿試對策(전시대책)

치도(治道:本心과 德, 精一)

文集卷九(문집권9)

▷ 請太上王尊號箋(청 태상왕존호전)

천이순종(天而順從:天命과 民本)

나. 주체사상(主體思想)

위에서 살펴본 우리 나라 천(天)사상의 유형들은 절대 존재의 형이상학(形而上學)적 사상의 중심에서 기조(基調)를 이루고 내려오면서 이조 초기까지도 중국의 사대개념(事大概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제천(祭天)은 천자(天子)인 중국의 황제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겼고, 외형상의 제후국(諸侯國)으로 취급당하면서 중국 연호를 사용해야 했고, 많은 찬탈과 조공(朝貢)을 바치고 통치자인 임금까지도 천명(天命)을 받은 천자(天子)가 아니기에 나라의 재이(災異)의 책임을 중국 천자(天子)에 돌리고 회피하는 민족 자존을 위태롭게 하였으나, 차차 위정자는 각성(覺醒)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1416년(태종16)에 춘정선생이 임금에게 올린 【원단제천론봉사(圓壇祭天論封事)】는 정계(政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민족주체사상(民族主體思想)을 일깨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그 내용을 보면

【永樂十四年丙申六月初一日封事】로서
영락십사년병신유월초일원봉사

춘정선생이 수문전제학(修文殿提學:종2품)과 좌부빈객(左副賓客:세자교육담당, 종2품)으로 있으면서 올린 봉사문(封事文:상소문)중 일부인 원단제천론(圓壇祭天論) 부분의 원문(原文).

※원단제천론(圓壇祭天論)이란?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壇)으로 큰 원형의 제단(祭壇)인데 하늘의 제사(祭祀)는 중국 천자(天子)만이 할 수 있고 조선의 왕은 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여 못 했는데 춘정선생이 단군의 나라는 하늘의 제황으로부터 천명(天命)을 받고 세운 나라로서 독립 주권 국가이고 중국 천자(天子)가 분봉(分封)한 제후국(諸侯國)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의 왕도 제천(祭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제문을 짓고 실행에 옮겼다.

<춘정선생 생애(生涯) (54p)참조>

▷然吾東方有祭天之理而不可廢○臣請得而條條其總願殿下精鑑焉吾東方檀君始祖也盖自天而降焉非天子分封之也檀君之降在帝堯之戊辰歲迄今三千餘祀天之禮不知始於何代然亦千餘年未之或改我太祖康獻大王亦因之而益致勤焉○臣以爲吾東方有祀天之理而不可廢也或曰壇君國於海外朴畧少文不與中國通焉未當爲君臣之禮矣至….

※그리하여 우리 조선에서 제천의 도리는 없앨 수 없습니다. 신(臣) 청하건 데 그 기초의 총체적인 바램은 전하의 정감(精鑑)입니다. 이에 우리 조선은 단군이 시조

이고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천자가 분봉한 것이 아니라 단군이 하강한 때는 요(堯)의 치세(治世)에 무진(戊辰)의 해로서 지금에 이르러 삼천여 년의 제사인데 제천의 예는 어느 대에서 시작했는지 모르니 연유로 말하면 역시 천여 년이 아니 되었는데 어찌 고치겠는가. 태조 강헌대왕 또한 부지런히 그러하였다. 신이 생각하건 데 우리조선이 하늘에 대한 제사의 도리는 없앨 수 없고 혹 가로되 단군의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 폄하하는 것에 불가하니 중국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는 임금과 신하의 예(禮)입니다….

중국(明)은 동방조선(東方朝鮮)을 속국(屬國)인 제후국(諸侯國)으로서 중국의 천자(天子)를 섬기고 모든 조공(朝貢)을 바쳐야 하고 중국과 조선은 군신(君臣)의 관계로서 하늘에 제사(祭祀)는 천자(天子)만이 할 수 있고 조선의 왕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위 봉사문(封事文)과 같이 주장하고 실행하였다.

◇太祖實錄(태조실록) : 元年八月庚申條> (원년8월<경신조>)

▷圓丘天子祭天禮……

※ 원구단{圓丘壇:하늘에 제사하는 제단(祭壇)}에는 천자(天子)가 제사(祭祀)하며…….

◇禮記(예기) : 王制(왕제)

▷天子祭天地諸侯祭山川……

※ 천자(天子)는 하늘에 제사(祭祀)하고 그 밑에 제후(諸侯:봉건시대 영토를 분할 받아 다스리는 토후(土侯))는 산천(山川)에 제사(祭祀)하고…….

◇春亭集(卷七)：永樂十四年丙申六月初一日封事
춘정집 (권칠) 영락사년년병신 육월초일일봉사

▷ 今天災方殷人心大恐…….

今禱雨而不於天臣未見其可也夫雨暘燠寒風蓋千之所爲也其時與恒則人感於下而天應於上者也. ……然其感通之機實在乎天而不可以他求爲也…….

※ 이제 천재{天災:하늘의 재앙(가뭄)}가 심하여 인심이 크게

두려워 하는데도…….

…지금은 하늘에다 기우(祈雨)를 하지 않으니 신(臣)은 그것이 올바른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雨:비), 양(燭:해돋이), 오(燠:가뭄), 한(寒:추위), 풍(風:바람)은 대개 하늘이 하는 일(所爲)이니 보통 때 같으면 사람은 아래에서 느끼고 하늘은 위에서 감응(感應:느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통(感通:느낌이 통하는 것)의 기틀은 실로 하늘에 있으니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 론

오랜 세월 모든 문명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오면서 형성된 사대(事大) 봉건사상(封建思想)은 중국의 원(元), 명(明)나라 시대(13세기-16세기 중반)에 극심하였고 국력이 약한 소국(小國)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인 중국을 사대하는 가운데서도 오랑캐라 비하하고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란 현명성(賢明性)을 살려 주체의식은 살아 있었다.

다. 민본사상(民本思想)

1415년(태종15)에 임금께 올린 봉사(封事:상소)에서 여섯조항

(六條項) 가운데 ★기천명(基天命:천명의 실천을 기본함)을 거론하고 하늘의 명(命)을 받들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하늘의 명(命)은 곧 백성의 뜻이라고 했다. 그리고 ★광자방(廣咨訪:널리 물어 여론수집을 포함)으로 언로(言路)를 트고 관(官)이나 지배계층이나 백성들이 원함이 무엇인지를 수렴하여 다스려야 하고 ★후민생(厚民生:민생을 후하게 하는것)에 중점을 두어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히 향상시켜야 하는데 특히 농사를 장려하고 의창(義倉:구호창고)을 두어 재난(災難) 때 구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상서(上書)문에서도 흉년에 대비하여 경농수리(耕農水利)를 펴고 제언(堤堰:방축(防築), 둑)사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시문(詩文)이나 기타 문헌(文獻)에서도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 대책을 항상 걱정하는 민본사상(民本思想)을 엿볼 수 있다.

▷竊謂有國之道莫先於足食足食之要惟在於務農農之於國猶水之有源木之有根誠不可或廢者也古者三年耕餘一年之食九年耕餘三年之食積三十年之國用然後水旱不能爲之災故國無三十年之蓄則國非其國矣…

<請築堤堰上書>

※이를테면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는 넉넉히 먹는(足食)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흙족한 급식(足食)의 요체는 농업에 힘쓰는 것에 있으니 한 나라의 농업은 물이 원천이나 나무의 뿌리와 같으니 그 정성이 아니 되면 농사는 폐하게 된다. 옛날에 3년 농사 1년여 식(食)하고 9년 농사 3년여 식(食)하니 나라의 30년 식분을 모은 연후라야 가뭄 재해 때 나라에 없는 30년 축분(蓄分)에 대비하는 것이 되니 바른 나라가 된다.

<방축(防築)상소문에서>

◇ 백성의 생활향상은 가뭄에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나라 다스림의 근본이므로 이를 위하여 농사에 힘을 써야 하고 이 농사는 물 관리가 중요하니 제방 둑을 쌓고 수리(水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今内外積食之數至三百九十萬石吾東方前古所未有也… -- 請築堤堰上書 --

※지금 안팎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곡식의 물량이 390여 만석에 이르니 우리 동방(조선)에서는 이전 옛날(前古)에 없었던 일입니다.

<방축(防築) 상소문>

◇ 조선 초기부터 시작된 부국강병책(富國強兵策)이 영농을 장려함으로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어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리사업(水利事業)과 개간으로 생겨 난 토지를 사사노비혁거정책(寺社奴婢革去政策)에 의한 유휴 노동력을 국가 생산에 투입하고 세제공납(稅制貢納:세로 내는 곡식)을 면제하여 의욕을 높이고 감리(監吏)를 파견하여 독려토록 건의하고 있다.

※사사노비혁거정책(寺社奴婢革去政策)이란?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國敎)였고 사찰의 토지와 노비의 과다 소유로 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 세력이 매우 커서 정치에 간여하는 등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조선 초기 혁신 정책으로 노비를 줄이고 전답을 회수하는 등의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天之立君蓋爲民也故有曰如保赤子視民如傷語其愛民之心也… -- 永樂十三年六月日封事 --

※천(天)이 군주를 세운 것은 대개 민(民)을 위한 것이다. 고로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듯 하며 민(民)을 바라볼 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는 듯 하라는 말이 있으니 애민(愛民)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영락13년 6월 일 봉사>

◇ 권력의 근거가 천(天)에 있다는 정치적 천명설(政治的天命說) 곧 왕권천수설(王權天授說:왕권은 하늘이 줌)을 믿고 있는 춘정선생은 통치의 형태나 왕권의 행사는 모두 천(天)의 의지에 따라야 하고 천(天)의 의지는 곧 백성을 인애(仁愛)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遂條擬深深其本而詳究其源至精至當然後勒成一代之典以祛積年之敝可也厚民生此其先務也苟爲不然雖曰革敝亦未免於朝令而夕改己罷而尋復矣恭惟○殿下天性仁厚卽位以來宵衣旰食惟以民生之休戚爲念崇儉節用不違農時養民以惠築堤堰以備旱潦置義倉以濟凶荒愛民之心至矣愛民之政舉

<永樂十三年六月 日封事>

※조목별로 의논하고 그 근원을 깊고 상세하게 탐구하여 지정지당(至精至當:씩 친밀한 정분과 사리에 맞음)하게 된 연후에 일대(一代)의 법전을 만들어 오랜 동안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옳으니 민생을 두텁게 하는 것에는 이 일이 급선무이다. 만일 이것이 되지 않으면 비록 폐단을 없앴다고 해도 조령모개(朝令暮改)를 벗어나지 못하여 이미 폐단을 없앴다고는 하나 곧 다시 나타날 것이다. 황공하오나 전하의 천성이 두텁게 인자하시어 즉위한 이래 정치에 골몰하여 여가가 없는 것은 오직 민생의 안락과 환난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요 검소와 절약을 숭상함에 유념하고 농사 때를 어기지 않고 백

성을 보살피 제방을 축조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의창(義倉:구호창고)을 두어 재앙을 구제함은 애민(愛民)의 마음이었고 애민의 정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락13년 6월 일 봉사>

▷ 古昔帝王奉若天道教民稼穡樹藝五穀以養其形因其固有之義理而開導之以淑其心….

<諭對馬州宣旨>

※ 옛날에 제왕(帝王)은 천도(天道)를 받들어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오곡을 심고 길러서 몸을 기르도록 하고 나서 사람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의리(義理)를 계발(啓發)하여 마음을 닦도록 하였다.

◇ 춘정선생은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보내는 유고문(諭告文:타이르는 외교문서의 한 형태)의 선지(宣旨:왕명의 선포)에서 다스리는 민(民)을 곡식을 심고 길러서 자급(自給)하는 생활이 되도록 하여 의리를 계발하여 마음을 닦도록 하라는 선지(宣旨)로 즉 해적으로 분탕질을 하고 우리 나라를 침범하여 노략질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내포되어 있다.

▷ 帝王之道廓然大公以順人心爲心而已順人爲心卽所以順天也…

<請上太上王尊號箋>

※ 제왕의 도(道)는 넓고 크게 하여 백성의 마음을 따르는 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을 뿐이다. 백성을 따르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 것은 천(天)에 순종(順從)하는 까닭이다.

<태종에게 올린 존호전문>

▷ 夫奔走寒暑終世勞苦以養其上可不愛乎...

<上同>

※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분주하게 일하고 죽을 때까지 수
고를 아끼지 아니하여 윗사람들을 먹여 살리니 사랑하
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위와 같음>

▷ 天之視聽尙自乎民民之所欲天必從之可不畏乎...

<上同>

※ 천(天)이 보고 듣는 것은 항상 민(民)에게서 비롯하는
것이며 민(民)이 원하는 것은 천(天)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였으니 [민(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위와 같음>

◇ 민(民)을 중시하는 중세의 세계적 경향의 정치이념(政治
理念)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농민 보호의 민본사상(民本思想)
은 유교적 표현이었으며 민(民)에 대한 수탈(收奪: 빼앗음)은 민
난(民亂), 왕조붕괴(王朝崩壞)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서 고려
말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성공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새 왕조
의 자기편으로 끌어드리기 위한 민본(民本)의 중요성이 한층
더 증가하는 것이었다.

▷ 文集卷二 (문집 권2) 苦熱行 (고열행)

日出東北飛天衢 : 해가 동북 네거리 하늘높이 오르니
朱光萬里烘爐中 : 불별 내려 온 세상 화로 속이네
海波欲渴山翠乾 : 바다 물도 마를 듯 산도 달아오를 듯
飛鳥翅垂迷西東 : 나는 새 깃 드리우고 갈피 잡지 못하네
平人執亦何怪熱 : 노는 자 더위 타령 참으로 해괴하다

不見南畝鋤禾翁 : 못 보는가 남쪽이랑 김 메는 늙은이
終年勞力竟食人 : 한평생 일해도 남만 먹여 살리니
先王所以思農功 : 그러므로 선왕은 농사 공을 알았네.

양반 계급의 일반 소작 농민들에 대한 착취, 일부 관헌들의 백성에 대한 수탈(收奪), 사찰(寺刹) 세력들의 횡포(橫暴)등 일반 서민들의 생활상은 그 격차가 매우 심했으며 특히 홀아비 과부 등 저소득층의 백성들을 항상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선왕의 농사공이란 이태조(李太祖)의 중농정책(重農政策)을 말하는 것이며 역성(易姓) 혁명의 성공으로 일반 서민 및 하층 대중의 인심의 배반을 방지하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 결 론

한국적인 천 사상(天思想)에서 제왕(帝王)의 도(道)는 나(제왕)를 오늘에 있게 한 하늘의 은혜, 즉 천명(天命)에 따르는 것이고 이 천명(天命)은 만물의 생성(生成)과 인애(仁愛)인데, 그것은 애민정신(愛民精神)으로 통하고 이 애민정신(愛民精神)은 곧 모든 다스림의 정책(政策)이 민본(民本)에 두어야 함이고, 이 민본(民本)의 요체(要諦)는 족식(足食: 흠족히 먹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으니 이를 위하여는 농사를 장려하여 백성의 후생(厚生)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참고 : 永樂十三年六月 日 五千言 封事

(1415년(태종15) 6월 일 5천자 밀봉 상소문)

▼ 육개조(六個條) 주요 내용 요약

① 신조섭(愼調攝:근신하고 몸을 잘 다스려 통섭함)

▷ 然怠惰暇逸者又非調攝之道也古人有言曰主靜則悠久
博厚自強則堅實靜明操存則血氣循軌而不亂收斂則精
神內固而不浮凡此皆敬之方而壽之理也.

※ 게으름을 피우고 안일에 빠지는 것은 조섭의 도리가 아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주정(主靜)하면 유구(悠久:오래도록) 박후(博厚:넓고 두텁게)하고 자강(自強:스스로 강함)하면 견실정명(堅實精明:알차게 밝음)하며 조존(操存:조종함)하면 혈기가 순궤(循軌:잘 돌아감)해서 어지럽지 아니하고 수렴(收斂:거두어 드림)하면 정신이 내고(內固:안으로 확고함)해서 떠들지 아니하니 이런 것들이 모두 경(敬;겸허이 근신함)의 방(方:방법, 방도)이고 수(壽:수명)의 리(理:이치)이다.

◇ 요컨대 경(敬)을 강조하고 조존(操存)이나 수렴(收斂)은 모두 심(心)을 두고 하는 말로서 심신(心身), 공히 조섭(調攝)의 비방(秘方:특효한 방법)은 경(敬)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거경궁리(居敬窮理:심신수양의 사리를 깊이 생각함)의 요체(要諦)의 뜻도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은 건강해야만 건전한 정신으로 통치행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② 기천명(基天命:천명을 바탕으로 함)

▷ 然所以其命者非才力之所爲也智術之所及也惟在從

事此心勉於敬德而已矣此心之體上下四方虛靈洞澈本無天人之異顧乃汨於私欲而自小耳靜而操存焉則鑑空衡平渾然無外而萬物之理莫不統於其中雖鬼神不得而窺矣動而省察焉則如鑑之照人如衡之稱物妍媸輕重粲然有倫而萬事莫不各得其宜矣此乃聖學敬德之功其命之要….

※기명(基命)이란 것이 재력(才力:재주)이 하는 바가 아니고 지술(智術:지혜)이 미치는 바도 아니다. 오직 이 마음에 종사해서 경덕(敬德:근신하는 큰 덕(行道))에 힘쓰는데 있을 따름이다. 이 마음의 예(禮)는 상하사방(上下四方)이 허영동철(虛靈洞澈:잡념이 없이 깊고 맑음)해서 본래 천인(天人:본성(本性)의 착한 사람)의 다름 없고 오직 사욕(私欲)에 빠져 스스로 작아질 뿐이다. 조용히 지니게 되면 곧 거울처럼 맑고 저울대 같이 수평이 되어 혼연(渾然)히 밖이 없어 만물의 이치(理致)가 그 속에 통괄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어 비록 귀신일지라도 엿볼 수 없다. 움직여 성찰을 하면 거울이 사람을 비추이는 같고 저울이 물건을 저울질하는 것 같아 아름답고 더럽고 가볍고 무거움이 찬연히 차례가 있게 되어 각각 그 마땅함을 얻지 않음이 없게된다. 이것이 곧 성학경덕(聖學敬德:성리학문의 근신덕행도(謹愼德行道))의 공(功:노력 공적)이며 천명을 바탕 한 긴요한 살핍의 깨달음(基命之要諦)이다

◇ 왕자(王者:임금)로서 천명(天命)을 자각하고 그에 바탕해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천명사상은 유교경전(儒敎經典)에서 볼 수 있으며 다만 명(命)을 심(心)과 연결시켜 논리(論理)를 전개함이 특징이다.

기명(基命)의 성시성종(成始成終:시작과 끝맺음)을 마음에 바탕해야 하며 마음을 본래대로 지님으로서 천명(天命)을 성수(成

遂:드디어 모두 이루다)한다는 뜻이었고 주일무적(主-無適:주(本題)는 하나이고 적당한 부실함이 없음)이고 경(敬)이며 그것이 또한 기명(基命:천명의 기반)의 요체(要諦:긴요한 살핌)이다.

③ 광자방(廣咨訪: 널리 방문하여 자문을 얻음)

▷ 置受書匱於殿則俾不識字者守之以受實封隨即轉達勿令稽留一刻且命某品以上吏日輪對俾言政之得失民之休戚以爲恒式則群臣之情畢達於上而咨訪之道無遺恨矣….

※책 궤를 대궐 전각(殿閣) 곁에 두고서 글을 모르는 자를 지키게 해서 봉서(封書:밀봉 상소문)를 받아 즉시 전달케 하되 일각도 지체 없도록 하소서. 또한 모품(某品:어떤 직위)이상 관원을 날마다 번갈아 만나서 정치의 득실과 백성의 휴戚(休戚:좋고 나쁜 것)을 말하게 하여 상달이 되어 자방(咨訪)의 도(道)도 건한(遣恨:보내는 여한)이 없게 될 것입니다.

◇ 여론의 정치를 강조하고 항상 동정을 살피서 다스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언로(言路)가 차단되어 천명(天命)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천명(天命)의 민본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로 백성의 좋고 나쁜 휴戚(民之休戚)을 살피는 일을 정례화 하여 자방의 도(咨訪之道)를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④ 근사대(謹事大:큰 나라를 섬기는 일)

▷ 殿下之至誠猗歟偉哉君臣和而夷夏混矣上下交而天地泰矣….

※ 전하의 지성이 의여(猗歟: 불췌아 섬김)하니 비로소 군신이 오랑캐와 섞이어 화해(和解)를 하니 상하 외교가 천지의 태평을 이루었습니다.

◇ 중국과 상대적으로 약해 버티어도 국익(國益)에 도움이 아니 되니 비록 오랑캐이지만 가깝게 통하여 친밀히 의여(猗歟)하게 군신(君臣)이 섞이어 지내니 태평하여 좋다는 것이었는데 제천(祭天)에 대한 민족 주체사상과는 상치되지만 고려시대 원, 명(元明)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많은 국가적 애로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선초(鮮初) 실리외교(實利外交)의 한 축을 볼 수 있고 조공(朝貢)도 금, 은, 동여(童女) 등 어려운 환경에서 춘정선생의 외교문서로 마 포 등으로 대체되었음을 볼 때 사대외교(事大外交)의 진실을 알 수 있다.

⑤ 후민생(厚民生:민생을 향상시키는 것)

▷ 민본사상(民本思想) 참조

◇ 정책의 초점을 민본에 두고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태종(太宗)은 즉위 후 ①검소(儉素)와 절약을 장려하고, ②농사철을 어기지 않고 중농정책(重農政策)을 펴고, ③백성들에게 은혜로움을 베풀고, ④제방을 쌓아 가뭄에 대비하고, ⑤의창(義倉)을 설치해 흉황(凶荒) 때 구제활동을 펴서 민생을 향상시켰다. 한편 민폐(民弊) 10개조를 들어 일일이 살펴 풀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⑥ 어군신(御君臣:군신관계의 증진)

▷ 臣竊惟權者天下之所畏也利者天下之所求也權利之柄不可一日而移於下矣人主至寡也羣臣至衆也以至衆而服役乎至寡者蓋以權利之在乎上也而移之可乎.

※ 신(臣) 가만히 고(告)하나니 권(權)이란 것은 천하가 두려워하는 바이고 이(利)라는 것은 천하가 구하는 바이다. 권리지병(權利之柄: 백성을 좌우하는 통치권의 지휘봉)을 하루라도 아래에 옮겨서는 아니 된다. 인주(人主: 임금)는 지극히 적고 군신은 지극히 많다. 지극히 많은 것이 지극히 적은 것에 복역(服役: 복종하여 일함)하는 것은 대개 권리가 위에 있기 때문인데 옮긴다면 되겠는가.

◇ 군주(君主)는 통치권을 잘 행사하여야 하며 신임하는 신하에게 일부 권한을 주어서도 아니 되고 상이하달(上而下達)을 두루 살펴야 한다.

라. 치도론(治道論)

▼ 永樂十三年六月 日封事; 영락13년6월 일봉사)

▷ 帝王爲天下國家當審其治體之本末緩急...

※ 제왕은 천하의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 마땅히 치체(治體)의 본말(本末)과 완급을 살펴야 한다.

▷ 法雖以時而異法則以道而同矣... <上同>

※ 치법(治法)은 비록 시대에 따라 달라졌으나 그 다스림을 도(道)로 볼 때 동일하였다.

<위 같음>

▷ 爲治之道本於心爲治之法因乎時道不本於心無以爲出治之原法不因時無以爲致治之具

<上同>

※다스림의 도는 심(心)에 근본하고 다스림의 법은 때에 따르는 것입니다. 도(道)가 심(心)에 근본하지 않으면 통치의 근원을 세울 수 없고 법이 때에 따르지 않으면 통치의 도구를 확립할 수 없습니다.

<위 같음>

◇ 치체(治體)는 다스림의 본체로서 그 치체(治體)의 본(本)은 본심(本心)에 근거하여 덕(德)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고 완급(緩急), 즉 늦고 급한 것을 가려야 하고 다스리는 방법에서는 그 시대의 환경적 요소에 의해 달리하였으나 다스림의 방도(方途, 道)는 한가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그 치도(治道)를 설명하였고 그 도(道)를 정함에는 마음에 근본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근원(根源: 뿌리의 원천)과 도구(道具: 행하는 데 갖추어야 하는 준비)를 확립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었다.

<심성설(心性說)>

▷ 凝定天命以開億萬世之太平者正在今日詩人之頌成王也以爲夙夜基命有密此之謂也然所以基命者非才力之所爲也智術之所及也惟在從事此心勉於敬德而已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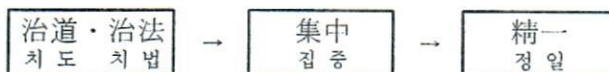
<(上同) 基天命條>

※천명이 엉기어 정해져 억만 세(世)의 태평을 여는 것은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시인(詩人)이 성(成)왕을 기리면서 '밤낮으로 천명에 기반 함이 깊고 정밀하다.'고 하였으니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명에 기반하는 것은 재력(才力)으로 되는 일도, 지술(智術)로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니니 오직 이 마음을 따라 경덕(敬德)에 힘쓰는 데 있을 뿐입니다.

<기천명조>

▷ 存心以出治道順時以立治法其要在乎執中而執中之要則捨精一何以哉….

※ 존심(存心:마음의 보존)을 통해 치도(治道)를 내고 때에 따름으로서 치법(治法)을 세우는 것의 요점은 집중(執中)에 있으며 집중(執中)의 요점은 정일(精一)을 빼놓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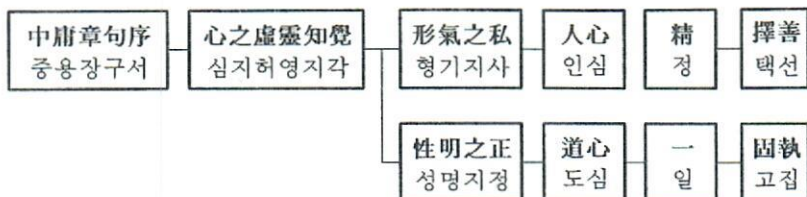
▷ 精者擇善也一者固執也 精以察夫危微之間一以守其本心之正執中之功如是而已….

※ 정(精)은 선(善)을 택하는 것(擇善)이다. 일(一)은 굳게 지키는 것(固執)이다. 정(精)으로서 심(心)의 위미지간(危微之間:위태롭고 미약한 공간)을 살피고 일(一)로서 그 본심(本心)의 바를 지키는 것이니 집중(執中)의 공(功)은 이와 같을 따름이리라.

◇ 개요(概要)

① 천명(天命)에 기반하는 것이 올바른 치도(治道)인데 이 천명(天命)의 기반은 오직 본마음(本心)에 따른 경덕(敬德)에 힘쓰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집중(執中)을 해야 하는데는 또 정일(精一)을 해야 하는데 이 ‘정(精)’은 ‘일심(一心:본심(本心)을 한데 모으는 것)’이 맹동(萌動:싹트기 시작함)하여 ‘인심{人心:위(危)}과 도심{道心:미(微)}’으로 나누어질 때 어떤 것이 인심{人心:기(氣)}이고 어떤 것이 도심{道心:본성(本性-理)}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며 ‘일(一)’은 그것에 기초하여 도심{道心:본심(本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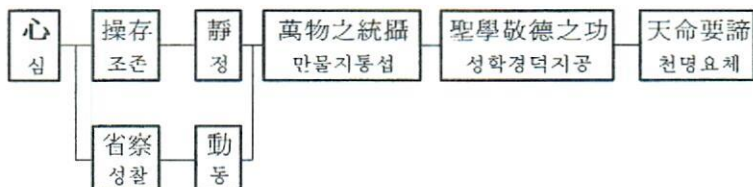
의 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정일(精一)이란 본심(本心)의 바름을 지켜서 본심(本心) 속에 내재해 있는 천리(天理:천지 자연의 이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부에 다름 아니며 정일(精一)의 결과로서 집중(執中) 역시 통치자가 자신의 마음에 머물고 있는 천덕(天德)에 따라 행동하는 것, 즉 치도(治道)의 구현(具現)이다.

▷ …靜而操存則……而萬物之理莫不統於其中雖鬼神不得而窺矣動而省察焉則……萬事莫不各得其宜矣此迺聖學敬德之功其命之要….

※ 고요할 때 조존(操存:잡고있음)하게 되면 만물의 이(理)가 그 가운데 통攝(統攝:총괄 처리) 앎음이 없으니 비록 귀신이라도 엿보지 못할 것이며 움직일 때 성찰(省察:살핌)하게 되면……만사가 각각 베풀음(마땅함)을 얻지 못할 것이 없으며 이것이 곧 성학(聖學:성인의 학문)의 경덕지공(敬德之功:덕행을 공경하는 공덕)이요 천명(天命:하늘의 명령)에 기반하는 요체(要諦:진요한 살핌의 깨달음)입니다.



▼ 永樂十九年 月 日 封事(卷六):영락19년 월 일 봉시(권6)

▷ 如其不然則必使此心之體冥然昏迷如木石之無知此
心之用紛然馳騖如馬牛之風…

※그러므로 그것(操存,省察)을 게을리 하면 곧 이
심체(心體:마음의 본체)는 어두워 혼미해지고 목적과
같이 무지(無知)해지며 심용(心用:마음의 쓰임)은 얼
떨결에 어지러워져서(행사(行事)의 당연(當然)에 대해) 말
소와 같이 둔감해지게 된다.

▼ 殿試對策(卷八):전시대책(권8)

▷ 敬者一身之主宰萬事之根本聖學之所以成始而成終
者也欲致精一功者又必自敬始….

※경(敬)은 일신(一身)의 주재(主宰:주장하여 처리함)이며
만사(萬事:모든 일)의 근본이니 성학(聖學)의 시종(始終:
시작과 끝)을 이루는 소이(所以:하는 바)이다. 정일(精一:정
기를 하나로 모음)의 공(功)을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경
(敬)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니….

敬 (경)	主一無適 (주일무적)	心專一 (심전일)	의식(意識) 활동을 한곳에 집중(執中) 시키는 것
↓	↓	↓	↓
(근신, 공경)	(주(主)는 하나이고 다른 맞가짐은 없 다.) -단일(單一)	(마음은 온 전히 하나 뿐이다.)	(한곳에 정성을 모아 잡념이 없이 집중(集中)하는 것.)

▷ 此其名義固有不同然有其無過不及所以爲人道之至
而天下萬世之標準也….

※ 존심(存心:마음의 올바른 보존)은 경세(經世)의 요諦(要諦)
이므로 치법(治法)은 자연히 확보되고 「그 명의를 다
르지만 과불급(過不及:잘 맞지 않음)이 없어서 인도(人道:
사람이 행할 도리)의 지극함이 되고 천하 만사의 표준이
되는 바이다.」

◇ 춘정선생은 통치자가 자신의 본심(本心)에 근거할 때 현
실의 구체적인 치법(治法: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
고 극대한(極大恨:제일 큰 한도)의 공효{功効:공의 효과, 치적(治績)}를
남아 성세(盛世:번성한 세상)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 喜雨亭記(卷五): 화우정기(권5)

▷ 人與天地本一體故曰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以至一
言一念微而天人相感之機有昭乎其不可誣者矣….

※ 사람과 천지(天地)는 본래 일체(一體:한 몸)이다. 그러므
로 중화(中和:과불급(過不及)이 없는 훌륭한 도(道), 중용(中庸))
를 이루면 천지가 자리 잡고 만물이 자라난다고 하였
으니 일언(一言) 일념(一念)의 은미한 것이라도 천인상
감(天人相感:하늘과 사람과의 감응)의 기틀은 소연(昭然:밝
게)히 밝혀져 속이지 못할 것이다….

◇ 중용장구, 치중화(中庸章句, 致中和:중용의 중화를 이루는 문장
구절)를 해석하여 대개 천지 만물은 나와 일체(一體)이다. 나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天地)의 마음도 바르고 나의 기(氣:정기(精
氣))가 순조로우면 천지(天地)의 기(氣)도 순조로우니 통치자
가 치중화(致中和:화합을 이룩함)의 덕(德)을 갖추면 천인상감(天
人相感)의 기틀에 따라 자연히 위육(位育:크게 위치가 높아짐)의
공(功)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彼秦漢以降病乎中和者多疾民物惟悴天地索然….

※ 진, 한(秦漢)나라 이래로는 중화(中和)의 병통(病痛:사람의 잘못된 점)을 가진 자가 많아서 민물(民物:민간)이 초췌(憔悴:허약해 파리함)해지고 천지가 부색(否索:막히어 두렵다)되었던 것이다.

▷ 蓋我殿下憂民以心積於中者深矣……則然有閔雨之念不可過者焉上天之感應曾不移咎….

※ 우리 전하의 백성을 근심하는 마음이 안에 깊이 쌓여서……측은히 비를 바라는 생각을 감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천(上天:위대한 높은 하늘)이 감응(感應:느껴서 융합)하여 일찍이 햇벌이 들지 않게 하였다.

▼ 昭格殿行祈雨兼星變所禳醕禮三獻青詞(卷十)

소격전행기우점성변소양초예삼헌청사(권10)

▷ 天心之仁愛….

※ 천심(天心:하늘의 마음, 뜻)은 인애(仁愛:만물을 사랑하는 것)이다.

▼ 四季亭記(卷五): 사계정기(권 5)

▷ 有天德則使可與語王道矣….

※ 임금은 천덕(天德:하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덕행)이 있어야
가히 왕도(王道:임금이 행해야 할 도리)를 말할 수 있다.

천명(天命) → 인애(仁愛) → 애민(愛民) → 왕도(王道)

◇ 왕도(王道)를 행함은 인애(仁愛)와 중화(中和)를 하여 천

덕(天德)을 체화(體化:몸으로 보이는 것, 실천)함으로서 치중화(致中和)를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위육(位育)의 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을 못하면 중화(中和)의 병통(病痛)으로 백성이 초췌(憔悴)하고 온 나라 천지가 막히어 두렵게 혼란해진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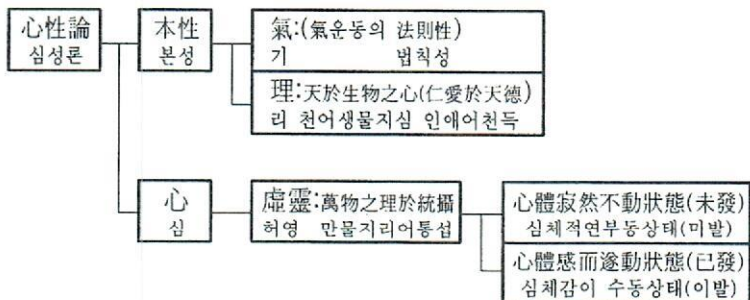
▼ 殿試對策(卷八): 전시대책(권8)

▷ 惟中之一字始發於堯實萬世聖聖相得之心法也存心而不合乎此大本有所不立也出治而不由乎此達道有所不行也….

※ ‘中(중)’ 일자(一字)는 요(堯) 나라에서 처음 나타났으니 실로 만세의 성인들이 서로 전한 심법(心法: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존심(存心: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잊지 않음)하면서 이와 합치되지 않으면大本(大本:중(中))을 세울 수가 없고 출치(出治:다스림에 나아감)하면서 이에 말미암지 않으면 달도(達道:도에 달함, 화(和))를 행할 수 없다.

◇ 결 론

<도해(圖解)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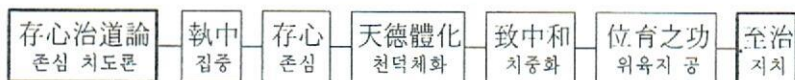


① ‘기(氣)’운동의 법칙성(法則性)과 일치되는 천의 만물지

심(天之萬物之心)=인애(仁愛)의 천덕(天德)으로서의 리(理)가 인간의 본성(本性)으로 내재화(內在化)되며 ‘심(心)’은 원래 허령(虛靈:잡념이 없이 신령함)한 것으로서 그 가운데 만물의 이(理)를 통섭(統攝:총괄 조정 처리)하고 있다. 즉,

- ② 심체(心體:마음의 본체)는 본래 허령(虛靈:잡념없이 신령함)한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미발(未發)}, 조용히 있을 때{적연부동(寂然不動)}는 착하지만 사욕(私慾:사사로운 욕심)이나 편견(偏見:편벽된 생각), 유혹(誘惑:잘못된 꾀임) 등 외부의 충격으로 일을 저지를 때{감이수통(感而遂通)=이발(已發)}은 인간의 본성(本性)에서 일탈되는데 이것을 심체허령(心體虛靈:본 마음이 올바르고 영묘함)으로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인간에게 모든 사물의 이치(理致:사물의 정당한 조리)를 명징(明澄:밝고 맑음)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도덕적 행위를 주제(主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때 그 마음 바탕이 올바르게 자리하여야 하고(心體虛靈保存) 그것이 바로 존심(存心)이다.
- 그러므로 존심(存心)이 이루어져 사물이 인식되면 모든 행위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당위법칙(當爲法則)으로 귀결되고 이(理)에 의한 의례{儀禮:의식을 차리는 예법}, 법제(法制:법규, 제도) 등 경세(經世)의 도구(道具)들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도해(圖解)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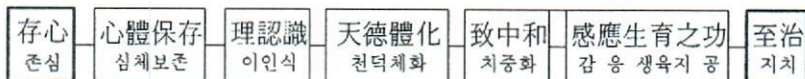


- ③ 마음을 어느 쪽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바르고 온당한 도리(執中)를 다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조종하는(心法) 것으로 존심(存心)을 이루고 하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

한 인애, 애민(仁愛, 愛民)의 천덕(天德)을 쌓고 몸소 나의 몸으로 실천(體化)하여 과불급(過不及: 부족하고 과한 것 고르지 못함)이 없는 화(和)의 도(道)를 행하고(致中和), 위상이 커 가는 발전의 공(位育之功)을 이루어서 드디어 올바른 다스림을 이루하는 것(至治)으로 이 '존심(存心)'은 심체보존(心體保存(理))에서 인애천덕(仁愛天德)과 천지만물지심(天之萬物之心)이 이루어 본성(本性)이 구현(具現)됨을 뜻하는 것이다.

- ◆ 결국 치도론(治道論)의 통일된 근거의 논리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지치(至治)에 이르는 도식(圖式)이 성립된다.

<도해(圖解) 3>



이는 곧 성리(性理)의 심성설(心性說)에서 현실의 적용과 운용에서의 논리(論理)를 전개한 것이며 체계 있는 방법론으로 이해되어야 할 사상의 일면이다. 그리고 이 치도론(治道論)은 후대에 조광조(趙光祖)의 도학정치론(道學政治論)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정치사상(政治思想)이었다.

▲ 언로(言路)의 개방과 인재등용(人才登用)

▼ 廣咨訪條: 광자방조

▷ 咨訪群臣者實爲治之要道也….

※ 군신(群臣)에게 자문(咨問)을 구하는 것은 실로 통치(統治)의 요도(要道: 중요한 길, 방법)이다.

▷ 邪不得循其情奸雄無以施其術矣群生之休戚庶事之得失安有不自者哉….

※ 교사한 무리가 그 정(情)을 숨기지 못하고 간웅(奸雄: 간사한 지혜의 영웅)이 그 술(術: 계주)을 펼치지 못하여 모든 백성의 휴척(休戚: 안일과 환난)과 서사(庶事: 대중의 일)와 득실(得失: 얻고 잃는 것)이 명백해 지는데….

◇ 춘정선생은 언로(言路)의 확대 정책을 역설하고 용혼(庸昏: 항상 흐릿함)한 군주가 근신(近臣)의 아침에 매혹되어 언로(言路)를 차단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으나 영명(英明: 밝고 총명함)한 군주가 언론을 멀리하게 되는 데에는 간언(諫言: 충고의 말)이나 진언(進言: 건의)이 대부분 비실용적이며 무용한 공담(空談: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구언(求言: 상달(上達)의 여론)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되고 신하들을 번갈아 면대(面對)하는 수대법(輸對法: 번갈아 면담하여 의견 청취하는 제도)을 시행 할 것과 또 백성의 정당한 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실봉법(實封法: 건의문의 봉서(封書)가 뜯기지 않고 왕에게 전달되는 것)의 실행을 촉구하였다.

▼ 永樂七年七月 日封事(卷七): 영락7년7월 임봉사(권7)

▷ 人君之德莫大於明明則識政治本末緩急之宜辯人才高下邪正之異二者得矣於爲國乎何有….

※ 군주는 덕(德)있는 자를 택함은 그 보다 더 밝음이 없고 그 밝음은 곧 다스림의 본말과 늦고 급한 것이 마땅히 인식하는 것이니 재능의 고하를 분별함은 간사하고 바름과는 달라서 둘 다 덕이 되니 나라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 춘정선생은 인재의 공정한 등용을 주장하였는데 우선 인재 등용의 원칙이 재능의 고하와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을 천명하고 그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군주라야 국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행제도(南行制度)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그의 개선책으로 명족(名族) 자제들이 남행(南行)을 통해 입사(入仕: 벼슬에 나아감)할 때는 일정한 학문 수업(연수)을 거쳐 의리(義理)와 덕행(德行)을 갖추었을 때 취관(就官: 관리 취임)토록 하는 것이었다.

<세종실록 10년 11월 기유조(己酉條)>

◆ 남행(南行) 제도란?

고려시대의 음서제도(蔭敍制度)를 그대로 이어 답습(踏襲)한 것인데 공신(功臣)이나 현직 당상관(堂上官: 정3품(통정대부, 절충장군) 이상의 자제를 선발(選拔)하여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

▲ 성학(聖學(講經))과 사장학(詞章學)의 경국실용(經國實用)

◇ 조선 초기 학문의 중요성은 경학(經學)에 비중이 높았으나 명(明)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 그들의 시문사(詩文辭)를 선호했기 때문에 왕의 교명(敎命: 왕의 교서(敎書), 조명(照命) 등) 등의 작성에도 영향을 미쳤고 사장학적(詞章學的) 경향의 흐름은 후대 사림과 성리학자들의 일부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강경(講經: 경학(經學))과 제술론(製述論: 글짓기 사장론(詞章論))의 대립은 현실 운용의 필연(必然)이었고 태종17년에는 과거(科擧)에서 초장강경(初場講經: 첫 고시 경학을 갖함)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중장(中場: 둘째 고시), 종장(終場: 마지막 고시)에는 제술(製述: 글짓기)이 위주가 되었다.

※ 勸學事目(權近): 권학사목(권근)

권근(權近: 의정부 참찬, 대제학)이 주장한 장려할 학문의

목록인데 이는 경학(經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명나라와의 외교)으로 사장학(詞章學)의 제술론(製述論)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거(科擧)의 등용에서 제술시(製述試)의 채택을 주장하였다.

▼ 春亭集(卷一):夜坐有感:춘정집(권1)야좌유감

▷ 治平在聖學焉用詞章爲….

※ 세상이 잘 다스려져 태평함은 그 관건이 성학(聖學)에 달려 있으니 어찌 사장(詞章:시가 문장(詩歌文章))을 쓰겠는가.

▼ 春亭集(舊序)-권제(權蹊):춘정문집(구서)

▷ 一時辭令多出其手而文辭典雅高妙尤長詩……先生文章事業可謂卓卓矣….

※ 한 때 많은 사령(辭令:왕의 선지(宣旨))이 그의 손에서 나왔고 그 문사(文辭:문장(文章), 사구(辭句))는 전형적으로 아담하고 교묘하였고 최고의 시(詩)로서……, 선생의 문장 사업은 가위 매우 탁월하였다.

◇ 춘정선생은 문장가(文章家)로서 많은 시문(詩文), 악장(樂章) 등을 남겼으나 관학 유학자(官學儒學者)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으며 항상 성학(聖學)의 소중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장학(詞章學)에 있어서는 명나라의 외교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당시 외교문서의 사령(辭令)에 있어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에 그 비중이 매우 컸으며 임금도 관심이 매우 높았다. 한편 권근(權近)이 제시한 과거 시험의 출제(出題)에 있어서 중장(中場:중간 교시)과 종장(終場:마지막 교시)에서의 제술론(製

述論)은 당시의 환경으로 보아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 世宗實錄八年癸未條:세종실록8년 계미(1426)조

▷ 初場以疑義觀經學終場以對策觀適用此初立法之意也.

※ 과거시험 출제는 초장(初場:첫 시험장)에서는 의의제(疑義制:글의 뜻을 의심스럽게 하여 바른 뜻으로 풀이하는 것)로 경학(經學)을 보고 종장(終場:끝 시험장)에는 대책(對策:출제에 대한 대응방책, 논술)으로 그 적용을 보는 것이 처음 과거제를 입법한 뜻입니다.

◇ 인재 등용에 있어 학문을 실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의의제(疑義制)를 지지하면서 사장(詞章)의 제술론법(製述論法)을 가미한 것인데 후대의 사림파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 병법(兵法:진법(陣法)) 운용

▼ 春亭集(卷五) 陣說問答:춘정집(권5) 진설문답

▷ 蓋亦救時之言也學者於聖賢之言當虛心悉意以審其旨未可執其言而據以爲定論也.

※ 대개 때를 구제하려는 말이니 배우는 자는 허심탄회한 자세로 성현의 말의 뜻을 연구해야지 그 한마디 말에 의거 집착해서 정론(定論:일정한 언론)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춘정선생은 태종(太宗)의 명으로 고제(古制:구 제도)에 근

거하여 진법(陣法:병법)을 완성하여 찬진(撰進:지어 올림)하고 그에 의거 군사 훈련을 시켰는데 세종3년(1421)에는 낙천정(樂天亭)에서 진법(陣法)의 시범을 보이는 행사에서 이때 세종은 김익정(金益精)으로 하여금 춘정선생의 진설(陣設:진법설명)의 의문 나는 것을 질문케 하고 세종 자신이 질문한 내용과 답변 내용을 한데 모아 찬진(撰進)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3년 5월 경진조(庚辰條)>

※ 후에 1426년(세종8)에 승정대부(崇政大夫:종1품)에 올라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友軍都摠制府事)를 역임.

▲ 도덕(道德)의 선용(善用)

▼ 春亭集(卷一) 內訟辭:춘정집(권1) 내송사

▷ 正其義不謀利固嘉言之孔彰.

※ 그 의를 바르게 하고 이(利)를 도모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아름다운 말이 크게 펼쳐진 것이다.

▼ 春亭集(卷五) 樂天亭記:춘정집(권5) 낙천정기

▷ 先儒所謂循天理則自無不利者其其不信矣乎?

※ 선유(先儒:선배유학자)들은 천리(天理:천지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자연히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 춘정선생은 중의경리(重義輕利:의(義)를 중히 여기고 이(利)를 가볍게 여김)의 사상에서 그러나 도덕적 견지에서 천리(天理)를 따르면 자연히 이(利)도 따라오는 수도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패도(覇道:왕권강화를 임결음)의 수용

▼ 春亭集(卷六) 永樂十三年六月 日封事(御群臣條)

춘정집(권육) 영락십삼년 6월 일봉사(이군신조)

▷ 臣聞人主之職在論一相而止耳…… 雖然此可行於古而不可行於今者也.

※ 신(臣)이 들건 데 '인주(人主:군주)의 직책은 일상(一相:한 재상)과 정사를 논의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것은 옛날에는 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행할 수 없습니다.

▷ 人主至寡也群臣至衆也以至衆而服役乎至寡者蓋以權利之在乎上也而移之可乎.

※ 인주(人主:군주(君主))는 지극히 적은 숫자이고 군신(群臣:여러 신하)은 지극히 많은데도 지극히 많은 숫자의 신하가 지극히 적은 숫자의 인주에게 복종하는 것은 대개 권리가 인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신하에게 넘기는 것은 가하겠습니까.

▷ 蓋權利之柄或移於貴臣威移於左右彼天下之人惟利是求惟權是畏者其常也竊人主之柄者誘之以重利威之以權勢勢不得不歸焉.

※ 대개 권리를 잡은 권한이 귀신(貴臣:당신의 신하)이나 좌우 측근에게 넘어가면 천하의 사람들은 이익을 구하고 이 권력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보통이라, 인주의 권력을 훔친 자가 큰 이익으로써 희유하고 권세로 위협할 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지 못하고 부득이 협력하는 신세가 된다.

▷ 天理之人心萬古如一日….

※ 천리(天理)가 인심(人心)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은 만고(萬古)토록 변함이 없이 하루 같다.

▷ 何謂御臣之道愛與公而已矣愛則人心順公則人心服
既順且服於御臣乎何有….

※ 어찌 이러한 바 신하를 다스리는 도(道)는 인애(仁愛)의 덕성(德性) 발휘와 더불어 통치의 공의성(公義性)을 갖는데 있고 인애(仁愛)는 곧 인심의 순종(順從)이고 공의성(公義性)은 곧 인심의 복종(服從)을 얻는 것이니 이미 그 순복(順服)은 신하를 다스림이 아니리라.

▷ 杜天下之私恩破天下之私計收天下之權而自執之
天下之利而親用之….

※ 모든 사사로운 은혜를 막고 모든 사사로운 계략을 깨뜨려 천하의 권력을 모아 자신이 소유하고 천하의 이익을 거둬들여 친히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① 宰相中心論(先王之制) 재상중심론(선왕지제)	→ 중국 고대(古代)의 통치제도 (주례(主禮)) (이조 초기 개국 공신들이 주장한 제도로 시행)
② 君主中心論(時王之制) 군주중심론(시왕지제)	→ 명(明)나라 통치제도 답습(踏襲) (태종이 정도전 등 공신파를 제거 왕권확립, 중앙집권)

◇ 이조 건국 초기 정도전 등 개국공신(開國功臣)들의 재상(宰相)중심의 통치 세력을 1, 2차의 왕자의 난으로 제거한 방원은 태종(太宗)으로 즉위한 후 왕권(王權) 강화와 중앙집권(中央執權)의 통치 체제를 갖추고 사병(私兵) 제도를 폐지하

고 사찰(寺刹)의 개혁 등 대대적인 문물(文物) 정비작업에 참여한 춘정선생은 시왕지제(時王之制)의 군주중심론(君主中心論)을 견지하고 나라의 기반은 확고한 왕권확립으로 정책의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한편 다스리는 도(道)는 항상 인애(仁愛)의 덕성(德性)과 통치(統治)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민본(民本) 정치에 근본을 하여 백성의 순복(順服)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

◆ 결 론

① 이조 초기 통치에 미친 환경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성공으로 나라를 개국(開國)하였으나 통치 기반이 매우 약한 상태였으며 특히 개국공신(開國功臣)들의 전횡(專橫) 세력이 의정부(議政府)로 기반을 하였기 때문에 왕권이 매우 허약했다.

사회 기반은 왕계씨족(王系氏族)과 반대 절의파(節義派)의 대대적인 숙청으로 민심이 동요되었고 지방의 호족(豪族:지방 대지주)들의 횡포, 상류층 사대부(士大夫:문벌이 높은 사람)의 사병(私兵)제도와 사찰(寺刹)의 노비 및 토지의 과다보유로 인한 횡포세력의 폐해(弊害)가 많았다. 그리고 모든 문물제도가 개혁에 의한 구 시대와의 상충(相衝)으로 그 조정이 어려운 시기였다.

② 요약된 중심사상의 특징

- ▶ 주자학(朱子學)적 경세사상(經世思想)에 따르는 실용주의(實用主義)의 성향을 가졌다.
- ▶ 치도론(治道論)에서 성리(性理)의 심성설(心性說)에서 이

기(理氣)의 이원론적(二元論的) 입장에서 도덕적 자각(道德的自覺)을 요구하고 권력 행사에 있어서 항상 그 기준에 의하여 규제(規制)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 ▶ 천명사상(天命思想)에서 항상 정책의 기반을 민본(民本)에 두고 애민정치(愛民政治)의 실현에 역점을 두었다.
- ▶ 관학과(官學派) 유학자(儒學者)의 위치에서 관료적 지식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군주중심론(君主中心論)의 입장을 취하였다.
- ▶ 나라의 온전함은 부국강병(富國強兵)으로 지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경학사상(經學思想)

춘정선생은 성학(聖學)을 연구하고 또 실천함에 있어 유신(儒臣)의 책무수행(責務遂行)에 큰 역량을 발휘한 석학(碩學)으로서 유저(遺著:남아있는 글의 책)에 남아있는 글귀를 통하여 경학사상(經學思想)의 면모를 살펴본다.

▶ 家訓:

人生非金石 少年能幾時 既壯不努力 白首而無知
勤儉書之訓 雪螢窮聖學.

※ 가훈:

인생은 금과 돌이 아니어든 소년 시절 몇 때나 될까? 젊어서 노력 아니하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부지럼과 검소함은 상서(尙書)의 가르침대로 하고 형설(螢雪)의 공(功)으로 성학을 배우고 익혀라.

註. ① 상서(尙書:서경(書經))

중국의 요(堯), 순(舜) 때부터 주(周)나라에 이르기까지

정사(政事)에 관한 문서를 수집 풍자한 책으로 오경(五經:서경(書經), 시경(詩經), 역경(易經), 춘추(春秋), 예기(禮記))의 하나로서 서경(書經)의 구칭(舊稱)이다.

② 형설(螢雪)의 공(功)

근고(勤苦:부지런 함에 따르는 고통)하여 학문을 닦는다는 뜻으로서 아래 진서(晉書)의 내용이 담겨있다.

▷車胤字武子, 幼恭勤博覽, 貧不常得油, 夏月以鍊囊成數十螢火, 照書讀之, 以夜繼日, 後官之尚書.

--晉書--

※차운(자, 무자)은 어릴 때 부지런히 책을 읽었는데 가난하여 등유를 얻지 못하고 여름 달밤에 수십 마리의 반딧불을 주머니에 넣어 책을 비추어 읽으며 매일같이 계속되니 후에 관직에 나아가 상서(尙書:비서기관의 장관)가 되었다.

--진나라 역사책 기록문--

▷孫康少清介, 交遊不雜, 家貧無油, 常映雪讀書, 後官之, 御史大夫.

※손강소천개는 사귀어 노는데는 잘 섞이지 않고 집안은 가난하여 불 밝힐 기름이 없어 겨울에는 흰 눈에 비추어 책을 읽고 공부하여 후에 어사대부(御史大夫)의 벼슬에 올랐다.

註 어사대부(御史大夫)

주대(周代)에 국사기록(國事記錄)을 맡은 벼슬로 진, 한(晉,漢) 이후 백관(百官)을 규찰하고 바로잡는 벼슬(법무)의 장관.

◇ 인생의 삶은 때가 있는 고로 젊어서 배우지 아니하면 나이 들어 무식하여 올바르지 못하게 되니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생활 신조로 하여 상서(尙書)의 가르침대로 따라 수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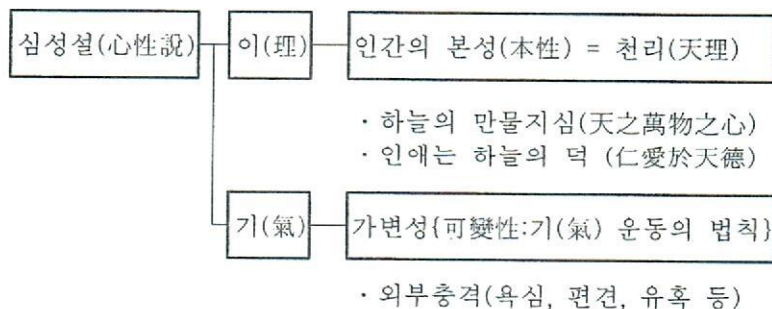
고 부지런히 일하는데 따르는 고통을 참고 견디며 형설(螢雪)의 공으로 성학(聖學)을 연구하고 닦아서 성공을 하라는 가르침이다.

▶ **내해 좋다 하고 남 슬혼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하고 의(義) 아녀든 쫓지 말라
우리는 천성(天性)을 지켜 삼긴대로 하리라.

- 註: ① 슬혼 일 : 싫은 일
 ② 아녀든 : 아니거든
 ③ 천성(天性) : 하늘에서 받아 타고난 좋은 성질(성리학적 천(天) 사상(仁義禮智信)).
 ④ 삼긴대로 : 생긴 대로(原形):본래 타고난 성질.

※ 나에게 이득이 되고 좋다 하여 남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고 하여 옳은 일이 아니면 따라 하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서 타고 난 좋은 성질을 지켜서
 본래 대로(天理) 행하여야 하느니라.

◇ 춘정선생은 성리학을 튼튼히 닦으시며 천(天) 사상과 심성설(心性說)을 강조하고 이(理), 기(氣)의 이원론(二元論)적 입장을 취했다.(경세사상 참조)



※ **주해(註解)**
 하늘에서 내린 타고 난 천성(天性=天理)은 바른데 기(氣)의 가변

성(可變性) 범칙은 외부의 충격(衝擊:욕심, 편견, 유혹 등)에 의해 비뚤어져 착한 본성(本性)을 누르고 불량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도덕(道德)에서 이탈하여 나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학문으로 배우고 수양하여 기(氣)를 바르게 이(理)와 같이 일치시키고 나쁜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行狀(卷十二) 鄭陟 : 행장 (권 12) 정척

▷ 好學不倦，以研窮性理爲務，日遊圃隱牧隱陶隱陽村諸賢之門，得師友淵源之正，所聞益廣，所造益深….

※ 학문을 좋아하며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성리(性理)를 연궁(研窮:깊이 연구함)하는 것으로 목표 내지 책무로 삼았으며 포은(圃隱:정몽주), 목은(牧隱:이색), 도은(陶隱:이승인), 양촌(陽村:권근)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넓고 깊은 학문이 이루어져 사우(師友:스승과 벗)의 바른 연원(淵源)을 얻었다.

▶ 圃隱先生詩藁序(卷五) : 포은선생 시고서 (권5)

▷ 先生爲學，自五身心情性之微，人倫日用之著，大而天地古今之運變，細而昆虫草木之名品，無不實 … 中略… 嘗講經於成均也，牧隱先生稱之曰橫說豎說，無非常理，推爲吾東方性理之學之祖。

※ 선생의 학문이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情性:뜻의 성품)과 은미(隱微:작아서 알기 어려움)함과 매일 쓰는 인륜(人倫)의 나타남에서부터 크게 천지古今(옛이나 지금이나)의 운변(運變:움직여 변함)에 이르렀고…일찍이 성균관에서 경을 강(講)할 때 목은(牧隱:이색) 선생께서 일컫기를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 우리 동방(東方:조선) 성리학의 조(祖)라 할만하다.” 고 했다.

▶ 春亭集初刊本跋文(安止): 춘정집 초간본 발문(안지)

▷ 研窮庸學之旨….

※ 용학(庸學:경서학)의 지(旨:뜻, 의미)를 깊이 연구했다.

▶ 殿試對策(卷八): 문집 전시대책(권8)

▷ 又聞敬者，一身主宰，萬事之根本，聖學之所以成始而成終者也.

※ 또한 경(敬)은 일신(一身)의 주재(主宰)이고 만사의 근본이며 시작을 이루는 것이고 마무리를 이루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 춘정선생은 오랫동안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당대의 거유(巨儒:정몽주, 이색, 이숭인, 권근)인 선생들에게 배운 깊은 경학(經學)의 지(旨)를 연궁(研窮:깊이 연구함)하였고 전시대책(殿試對策)에서 경(敬)을 논(論)한 것이나 문집에서 볼 수 있는 「대학행의주자발(大學行義鑄字跋)」과 「사서오경성리대전발(四書五經性理大全跋)」의 내용을 살펴 볼 때 중용(中庸), 대학(大學)에 용력(用力)을 집중하였음은 주자철학(朱子哲學)에 강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결 론

춘정선생의 경세(經世) 사상은 유교적 정치 이념에 기초하여 주자학적(朱子學的) 경학사상(經學思想)의 범주를 견지하였고 궁성학(窮聖學)과 이연궁성리(以研窮性理)로 요약되는 학문적 길을 밟았으며 상황에 따라 실용적(實用的) 응용(應

用)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적 천(天)사상에 입각하여 단군설화와 제천의식(祭天儀式)에 의한 민족 주체사상(主體思想)을 강조하는 한편 천명설(天命說)에 의한 천명(天命)의 실현을 민본(民本)에 두고 원칙적인 정책수행을 내 세웠는데 이는 성리(性理)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적 심성설(心性說)을 바탕으로 치도(治道)의 논리(論理)를 전개하면서 항상 군주(君主)의 각성을 촉구하고 20여 년의 문형(文衡)의 자리에서 교육학자답게 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과, 후민생(厚民生)을 위한 중농정책(重農政策)을 위시한 부국강병(富國強兵)을 강조하여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4. 철학사상(哲學思想)

가. 자연인식(自然認識)	나. 인간관(人間觀)
(1) 자연의 근원으로서의 천(天) 인식(認識) (2) 운동의 원인으로서의 기(氣) (3) 이(理)의 이해(理解) (4)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	(1) 성론(性論) (2) 심성(心性) 관계론(關係論) (3) 악행(惡行) 원인의 기질(氣質) △ 결론

※여기서는 조선철학사(朝鮮哲學史)에서 도통(道統)의 기준이 되는 절의(節義)정신을 계승하고 후학을 양성한 인물로 길재(吉再)-김숙자(金叔滋)-김종직(金宗直)을 들 수 있으나 철학을 통한 조망은 받지 못하고 사학파(私學派)로 지칭되고 상대적으로 이색(李穡)-권근(權近)-변계량(卞季良)으로 통하는 관학파(官學派)의 실천적유학자(實踐的儒學者)로 분류되는 학문적 배경으로 사상적 측면에서 춘정선생의 철학사상을 고찰한 민족문화 제 14집의 관계 논문을 기준으로 간추려 심는다.

<편집자>

가. 자연인식(自然認識)

(1) 자연의 근원으로서의 천 인식(天認識)

▼ 춘정집(春亭集)권11 기우우원단제문(祈雨霽圓壇祭文)

▷ 昊天萬物之父也 凡右所復之內而有聲色貌象英非資
於生育以遂其性命矣…

※ 호천(昊天:하늘의 신, 상제(上帝).氣)은 만물의 아버지이다. 하늘아래 성색(聲色:언어와 태도)과 모상(貌象: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에 힘입고 생육하여서 그 성명(性命:인성과 천명)을 이룬다.

▷ 動靜云爲之間 爵賞刑罰之際 豈皆合乎天心而無所
失歟 是宜天心震怒而示之譴責也

※ 동정운위(動靜云爲:기거동작과 언행) 작상형벌(爵賞刑罰:벼슬의 상과 형벌)이 어찌 천심(天心)에 합당하여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이것은 의당 천심(天心)이 진노하여 견책(譴責:잘못을 꾸짖음 관원의 정계)을 보인 것이다.

▷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故曰惟天地萬物父母 夫父
母之於子 俾之趨利而避害者 無所不至 而雨暘燠寒
相代於四時 而天下之物洪纖巨細 咸遂其生矣 易曰
乾道變化 各政性命 運行雨施 品物 流行 此之謂也.

※ 천(天)이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서 만물을 화생(化生)하니 그 때문에 천지는 만물의 부모라고 한다. 무릇 부모는 자식이 이로움을 얻고 해(害)를 피하게끔 하고자 하여 (그 마음씀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비가

오고 별이 들고 더위와 추위가 사시(四時)동안 감마 들어 천하의 모든 사물이 모두 그 생(生)을 이룬다. 역(易)에 건도(乾道)가 변화하여 각각의 성명(性命)을 바르게 하고 구름이 일고 비가 내려 만물이 유행한다는 것은 이것을 이룬 것이다.

◇ 이조 초기 유학자(儒學者)들은 인간의 중요부분은 천(天)과 일치시켜 천인합일의식(天人合一意識)의 관념으로 이어갔다. 춘정선생은 상천(上天)과 상제(上帝)를 동일시하고 상제(上帝)는 지상신(至上神)으로서 종교적 주제자를 의미하며 천(天)의 호악(好惡)의 지각(知覺)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

한편 천(天)은 권능(權能)을 행사하는 공포의 천(天)이 아니라 도덕적 주제자(道德的主帝者)로서 천(天)이고 인애(仁愛)의 덕성(德性)을 가진 존재로 부각시키고 이를 하층민(下層民)에 대한 제왕(帝王)의 동정심으로부터 유비(類比)된 정서적 산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천지(天地)의 마음은 만물을 생육하는데 슬려있는 자연의 끊임없는 생성과정으로부터 천(天)의 덕성(德性)을 읽었으며 그것을 인애(仁愛)로 표현하여 성리학(性理學)의 관념으로 귀착시키고 천(天)은 자연운동을 통해 도출되는 인애(仁愛)와 덕성(德性)을 가진 주제자(主帝者)이며 그것의 의지는 음양(陰陽) 오행(五行) 운동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천(天)은 이(理)일 따름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천(天)관념은 자연으로서의 천(天)속에는 도덕의 근원으로서의 천(天)과 주제자(主帝者)로서의 천(天)에 존속된다고 보았다.

(2) 운동의 원인으로서는 기(氣)

▼ 춘정집(春亭集) 권5(券五) 사가정기(四佳亭記)

▷ 蓋四時之氣 充塞天地 寧有一物之或 四時之運 貫

徹古今 寧有一刻之或停哉.

※대개 사시(四時)의 기(氣)가 천지에 가득 차 있으니 한
사물이라고 예외가 있겠는가.

▼ 동상(同上) 권11 북교제산신기우제문(北郊諸山神祈雨祭文)

▷此氣運循環 一陰一陽 數窮必通者 天道之常也.

※이 기운이 순환하여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니 막힌 것은
반드시 뚫리는 것이 천도(天道)의 항상성(恒常性)이다.

▼ 동상(同上) 권3 득차자(得此字)

▷大哉維乾元 生物自不已.

※크도다 건원(乾元:하늘의 근원)이여. 끊임없이 만물을 낳
는구나.

▼ 동상(同上) 권4 자전곡(紫殿曲)

▷大哉乾元四德全 黃裳坤道順承天.

※크도다 건원(乾元)이여. 사덕(四德:元亨利貞)이 온전하구
나. 누른 치마의 곤도(坤道:대지(大地)의 도(道))가 천(天)
을 잇는다.

▼ 동상(同上) 권1 야좌유감(夜坐有感)

▷一氣始混沌 茫茫蕩無垠 兩儀既已判 於中生聖人
繼天御皇極 君師以臨民……彝倫自此敍 成業垂千春.

※ 일기(一氣)가 처음에 혼돈한 상태에 있어서 망망하게
끝간데 없이 요동치다가 양의(兩儀:천, 지, 음, 양(의→우주
大法))가 이미 갈라지며 그 가운데서 성인(聖人)이 생겨
났다. 성인(聖人)은 하늘을 잇는 황극(皇極:가운데 곧은길
옳은 길)을 세워 군사(君師)로서 백성에게 임하였다
..... 이론(彝倫:인륜)이 이로부터 배풀어지니 성업(盛
業)이 천추에 드리워졌다.

◇ 춘정선생은 학자이면서도 관료로서의 성격을 지닌 관학
파(官學派) 유신(儒臣)으로서 교명(敎命)이나 외교문서의 작
성, 사신(使臣)의 영접 등 필수적인 문장(文章)의 전범(典範:韓
愈, 柳宗元, 歐陽修, 王安石, 蘇軾 등 문장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氣 → 兩儀 → 聖人 → 皇極 → 人倫 - 현실사회의 생성에
대한 음양운동(陰陽運動)의 근원(根源)을 찾고 원기(元氣), 음
양(陰陽), 오행(五行)등의 자연 생성(生成) 현상(現象)의 이론
(理論)을 따랐다.

(3) 이(理)의 이해(理解)

▼ 춘정집(春亭集) 권5(卷五) 사가정기(四佳亭記)

▷ 夫陰陽變合 而生水火木金土 五行之氣 順布而四時
行焉 萬物以之而遂其生矣 五行之理 其賦於人者 曰
仁義禮智信.....在天爲四時 在人爲四端 其理一也.

※ 무릇 음양(陰陽)이 변화하여 수(水)·화(火)·목(木)·금
(金)·토(土)를 낳고 오행(五行)과 기(氣)가 순포(順布)
되어 사시(四時)가 운행되니 만물은 그것으로서 생(生)

을 이룬다. 오행지리(五行之理)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이라고 한다.…… 자연에 있어서는 사시(四時)가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단(四端:인의예지(仁義禮智)-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의 마음씨)이 되니 그 리(理)는 하나이다.

▼ 동상(同上) 낙천정기(樂天亭記)

▷ 蓋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疑 人乃生焉 則天理之賦於人者 無不同.

※ 무극지진(無極之眞)과 이오지정(二五之精)이 묘(妙)합하고 엉기어서 인간이 생겨났으니 천리의 품부(天理之稟賦)된 것은 같지 않음이 없다.

▼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

▷ 蓋五行異質 四時異氣 而皆不能外乎陰陽 陰陽位異 動靜異時 而皆不能離乎太極 至於所以爲太極者 又初無聲臭以可言.

※ 대개 오행(五行)은 질(質)을 달리하고 사시(四時)는 기(氣)를 달리하지만 모두 음양(陰陽)을 벗어 날 수는 없는 것이며 음양(陰陽)은 위(位)를 달리하고 동정(動靜)은 시(時)를 달리하지만 모두 태극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태극이 되는 이유는 본래부터 성취(聲臭)로서 말할 수 없다.

▼ 춘정문집(春亭文集) 권5(卷五) 진설문답(陳說問答)

▷ 兵書所載 此類非一 蓋取五行生克之理也 而可廢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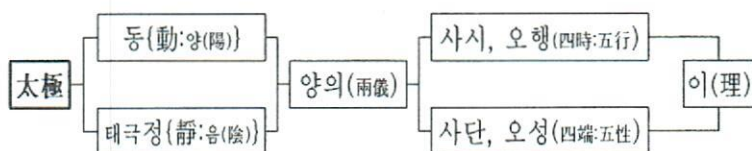
※ 병서의 기록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대

개 오행상생(五行相生)과 오행상극(五行相剋)의 이(理)에 취한 것이니 폐할 수 있겠는가.

◇ 춘정선생은 이(理)의 이해(理解)에서 음양(陰陽:태극이 나누인 두 가지 기운)이 오행(五行;천지만물을 조성한 다섯 원기(元氣))을 낳고 오행(五行)의 기(氣)가 사시(四時)를 운행하니 만물이 생성한다고 하고 궁극적으로 음양오행운동(陰陽五行運動)이 결국 태극(太極)으로 통하고 태극도설(太極圖說)에 설명이 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기(氣)=음양(陰陽)=오행운동(五行運動)의 '오행지리(五行之理)'가 결국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이라는 법칙성(法則性)이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주의 근원인 태극(太極)이 처음 무극(無極)의 상태에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정령(精靈)과 묘합하여 인간이 생성되었음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이치(天理誌稟賦)라고 설명하고 천사상(天思想)과 연결하고 있다.

※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



※ 이기(理氣) 주해(註解)



위의 표와 같이 춘정선생의 사상에서 당위법칙(當爲法則)의 기준이 되는 천리(天理)는 결국 도덕적 주제자(主帝者)로서 천(天)의 생물지심(生物之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내재화(內在化)되어 사단(四端)이나 오성(五性)이 되고 **구체**적인 행사(行事)에서 적용되어 당위법칙(當爲法則)이 된다. 춘정선생에 있어 음양오행운동(陰陽五行運動)을 천의(天意)의 구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음양오행운동(陰陽五行運動)의 법칙성(法則性)으로서의 이(理)는 그것을 통해 구현되는 천의(天意)의 일관성(一貫性) 즉 생물지심(生物之心)이다.

즉 이(理)는 자연의 사시(四時: 춘하추동)와 오행(五行: 다섯원기) 운동으로서 **오행지리(五行之理)**를 이루고 인간은 사단(四端: 인·의·예·지)과 오성(五性: 다섯성정)을 지녀 **품부지리(稟賦之理)**를 이루어 **천의구현(天意俱現: 당위법칙)**의 궁극적 실현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주(註)

※ **오행(五行)**: 우주 간에 운행되는 다섯가지 원기(元氣: 金·木·水·火·土)

상극(相剋) - 土剋水·水剋火·火剋金·金剋木·木剋土

상생(相生) - 金生水·水生木·木生火·火生土·土生金

※ **사단(四端)**: 본성(本性)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마음씨

【인(仁)】-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히 여겨. 연함.

【의(義)】- 수오지심(羞惡之心)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함.

【예(禮)】- 사양지심(辭讓之心) 사양하는 마음.

【지(智)】- 시비지심(是非之心)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

※ **오성(五性)**: 인간의 다섯 가지 성질

기쁨 노염 욕심 두려움 근심

【희(喜)】 【노(怒)】 【욕(欲)】 【의(畏)】 【수(愁)】

【애(哀)】 【애(愛)】 【악(惡)】 -- 칠정(七情)

(4) 천인(天人) 감응론(感應論)

▼ 동상(同上) 권7(卷七) 영락19년월일봉사(永樂十九月日封事)

▷ 今之災變 又豈非天厚殿下 俾之警省覺悟以 保長治

久安之業於無窮也耶 董子所謂天心仁 愛人君者 豈不信哉.

※ 지금의 재변이 어찌 천(天)이 천하(殿下)를 따듯이 보살피어 경계하고 각성하게 함으로서 무궁토록 다스림과 평안을 보존케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동중서(董仲舒)가, '천심(天心)은 인군(人君)을 인애(仁愛)한다.'라고 한 말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동상(同上) 권8(卷八) 구언교(求言교)

▷ 蓋聞人感於下 天應於上 天人之間 感應甚速 不可誣也

※ 인간은 하늘 아래서 행동(感)하고 천(天)은 하늘 위에서 반응하니 천인지간(天人之間)에 감응(感應)하는 것은 지극히 신속하여 속이지 못한다.

▼ 동상(同上) 권5(卷五) 희우정기(喜雨亭記)

▷ 天人相感之機 有昭乎不可誣者矣.

※ 천인(天人)이 서로 감응하는 기틀은 소연(昭然: 밝음)하여 속이지 못하는 바가 있다.

▼ 동상(同上) 권11(卷十一) 기우우사원단제문(祈雨霽社壇壇祭文)

▷ 惟天 萬物之父也.

※ 인간 행사에 신속하게 감응(感應)하는 것은 【오직 천(天)은 만물의 아버지이다.】 이기 때문에 자식의 잘잘못에 상벌을 내리듯이…….

▼ 동상(同上) 권8(卷八) 유대마도주선지(諭對馬島州宣旨)

▷(天之生斯民也 氣而成形 理亦賦焉)
而作善則降之百祥 不善則降之百殃.

※하늘이 이 백성을 낳고 기(氣)를 형성하여 내려 준 이
(理)인데, 【선(善)을 행했을 때는 여러 상서로움을 내
리고 불선(不善)한 일을 행했을 때는 여러 재앙을 내
리게 된다.】 고 하였다.

▼ 동상(同上) 권10(卷十) 昭格殿行祈雨兼星變祈禳醮禮三獻青詞
소격전행기우점성변기향초례삼헌청사

▷天心仁愛 昭示休咎之徵

※하늘의 천심(天心)은 어짐과 사랑(仁愛)으로 차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허물 하는 징조의 징험(徵驗)을 밝게
드러낸다.

▼ 동상(同上) 昭格殿行祈雨兼流星祈禳醮禮三獻青詞
소격전행기우점유성기향초례삼헌청사

▷出異示災 實是天心之仁愛.

※나타난 재이(災異)를 통해서 보고 다시금 천(天)의 덕
성(德性), 천심(天心)의 인애(仁愛)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동상(同上) 권5(卷五) 희우정기(喜雨亭記)

▷人與天地本一體

※인간과 자연(自然, 天地)은 본래적으로 일체이다.

▼ 동상(同上) 사가정기(四佳亭記)

▷ 天地四時 本吾噓氣

※ 천지 사시(四時: 춘하추동)와 인간은 본래 하나의 기(氣)이다.

▼ 동상(同上) 권10(卷十) 祈雨昭格殿行醮禮青詞

기우소격전행초례청사

▷ 人事感於下 天變應於上 天人相感之理 厥惟顯哉

※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천(天)의 변화가 위에서 반응하니 천인(天人)이 서로 상감(相感)하는 이(理)가 오직 밝게 드러나는구나.

◇ 춘정선생의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의 실천적 의미는 정심(正心), 혹은 존심(存心)에 있으며 실천수양론(實踐修養論)의 핵심 명제(命題)가 되므로 이상에서 논술한 자연인식(自然認識)을 정리해 보면,

1. 인간을 비롯해 모든 자연물을 낳는 궁극적 원천(源泉)은 도덕적 주재자(主宰者)로서의 천(天)이다.
2. 만물을 인애(仁愛)하는 천(天)의 의지(意志), 곧 생물지심(生物之心)은 기운동(氣運動)을 통해 구현되고 그 때 기(氣)는 자연운동의 직접적 원인이다.
3. 기(氣)운동의 법칙성(法則性)으로서 이(理)는 궁극적으로 천(天)의 생물지심(生物之心)과 일치한다.
4. 천인감응(天人感應)의 두 축은 포괄적으로는 천(天)과 인간이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천지의 기(氣)와 심(心)의 연관이며 특히 심(心)은 천인감응(天人感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5. 위와 같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과

재이설적(災異說的) 인식이 엿보이고 그것은 정심(正心)이나 본심(本心)의 실천적 명제(命題)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향은 춘정선생의 유학사상적(儒學思想的) 특징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선조(朝鮮朝) 유학(儒學)이 심학적(心學的)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는 견해가 정설이다.

나. 인간관(人間觀)

(1) 성론(性論)

▼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주희(朱熹)}

▷ 蓋人物之生 莫不有太極之道言, 然陰陽五行氣質交運 而人之所稟獨得其秀 故其心爲靈 而有以不失其性之全.

※대개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 모두 태극(太極)의 도(道)를 가지고 있지만 음양오행(陰陽五行)이 기질(氣質)과 교운(交運:섞이어 움직임)하여 사람이 품부(稟賦:선천적으로 받음)받은 것만이 빼어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심(心)이 가장 영묘(靈妙:신령하고 기묘함)하여 본성(本性)의 온전함을 잃지 않은 바가 있다.

▼ 주자어류(朱子語類)

▷ 人之性皆善 然而有生下來善底 有生下來惡底 此是氣稟不同.

※인간의 본성(本性)은 모두 선(善)하지만 태어나면서부

터 착한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 있으니 이것은 기품(氣稟)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 맹자집주(孟子集註)

▷ 人物之生 同得天地之理以爲性同得天地之氣以爲形
其不同者 獨人於其間得形氣正 而能有以全其性
爲少異耳.

※ 인간과 사물이 태어남에 모두 천지(天地)의 리(理)로 성(性)을 삼았고 천지(天地)의 기(氣)로 형체(形體)를 삼았다. 인간과 사물이 같지 않은 점은 오직 인간이 형기(形氣)의 바름을 얻어 능히 그 본성을 온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있으니 조그마한 차이 일 따름이다.

◇ 춘정선생은 인간과 사물의 생성에 있어 사람만이 그 영묘(靈妙)하고 빼어남을 얻었다고 믿고 인간과 사물의 개별성이 기질(氣質)에서 연유한다는 기품설(氣稟說)도 있지만 인간과 사물의 기품(氣稟:태어나면서 타고난 성질)이 태어나면서부터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하였다. 그리하여 “천명지성(天命之性)은 사람과 사물이 다르다.” 「天命之性 人與物異也:春亭集卷8策問題」고 인식하였고 인간과 사물이 태어남에 모두 천지(天地)의 이(理)로 성(性)을 삼았고 천지(天地)의 기(氣)로 형체(形體)를 삼았으니 오직 인간은 형기(形氣)의 바름을 얻어 온전히 할 수 있었던 본성(本性)을 천명지성(天命之性)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질(氣質)의 측면도 인정하면서도 본연(本然)의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本性)을 설명하는데 비중을 두었고 “황천(皇天)이 내린 마음과 몇몇한 본성(本性)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皇降之衷 秉彝之性 夫豈異於人哉:春亭集 卷5 送東北面都巡問察理使威公詩序」고 하였고, “몇몇한 본성(本性)은 아름다운 덕(德)을 좋아함은 이하(夷廈:오랑캐 큰집)에 차이가 없다.” 「秉彝

之好椅德兮 無間於夷廈:春亭文集 卷1 維天命辭」고 하여 인간 본성(本性)의 동질성은 부각하면서도 기질(氣質)에 대한 인간 차별성(人間差別性)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하늘이 내린 마음과 덧땀한 본성(本性)은 생명이 있는 것이 모두 같이 얻은 바이다.”「降衷秉彝 有生所同得:春亭集卷8 再論對馬島」라 하여 철저한 성선설(性善說)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2) 심성관계론(心性關係論)

춘정선생은 심(心)과 성(性)의 관계를 못과 샘으로 비유하면서 일단 심(心)을 샘물을 담는 「못」으로, 성(性)은 심(心) 속에 구비된 이(理)라고 하며 인간에게는 선험적으로 인애(仁愛)와 천덕(天德)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러한 인간의 선험적인 도덕성은 심(心)에 의한 의식활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性)이 샘이라면 심(心)은 그 물을 담는 못이라고 비유하였다.

▼ 춘정집 권1(春亭集卷1) 분지저한천시서(盆地貯寒泉詩序)

▷ 蓋池比則心也 泉比則心所具之理 性之謂也 既曰貯之則其盈科而進 終必至於海者 固已溢於 言表矣 夫心之虛靈而天下萬物之理 統於其中者 卽池爲澄明 而上之天日 下之松竹花卉 輝映其間者也 池既盈矣 流動不息 放乎四海 灌溉萬物者 卽心之感而遂通 宰制萬事 統理萬國 其效至於參天地贊化育而後已焉者也 心之體用 固如此矣 不以私浴滑之 以全其德者 貯之之謂也.

※대개 못이 비유하고 있는 심(心)이며, 샘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심(心) 속에 구비된 이(理)이니 성(性)을 말

하는 것이다. 이미 (못이) 가득 찼다고 하였으니 물이 넘쳐흐르게 되면 마침내는 반드시 바다에까지 이른다는 것이 이미 말에 나타나 있다. 무릇 심(心)이 허영(虛靈)하여 천하 만물의 이(理)가 그 가운데 통섭(統攝)되어 있다는 것은 곧 못의 물이 아주 맑아서 하늘의 태양이나 땅의 송죽화훼(松竹花卉)가 그 사이에 밝게 비추어지는 것이다. 못의 물이 이미 넘쳐서 흐르기를 멈추지 않고 사해(四海)까지 나아가서 만물을 적시는 것은 심(心)이 감이수통(感而遂通)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만국을 통리(統理)하며 그 공효(功效)가 천지와 함께 셋이 되고 화육(化育)을 도운 이후에 그치는 것이다. 심(心)의 체용(體用: 사물의 본체와 그 작용)이 진실로 이와 같다. 사욕(私欲)으로 어지럽히지 않아서 그 덕(德)을 온전히 하는 것이 못의 물을 채우는 것이다.

▼ 동상(同上) 권8(卷八) 책문제(策問題)

▷ 心者性之郭郭

※ 심(心)은 성(性)의 부곽(郭郭: 성 바퀴, 성 위의 쌓은 담)이다.

▼ 동상(同上) 권3(卷三) 차우부사시권(次禹府使詩卷)

▷ 人心撓於物

※ 인심은 외물(外物)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것.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5(卷五)

▷ 惟性與心亦然 所謂一面二 二面一也.

…虛靈自是心之本體--.

※ 성(性)과 심(心)도 마찬가지로이니 이른바 하나이면서도

돌이고 돌이면서도 하나라는 것이다. 허영(虛靈은 역시 심(心)의 본체(本體)다.

▼ 동상(同上) 권9(卷九)

▷ 心包萬理 萬理具於一心.

※ 심(心)은 만리(萬理)를 포괄하고 만리(萬理)는 일심(一心) 속에 갖추어져 있다.

▼ 주자대전 권30(朱子大全卷三十) 답장경부서(答張敬夫書)

▷ 熹以爲心之本體固無時不虛 然而人欲已私泊沒久矣 安得一旦遽見此境界乎 故聖人必曰正其心 而正心必先誠意 誠意必先致知 其用力次第如此 然後可이 而得心之正 而復其本體之虛 亦非一日之力矣.

※ 내가(朱熹) 생각하기로는 심(心)의 본체(本體)가 진실로 허영(虛靈)하지 않은 때가 없으나 인욕(人欲)과 사사로움에 빠진 지가 오래되었으니 어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러한 경계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반드시 그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말하였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에는 반드시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라고 하였고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먼저 지(知)를 이루라고 한 것이다. 그 용역(用力)의 순서가 이와 같은 연후에 마음의 올바름을 얻을 수 있고, 본체(本體)의 허영(虛靈)함을 회복할 수 있으니 또한 한나절의 공력(功力)이 아닌 것이다.

▼ 춘정집 권7(春亭集卷七) 영락(永樂)十九年月日봉사(封事)

▷ 博學而詳說之 將以反說約也 可謂盡矣 卽大學格物致知之說也 夫然後心之全體大用 無不明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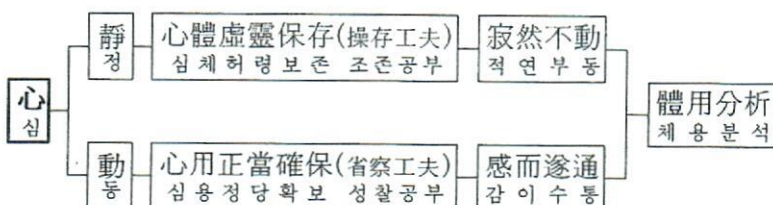
※ 박학상세(博學詳說: 널리 배우고 상세히 설명)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검약(檢約)하면 가히 지극하다고 할 것이니 「대학(大學)」의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 연후에 심(心)의 전체대용(全體大用)이 밝아지지 않음이 없다.

◇ 주희(朱熹)는 심(心)의 허영(虛靈)함을 회복함으로서 만사만물(萬事萬物)의 이(理)가 소연(昭然)히 밝아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 단지 정심(正心)이나 성의(誠意)로만 착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치지(致知)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먼저 치지(致知)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식심(識心)이니 견심(見心) 따위의 내면공부(內面工夫)를 위주로 하게 되면 의식활동의 준칙(準則)을 세울 수 없고, 결국 이(理)에 적중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며 동시에 유자(儒者)의 학문(學問)은 궁리(窮理)를 선무(先務)로 하니 대개 모든 사물에는 하나의 이(理)가 있는지라, 먼저 이것을 밝히고 난 연후에 심(心)이 발하는 바의 경중장단(輕重長短)에 준칙(準則)이 있게 된다고 하여 치지(先致知)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춘정선생은 주희(朱熹)와는 달리 「사욕(私欲)으로 어지럽히지 않아서 그 덕(德)을 온전히 하는 것」, 즉, 외물(外物)의 유혹과 사욕의 차폐(遮蔽)로부터 벗어나서 심(心)에 구비되어 있는 덕(德)을 보존하는 「존심(存心)」만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희(朱熹)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학의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을 언급하면서도中庸(中庸)을 예찬하고 특히 조존 성찰(操存省察)의 공부 방법을 강조하였고, 그 목적은 존심(存心)과 정심(正

心)에 두고 있으며 심성론(心性論)에 있어 실천수양론(實踐修養論)과 조존성찰(操存省察)의 지경(持敬)으로 요약되어 조선 초기(朝鮮初期) 관학파(官學派) 유학자(儒學者)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심학적(心學的) 경향을 보이며 실천 유학적(實踐儒學的) 성격으로 궁리(窮理) 이전에 거경(居敬)을 중시하게 되고 조선조(朝鮮朝) 성리학(性理學)의 경(敬)을 위주로 하는 실천 공부의 단초가 되었다.

춘정선생은 주자학적 심성론(心性論)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면서도 실천수양론(實踐修養論)에 있어서는 심학적(心學的) 경향을 띠고 있었으며 심(心)에 대하여 상당한 비중을 두고 중요시하였다.



이것은 심(心)의 체용(體用: 사물의 본체와 그 작용)에 관한 논의에서 주희(朱熹)의 성정(性情)으로 보는 것을 따르지 않고 심(心)의 적연부동(寂然不動)과 감이수통(感而遂通)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었다. 앞의 「분지저한천시서(盆地貯寒泉詩)」에서도 춘정선생은 「심(心)이 허령(虛靈)하여 천하 만물의 이(理)가 그 가운데 통섭(統攝)되어 있는 것」과 「심(心)이 감이수통(感而遂通)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만국을 통리(統理)하여 그 공효(功效)가 천지와 함께 셋이 되고 화육(化育)을 도운 이후에 그치는 것」을 심(心)의 체용(體用)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영락13년6월일봉사(永樂十三年六月日封事)」를 통해서 「심(心)이 있으면 반드시 체용(體用)이 있다」고 전제하고 심(心)이 정(靜)하였 때 조존공부(操存工夫)를 통하여 심체(心體)의 허령(虛靈)함을 보존하고 심(心)이 동(動)하였을

때 성찰공부(省察工夫)를 통하여 심용(心用)의 올바름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여 역시 동정(動靜)-적연부동(寂然不動)과 감이수통(感而遂通)의 관점에서 심(心)의 체용(體用)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활동을 심성정(心性情)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심(心)의 측면에서만 조망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춘정선생은 이렇게 심성(心性)을 철학의 근본문제로 설정하면서도 결국 심(心)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으며 이렇게 심(心)을 중시하는 경향은 그의 경세사상(經世思想)에 그대로 연결되어 경세(經世)의 요론(要論)으로 존심치도론(存心治道論)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한 조각의 마음이 우주를 안는다.」

※편심포우주 {片心包宇宙 : 춘정집(春亭集)권4 만흥(漫興)}

「염락(濂洛)의 도심(道心)이 우주를 안는다.」

※염락도심포우주 (濂洛道心包宇宙 : 동상(同上) 차저정선

생시운(次楊亭先生詩韻)}

(3) 악행(惡行)의 원인으로서는 기질(氣質)

▼ 춘정집(春亭集) 권5(卷五) 사가정기(四佳亭記)

▷衆人之生 氣質偏矣 物欲蔽矣 功名利祿得失之計
百周千析 凝氷焦火 而相戰於其中矣. 衆人之生 氣
稟駁矣 物欲蔽矣

※중인(衆人)이 태어남에 있어서는 기질(氣質)이 치우쳐서 물욕(物欲)에 가리우고 공명(功名), 이록(利祿), 득실(得失)의 계산이 여러 갈래로 솟아올라 얼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면서 마음속에서 서로 싸운다.

중인(衆人)이 태어남에 있어서는 기품(氣稟) 잡박(雜駁: 뒤섞임)하여 물욕(物欲)에 가리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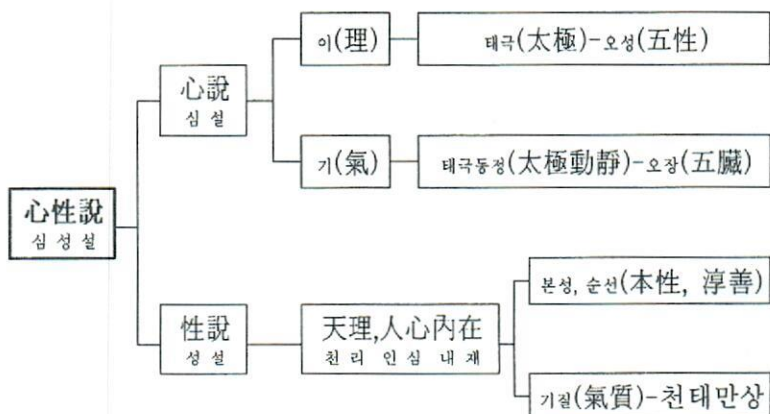
◇ 춘정선생은 기질(氣質)은 물욕을 불러일으키는 선천적인 요소이며, 물욕은 악행(惡行)을 낳는 원인이 된다. 인간의 본질(本質)은 순선(純善)하지만 물욕에 의해서 그 본질이 그대로 외화(外化)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때 모든 악(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질(氣質)의 편폐(偏蔽: 편향된 가림)를 극복하고 본성(本性)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존양(存養)과 확충(擴充)의 공부가 필요한데 그 때문에 춘정선생의 인간관(人間觀)은 실천수양론(實踐修養論)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춘정선생은 주자학적(朱子學的) 이론(理論)의 틀을 수용하면서도 그 이론을 완전히 답습하지는 않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학의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을 언급하면서도 조존성찰(操存省察)의 공부방법을 중요시(重要視)했는데 그 목적은 존심(存心)과 정심(正心)에 두고 있으며 심성론(心性論)에 있어 실천수양론(實踐修養論)과 조존성찰(操存省察)의 지경(持敬)으로 요약되어 조선초기 관학과(官學派) 유학자(儒學者)들에게 공통으로 발견되는 심학적(心學的) 경향을 보이며 실천유학적(實踐儒學的)으로 궁리(窮理) 이전에 거경(居敬)을 중시하게 되고 조선조성리학(朝鮮朝性理學)의 경(敬)을 위주로 하는 실천 공부의 단초가 되었다.

춘정선생의 철학적 사상의 특징은 한대적인식(漢代的認識), 주자학적인식(朱子學的認識), 심학적인식(心學的認識)이 하나의 사상체계(思想體系) 안에 혼재(混在)되어 있는 「잡유성(雜糅性)」으로 조선조 초기 관학과 유학자(官學派儒學者)들의 경세(經世)의 실무이론(實務理論)과 사장(詞章)이 형이상학

적(形而上學的) 존재론(存在論)으로 부상시켜 실천수양론(實踐修養論) 보다 강조되었던 한대(漢代)의 학문(學問) 경향을 띠고 있다. 그리고 천 사상(天思想)에서 연유된 자연인식(自然認識)에서 경세(經世)의 원리(原理)로서 민본(民本), 존심치도론(存心治道論)을 제시하였고 당위법칙(當爲法則)으로서의 「사리(事理)」, 사단오성(四端五性)의 도덕적 주체자(主帝者)로서의 「천리(天理)」와 음양오행(陰陽五行)의 기운동(氣運動)을 수용함에 있어 특히 심학(心學)의 뿌리로 심(心)의 「체용논리(體用論理)」를 정연하게 정의(定意)하는 한편 심(心)의 동적(動的) 운동에서의 기(氣)는 악행(惡行:유혹, 욕심 등)의 위험요소인 기질(氣質)의 탈행(脫行)을 막고 심령(心靈)함을 바르게 보존함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학문의 탐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춘정선생은 20여 년의 문형(文衡)에서 당대(當代)의 역사적 조건이 어떠한 철학적 의미를 도출(導出)하는가에 대한 영향도 있었을 것이므로 선배인 호정(浩亭) 하륜(河崙) 선생의 성리학적 심성설(心性說)의 영향을 받아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적 입장을 취했다.



즉, 위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성리학(性理學)적 심성설

(心性說)은 심(心)과 성(性)으로 대별되는데, 심설(心說)은 「심(心)이란 이(理)와 기(氣)의 합체(合體)로서 우주만물의 본체인 태극이 바로 이(理)이며, 태극의 동정(動靜)이 기(氣)이다.」란 우주론에 인간을 적용시켜 기(氣)→오장(五臟), 이(理)→오성(五性)으로 규정하고, 또 성설(性說)은 「성(性)은 천리(天理)가 인심(人心)에 내재(內在)한 것이고, 그리고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은 성(性)의 면목(面目)」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性)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래의 성(性)은 착하지만 기질(氣質)의 성(性)은 천태만상이란 이원론(二元論)을 견지하였는데, 이는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과 순자(荀子)의 성악설(性惡說)을 함께 받아드려 본질성(本質性)과 기질성(氣質性)으로 이론화하고 「인간은 선한 천품(天稟)을 타고났으나 나쁘게될 기질의 성(性)을 갖고있기 때문에 항상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학문(學問)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IV. 춘정선생 학문세계(學問世界)

목 차

1. 춘정선생의 학문적 위치
 - 가. 학문(學問)의 연원(淵源)
 - 나. 관학(官學)의 태두(泰斗). 전문형(典文衡)
2. 문집(文集)을 바탕으로 본 문학세계
 - 가. 시조(時調) 다. 악장(樂章)
 - 나. 한시(漢詩) 라. 가사(歌詞)
3. 유학자(儒學者)들의 업적으로 본 학맥(學脈)
 - 가. 학맥개요(學脈概要)
 - 나. 유학자들의 학문적 업적과 영향(관학, 사학)
4. 문집(文集) 독해(讀解)
 - 가. 한시(漢詩) -- 50수(선별)
 - 나. 서(書) ----- 유묵(遺墨)

◇ 춘정선생의 학문세계는 고려 말에 전래된 주자학(朱子學)과 이조 초기 유교입국(儒敎立國)의 건국이념(建國理念)에 바탕을 둔 학문적 위치에서 주로 관학(官學)에 의존된 인물 양성과 새로운 문물제도(文物制度)를 관장하고 있었고 사학(私學)의 번창은 1542년(중종37)에 주세붕(周世鵬)이 우리나라 최초의 풍기(豐基)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일으킨 이후의 일이었다.

선생은 여말(麗末)의 거유(巨儒)들과 사우(師友) 관계를 맺으면서 뒤늦게 참여한 신왕조(新王朝)에서 권근(權近), 하륜(河崐)의 인맥(人脈)을 이은 당대를 풍미(風靡)한 석학(碩學) 문형(文衡)으로서의 업적을 통해 학문세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춘정선생의 학문적(學問的) 위치

가. 학문의 연원(淵源)

춘정선생은 천부(天賦)의 총명(聰明)을 타고나서 4세 때에 고시(古詩)를 외우고 6세 때에 작시(作詩)하는 지혜를 갖추었다. 선생의 유년시절은 부친 휘 옥난공(諱 玉蘭公)께서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역임할 때였고 14세 때 진사(進士), 이듬해 생원(生員)을 거쳐 17세 때 문과(文科)에 오를 즈음에는 청주를 거쳐 충주목사(忠州牧使)를 역임할 때였으며 형(兄:춘당공(春堂公))은 이미 문과에 급제(及第:1365)하고 출사(出仕)하여 포은(圃隱)의 문하생으로서 양촌(陽村)과도 친하게 교우관계를 맺고 있어 사대부(士大夫) 집안의 좋은 환경에서 수학(修學)할 수 있었다.

선생은 진사(進士)이후, 문과(文科:1385)를 거쳐 19세(1387)되던 해 출사(出仕:정사랑(徵仕郎)전교서(典校署)주부(主簿)) 때까지 계속 성균관(成均館)에 머물면서 당대의 거유(巨儒)인 【포은(圃隱:정몽주), 목은(牧隱:이색), 도은(陶隱:이승인), 양촌(陽村:권근)의 문하에서 날마다 노닐어 넓고 깊은 들은 바가 있어 바른 사우(師友)의 연원(淵源)을 얻어 의(誼)가 두텁게 했다.】

「…日遊圃隱牧隱陶隱陽村之門 得師友淵
源之正 所聞益廣 所造益深」

<春亨文集卷十二>

또 고려 말엽 신유학도입기(新儒學導入期)에 목은(牧隱:이색) 선생이 성균관(成均館)에서 경(經)을 강(講)하는 포은(圃隱)선생을 가리켜 「동방성리학의 조(東方性理之學之祖)」라 칭송하였는데 여기에서 배운 춘정선생이 「이연궁성리위무(以研窮性理爲務)」라 하여 즉, 성리학을 연구하는데 우선의 책무로

삼았다고 춘정선생의 제자인 정척(鄭陟)이 행장(行狀)에서 적고 있다.

그리고 당대의 정치환경은 학문적 견지(學問的見地)에서 보면 중국에서 들여온 성리학(性理學)이 수기지학(修己之學)의 인기가 학자간에 높았으나 여말(麗末)의 국력 쇠퇴와 정치 혼란의 틈새에서 백이풍(伯夷風)의 명분론(名分論)과 이윤풍(伊尹風)의 현실론(現實論)에서 분열된 학자간의 운신의 제약은 학문적 발전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었다.

◇ 춘정선생의 학문적 연원(淵源)은 사대부(士大夫) 가문의 훌륭한 환경에서 타고난 총명(聰明)을 바탕으로 하였고 당대(當代)를 대표하는 위대한 학자들의 문하에서 충애를 받으면서 수학(修學)하였다. 그리고 년소(年小)한 나이에 등과(登科)가 말해주듯 학문의 위치를 인정 받고서도 연궁(研窮)의 철학을 소홀(疏忽)히 하지 않고 여전하였으니 후에 대 학자의 자리를 떠는 자질을 수양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나. 관학(官學)의 태두(泰斗) 전문형(典文衡)

▷ 年譜(丙戌, 丁亥條) : 春亨文集續集卷二

• 六年丙戌(先生三十八歲)

冬超試禮文館直提學

• 七年丁亥(先生三十九歲)

四月登 親試文科第一人超拜禮曹右參議兼修文殿

直提學知製敎 命賜先生田二十結奴婢一口後又賜

牌曰豫嘉乃才田奴卿其子孫相傳益有還收之例故云

※ 년보(병술, 정해년조항) -- 춘정문집 속집 권 2

• 태종6년(1406 병술) 38세 되던 해 겨울시험을 거쳐 예문관 직제학(정3품)을 맡았다.

- 태종7년(1407.정해) 39세 되던 해 4월에 임금이 임
석한 친시(親試) 문과 시험에서 제1일등으로 뽑혀
관례를 초월한 파격적인 인사로 예조우참의(정3품)
겸 수문전직제학 지제교에 배수(拜受:임명)되었다.
그리고 임금이 선생에게 전(田) 20결(結)과 노비1구
(口)를 내리고 내가 네 재주를 아리따이 여기노니
후에 환수(環收:거두어 드림)가 되지 않도록 영원히
경(卿:춘정선생)의 자손에게 전하도록 하라고 분부하
고 패(牌)까지 내려주었다.

▷ 年譜(己丑條) : 春亭文集續集卷二

- 九年己丑(先生四十一歲)

閏四月陞嘉善大夫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
八月兼同知經筵事

※ 년보(기축년조항) : 춘정문집 속집 권2

태종9년(1409, 기축) 41세 되던 해 윤4월에 관직이 가
선대부(嘉善大夫:종2품)에 올라 예문관제학과 동지춘추
관사에 임명되고 동년 8월에는 동지경연사를 겸하였다.

◇ 춘정선생의 관각(館閣) 업무의 장악은 41세 되던 해부터
시작되었으며 예문관, 춘추관의 실무책임과 더불어 어전(御
前)의 경연(經筵:임금 앞에서 경서강론(經書講論)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관학(官學)의 대가(大家)인 양촌(陽村:권근)선생과 호정
(浩亭:하륜)선생의 뒤를 이어받았는데 호정(浩亭)선생은 직접
배운 스승은 아니지만 관각이사(館閣二事:예문(藝文), 춘추(春秋)관
사)로 있을 때인 1407년(태종7)에 어전중시(御前重試)에서 춘
정선생이 제1인으로 등과(登科)했을 때 행사를 관장한 좌주
(座主:시험책임관)가 하륜(河崙)으로 관습에 따라 평생 사제(師
弟)간의 두터운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의 사제관계는 학맥(學

脈)뿐만 아니라 민족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충효(忠孝)를 치국의 근본으로 삼고 도덕의 규범으로 규정한 조선시대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좋은 사우(師友)관계를 맺는 일은 학문의 발전은 물론 정치적 출세의 바탕이 됐다. 이때만 해도 학문의 전수관계는 부자, 형제 또는 사우(師友)중심이였다. 따라서 춘정선생은 하륜 스승을 만나 진주(晉州)·밀양(密陽)등 영남 서부지방의 학통(學統)을 형성하면서 하륜 선생의 심성설(心性說)을 이어갔다.

춘정선생은 1409년(세종9 41세) 되던 때부터 관각(館閣)업무를 장악하고 또한 동지경연(同知經筵:임금 앞에 경서강론(經書講論))이 되어 학문적 위치를 높이 쌓아갔으며 유교이념(儒敎理念)의 통치 철학에서 현실 치도론(治道論)을 중요시하고 심성설(心性說)의 이기이원론(二氣二元論)의 실용(實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천명사상(天命思想)에서의 주체성(主體性:원단제천론(圓壇祭天論))과 민본사상(民本思想)에서의 중농정책(重農政策)은 후민생(厚民生)을 이루기 위한 학문적 실용(實用)의 기반이 되는 것이었다.

<경세(經世)사상 참조>

▷年譜 : 春亨文集續集卷二

·十二年壬辰(先生四十四歲)

三月陞嘉靖大夫世子右副賓客

※年보 : 춘정문집 속집 권2

· 태종12년(1412 임진) 선생 44세 되던 해 3월에 가정대부(嘉靖大夫:종2품) 세자우빈객(世子右副賓客:세자교육 담당)에 올랐다.

·十七年丁酉(先生四十九歲)

四月超資憲大夫藝文館大提學兼成均館大司成拜禮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

※ 태종17년(1417 丁酉) 선생 49세 되던 해 4월에 자헌대부(資憲大夫:정2품)에 올라 예문관 대제학(大提學:예문관 책임자)겸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성균관 교육책임자)에 뛰어 올랐다. 또한 예조판서겸 지경연(知經筵:어진(御前) 경학 강론 책임자)과 춘추관사(春秋館事:춘추관 책임자)에 임명되었다.

· 十八年戊戌(先生五十歲)

十二月議政府參贊兼提調義禁府事

※ 태종18년(1418 戊戌) 선생 50세 되던 해 12월에 의정부 참찬(參贊:정2품)겸 의금부 제조(提調)의 책임을 겸했다.

· 二年庚子(先生五十二歲)

兼集賢殿大提學

<春亭 先生 生涯(五十二歲)參照>

※ 세종2년(1420 경자) 선생 52세 되던 해 집현전 설치와 대제학을 겸했다.

<춘정선생 생애(52세) 집현전설치 참조>

· 八年丙午(先生五十八歲)

六月陞崇政大夫判右軍都摠制府事兼世子貳師

※ 세종8년(1426 병오) 선생 58세 되던 해 유월 승정대부(崇政大夫:종1품)에 올라 도총제부사(都摠制府事:충전군사령관) 겸 세자이사(世子貳師:세자 교육 총 책임관)에 임명되었다.

※ 관각(館閣)

<이조초기(태종→세종)>

관각(館閣)명	개요
예문관(藝文館)	· 태조 원년에 창설 ·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
성균관(成均館)	· 태조 7년에 창설, · 유생(儒生)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관청(국립교육기관)
춘추관(春秋館)	· 태조 원년에 창설 · 나라의 기록문서를 관장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 및 관리하는 관청

◇ 춘정선생은 전교서(典校署) 지제교(知製敎) 등 모든 문장을 관할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외교적 사명(辭命(詞命):외교문서) 및 조명(詔命:임금의 선지(宣旨) 기록문) 등을 전담하였고 그 이외도 각년대 실록편찬(實錄編纂)에 참여하였으며, 의례사목(儀禮事目) 및 대소 문한(文翰)의 제작을 관장하고 당시의 문학계(文學界)에 비중을 두었던 사장학(詞章學):시가(詩歌)문장에 관한 학문)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동지경연(同知經筵)에서의 강론(講論)이나 세자빈객(世子賓客)으로서의 세자교육을 맡기도 한 선생은 명문장(名文章)으로서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

춘정선생은 태종과 세종 양대(兩代)에 걸쳐서 20여 년 간에 문형(文衡)을 맡아 유교문치(儒敎文治)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학(儒學)을 진흥하고 관학을 확충하는데 부심했다. 신유학(新儒學)을 건국 이념으로 한 조선에서 유교문물(儒敎文物)이 본래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책임이자 국시(國是)이기도 한 성리학의 발전이 시급하였으나 당시 성리학은 이제 겨우 싹이 트고 있었다.

선생은 유학 교육의 본산인 성균관(成均館:국립교육기관)과 향교(鄕校:지방 교육기관)를 확충하여 관학(官學)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데 힘쓰는 한편 성리학을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왕에게 건의하여 유명무실한 집현전(集賢殿)을 새로운 목적으로 재건하고 대제학을 겸하여 중국에서 갓 간행된 성리대전(性理大典), 대전사서(大典四書), 대전오경(大典五經) 등 본격적인 이론서를 들여와 집현전의 소장 학사들에게 연구시켰다. 집현전은 이 시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최고 수준의 왕립유학연구소(王立儒學研究所)로 발전시켰고 또 태종에게 건의했다가 시행되지 못한 사가독서(賜家牘書)를 세종에게 다시 건의하여 그 시행을 보았고 후에 호당제도(湖堂制度)의 기초가 되었다. 사가독서(賜暇讀書)란 집현전 학사들에게 휴가를 주어서 이들이 산사(山寺)에 머물면서 학문 전반을 연구하게 하는 제도로 그 경비는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였다.

문교의 최고 책임자였던 선생은 빈약한 유학(儒學), 성리학(性理學)의 서적을 널리 보급하는 방편으로 당시 활발하게 개량되고 있던 주자(鑄字) 제조(製造)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열성을 보였으며 「주자(鑄字)의 설비로 가히 많은 서적을 인쇄하여 영원히 세상에 전하게 되니 이는 진실로 무궁한 이익이 된다」고 하였다.

선생은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 있으면서 태종13년에는 태조실록(太祖實錄) 편찬에 참여했고 세종8년에는 정종(定宗), 태종(太宗) 실록 등 역사 편찬사업을 주도하였다. 이미 망해버린 고려의 국사를 편찬하는 데에는 별 이론이 없었으나 전왕대(王代)의 역사인 실록을 편찬하는 데에는 의견이 분분했다. 말하자면 당대(當代)에 일어난 일을 당대의 실록으로 편찬하면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 때문에 사화(史禍)가 일어날 염려가 있어서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선생은 이를 물리치고 태조실록 편찬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 세종이

즉위한 초에 정종(定宗)과 태종(太宗)이 각각 죽자 실록편찬을 건의하게 되는데 뒷날 국왕이 죽으면 바로 실록을 편찬하는 전통이 이때부터 세워졌다.

선생은 당대 제일의 명문장(名文章)으로서 이름을 날릴 무렵 화산별곡(華山別曲)과 같은 경기체가(景幾體歌)형식의 악장(樂章)을 지어 국문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국조보감(國朝寶鑑) 편집에 참여하고 정부상규설(政府相規說)을 지어 유교윤리에 바탕을 둔 군신간(君臣間)의 예를 밝히고 치국(治國)의 경륜을 폈다.

▷陽村權文忠雖先先生兼拜藝文成均而文衡題則先生實首之專典文榜號爲文衡其始自先生先生百世文苑之所戶祝.

<春亨文集重刊序(沈象奎)>

※ 양촌 권문충공(權權文忠公:권근)이 비록 선생(춘정)에 앞서 예문, 성균을 겸하였지만 문형(文衡)이라 이름 부쳐진 것은 선생이 실상 처음이다. 오로지 문방(文榜:교육 터전)을 맡아 문형(文衡)이라 이름하게 된 것은 그 시초가 선생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선생은 백세 문원(百世文苑:영원한 문단)의 숭배의 대상이다.

<춘정문집 중간서(심상규)>

위의 글은 춘정 문집 중간서(重刊序)에서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심상규가 적고 있으며 세종 때 훌륭한 나라의 치적(治績)은 문교 면에서 집현전을 비롯하여 관학의 훌륭한 인물양성으로 이루어 졌고 과학, 천문 및 한글창제의 민족적 위업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2. 문집(文集)을 바탕으로 본 문학세계

◇ 춘정선생의 문학 작품은 문집을 중심으로 시조(時調) 3수(首) 악장(樂章) 및 가사(歌詞) 23수(首)이고 한시(漢詩) 546수(首)이며 이 이외도 문장이 200편 가까이 되는데 이는 춘정문집(春亭文集)이 1442년(세종24)의 초간(初刊) 때 전 작품에서 유실된 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 이외도 타 성씨 종중(宗中)에 보존중인 문헌과 기타 고 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으나 이 가운데 당대의 정황 설명(情況說明)을 곁들여 몇 작품을 선별적으로 간추려 여기에 소개하고 나머지는 많은 시문(詩文) 중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그 일부(50수)를 문집 독해로 편집하였습니다.

<편집자>

가. 시조(時調)

- ① 치 천하(治天下) 오십 년에
부지(不知) 왜라 천하사(天下事)를
억조(億兆) 창생(蒼生)이
옛고자 원(願)이드나
강구(康衢)에 문동요(聞童謠)를 드리니
태평인가 하노라

<대행 태상왕 시책문 (大行太上王 謚冊文)>

註 : 억조창생(億兆蒼生) : 만 백성

강구(康衢) : 사방 오방의 변화한 거리

문동요(聞童謠) : 아이들에게 듣는 정서의 노래.

대행(代行) : 임금이나 후비(后妃)가 죽은 뒤 시호를 올리기 전의 존칭.

태상왕(太上王) : 선위(禪位)한 임금의 아버지의 존칭.

시책문(謚冊文) : 제왕 후비에게 존호를 올릴 때 송덕문(頌德文)을 새긴 간책문.

◇ 춘정선생이 1422년(세종4)에 태종이 승하한 후 시책문(諡冊文)을 드릴 때 요제사기록(堯帝史記錄)을 응용하여 지은 시로 평소 바라던 세종의 등극으로 나라의 치적이 쌓이고 유교 입국(儒敎立國)의 기틀이 탄탄히 다져지는 국가 앞날을 자신만만하게 송축(頌祝)하며 읊은 노래다.

※치 천하 오십 년에 흘러가는 세상사는, 가늠하기 어려워서 참으로 모르리라. 천하의 백성들아, 무엇이 아쉬우나, 엿보고 듣고싶은 소원이 무엇이냐? 변화한 네 거리에 뛰노는 아이들이, 불러대는 정서의 평화로운 저 노래를, 귀담아 들어 보라 태평 세월이…….

② **내해 좋다 하고 남 슬혼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고 의(義) 아녀든 좇지 말라
우리는 천성을 지켜 삼진대로 하리라.**

註 : 슬혼 일 : 싫은 일

아녀든 : 아니거든

천성(天性) : 하늘에서 받은 좋은 성질(성리학적 천(天) 사상(仁義禮智信))

삼진대로 : 본래의 타고난 좋은 성질대로.

◇ 위의 시조는 춘정선생의 성리학적 심성설(心性說)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글로서 일제 해방 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글이다. 즉, [심(心)과 성(性)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 귀착시키고 심성(心性)에 있어 리(理)의 본성(本性)은 착하지만 기(氣)의 성질은 나쁘게 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학문을 닦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일렀다.

<춘정선생 중심사상 참조>

나. 한시(漢詩)

춘정선생의 한시(漢詩) 세계는 규계(規戒)와 자기성찰(自己省察), 문정(聞情: 널리 정세를 듣고 보는 것)과 고독(孤獨), 비판과 애민(愛民) 정신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권근(權近) 서거정(徐巨正) 등의 관각(館閣) 문인에 비해 응제시(應製詩: 임금에 아첨하는 글)의 비중이 적고 군주(君主)에 대한 규계(規戒)의 뜻을 나타내는데 주력하였으며 성찰(省察)과 수양(修養)의 뜻을 담은 작품을 많이 남겼고 고뇌하는 지식인의 비애(悲哀)와 우수(憂愁)가 배어 있는 작품이 더욱 많으며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농민의 고통을 동정하는 작품을 남긴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들은 아래와 같다.

(1) 得此字(득차자) : 이 글을 얻다

民情未易保(민정미역보) : 백성의 마음 지키기 쉽지 않고

天命諒難恃(천명양난시) : 천명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요

向背固無常(향배고무상) : 향배가 진실로 한결 같지 않으니

宣若薄冰履(선약박빙리) : 마땅히 얼음 밟듯이 조심하리요

주 : 천명(天命) : 하늘의 뜻, 백성의 소리

※백성을 함족히 여기도록 다스리기가 어렵고 백성들의 민심은 참으로 그 향배(向背)가 가름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자만하지 말고 얇은 얼음 밟듯이 조심조심 다스려야 한다는 규계(規戒)의 내용이다.

(2) 晨興(신흥) : 새벽의 흥

殘夜涼侵簾(잔야양침단) : 날 쉼 녀 찬 기운이 대자리를 침범하고

窓虛露氣通(창허로기통) : 허술한 창 틈으로 이슬기운 통한다.

四隣明宿火(사린명숙화) : 사방의 이웃들 잿불을 살리고

萬井動晨鍾(만정동진종) : 가득한 온 고을에 새벽종이 울리네

日出疏煙外(일출소연외) : 성근 연기 밖으로 해는 솟아오르고

秋生積雨中(추생적우중) : 축축한 장마 속에 가을은 온다.

幽棲忘盥櫛(유서망관즐) : 거처에 서성대다 세수빗질 잊었네

客地強爲容(객지강위용) : 손님이 오시니 억지 얼굴 씻노라.

주 : 단(簾) -- 대나무 껍질로 잘게 쪼개어 엮어 만든 대자리.

※비가 내려 가뭄의 한 시름을 놓은 가운데 백성들의 아
침밥 짓는 연기 속에 밝은 햇살이 돌아 희망 찬 가을
이 오는데 기뻐하고 새벽 흥을 돋우며 망중한(忙中閑)
을 보낸다.

(3) 巨蠹(거두) : 큰 좀벌레

巨蠹巨蠹從向來(거두거두종향래) : 크나 큰 좀 벌레야 어디서 왔느냐

來此東國爲國災(내차동국위국재) : 나라 제앙 만들려고 우리나라
왔느냐.

食盡松柏與梓漆(식진송백여자칠) : 소나무 잣나무 가래나무 옷나무
모두 먹어 치우며

山空野闊惟蒿菜(산공야활유호채) : 산도 비고 들도 비고 숙대만 우
거진다

嗟爾巨蠹食不厭(차이거두식불염) : 아-너 좀 벌레야 물리지도 않느냐?

萬姓疾首徒哀哀(만성질수도애애) : 만백성 머리 아파 애통해 한다.

安得壯士一去之(안득장사일거지) : 어디서 장사 얻어 일거에 몰아
내고

再使國中多良材(재사국중다량재) : 다시금 나라 안에 좋은 재목 가
득할까.

※해충(害蟲)의 만연으로 산과 들이 황폐해 지는 크나큰
제앙(災殃)을 슬퍼하며 나라 사랑의 면면을 보여 준다.

(4) 苦熱行(고열행) : 극심한 더위를 가다

日出東北飛天衢(일출동북비천구) : 해가 동북 중천에 높이 솟아오르니

朱光萬里烘爐中(주광만리홍로중) : 불벌 내려 온 세상 화로 속이네.

海波欲渴山翠乾(해파욕갈산취건) : 바닷물도 마를 듯 산도 달아 오를 듯

飛鳥翅垂未西東(비조시수미서동) : 나는 새 깃 드리우고 갈피 잡지 못하네.

平人執熱亦何怪(평인집열역하괴) : 노는 자 더위타령 참으로 해괴하다.

不見南畝鋤禾翁(불견남무서화옹) : 못 보는가 남쪽이랑 김매는 늙은이

終年勞力竟食人(종년노력경식인) : 한평생 일해도 남만 먹여 살리니

先王所以思農功(선왕소이사농공) : 그러므로 선왕은 농사 공을 알았다네.

※가뭄에 시달리고 소작으로 착취당해 지배계급(양반(兩班))을 먹여 살리는 백성들의 참담(慘憺)함을 슬퍼하며 무산계급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 정치인의 민생 해결 의무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5) 苦熱(고열) : 극심한 더위

彤雲千里政縱橫(단운천리정종횡) : 붉은 구름 아득히 종횡으로 뻗었네.

白汗翻漿病欲生(백한번장병욕생) : 내 병을 고치려고 한 땀을 번지르는데

賴有窓前數叢竹(뢰유창전수총죽) : 창문에 기대어 자란 몇 포기の大나무에

敲風能解作秋聲(고풍능해작추성) : 산들바람 불어오니 가을소리 알겠구나.

※붉은 석양이 종횡으로 뻗은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지병을 다스리려 땀을 흘리며 몸조리를 하는데 창가에

대나무 바람으로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듣는 시정(詩情)
을 읊었다.(선생은 평소 체질적인 병고에 많은 세월을 보냈다.)

◇ 춘정선생은 생애 최대의 시련을 겪었던 시기가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1392(24세)년 왕조 교체기, 두 번째는 1398(29세)년 1차 왕자의 난(王子亂) 때, 병을 핑계삼아 관직을 버리고 은거(隱居)하던 시기였는데 이때에 신병 요양(療養)차 많은 곳을 찾으며 우수(憂愁)에 찬 고독과 사색을 엿볼 수 있으니 그 몇 수(首)를 소개한다.

(6) 新秋雨夜(신추우야) : 초가을의 밤비

忽忽逢秋意易悲(홀홀봉추이역비) : 홀연히 만난 가을 슬퍼지네

坐着楓葉落庭枝(좌작풍엽락정지) : 앉아보니 단풍잎이 뜰 안에 흠
어지네

等來多少心中事(등내다소심중사) : 한 많은 심중사(心中事)가 무리
지어 오는데

月暗疎窓夜雨時(월암소창야우시) : 어스름 달 소창(疎窓)에 밤비가
온다.

· 주 : 소창(疎窓) -- 대나무 잎이 우거진 창가

<문집(文集) 권1>

(7) 月夜(월야) : 달밤

焚香一室足清幽(분향일실족청유) : 향불이 한 방에 그윽하구나

衾簟涼生暑氣收(금단량생서기수) : 이불 속은 서늘하고 더위가 가
시었다.

直道夜深難作夢(직도야심난작몽) : 한 밤은 깊었는데 잠 못 이루고

月華星彩動新秋(월화성채동신추) : 달과 별은 빛나고 초가을이 오
는구나.

<문집(文集) 권1>

(8) 夜雨獨坐(야우독좌) : 비 오는 밤에 홀로 앉아

日暮繁雲接地陰(일모번운접지음) : 저물 녀 멩개구름 어둡 땅에 깔
리고

蕭蕭風雨滿空林(소소풍우만공림) : 소슬한 비바람은 빈 숲속에 가
득하다

夜深院靜人初睡(야심원정인초수) : 밤 깊은 원 집은 고요한데

一點寒燈照客心(일점한등조객심) : 한 점의 외로운 등, 객심(客心)
을 비치누나.

<문집(文集) 권1>

(9) 連夜聞笛(연야문적) : 매일 밤의 피리소리

零葉初飛風颯然(영엽초비풍삽연) : 낙엽이 처음 날려 바람소리 연
연하고

滿天星月近簷前(만천성월근첨전) : 처마 밑 언저리에 달과 별이 가
득하다.

何人每日吹長笛(하인매일취장적) : 누가 매일 밤에 길게 피리 부
는가.

不借書窓一夜眠(불차서창일야면) : 잠을 잘 내 글방을 못쓰게 하는가.

<문집(文集) 권1>

(10) 夜坐(야좌)#1 : 밤 자리에 앉아

獨坐渾無寐(독좌혼무매) : 잠은 흐려 오지 않고 홀로 앉아

茅茨清夜中(모자청야중) : 모자(茅茨)는 밤중에 고요한데

風枝驚宿鳥(풍지경숙조) : 잠자는 새 바람가지에 놀라 깨고

露草濕鳴蛩(노초습명궁) : 풀 이슬에 젖어 벌레들은 우는구나.

待月愁天黑(대월수천흑) : 달을 기다리는 근심 찬 하늘 어두운 데

攤書受燭紅(탄서수촉홍) : 글을 펼쳐도 촛불만 붉게 감도네

眼前人事小(안전인사소) : 눈앞에 세상 일은 작게 여겨지는데

始覺息塵蹤(시각식진종) : 바야흐로 깨달음은 그치고 속된 풍상 남아
있네.

· 주 : 모자(茅茨) -- 떠 입힌 집, 자기 집을 낮춰 일컫는 말.

<문집(文集) 권1>

(11) 夜坐(야좌)#2 : 밤 자리에 앉아

倦來高臥一床橫(권내고와일상횡) : 게으름은 오는데 평상난간에 높게 누워,

雪擁茅齋日政明(설옹모재일정명) : 눈이 덮인 모재(茅齋)에 달은 고루 밝구나.

入夜自吟殊不寐(입야자음수불매) : 밤이 되어 탄식하니 잠 못 이루고,

塵懷剩得十分清(진회잉득십분청) : 세상 회포 많으니 고요함을 나눈다.

· 주 : 모재(茅齋)-- 떠 집, 자기 집을 낮추어 일컫는 말.

<문집(文集) 권1>

(12) 向夕(향석) : 석양을 바라보며

返照下回汀(반조하회정) : 석양은 물가에 감도는데

郊扉人不扃(교비인불경) : 사리작 문전에는 사람도 없다

舉杯村酒白(거배촌주백) : 잔을 드는 촌 술은 희고 깨끗하다.

倚仗暮山川(의장모산천) : 지팡이에 저무는 산은 푸르고

羈思時難禁(폐사시난금) : 나그네 심사는 금하기가 어려운데

征雲自不停(정운자불정) : 가는 구름 스스로 멈추지 못하네

新詩獨長咏(신시독장영) : 새로 시 한 편을 홀로 길게 읊으니

寂寞竟誰聽(적막경수청) : 적막한데 궁색하게 누가 들겠는가.

<문집(文集) 권1>

(13) 登樓(등루) : 누각에 올라

茫茫炯火擁神州(망망형화옹신주) : 넓고 먼 불빛들이 온 고을 감싸안네

永夜高吟獨倚樓(영야고음독의루) : 긴 밤 누각에 기대어 시 한 편을 읊는다.

滿地月明何處笛(만지월명하처적) : 온 세상 달 밝은데 어디에서 피리 부나

聲聲吹送十年愁(성성취송십년수) : 십 년 묵은 오랜 근심 소리 보내네.

<문집(文集) 권1>

(14) 十月初四日(시월초나흘)

有雪且雷獨酌有感(유설차뢰독작유감) : 눈오고 뇌성 치는데 홀로 술 마시는 감회.

初冬密雪下溟濛(초동밀설하명몽) : 초겨울에 뽁뽁이 눈이 부슬부슬 내리는데

却有奔雷振大空(각유분뢰진대공) : 갑자기 큰 우뢰가 공중에 진동한다.

天意即金難料得(천의즉금난료득) : 하늘의 뜻은 이제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防寒只合醉悽悽(방한지합취몽몽) : 추위를 방지함은 얼근히 취함이 합당하리라.

<문집(文集) 권1>

· 주 : 춘정선생이 은거(隱居)하던 때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 향배(向背)가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 극심한 고뇌를 달래기 위하여 술잔에 의지하는 회포를 노래하고 있다.

◇ 춘정선생의 시문(詩文) 등 유고(遺稿)는 기세(棄世) 후 12년이 지난 후 문집 초간(初刊)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원고(原稿)가 많이 산일(散逸)되었으며 중간(重刊) 속간(續刊)시에는 당시의 관련 향교(鄕校)나 타 성씨문중(姓氏門中)에서 발굴된 때가 많았다.

다음 시문(詩文)은 문집 이외의 문헌에서 전해오는 한시(漢詩)를 몇 수(首) 소개한다.

(15) 進鳳山(在開城) : 진봉산(재개성)

遠山層峰一徑斜(원산층봉일경사) : 지름길 따라 층진 먼 산봉우리
에 올라보니

白雲垂地俺僧家(백운수지엄승가) : 흰 구름은 땅에 늘어져 절간을
덮었네.

山中古寺多相似(산중고사다상사) : 서로서로 비슷비슷한 산 속의
고사(古寺)들,

處處春風躑躅花(처처춘풍적족화) : 곳곳마다 봄바람에 적족 꽃 피
어 있네.

· 주 : 적족(躑躅) -- 철쭉꽃

<국조보감 1장(國朝寶鑑1章)>

(16) 臨津江(임진강)

蘆花楓葉暮江濱(노화풍엽모강빈) : 갈대꽃 단풍잎은 저무는 강가에
지고

兩箇扁舟渡水頻(양개편주도수빈) : 작은 나룻배 두 척이 자주 월강
하네

砂上白鷗誰與狎(사상백구수여압) : 모래사장 백구는 누구랑 친해
보려고,

年年愁殺往來人(년년수살왕래인) : 해마다 오고가는 나그네 마음을
설레이게 하나.

<국조보감31장(國朝寶鑑31章)>

(17) 金神寺(左金川) : 금신사(좌금천)

金神洞府深復深(금신동부심복심) : 금신동 골짜기 깊고도 깊은 데

時有老僧激獨尋(시유노승격독심) : 늙은 중은 찾아간 나를 맞아 주네

鹿麝穩民草如織(녹사은민초여직) : 사슴 사향노루 낮잠 자는데 풀
은 짙듯,

蝙蝠亂飛山正陰(편복난비산정음) : 박쥐는 어지러이 날으니 산은
음침하네.

石狼岩泉碎玉斗(석한암천쇄옥두) : 바위에 시냇물 부딪치니 옥 덩이 부서지고,

風吹蘿月散黃金(풍취라월산황금) : 바람이 부니 땡땡이 널쿨 달은 황금 부수네.

曉來欲覺聞鐘坐(효래욕각문종좌) : 새벽에 도를 닦으려 종소리 듣고 앉으니

當日少陵知此心(당일소릉지차심) : 소릉(少陵)은 그 당년(當年)에 이 마음 알았으리.

· 주 : 소릉(少陵) --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국조보감 31장(國朝寶鑑31章)>

(18) 復興寺(金川) : 부흥사(김천)

失路投山寺(실로투산사) : 길을 잃어 산사(山寺)에 들어서니

人傳是復興(인전시부흥) : 사람들은 부흥사라 전하네

青松惟見鶴(청송유견학) : 푸른 소나무는 오직 학을 안고 있고

白日不逢僧(백일불봉승) : 대낮엔 스님도 만나지 못 하겠네

古壁留金像(고벽류금상) : 오랜 벼랑에 금상(金像)은 머물고

空梁耿玉燈(공량경옥등) : 공중 대들보에 옥등(玉燈)은 빛나고

前軒頗清絕(전헌파청절) : 추녀는 아름답게 맑고도 깨끗한데

過客獨來憑(과객독래빙) : 나그네 홀로 와서 의지하고 있네.

<해동시선집 5언시(海東詩選集 五言詩)>

(19) 覺林寺(각림사)

雉岳爲山名東海(치악위산명동해) : 치악은 동해의 이름난 명산인데

山之寶刹覺林最(산지보찰각림최) : 그 산의 각림사는 최고의 보찰이라

雲烟巖壑幾千年(운연암학기천년) : 운해 덮인 암벽구렁 몇 천년인가

地靈擁衛天龍會(지령옹위천룡회) : 신령함에 호위되어 천룡의 모임 일세.

<해동시선집 7언시(海東詩選集 七言詩)>

(20) 題惠上入院(제혜상입원) : 제목 혜상 입원

山逕迢迢半入雲(산경초초반입운) : 높고 먼 산길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茲遊足可避塵喧(자유족가피진훤) : 여기서 노닐은 속세를 피하는데 가히 만족하구나.

百年身世客述路(백년신세객술로) : 백년신세 손님이 길을 찾아 왔는데

萬壑烟霞僧閉門(만학연하승폐문) : 많은 골짜기 안개구름 스님은 문을 닫고

晴澗束薪隨野老(청간속신수야노) : 맑게 갠 산골에 나무꾼 늙은이 따라

秋林摘實共寒猿(추림적실공한원) : 가을 숲 열매를 따서 원숭이 같이 산다.

我來爲問楞伽字(아래위문릉가자) : 내가 여기 와서 불경(릉가자)을 묻고자 하니

合眼低頭無一言(합안저두무일언) : 눈을 감고 머리 숙여 한마디 말이 없네.

<해동시선집 칠율시(海東詩選集 七律詩)>

다. 악장(樂章)

악장은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인 제향(祭享:나라의 제사), 연향(宴享:나라의 잔치) 등에 쓰기 위해 지은 노래의 가사(歌詞)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문학, 예술, 풍속 등 종별을 뜻하는 한 '장르'의 명칭이다. 앞서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 등이 악장(樂章)을 지은 바 있으나 춘정선생이 악장 제작의 제1인자였으며 또한 선생은 나라의 중요 행사 때마다 악장을 짓고 그것으로서 상을 받기도 했으며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악장(樂章)은 군주(君主)에 대한 찬양과 송축(頌祝:경사를 축하)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춘정선생의 작품은 임금에 대한 강한 규제(規戒:바른 계율)의 뜻을 담고 있었으며 흥망(興亡)은 쉬지 않고 순환하는 것이니 나라를

않지 않으려면 선왕(先王)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선정(善政)을 베풀도록 권고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삼갈 것을 당부하는 것이었다.

선생은 봉사(封事: 임금께 올리는 밀봉한 글), 상서(上書: 건의문) 등에서도 천명(天命)은 무상(無常)하므로 천도(天道)를 받들어 나라를 다스려야 천명(天命)을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러한 생각을 악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은 문형(文衡)을 장악한 20여 년 동안 악장을 문학 활동의 한 분야로 정착시켰으며 현재까지 보존되어 내려온 악장 두 수(首)를 소개한다.

◇이 악장(樂章)은 1419(세종1:기해(己亥))년 정월에 선생이 51세 되던 해에 지은 것이다. 그 전 해인 1418년 6월에 세자(世子)이던 제(祚)를 폐하고 충녕대군(忠寧大君: 셋째아들, 후에 세종)을 세자로 책봉하고 두 달 후인 8월에 태종은 세자에게 선위(禪位: 왕위를 물려줌)를 하였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때인 만큼 국정을 아직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부왕(父王)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으며 일부 섭정(攝政)의 형태였다. 그 내용에는 상왕(上王: 부왕)이 왕위를 내려준 은혜와 임금께 강한 규계(規戒)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악장(樂章)은 춤과 음악과 노랫말을 길게 부르는 웅장한 의식(儀式)으로 연출되는데 이는 나라의 크나 큰 행사였다.

1. 賀皇恩曲(并序, 己亥正月) - 황은 축하 노래곡(1419(세종1)1월)

하 황 은 곡 병서 기해정월 --춘정문집속집(春亭文集續集) 권1--

賀皇恩受錫命也(하황은수석명야) : 삼가 황제님의 석명을 받자와 황은을 축하합니다.

殿下以父王之命(전하이부왕지명) : 전하(殿下)는 부왕(父王)의 명을 받아,

權攝國事尋受(권섭국사심수) : 나라 일을 이어받고 권섭(權攝)하시며

皇帝誥命國人(황제고명국인) : 황제님의 고명(誥命)으로 나라 안의 백성들은

惶拊作賀皇恩也(황변작하황은야) : 손뼉치며 기꺼이 하고 황은을 경하합니다.

赫赫始祖造成(赫赫시조조성) : 빛나고 빛난 시조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하고

東方傳子及孫世有哲(동방전자급손세유철) : 동방에 이어진 선군(先君)으로 손자 대에도 밝음이 있으리요

王金玉其相天賦(왕금옥기상천부) : 왕금옥(王金玉)을 행하게 맺어진 귀함은 하늘이 내려 주셨네

聰明既孝且悌既仁(충명기효차제기인) : 충명은 효와 제와 인과

且誠緝熙聖學惟(차성집희성학유) : 성으로 빛난 인격이 오래도록 이르는 성학이고 이는 오로지

且亶且亶明昭父王允也(차미차미명소부왕윤야) : 명소 차례의 한없이 부지런함이 부왕으로부터 옮겨진 것이요

知子迺倦于勸迺托國事(지자내권우권내탁국사) : 훌륭한 어른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밀어 국사를 돌보고

皇帝曰俞錫是明命(황제왈유석시명명) : 공손하며 곧고 밝은 다스림의 황제의 일컬음을 따르시오니

王拜稽首皇帝(왕배계수황제) : 땅에 엎드려 황제 앞에 왕배를 올리오니
神聖皇帝神聖恩溢(신성황제신성은일) : 거룩하고 존엄한 은혜가 넘치고

朝鮮小大舞蹈感極(조선소대무도감극) : 조선의 작고 큰 무도(舞蹈)의식에 감격하며

天淵綿綿宗社彌萬億年(천연면면종사미만억년) : 하늘 같이 높고 깊은 종묘사직이 억만 년으로 줄줄이 이어가소서.

※ 주(註)

황제(皇帝) : 제왕을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부왕(父王)인 태종(太宗)을 지칭함.

석명(錫命) : 임금이 명령을 내려줌(下命)

황은(皇恩) : 제왕 즉 태종선왕(太宗先王)을 지칭하는 것으로 세자를 바꾸어 세종에게 왕위를 준 은혜를 뜻함.

권섭(權攝) : 임시로 대신한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자기의 왕권을 낮춰 일컫는 말로서 또 일부의 왕권은 태종에게 있었음.

고명(誥命) : 가르침을 하명한다는 뜻.

시조(始祖) : 맨 처음의 조상이나 여기서는 조선(朝鮮)을 개국한 세종의 할아버지인 이태조(李太祖)를 지칭.

동방(東方) :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사조(思潮)에서 비롯된 동쪽의 나라 즉 조선을 지칭.

왕금옥(王金玉) : 충(忠)과 신(信)을 바탕으로 한 빛나는 인격이 오래도록 이른다는 왕이라는 뜻.

명소(明昭) : 밝은 대수(代數) 차례의 뜻으로 선조대(先祖代:조상)를 밝고
겸허이 정성껏 섬긴다는 내용이며 유학(儒學)의 덕(德)으로
삼았다.

왕배(王拜) : 왕이 산 사람에게 절할 때는 없지만 부왕에게 올리는 임금의 절.

무도(舞蹈) : 나라의 경사 때 궁중 음악과 춤의 행사이며 오늘날의 해석과
는 차이가 있다.

2. 華山曲(乙巳四月) - 화산(삼각산) 예찬곡(1425(세종7) 4월)

화 산 곡 을 사 4 월 --춘정문집속집(春亭文集續輯) 권1--

華山南漢水北朝鮮勝地白玉京黃金關平夷通

화 산 남 한 수 북 조 선 승 지 백 옥 경 황 금 궤 평 이 통

達鳳峙龍翔天作形勢經緯陰陽偉都邑景幾何如.

달 봉 치 용 상 천 작 형 세 경 위 음 양 위 도 읍 경 기 하 여

※삼각산 남쪽이요 한강수 북쪽 안에 조선승지(勝地) 펼쳐져서 백옥(白玉)같은 서울이요 황금 궁궐 트인 자리
음과 양이 나래 짓고 봉황새가 우뚝하며 용트림의 지
형으로 하늘이 만든 형세, 아! 위대하다 도읍 서울, 경
기(景幾) 어떠하리.

太宗太宗創業胎謀偉持守景幾何如.

태종 태종 창 업 태 모 위 지 수 경 기 하 여

※태조상왕(太祖上王) 태종임금 후왕(後王)이 모범 되는 교
훈이 창업되어 오래오래 지속되니, 경기(景幾) 어떠하리.

內受禪上稟光明正大禁革竊通商買懷服倭邦

내 수 선 상 품 명 광 명 정 대 금 혁 절 통 상 매 회 복 왜 방

善繼善述天地交泰四境寧一偉太平景幾何如.

선 계 선 술 천 지 교 태 사 경 념 일 위 태 평 경 기 하 여

※온건히 받는 진리 결백하고 공정하니 금혁(禁革)의 도
독 장수 왜국이 복종하니 착함이 기리 이어 세상 천하
안정되고 태평을 이룩하니, 경기(景幾) 어떠하리.

至誠忠孝睦鄰以道偉兩得景幾何如.

지 성 충 효 목 린 이 도 위 양 득 경 기 하 여

※충효가 지성(至誠)되고 이웃 화합 이룩하니 크나 큰
앙득일세, 경기(景幾) 어떠하리.

存敬畏戒逸欲躬行仁義開經筵覽經史學貫天人
존경외계일욕궁행인의개경연람경사학관천인
置集賢殿四時講學春秋製述偉右文景幾何如.
지집현전사시강학춘추제술위우문경기하여

※두려움과 평안함이 공경으로 있게 하고 몸소 인의(仁
義)를 행하고자 열려진 경연(經筵) 자리 경사학(經史
學)을 볼 수 있고 꿰뚫은 선견(先見)으로 인재 둔 집현
전에 춘하추동 글공부와 봄가을 제술(製述)이니 글 승
상 위대하다, 경기(景幾) 어떠하리.

天縱之聖學問之美偉古今景幾何如.
천종지성학문지미위고금경기하여

※천종지성{天縱之聖:임금의 성덕(聖德)}의 학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름답고 위대하다, 경기(景幾) 어떠하리.

訓兵書教陣兵以習坐作順時令擇閒曠不廢蒐狩萬
훈병서교진병이습좌작순시령택한광불폐수수만
騎雷驚殺不盡物樂不極盤偉講武景幾何如.
기뢰경살부진물약불극반위강무경기하여

※군사훈련 진병(陳兵)의 익힘 율령(律令:명령)은 밝게 골
라 순리 따라 복종하며 만 말의 우리 같은 불폐의 거
울 사냥 물량이 다 하도록 죽이지 아니하고 극하게 안
즐기니 무술 강습 위대하다. 경기(景幾) 어떠하리.

長慮卻顧安不忘危偉豫備景幾何如
장려극고안불망위위예비경기하여

※먼 장래 생각하여 한 발 물러 돌아보고 위험을 잊지
않고 편함을 아니하며 미리미리 대비하니, 경기(景幾)
어떠하리.

懼天災閔人窮克謹祀事進忠直退姦邪欽恤刑罰
 구천재민인궁극근사사진충직퇴간사흠휼형벌

考古論今夙夜圖治日愼一日偉無逸景幾何如.
 고고론금숙야도치일진일일위무일경기하여

※하늘이 두렵구나 궁한 백성 삼가 살피 제사는 충직으로 간사함은 물리치고 형벌은 신중하게 살피서 상고하고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매일 삼가 다스리니 하루하루 무사 안일 위대하다, 경기(景幾) 어떠하리.

天生聖主惠東(再唱)偉千歲(乙)歲(伊小西)慶會樓
 천생성주혜동(재창)위천세(을)세(이소서)경회루

廣廷樓崔嵬敞豁軼烟氣納灝氣遊目天表江山風
 광정루취위창활질연기납호기유목천표강산풍

月景槩萬千宣暢瀛烟偉登覽景幾何如.
 월경개만천선양영인위등람경기하여

※하늘이 낳은 성주 혜택 입은 만백성 영원토록 위대하다. 경회루 광정루 높고 높이가 광활하고 큰 기운이 들락이니 눈 돌려보는 세상 강산 풍월 보는 경치 만천하에 둘러 있고 울울 핫김 트이나니 올라가 두루 보소, 경기(景幾) 어떠하리.

蓬萊方丈瀛州三山爲何代可覓止於慈止於孝天
 봉래방장영주삼산위하대가먹지어자지어효천

同權止於仁之於敬明良相得先天下憂後天下樂
 동관지어인지어경명량상득선천하우후천하락

樂而不淫偉侍宴景幾何如.
 락이불음위시연경기하여

※봉래방장 영주의 삼신산(三神山)은 어느 대에도 찾을 것이오 사랑과 효도가 머물고 천성(天性)이 같이 기뻐할 것이오 어짐과 공경이 서로 밝고 착함이 있고 먼저 천하를 얻고 근심 끝에 전하가 즐거우니 즐기는 음탕하지 아니하고 향연을 모시니, 경기(景幾) 어떠하리.

天性聖主父母東人偉萬歲(乙)歲(伊小西)勤農桑厚
천성성주부모동인위만세(을)세(이소서)근농상후

民生培養邦本崇禮讓尙忠信團結民心德澤之光
민생배양방본숭예양상충신단결민심덕택지광

風化之治頌聲洋溢偉長治景幾何如.
풍화지치송성양일위장치경기하여

※하늘이 낳은 성주(聖主) 부모 백성 위하여 오래오래
지속되고 농사의 잘려와 민생을 향상시켜 나라 근본
배양하고 예의(禮儀)가 숭상되고 충(忠)과 신(信)이 향
상 하며 민심이 단결되어 덕택(德澤)의 빛이 되고 교
화(敎化)로 다스리니 칭송이 넘친다. 아! 큰 정치 위대
하다, 경기(景幾) 어떠하리.

華山漢水朝鮮王業偉并久景幾何如.
화산한수조선왕업위병구경기하여

※삼각산 한강수는 조선 왕업 어울려져 오래오래 갈 것
이니, 경기(景幾) 어떠하리.

· 주(註) : 경기체가(景幾體歌), 고려시대 장가(長歌)의 한 형식, 속요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불려진 노래로서 필요이상 한문을 많이
썼으며 매 장에 “경기(景幾)엇더하니 잇고”라는 글귀가 있음.

◇ 춘정선생이 1425년(세종7) 4월에 나라의 근본이 튼튼히
다져지는 것을 보면서 규계(規戒)의 뜻을 담고 밝은 나라의
앞날을 송축한 악장이다. 그리고 이 글의 형태는 고려 말엽부
터 간간이 내려온 특이한 경기체가(景幾體歌)의 문장(그러하니
잇고 등의 형식)은 있었으나 당대에 들어와서 춘정선생이 완벽하
어미(語尾)의 경기체가(景幾體歌)를 제술(製述)함으로서 국문
학계에 높이 평가되는 작품이며 후에도 주세붕(周世鵬) 선생
이 풍기(豐基)에서 1542(중종37)년에 우리 나라 최초의 사학(私
學)인 서원(書院:소수서원(紹修書院)) 교육 시대를 열면서 많은 문
학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 경기체가 형태의 글도 많이 포함되
었으니 이는 후에 우리 나라의 국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라. 가사(歌詞)

◇가사(歌詞) 문학은 당시 자리잡기 시작한 사장학(詞章學:시가문장(詩歌文章))의 일부로서 궁중의 연회에서 부르던 노래 글이다. 나라의 음악(音樂)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악기도감(樂器都監:악기제조관청)이 설치되는 등 문화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사업의 일부였다.

◎ 宴享歌(甲辰十二月) -- 잔치 노래 글(1424(세종6)12월)
연향가 갑진 12월 --춘정문집속집(春亭文集續集) 권1--

◇ 이 연향가(宴享歌)는 1424(세종6)년 12월 세종조(世宗朝)의 번영하는 나라의 치적(治績)을 하늘이 내린 천복(天福)이라 칭송하며 읊은 노래 글이다.

① 我應天國于東聖繼神治益隆荷天福祿
아응천국 우동성계신치익용하천복록

② 協堯華達舜聰交隣義事大恭荷天福祿
협요화달순충교린의사대공하천복록

③ 致其孝盡其忠一至誠神明通荷天福祿
치기효진기충일지성신명통하천복록

④ 天所佑福來崇帝錫命世襲封荷天福祿
천소우복래숭제석명세습봉하천복록

⑤ 后克聖臣雲從聚精神釐百工荷天福祿
후극성신운중취정신리백공하천복록

- ① 우리의 천국 동방의 성인 밝음의 정치는 이어지고 하늘이 내린 행복과 녹봉이라.
- ② 빛나는 화합으로 교린(交隣)이 총명하고 올바르게 받들어서 하늘이 내린 행복과 녹봉이라.
- ③ 효행과 충성이 하나로 이르러 정성과 신명이 함께 통달하니 하늘이 내린 행복과 녹봉이라.
- ④ 하늘이 도와서 복이 오고 계왕은 석명(錫命)으로 세습(世襲)을 봉(封)하니 하늘이 내린 행복과 녹봉이라.
- ⑤ 임금의 극성이니 신하가 따르고 백공(百工)의 의리가 정신으로 모이니 하늘이 내린 행복과 녹봉이라.

- ⑥ 右文敎惠宗公重稼穡詰戎功荷天福祿
우문교혜종공중가색힐음공하천복록
- ⑦ 控江漢負華峯偉紫殿深九重荷天福祿
공강한부화봉위자천심구중하천복록
- ⑧ 浮瑞氣鬱蔥蔥明化日暢仁風荷天福祿
부서기울총총명화알창인풍하천복록
- ⑨ 中外寧臻時雍歌白首舞黃童荷天福祿
중외녕진시옹가백수무황동하천복록
- ⑩ 煥功烈光祖宗我歷年永無窮荷天福祿
환공열광조종아역년영무궁하천복록

- ⑥ 글 숭상의 가르침이 종묘에 미치고 큰 농사와 무공(武功)이 한 대로 드리우니 하늘이 내린 행복과 녹봉이라.
- ⑦ 한강을 업고 당겨 구비 흐르며 화산봉(華山峯:삼각산봉) 거룩한데 궐(殿)이 깊이 두르니 하늘이 내린 행복과 녹봉이라.
- ⑧ 상서로운 기운이 울 총총한데 인격과 교화가 밝으며 화창하니 하늘이 내린 행복과 녹봉이라.
- ⑨ 안 밖으로 평안하다 늙은이 노래 소리 아이들 춤을 추니 하늘이 내린 행복과 녹봉이라.
- ⑩ 조상의 업적이 빛나게 이어지고 우리의 역사가 영원히 무궁하니 하늘이 내린 행복과 녹봉이라.

3. 유학자(儒學者)들의 업적으로 본 학맥(學脈)

(여말(麗末) 선초(鮮初)의 학문적 배경으로)

가. 학맥개요(學脈概要)

조선조 역사 지리책인 택리지(擇里志)에는 왕조 500년 동안 정치, 사상, 학문,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을 이끌어 온 영남학맥(嶺南學脈)이 주도한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유학(儒學) - 그 뿌리는 깊고도 넓다. 멀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고려 말, 조선조를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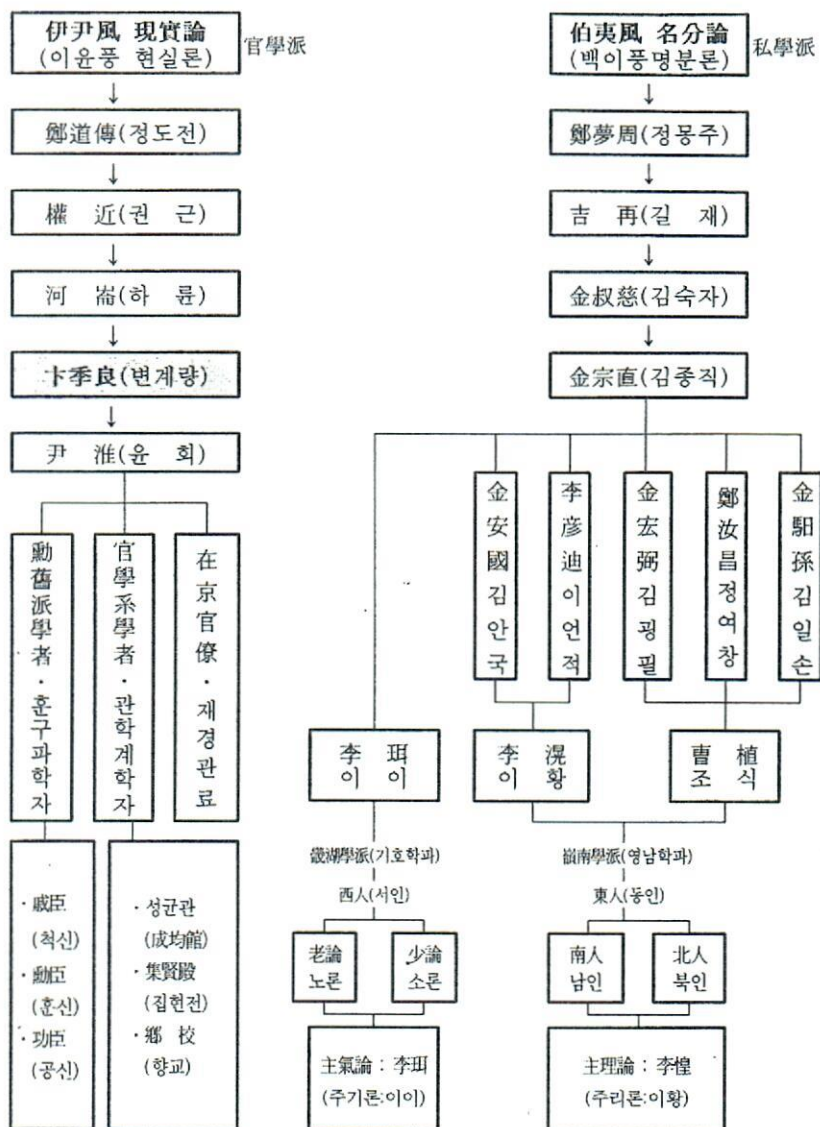
하여 원(元)과 명(明)나라로부터 유학(儒學), 특히 주자(朱子)의 성리학(性理學)이 전래되어 수기지학(修己之學)으로서 학자간에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신왕조(新王朝)가 건립되면서 성리학을 같이하는 유학자들이 크게 양분(兩分)되는 바람에 비운(悲運)을 맞게 된다.

즉, 고대 중국의 주무왕(周武王)을 반대하는 백이풍(伯夷風)의 명분론(名分論)과 탕왕(湯王)을 도와 중원을 제패한 이윤풍(伊尹風)의 현실론(現實論)으로 양립(兩立)된 사조(思潮)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끈으로 이어져 이 결과 고려의 패망을 전후하여 정몽주(鄭夢周), 이색(李穡), 이숭인(李崇仁), 길재(吉再) 등은 명분론을 고수하여 불사이성(不事二姓: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음)의 절의(節義)를 지켰고,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 하륜(河崐) 등은 현실론의 입장을 취하여 역성혁명(易姓革命: 나라를 개혁하기 위한 왕조교체)의 주체가 되었으며 후에도 단종조(端宗朝)에 이르러 사육신(死六臣)의 애절한 기록을 남기게 된다.

또한 정도전(鄭道傳)을 비롯한 유자(儒者)들은 성리학의 수신치국(修身治國)의 이론을 내 세워 신 왕조 건설에 앞장섰기 때문에 관학(官學)으로 불리고 정몽주(鄭夢周)를 비롯한 유자(儒者)들은 성리학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켰다 하여 절의파(節義派)로 지칭되어 사학(私學)의 근본이 되었으며 후세(後世)의 논자(論者)들은 관학(官學)의 태두(泰斗: 학문 예술의 권위자)는 변계량(卞季良)이고 사림파{士林派: 사학(私學)}의 시조는 길재(吉再)라 불리는데 모두 같은 스승의 문인으로서 그 업적 면에서 관학과 사학을 구분한다면 그 시초가 뚜렷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 ◇ 관학파(官學派)로 분류된 춘정선생은 고려말에 출사(出仕)하였으나 이조 초기에는 신 왕조 참여를 거부했었다. 그러다가 태조6년(1397)에 조정의 부름에 다시 나아갔으나 이듬 해에 1차 왕자의 난으로 정국이 혼미해지고 또 형(춘당공(春堂公: 변중량)의 참화(慘禍)로 다시 은거(隱居)하였으며 그 후 태종이 즉위한 후 33세 되던 해인 1401년에 늦게 참여하였다.

<별지 #> 學脈系譜圖(학맥계보도)



<별지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학(官學)과 사학(私學)의 비교 우월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관학(官學)은 국가교육기관이지만 당시로는 범위가 한정된 교육 현장이요, 사학(私學)은 글자 그대로 어느 훌륭한 학자의 문하에서 전수(傳受)하는 것으로 이는 상호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었으나 현실론(現實論)과 명분론(名分論)으로 국론이 양분되는 한편 14세기말 이후 주기론(主氣論)과 주리론(主理論)의 학설을 주장한 학자사이에 선의의 경쟁으로서는 성리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나 주의 주장을 달리하는 학파(學派)가 사색당쟁(四色黨爭) 등과 같이 정치에 미칠 때는 큰 참극의 역사로 기록되었고 또한 사학(私學)에서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한 인물과 관학계 및 수구(守舊) 세력의 기득(既得) 인물과의 충돌은 정치무대의 사화(士禍)로 얼룩졌다.

관학과(官學派)와 사학과(私學派)는 상호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관학과 학자들은 국가공무와 권력에 주로 연루되었을 뿐 아니라 성균관, 집현전, 향교 등 국가교육기관에 의존하였으나 사학과(私學派) 학자들은 국가공무와 권력에 연루되기도 했지만 주로 하향(下鄉)하여 후배 양성의 서당학문(書堂學問)을 발전시킬 계기가 되었고 특히 이황(李滉), 조식(曹植)은 영남학과(嶺南學派)의 양대 지주(兩大支柱)를 이루었으며 이이(李珣) 또한 경기 호남의 기호학과(畿湖學派)에 우뚝 섰다. 그리고 당대의 국가경영과 한민족의 사상사(思想史)에 깊이 관여하여 이끌었고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과 국민생활의 터전으로 잡아갔다.

◇학맥(學脈)의 고찰은 편의상 15세기 이후는 생략하고 고려 말엽부터 이조초기(1350(고려 충정2)-1450(이조 세종32))까지 대표되는 관학과 유학자들의 학풍과 업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며 앞서 춘정선생의 생애 중 국내정세 편에 언급된 역사적 인물의 설명에서 일부 내용이 여기에 중복됨을 양지(諒知) 바랍니다.

<편집자>

나. 유학자(儒學者)들의 학문적 업적과 영향

(1) 관학파(官學派)

㉔ 정도전{鄭道傳:호 삼봉(號 三峰) 1342(고려 충혜3)-1398(태조7)}

· 출생 : 경북 영주시 영주 4동 431



삼판 구택(三判舊宅)

※삼판(三判)이란 형부상서를 지낸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과 그의 사위 황유정, 이조판서를 지낸 그의 외손자 김담을 일컬으며 이 집에서 성장하였다고 하나 무덤도 없다.

←근래의 초상영정

· 출사(出仕)

1362년(공민11) 문과에 급제한 후 이듬해 충주사록(忠州司祿)에 임명되었고 후에 조선조 초대 영의정에 올랐다.

· 사적요약(事蹟要約)

고려 말 조선 초기를 주도한 유학자, 사상가, 성리학자, 정치가로 지칭되며 고려 말 귀족 세대와 불교의 노비 및 토지의 과다 보유로 인한 폐해인 구 질서를 타파하고 경제 및 정치개혁을 단행하였고 억불정책(抑佛政策)과 요동수복정책을 펴고 한성(漢城)종합개발도 그의 구상에서 나왔으며 지금 남아있는 궁전(宮殿), 관문(關門), 등각(登閣) 등의 명칭은 그가 지은 것이다.

그의 학문은 성리학 중에서도 경세학(經世學)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곧 조선 후기의 실학(實學)과 맥락이 닿는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당시의 유학자들은 송나라 유학을 번역하고 주석을 다는데 바빴으나, 정도전은 이와 달리 본격적이고 창조적인 신유학(新儒學)을 체계화 시켜 【학자지남도(學者指南圖)】 【채집정씨역전오신표상(採輯程氏易傳五信爻象)】의 유학서(儒學書)를 남겼고, 경제문감(經濟文監)과 경세학(經世學)에 토대를 둔 조선조 500년의 통치 규범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은 큰 업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 때 정몽주 등에 의한 탄핵으로 나주(羅州)로 쫓겨갔지만 곧 이성계의 도움으로 다시 정계에 복귀하였다. 그 후 새 왕조 창건과 구 질서 개혁과정에서 이색 등 스승과 두문동(杜門洞) 중견 유학자들의 절의파를 무참히 숙청하였고 같은 동문 친구인 도은 이숭인(陶隱李崇仁)의 귀양길에 그의 부하 황거정(黃居正)을 시켜 살해하니 1392년 도은의 나이 44세였다. 이는 유학의 의리에 위배되는 처사로 많은 정적을 양산하게 되었고 후세에 이르러도 사림파에 의해 철저히 매도당하는 불운을 안게된다.

영특한 그도 향배고무상(向背固無常:향배의 흐름은 항상 확고하지 않다)의 진리를 몰랐던가, 결국 그는 1398년 8월, 1차 왕자의 난(정도전의 난)을 맞게된다. 이는 보수파와 진취적인 혁신파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였고 정도전의 전횡을 같은 혁신파 내에서도 좋은 경향은 아니었다. 학자로서 정치가로서 조선 초기에 크나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조정에 의하여 두 아들과 함께 무참히 죽었으니 후세에 오랫동안 그의 업적이 어둠에 가려졌다. 그 후 467년이 지난 고종2년(1865)에 경복궁을 중수할 때 대왕대비(大王大妃)인 조씨(趙氏)가 경복궁 창건에 대한 그의 공을 추모하여 훈작(勳爵)을 회복하고, 시호(諡號)를 문헌(文憲)이라 내렸고, 후손들은 묘소를 못 찾아 이곳 평택군은산리에 사당과 설단(設壇)을 쌓고 분향하고 있다.

※현재 삼봉집(三峰集)이 남아 있음

㉠ 권근(權近:호 양촌(號 陽村) 1352(공민1)-1409(태종9))

· 출사(出仕)

1368(공민17)년 문과에 급제하고 검열(檢閱)이 되었고 우왕 때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예의판서(禮儀判書)에 올랐다.

· 사적요약(事蹟要約)

문장에 뛰어나고 성균관 대사성,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낸 성리학자로 우리 나라 최초의 문형(文衡)의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종1품),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시강원(侍講院)정2품)을 역임하였으며, 1375(우왕1)년에 정도전, 정몽주와 함께 친명(親明)정책을 주장하였다.

그 후 1396(태조5)년 7월에는 표전(表箋) 외교문제로 명 나라에 압송되어 들어가 두 나라 관계 호전에 공을 세웠고 1398(태조7)년에는 사병(私兵) 폐지를 주장하여 왕권확립정책에 적극 기여했다.

특히 그는 성리학자로서 그의 【입학도설(入學圖說)】은 후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정도전의 성리학에 영향을 받고 많은 저서를 남겼다.

※ 저서(著書)

- | | |
|------------------|----------------|
| · 동국사략(東國史略) | · 양촌집(陽村集) |
| · 사서오경구결(四書五經口訣) | · 입학도설(入學圖說) |
| · 동헌사략(東賢史略) | · 오경천경록(五經淺見錄) |

▶ 양촌선생시운(陽村先生詩韻) - 친필(표지)

奉次

陽村先生詩韻

洙泗千年有考亭 末流沉濁獨揚清

續絃鳳嘴無人識 寤寐常依景仲情
講論經籍邁汾亭 天縱元精粹且清
不碎一言新語聒 先生眞箇見周情
遊戲斯文道德餘 手翻滄海掣鯨魚
片言膾炙人人口 可笑山僧笋與蔬

- 卞季良 -

해설 : 양촌(陽村:권근) 선생의 시(詩)를 받들어 차운(次韻:
남의 시운(詩韻)으로 시를 지음) 함

※ 수사(洙泗)는 천년동안 고정(考亭)으로 이어 왔는데,
말세(末世)는 침탁하지만 선생은 홀로 맑았다.
꿰어졌던 거문고 줄을 다시 잇는 홀룡함과
봉황새의 부리 같은 우아함은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자나깨나 옷 입은 도도한 그 지세는
우러러 마음 속에 간직하리라.
경서를 강론함은 힘차게 정자 돌아 흐르는 물 같고
하늘이 내려 준 날 때부터의 홀룡함은
원래 밝고 순수하고 또 맑음이었고
불의(不義)를 물리치는 새로운 말 한마디는
언제나 사려깊이 덤덤하였으며,
선생은 참으로 지극한 정의(情義)가 나타났었다.
즐거운 놀이에도 유교문화의 도덕이 남아 있는데
손으로 바다를 뒤집어 고래를 끌어당기는 그 말들이
생선회나 지짐처럼 일의 명성이
자주 사람의 입에 오르내림은
가소로운 산승(山僧)의 일상 반찬처럼
죽순과 나물 같으리라.

- 변계량 -

주 : 수사(洙泗) : 수(洙)와 사(泗)는 강의 이름이나 공자가 이 근처에서 제자를 가르쳤으므로 공자 문하의 뜻으로 쓰임.

고정(考亭) : 주희(朱熹)가 살던 복건성의 지명으로 주자학문(朱子學問)을 일컬음.

◇춘정선생은 신왕조(新王朝)에 늦게 참여하여 관학파(官學派)를 이루면서 정도전 학맥(學脈)을 계승한 양촌(陽村:권근) 선생을 관각(館閣) 선배이며 대학자의 스승으로 존경하였으며 이 글은 양촌 선생의 사후 추념시(追念詩)로 추정된다.

㉮. 하륜{河崙:호 호정(號 浩亭), 시호 문충(諡號 文忠)1347-1416}

· 출생

경남 진주시 남동리(축석루 근처)

· 출사(出仕)

1365(공민14)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감찰규정(監察糾正:사헌부소속)에 임명되고 후에 영의정(領議政)까지 올랐다.

· 사적요약(事蹟要約)

하륜은 19세에 급제할 때 좌주(座主:시험책임관)가 이색 이었는데 30년 간 따르게 되며 이때 만난 문우(文友)가 정도전, 권근이다 그 후 밀직사 동지(密直司同知)였던 하륜은 훈구파(勳舊派)와 소장유자(小壯儒者)와의 갈등 속에 친명(親命:요동 공격 부당성)으로 몰려 유배(流配:襄陽)의 불행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전라도 관찰사(觀察使)에 있으면서 이성계(李成桂)의 역성혁명(易姓革命)에 적극 참여하여 친구인 이제(李霽:방원의 장인)와의 인연을 달아 승승장구의 행운을 맞게되며 개국 초기 제도문물의 정비와 수도 서울을 국사(國師)인 무학대사가 계획하던 계룡산 천도를 무산시키고 한양천도(漢陽遷都)를 이룩하였다.

하륜은 성리학이 꽃피도록 기초를 닦고 관학(官學)의 기틀을 잡은 경세유학자(經世儒學者)로서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하여 국초(國初)의 법질서를 바로잡았고, 원육전(元六典),

속육전(續六典)을 활자로 인쇄 반포하고, 동국약운(東國略韻), 신수동국사략(新修東國史略), 태조실록(太祖實錄) 등을 편찬하면서 문하인 변계량 제자를 적극 참여 시켰다.

하륜은 왕왕 화려한 정치 경력으로 인해 유학자(儒學者)로서의 면목이 가려졌으나, 고려말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한 성리학은 미약하지만 꾸준히 연구되고 있었고 정도전, 권근 등이 각각 심기리편(心氣理篇), 입학도설(入學圖說) 등을 지어 깊은 이론을 폈으나 전수(傳受)할 제자가 여의치 않았다. 이에 하륜은 건국지도이념인 유교덕치(儒敎德治)를 굳게 하고 성리학의 쇠퇴를 막기 위하여 성균관을 확대하고 각 주 군에 1개씩 향교(鄕校)를 세우게 하여 관학의 기초를 다졌다.

※ 후에 학통(學統)을 이어받은 제자인 변계량과 그의 제자 윤회 등은 세종 때 모두 문형으로 이어져 갔고 성균관과 집현전 및 향교의 보강과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의 실행 등 관학(官學)의 튼튼한 기틀을 잡게 된다.

하륜에 있어 주자학(朱子學)은 바로 경세학(經世學)이었고 치국의 요체였다. 그러므로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은 태종이 즉위한 후 더욱 가혹히 진행되어 각 주 군에 한 두 군데의 절을 남기고 전부 없애고 그에 따른 토지와 노비는 국가에 귀속시켰고 태종9년에는 사사(寺社)의 토지 절반을 회수했다. 한편 유학을 기리기 위하여 태종6년부터 유학제조(儒學提調)를 두어 10과를 교육해 관리를 뽑았다.

※ 장려 교육 10 과

유학(儒學)

- ① 무(武:군사학) ② 리(吏:행정) ③ 역(譯:어학) ④ 의(醫:의학)
 ⑤ 음양(陰陽:역경(易經)) ⑥ 자(字:글씨) ⑦ 풍수(風水:지리)
 ⑧ 율(律:법률) ⑨ 산(算:산수) ⑩ 악(樂:음악)

이와 같은 유학진흥책(儒學振興策)은 문생(門生)인 변계량, 윤회, 조말생 등을 통해 세종 때 더욱 박차를 가하지만 하륜

자신이 세종이 세자일 때 스승이기도 해서 그의 경세관(經世觀)은 후에 세종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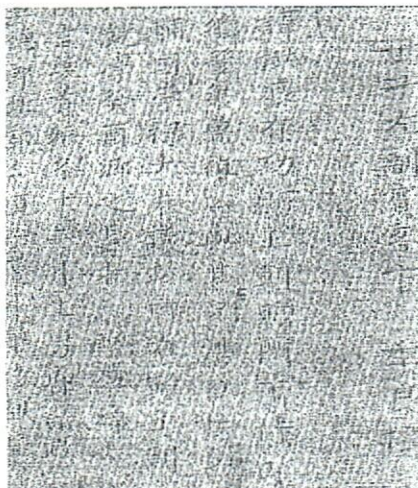
※ 세자교육(시강원(侍講院)은 하륜이 담당하기도 했으나 이어서 춘정선생이 맡았다.

그는 성리학 이론인 「심설(心說)」과 「성설(性說)」을 주장하고 우주관(宇宙觀)은 심설(心說)에서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적으로, 사람은 기(氣)가 바르게 통하기 때문에 이(理)가 내재(內在)하게 되고 그 결과 기(氣)가 온전해져서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반대로 사물은 기(氣)가 치우치고 막혔기 때문에 사물이 된다고 하였고, 또 성설(性說)에서 덕성(德性)에 바탕을 둔 가치관을 전개하고 이는 곧 인(仁)·의(義)·예(禮)·지(知)·신(信)의 덕성이라고 보고, 성(性)의 자연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체득하는 것이 도덕(道德)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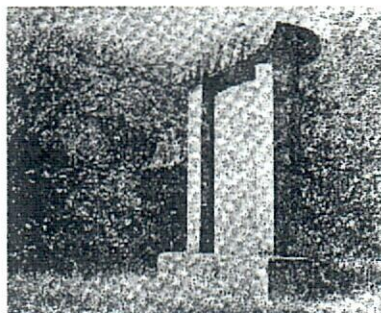
그의 이 성설(性說)은 길재(吉再) 김종직(金宗直), 조광조(趙光祖) 등 사림파(士林派)에게 내면적으로 연결된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인주(人主)의 정치(政治)는 심학(心學)에 달려 있다」고 하여 그의 이론을 나라를 다스리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어 경세유학자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으로 국가의 제도와 문물을 유교적 기반 위에서 탄탄히 개혁을 이루는데 우선 중앙정부의 개편으로 고려의 잔재인 도평의사(都平議司)를 의정부(議政府)로 개편하고 삼군부(三軍府)를 확립하였는데, 여러 왕자나 친인척에 사병화(私兵化)된 군대를 삼군부(三軍府)로 흡수 개편하는 한편 의정부와 삼군부의 관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지방 관제에도 힘을 기울여 조선왕조의 근간을 만드는데 공을 세웠다.

※ 도평의사(都平議司)란?

최고 합좌 기관으로 고려 말 왕권이 미약할 때 국왕이라도 이의 등의 없이는 하급 관리조차 임명할 수 없었으며 이태조(李太祖) 역시 정도전 등 개국 공신으로 운영되어 실권이 약했다.



<世子左副賓客 卞季良 撰(세자좌부빈객 변계량 찬)>



<하륜의 신도비>

<춘정선생이 하륜의 부탁을 받고 지은 신도비문(神道碑文)>

※경남 진양군 미천면 오방동 오방산(梧坊山) 기슭에 있는 하륜 선생의 묘(경남지방 기념물 41호) 아래에는 5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제(師弟)의 정을 나눈 표본으로 남아있다.

㉔ 변계량(卞季良:호 춘경(號 春亭), 시호 문숙(諡號 文肅)1369-1430}

· 출생

낙동강 하구(河口)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수로(水路)의 교통중심지인 수산현(水山縣)에 인접하여 신라 때부터 방어요새(防禦要塞)로 쓰이던 덕대산(德大山:662△ 축성 유적이 있음) 기슭에 자리한 밀양변씨(密陽卞氏) 세거지(世居地)인 구령리(龜齡里:밀양시 초동면 성만리), 밀양관부(密陽官府) 서쪽 30리에 위치한 이곳은 춘정선생의 6대조(諱 高迪)부터 대대로 살아 온 관향(貫鄉)으로 지금도 많은 유적(遺蹟)이 산재한 곳이기도 하다.

<춘정선생 생애(生涯) (출생) 참조>

· 출사(出仕)

진사(進士) 생원(生員)을 거쳐 17세(1385. 우왕13)에 문과에 급제한 후 당시 쟁쟁한 학자였던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권근(權近) 문하에 출입하면서 학문을 쌓고 식견을 높였다.

선생의 첫 벼슬은 비교적 우수한 인재가 머물던 전교서(典校署) 주부(主簿)였고 비교적 청직(淸職)을 거쳐 대제학(大提學)까지 올랐다.

※춘정선생 생애(生涯) <별지# 3> 관직요약(官職要約) 참조

· 사적요약(事蹟要約)

춘정선생은 관학계(官學界)에 몸담고 이조 초기의 문형(文衡)의 위치에서 나라에 세워진 업적의 공훈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여기서는 ①사상적 배경, ②문치(文治) 및 경세원리(經世原理), ③학문이 미친 정책(政策) 등 부분별로 개괄적(概括的)인 내용을 뽑아 살펴보기로 한다.(편집자)

※<별지# 2> 관직업적 총괄개요(總括概要)참조

▼ 사상적 배경(背景)

춘정선생의 사상적 배경은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천(天) 사상, 즉 천(天)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도덕적(道德的) 주재자(主宰者)로서의 천(天)이고, 하느님(天帝)은 인간을 선(善)으로 이끄는 선신(善神)으로서, 천지인합일정신(天地人合一精神)으로 이어지고,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실천을 위하여 그의 아들에게 천명을 내려 인간 세상에 내려 보냈는데 그 천명(天命)은 만물의 생성과 인애(仁愛)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에 따라 그 이념(理念)은 민본통치(民本統治)에 두어야 하고, 하느님(天帝)의 노여움은 모든 재해(災害)를 동반하기 때문에 군주(君主)는 제천(祭天)하여 그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제천의식(祭天儀式)에서 민족의 자존(自尊)을 찾

고 단군신화에서처럼 중국의 제후국(諸侯國)이 아니고 하느님(天帝)의 손자로서 독립주권(獨立主權)의 나라임을 강조하고 민족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일깨웠다. 그리고 군주(君主)는 하늘의 뜻을 어기면 안되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어름 밝듯이 조심조심 다스려야 한다고 했고, 하늘의 소리는 백성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말단의 어려운 생각들을 여과 없이 접하도록 언로(言路)를 터야 한다고 했다. 또 민본(民本)에 둔 정치는 후민생(厚民生)의 정책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족식(足食:만족히 먹는 것) 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농정책(重農政策)의 수행으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한편으로 과학의 진흥과 음악 등을 장려하여 후생(厚生)을 두텁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별지# 2> 관직업적총괄개요(官職業績總括概要)

직함(職銜)	대요(大要)	비고
문형(文衡) 예문관대제학 성균관대사성	· 교육기관 확충(성균관, 향교 등) · 새로운 서적도입 및 주자(鑄字) 인쇄 보급 · 외교사명(外交詞命), 조명(詔命) 제작 · 나라 행사의 비명(碑銘), 기문(記文), 제문(祭文), 및 각종 관련 문장(文章) 찬진(撰進) · 사장학(詞章學)진흥(경기체가(景幾體歌),가사(歌辭) 등)	태종 세종 조
집현전대제학 (大提學)	· 국립연구소로 집현전(集賢殿) 재건 설치, 전문 인재 양성(고문(顧問)에 대비) ※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 도입	1420년 (세종 2)
동지경연 (同知經筵) 세자이사 (世子弼正)	· 명문장(名文章)으로 뛰어난 강론(講論) · 1412(태종12)부터 세자우빈객(右賓客)이 되어 세자 인성 교육에 주력	1409 (태종 9) 1428 (세종 8)
동지춘추관사 (同知春秋館事)	· 고려사(高麗史) 개수(改修), 태조 정종 태종 실록 편찬 주도	1409 (태종 9) 세종조
예조판서 겸 지경연춘추관사 (兩知事)	· 충효사상 장려 {효 행실도(行實圖) 전국 보급} · 대학행의(大學衍義) 진강(進講)	1417 (태종 17)
판우군도총제부사 (判右軍都總制府事)	· 부국강병정책 -- 새로운 군사연구서(陳法) 제정 및 적용 훈련 실시 ※ 어전(御前) 진설문답 검정(陳說問答檢定) · 군량(軍糧)을 아껴 빈민 구호(救護)	1426 (세종 8)
제조의금부사 (提調義禁府事)	· 사원(私宥)사사로운 원통한 사정의 구제(救濟) · 사형벌(死刑罰)의 회피, 구생(求生) 방도 모색 ※ 임금이 기꺼히 여겨 십 수년 동안 겸직토록 함	1418 (세종 18)
초시(初試) 및 문과시취관 (文科試取官)	· 시제(試題) 및 시취장(試取場) 공정관리. · 김숙자(金叔滋) 경술문장(經術文章)을 33인 문과 시취(試取) 중 가장 높이평가 함.	1419 (세종 원년)

◇유교 입국(儒敎立國)의 문치(文治)를 주도한 세종조(世宗朝)는 황희, 맹사성 등의 청렴한 인물이 전진배치 되어 중앙집권(왕권)체제의 확립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외교 문교 등에 변계량 문형(文衡)이 동용되어 학문적 뒷받침이 이루어져 역대 어느 왕조보다 훌륭한 치적을 남기게 되었다.

▼ 문치(文治), 경세원리(經世原理)

▷ 문치(文治)

학문과 법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는 문덕(文德)으로서 행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나라의 궤도설정(軌道設定), 즉 문물제도(文物制度)의 규범과 세칙을 마련하는데 적극 참여하였는데, 그 재략(才略)과 능력을 인정받았고, 사대교린(事大交隣:강대국 선린 외교)의 전환기(轉換期)적 외교사명(外交詞命:외교 문서)을 작성함에 있어 유교적 대의명분(大義名分)에 입각한 박식(博識)과 유려(流麗)한 필치를 구사(驅使)하여 조공(朝貢)의 조건개선 및 감랑 등 국초(國初)의 국제관계 정립에 큰공을 세웠다. 그리고 이 문덕(文德)은 학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나라의 교육정책은 인재양성에 두고 그 기반이 튼튼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태종 때 건의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1420(세종2)년에 왕의 윤허(允許)로 중앙국립연구소인 집현전(集賢殿)을 재건 설치하여 스스로 대제학(大提學)이 되어 소장문신(小壯文臣) 중에서 총명한 자를 뽑아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는데, 후에 사가독서(賜暇讀書:여가를 주어 산사(山寺) 등에서 집중 연구케 함)제도를 도입(導入)하였고 성균관 10과 설정과 더불어 나라의 골고루 소요인력의 양성기반을 갖추어 나갔다.

◇춘정선생은 문장(文章)에 능통하여 모든 외교사명(外交詞命), 궁중의 조명(詔命:왕명을 기록한 문서) 등의 기록 문건은 선생이 작성하지 않으면 왕의 윤허(允許)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다.

▷ 경세원리(經世原理)

춘정선생의 경세관(經世觀)은 철저하게 유교적(儒敎的) 정치이념(政治理念)에 기초하였으며 이조 초기 관학과(官學派) 유학자(儒學者)들이 다 그러한 것처럼 주자학적(朱子學的) 경세사상(經世思想)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사대

교린(事大交隣)에 있어 어차피 버티어도 손해니 적절하게 조종하여 구슬리는 방책을 강구하는 한편 치도(治道)에 있어 천(天)의 명을 받고 군주(君主)에 오른 제왕(帝王)은 천(天)의 계시(啓示)에 따라야 하는데, 이 천(天)의 계시(啓示)의 요체(要諦)는 민본통치(民本統治)에 두어야 하고, 이는 곧 후민생(厚民生), 즉 백성의 생활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그리하여 중농정책(重農政策)으로 자족(自足)을 펴고 생활과학과 예술을 진흥시켜 기초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 영락13년유월일봉사(永樂十三年六月日封事)

【1415(태종15)년 상소6조(上訴六條)】

- 청축제언상서(請築堤堰上書)

【1415(태종15)년 상소문(上疏文)】

▼ 학문(學問)

태종(太宗), 세종조(世宗朝)의 20여 년의 문형(文衡)에서 당대 문치(文治)의 최고 책임자였으며 문장가(文章家)로서 사장학(詞章學), 시문학(詩文學)에도 능하였는데, 특히 시가(詩歌) 및 경기체가(景幾體歌) 형식의 가사(歌辭)는 우리나라 국문학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1409(태종9)년부터 동지경연(同知經筵:임금 앞에 강론)과 1412(태종12)년부터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세자교육담당:종2품)이 되어 명문장(名文章)으로서 강론(講論)과 함께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

1416(태종16)년에는 전국이 가뭄이 심하게 들어 국단(國壇:나라의 제단으로 왕이 제주(祭主))을 쌓고 춘정선생이 제문(祭文)을 지어 기우제(祈雨祭)를 올리자 그 날로 큰 비가 내렸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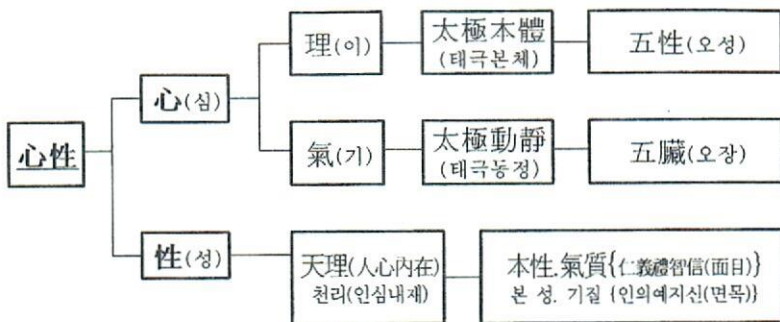
한번은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진 흰 평을 얻게 되자 조정에서는 축하하는 표(表)를 지어 보내게 되었는데, 문구를 둘러싸고 선생과 대신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 내용은 이 흰 평(茲白雉:자백치)의 이(茲)를 띄우느냐 붙여 쓰느냐는 것이었

고 세종과 대신들은 붙여 쓰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선생은 「농사는 남종에게 묻고 길쌈은 여종에게 물어야 합니다 문장은 노신(老臣)에게 물어야 옳습니다.」고 주장, 자신의 학문과 문장력에 자신만만히 했다.

선생은 또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역사 기록문서 담당 부서장 정2품)로 있으면서 정종(定宗:1419승하)과 태종(太宗:1422승하)의 실록편찬(實錄編纂)을 주도하였다. 이미 망해 버린 고려의 국사를 편찬하는데는 이론이 없었으나 직전 왕대(王代)의 실록을 편찬하는데는 의견이 분분했다. 당대의 일어난 일을 당대에 실록으로 편찬하면 관련된 사람의 이해 때문에 사화(史禍)가 일어날 염려가 있어서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선생은 이를 물리치고 태종 실록 편찬에 적극 참여, 뒷날 국왕이 서거하면 바로 실록을 편찬하는 전통이 이때부터 세워졌다. 한편 선생은 국조보감(國朝寶鑑) 편집에 참여하고 정부상규설(政府相規說)을 지어 유교윤리에 바탕을 둔 군신(君臣)간의 예를 밝히고 치국의 경륜을 펴다.

선생은 「심(心)과 성(性)은 천하의大本(大本)이다」고 하면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이 심성(心性)을 그기에 들여다 놓으면 되다」고 하여 학문과 정치경륜을 구별하지 않았다.

선생의 학풍(學風)은 하륜(河崙)의 심성설(心性說)을 이어받아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적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곧 심설(心說)과 성설(性說)로 대별된다. 즉 심설(心說)은 「심(心)이란 것은 이(理)와 기(氣)의 합체로 우주만물의 근본이고 본체인 태극(太極)이 바로 이(理)이며 태극(太極)의 동정(動靜)이 기(氣)이다」.



따라서 성(性)은 하늘로부터 타고난(천리(天理)) 본래의 성(本性)은 착하지만 기질의 성(氣質)은 천태만상이란 이원론(二元論)의 입장을 고수한다. 결국 하륜의 성설(性說)은 맹자의 성선설(性善說)과 순자의 성악설(性惡說)을 함께 받아들여 본질성(本質性)과 기질성(氣質性)으로 이론화(理論化)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이어받은 춘정선생은 「인간은 선한 천품(天稟)을 타고났으나 나쁘게 될 기질(氣質)의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문을 게을러서는 안되고 수양해야 한다」는 논법으로 항상 배움을 강조하였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집현전(集賢殿) 사업 활자사업 각종 서필 구입 등에 남다른 노력과 업적을 남겼다.

◇ 춘정 문집(春亭文集)

왕명에 의하여 집현전(集賢殿)에서 문집이 교정 선사(繕寫:글을 보강)되고 밀양에서 간행된 초간본(初刊本)은 완결(完帙)은 진하지 않고 1825년의 중간본(重刊本:규장각소장)과 1937년에 속집(續集:국립도서관소장)이 전해 오고 있다.

㉞ 윤희(尹淮:호 청향당(淸香堂), 시호 문도(謚號 文度) 1380-1436]

· 출사(出仕)

1401년(태종1)에 증광문과(增廣文科:나라의 경사 때 보는 과거)에 급제하여 이조좌랑(吏曹佐郎:정6품)을 거쳐 1409년(태종9)에 이

조정랑(吏曹正朗:정5품)에 나아가고 후에 대제학(大提學)까지 올랐다.

· 사적요약(事蹟要約)

어릴 때부터 경사(經史)에 통달하여 이름을 떨치다가 22세 때 과거에 올라 당대에 뛰어난 문장력(文章力)으로 권근(權近), 하륜(河崐), 변계량(卞季良)으로 이어지는 관학과(官學派) 학맥을 이어받은 그는 선배학자들의 문하에서 총애를 받으며 순탄한 벼슬의 자리로 이어졌고, 권근(權近) 변계량(卞季良)에 이어 조선조(朝鮮朝) 세 번째 문형(文衡)에 오른 관각(館閣)의 큰 학자로 우뚝 섰다.

일찍이 그는 1414년(태종14)에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로서 노비변증도감(奴婢辯正都監)이 설치되자 제십방(第十房)의 담당자로서 신속 공정한 판결을 함으로서 승양을 받았다.

1426년(세종4)에 병조참의(兵曹參議:정3품)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종2품) 등을 역임하였으며, 1428년(세종6)에 집현전(集賢殿)의 변계량 대제학 밑에서 부제학으로 있으면서 정도전의 고려사(高麗史)를 유관(柳寬:학자, 정치인(우의정))과 함께 개찬(改撰)하는데 참여했다. 그 후 중추원사(中樞院事)겸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거치면서 1434(세종16)년에 집현전(集賢殿)에서 왕명으로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의 편찬을 맡았으며 병조판서(兵曹判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이르러 큰 학문의 업적을 남겼고 관학과(官學派) 학자로서의 맥을 이어갔다.

◆ 관학과학맥(官學派學脈)

관학(官學)은 이조 초기 튼튼한 기틀을 유지하며 세종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공적을 남겼으나 14세기 말엽부터 사학과(私學派)의 거두 김종직(金宗直) 문하의 유자(儒者)들의 등장

으로 소위 관학파의 일맥(一脈)인 훈구파(勳舊派)와의 충돌로 사화(士禍)가 시작되고 세조(世祖:1455-1468), 연산군(燕山君:1494-1506) 시대를 거치면서 향후 오랜 동안 지속된 당쟁(黨爭)과 조정(朝廷)의 혼란이 정치적 역량의 부족으로 이어져 지방관학(地方官學:향교 등)의 운영 불량 등 현저히 기초관학이 쇠퇴하는 반면, 사학과 학자들은 절의(節義)를 내세운 큰 유자(儒者)들의 지속적인 배출로 상대적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1543년(중종38)에 향교(鄕校)와 사학(私學)의 단점을 보완하여 주세붕(周世鵬:1495-1554)이 사림(士林:(儒林)공자의 도를 닦는 학자)의 교육터전으로 우리나라 최초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후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을 풍기에서 일으켜 서원(書院) 교육시대를 열면서 학계의 큰



<국보 111호 소수서원 사액현판>

변화를 주었다. 그 후 1300여 편의 방대한 작품을 남기면서 그 가운데 춘정선생의 경기체가(景幾體歌) 형식인 【화산별곡(華山別曲)】 등의 영향을 받아 【죽계별곡(竹溪別曲)】, 【도동곡(道東曲)】 등 경기체가를 더욱 발전 시켰음을 특징으로 남는다.

※ 사화(士禍)

- 무오사화(戊午:1498 연산군4) : 김종직 문하 권오복, 김일손 참화
- 갑자사화(甲子:1504 연산군10) : 김굉필 효수(梟首)
- 기묘사화(己卯:1519 중종14) : 조광조 사사(賜死)
- 을사사화(乙巳:1545 인종1) : 윤임 사사(賜死)

(2) 사학파(私學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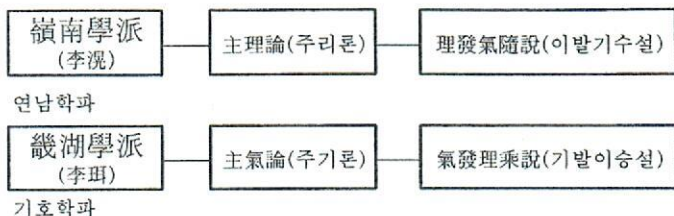
고려왕조(高麗王朝)에 충절을 바친 정몽주(鄭夢周:영천)의 학통(學統)을 길재(吉再:선산)로 이어져 사학(私學)의 기틀을 형성하면서 드디어 김숙자(金叔滋), 김종직(金宗直:선산) 부자(父子)에게 계승(繼承)되어 시림파(士林派)의 우뚝한 학맥(學脈)의 줄기를 이루었다. 김종직 문하에서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같은 대학자의 출현으로 사림세(士林勢)는 영남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장되어 갔다. 영남사림파가 서서히 중앙정계로 진출하자 기성 관료세력인 훈구파(勳舊派)에 의해 무오(戊午), 갑자(甲子)사화가 유발되자 그 기세가 주춤하였으나 그 가운데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조광조(趙光祖), 김안국(金安國)에 이르러 정점을 이룬다. 같은 사림(士林) 계열의 이언적(李彦迪)과 김안국(金安國)의 기반 위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학자 이황(李滉:안동)이 나타나 거대한 학맥(學脈)의 거봉인 영남학파(嶺南學派)를 주도했다. 때를 같이하여 동일 계열의 조식(曹植:함양)은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의 학풍(學風)을 토대로 영남학파의 2대지주(二大支柱)의 한사람으로 등장했다.

이와는 달리 이황과 동시대의 인물인 이이(李珣:강릉)가 학문적 쌍벽을 이루고 그의 학통을 따르는 학자들이 주로 경기 충청도에 많았던 관계로 학자들 사이에 기호학파(畿湖學派)라 불렸다.

영남학파(嶺南學派)는 이퇴계{李退溪:이황의 호(號)}의 【이(理)가 발하면 기(氣)가 그에 따른다】는 이발기수설(理發氣隨說)인 주리론(主理論)을 지지했고, 기호학파(畿湖學派)는 이율곡{李栗谷:이이의 호(號)}의 【기(氣)가 발하면 이(理)가 그를 올라탄다】는 기발리승설(氣發理乘說)인 주기론(主氣論)을 견지했다.

※ 사학의 인맥은 관학에 비해 비교적 두텁게 형성되는 경향이였다

◆ **性理 學問理論**(성리학문이론)



여기서 이(理)는 현대의 철학적 술어(述語)로 이성(理性)이며 기(氣)는 감성(感性)이다. 그러던 것이 정치적으로 학파와 문벌의 차이, 노소(老少) 신구(新舊)의 충돌로 동인(東人:영남학파), 서인(西人:기호학파)으로 갈라지고 그 후 동인은 남북(南北)으로 서인은 노소(老少)로 다시 분파하여 대립이 반복되었고 국가적 사회적 충격이 매우 컸으며 15세기 이후 조선조의 불치의 고질이 되었으나 학문적 업적과 국난(國難)을 만났을 때마다 보여준 높은 기개(氣概)와 충절(忠節)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영남 학맥의 거두(巨頭) 이퇴계 학통을 받아 실학(實學)으로 연결한 대학자이며 선조(鮮朝) 제일의 정치가로 추앙 받는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이 1592년 임란(壬亂) 이후 위국애민(爲國愛民)으로 국난 극복에 선봉이 되었으며 그 이외도 많은 사림과 학자들이 나라에 세운 애국충절의 공적은 매우 컸다.

4. 문집(文集) 독해(讀解)

가. 한시(漢詩) 선정(選定) 50수(首)

※ 한시(漢詩) 선정은 문집에서 총 546 수(首) 중 1권(卷)에서 순서대로 년대(年代)를 고려치 않고 임의 선정하였으며 생애(生涯) 및 학문세계(學問世界)의 본문에서 설명한 일부 한시(漢詩)를 제외한 것 중의 일부이며 선생이 은거(隱居: 1차(1392-1397), 2차(1398-1401))한 때의 작시(作詩)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편집자>

1. 寒食(한식)

落花如雨柳如煙(낙화여우유여형):

今日風光似去年(금일풍광사거년):

好是錦城逢令節(호시금성봉령절):

典衣須向酒家眠(전의수향주가면):

◆ 한식(寒食) 날

낙화(落花)는 비와 같고 버들은 연기 같아

오늘의 풍경(風景)이 지난해와 닮았네.

아름다운 금성(錦城)에서 영절(令節)을 맞이하여

전의(典衣)를 잡혀놓고 주가(酒家)에서 잠들었네.

※ 영절(令節): 좋은 시절

전의(典衣): 의복을 전당 잡힘

주가(酒家): 술과 식사 및 잠도 채워주는 집

2. 睡起(수기)

宿醉醒來夢自驚(숙취성래몽자경):

一園嘉樹午涼生(일원가수오량생):

杜門寂寂無人問(두문적적무인문):

終日茅齋獨聽鶯(종일모재독청앵):

◆ 낮잠 자다 일어나서

숙취(宿醉)에서 깨어나니 꿈도 절로 사라지고
한 전원(田園) 가수(嘉樹)에서 오량(午涼)이 일어나네
문 닫고 적적한데 물어오는 사람 없어
온 종일 모재(茅齋)에서 피꼬리 소리 홀로 들네.

※가수(嘉樹) : 아름다운 나무

오량(午涼) : 한 낮의 서늘한 기운

모재(茅齋) : 띠(茅)로서 이은 집. 자기 집을 낮추어 일컫는 말.

3. 寄陽谷(기양곡)

早年心事漸蹉跎(조년심사점차타):

俗客還嫌應接多(속객환협응접다):

深院日長惟足睡(심원일장유족수):

故人車馬不曾過(고인차마불중과):

◆ 양곡(陽谷)에게 보내다

젊은 때의 심사(心事)가 점차로 차타(蹉跎) 되니
속객(俗客)들 조차도 응접(應接)하기 싫어하네
고요한 집, 해는 길어 낮잠은 넉넉하고
친구들의 수레 말이 지나간 적 없어라.

※차타(蹉跎) : 발이 걸려 넘어짐. 불운하여 뜻을 이루지 못함.

속객(俗客) : 무식하고 속된 사람.

4. 夏日卽事(하일즉사)

節序當炎月(절서당염월):

風光屬晚晴(풍광속만청):

幽園多綠樹(유원다록수):

深處語流鶯(심처어류앵):

林葉纓桃熟(임과영도숙):

亭花勻藥明(정화작약명):

境偏無馬跡(경편무마적):

吟嘯是閒情(음소시간정):

◆ 여름 날 즉석에서 읊음

계절의 차례가 더운 달이라

만청(晩晴)의 풍광이 좋을시구나.

고요한 전원(田園)에는 푸른 나무 우거지고

깊숙한 고을엔 유앵(流鶯)이 울어 데네

숲 속에 자란 과일, 영도(纓挑)는 익었고

정자에 피어난 꽃, 작약(芍藥)색이 밝기도 해

지경(地境)이 후미져서 마적(馬跡)을 볼 수 없어

이 한가한 정황을 시(詩)지어 읊조리네.

※ 만청(晩晴) : 저녁 무렵에 비가 개이고 하늘이 맑음
유앵(流鶯) : 이 나무 저 나무 날아다니며 우는 찌꼬리
마적(馬跡) :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

5. 間齋自遣(간재자전)

仲夏草木繁(중하초목번):

綠陰藹簷前(녹음애첨전):

茅齋晝栢靜(모자주백정):

聊此看雲眠(요차간운면):

晚來獨巡圃(만래독순포):

高嘯心自便(고소심자편):

林夕棲鳥還(임석서조환):

四隣起炊烟(사린기취형):

事小慮絕牽(사소려절견):

景清興轉延(경청흥전연):

塵網雖未脫(진망수미탈):

幽懷且欣然(유회차흔연):

◆ 한재(閒齋)에서

중하(仲夏)의 초목들은 번성하게 잘어나고
 처마 앞에는 녹음(綠陰)도 짙을세라.
 모재(茅齋)는 한 낮에도 고요하고
 이런데서 구름을 보다 잠이 드누나.
 저녁나절 내 홀로 원포(園圃)를 둘러보며
 고상하게 시 읊으면 마음 절로 편안하네
 수풀에 저녁 들면 깃 든 새 돌아오고
 사방의 이웃에는 밥짓는 연기 퍼오르네
 사소한 일에 매인 잡념을 끊고서
 맑은 경치 구경하니 흥취가 늘어나네
 진망(塵網)은 내 비록 벗어나지 못했지만
 유희(幽懷)에 잠긴 마음 혼연(欣然)하도다.

- ※ 중하(仲夏) : 음 5월의 여름
 모재(茅齋) : 떠돌 입힌 집, 자기 집을 낮추어 일컫는 말.
 원포(園圃) : 나무나 채소를 심는 밭.
 진망(塵網) : 더러운 세상.
 유희(幽懷) : 남모르는 깊은 생각.
 혼연(欣然) : 기뻐하는 모양

6. 杜門憎陽谷(두문증양곡)

物華隨節改(물화수절개):
 詩思與年深(시사여년심):
 巢燕偏依棟(소연편의동):
 啼鶚政滿林(제앵정만림):
 琴書閒不厭(금서한불엄):
 花木靜相尋(화목정상심):
 却笑馳名者(각소치명자):
 奔忙力未任(분망역미임):

◆ 두문불출하면서 양곡(陽谷)에게 줌
 물화(物華)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데
 시를 지을 생각인데 해는 깊어간다
 제비는 내 편들어 기둥에 의지했고
 찌꼬리의 울음소리 수풀에 가득하네
 탄금(彈琴)하고 독서하니 한가로움 싫지 않고
 꽃나무도 고요히 찾아 구경하겠네.
 명예를 위하는 일 우습기도 한데
 분망 하게 설쳐봤자 힘에 겨운 것을.

※ 물화(物華) : 사물의 빛
 탄금(彈琴) : 거문고를 탐

7. 病中寄陽谷(병중기양곡)

窮巷過逢少(궁항과봉소):

孤心寂寞中(고심적막중):

病容吾自哂(병용오자신):

高義爾誰同(고의이수동):

枝頭實照紅(지두실조홍):

經時培相憶(경시배상억):

交分自兒童(교분자아동):

◆ 병중에 양곡(陽谷)에 부침

궁항(窮巷)에서 살다보니 만나는 이 적을세라
 외로운 이 심정 적막 중에 달리네
 병든 나의 얼굴이 가소로운데
 누가 있어 고의(高義)를 같이 할꼬.
 들에는 푸른 이끼 돌아나고
 가지엔 붉은 열매 익었구나
 세월은 흐를수록 생각은 배로 나고
 교분(交分)은 어린 시절 돌아가네.

※ 궁항(窮巷) : 좁고 으스스한 뒷골목
 고의(高義) : 고상한 의리
 교분(交分) : 사귄 정분

8. 奇淸溪山萬行上人(기청계산만인상인)

縹緲僧居在翠微(표묘승거취미):
 我與南望倍深思(아흥남방배심사):
 月明記得相逢夜(월명기득상봉야):
 正是長松雪落時(정시장송설락시):

◆ 청계산(淸溪山) 만행(萬行)스님께 드림

아물아물 스님 집이 푸른 산에 있구나
 남쪽을 바라보니 생각 배나 깊어지네
 달 밝으면 자난 날 만나던 일 기억하는데
 지금은 장송(長松)에 눈이 내리겠지.

9. 次陽谷韻(차양곡운)

靜裏吟懷自不窮(정이음회자불궁):
 惟嫌抱病謾書空(유혐포병만서공):
 將離燕語時時急(장리연어시시급):
 喚友罵聲寂寂同(환우맹성적적동):
 曉齋捲簾虹照雨(효재권렴홍조우):
 晚涼欹枕樹搖風(만랑기침수요풍):
 草廬賤子誰曾記(초려천자수증기):
 更感君心抱有忡(경감군심포유충):

◆ 양곡(陽谷)의 시(詩)를 차운(次韻)함

조용히 시(詩) 읊는 마음 그지없어라
 병을 지냈으니 쓰는 글도 헛되도다.
 제비는 시시(時時)로 이별을 서두르고
 피꼬리는 적적하게 벗을 부르누나.

발을 걷고 보니 무지개 쏘고
베개 베고 누웠으니 나무에 바람 부네.
초가집 천한 나를 누가 기억하리
자네 마음 느끼자니 근심 되누나.

10. 次陽谷韻(차양곡운)

十年遊學竟無聞(십년유학경무문):

愧欠新詩可寄君(괴흠신시가기군):

早歲看鞭知子是(조세간편지자시):

朝家今日政崇文(조가금일정승문):

◆ 양곡(陽谷)의 시를 차운(次韻)함

십년 간 유학(遊學) 길에 끝내 소식 없었다가
새로운 시(詩)를 지어 부치자니 부끄럽네
일찍이 격려해 준 자네를 알았기에
오늘 날 조정에서 승문(崇文)을 맡았노라.

※ 승문(崇文) : 글을 숭상하는 일.

11. 獨坐呈陽谷(독좌정양곡)

高臥五六日(고와오육일):

杜門無雜賓(두문무잡빈):

溪山晴作盡(계산청작진):

花木雨生津(화목우생진):

詩句還堪誦(시구한감송):

樽醪自可親(존요자가친):

誰能覺來往(수능각래왕):

最好詠深春(최호영심춘):

◆ 홀로 앉아서 양곡(陽谷)에게 글을 보냄

5, 6일 고와(高臥)하여 문닫고 있으니
 잡빈(雜賓) 찾아오지 않는구나.
 개울과 산은 날씨 청명하고
 비 맞은 꽃나무 윤기 흐르는데
 시(詩)를 외우자니
 술잔 절로 친해지네
 내왕(來往)하는 사람들 누가 능히 깨달을까.
 깊은 봄이라 읊조리기 가장 좋네.

※ 고와(高臥) : 세속(世俗)의 누(累)를 벗어나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
 잡빈(雜賓) : 별로 소용이 없는 손님.

12. 秋夜次陽谷韻(추야차양곡운)

坐來夜久割煩襟(좌래야구할빈금):
 有底塵機得到心(유저진기득도심):
 滿樹秋聲滿窓月(만수추성만창월):
 憶君時復動微吟(억군시복동미음):

◆ 가을밤 양곡(陽谷)의 시(詩)를 차운(次韻)함

밤늦도록 앉아서 번뇌를 없애자니
 끝까지 속세(俗世)일이 마음에 이르누나.
 나무에는 가을 소리 창(窓)에는 달빛이라
 자네 생각 간절하여 가만히 읊어보네.

13. 冒雨途中(모우도중)

柳絲搖樣雨中垂(유사요양우중수):
 處處樓頭捲酒旗(처처루두권주기):
 馬上簑衣人不識(마상사의인불식):
 歸來能得一篇詩(구래능득일편시):

◆ 비를 무릅쓰고 가는 길

버들가지 한들한들 빗속에 드리우고
술집 곳곳에는 기를 걸었네
도롱이 입고 말 탄 사람, 남들이야 알겠는가
돌아와 한편 시(詩)를 능히 얻었네.

14. 題百華寺(제백화사)

方丈曾無俗士來(방장증무속사래):
客中聊此久徘徊(객중료차구배회):
靑靑古栢窓前直(청청고백창전직):
白白晴雲岳面堆(백백청운악면퇴):
一柱妙香人在定(일주묘향인제정):
半簷斜日鶴飛回(반첨사일학비회):
巨僧本自情懷懶(거승본자정회라):
苔合雙扉晝不開(태합쌍비주불개):

◆ 백화사(百華寺)를 두고 지은 시(詩)

방장(方丈)에는 일찌기 속사(俗士) 내방 없는지라
여행하다 여기에서 오래 돌아 다녔네
오래된 잣나무는 창 앞에 곧게 섰고
흰 구름 깨끗하게 산 얼굴 묻었구나.
한 자루 향촉(香燭) 앞에 사람이 앉아 있고
처마에 해 저무니 학이 돌아오네
큰스님 본래부터 생각이 개을러서
이끼 낀 사립문을 낮에도 닫아뒀네.

※ 방장(方丈) : 삼신산(三神山: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의 하나로 신선(神仙)이 산다고 함. 여기서는 백화사를 방장(方丈)에 비유.

속사(俗士) : 건식이 낮은 사람.

향촉(香燭) : 제사에 쓰는 향과 초.

15. 暮春寄陽谷(모춘기양곡)

杏艷桃嬌三月天(행염도교삼월천):

滿城春雨草如絢(만성춘우초여형):

一罇試向山中去(일준시향산중거):

紅白花前共醉眠(홍백화전공취면):

◆ 늦봄 양곡(陽谷)에게 보내다

살구, 복숭아 꽃 고운 3월이로다.

봄비 성(城)에 가득 풀빛이 연기 같네

한 두루미 술 싣고 산을 향해 가다가

희고 붉은 꽃 앞에서 함께 취해 보자구나.

16. 春雨(춘우)

欣欣樹木共芳姿(흔흔수목공방자):

好雨當春暗有期(호우당춘암유기):

潤物無聲眞大語(윤물무성진대어):

終朝閒詠草堂詩(종조한영초당시):

◆ 봄비

흔흔(欣欣)한 초목들은 모두가 꽃다운데

남 몰래 기약했나, 봄이 되니 단비 오네.

윤기 나는 만물이 소리 없는 말을 하고

아침이 다하도록 초당에서 시(詩) 읊었네.

※ 흔흔(欣欣) :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중 「木欣欣而榮」에서 나온 말로 초목이 잘 자란 모양을 말함.

17. 落花(낙화)

偶尋幽圃獨徘徊(우심유포독배회):

滿地殘花錦作堆(만지잔화금작퇴):

自是東風偏愛惜(자시동풍편애석):

却將吹到點深杯(각장취도점심배):

◆ 꽃은 떨어지고

우연히 전포(田圃) 찾아 홀로 돌아다니자니

땅에 가득 떨어진 꽃 비단이로다.

이제는 봄바람도 아끼고 사랑해서

꽃잎 불어서 술잔에 떨어지네.

※ 전포(田圃) : 과일나무 채소 심는 밭

18. 寄陽谷(기양곡)

日月違清裁(일월위청재):

乾坤欲暮春(건곤욕모춘):

景佳詩有興(경가시유흥):

院靜榻生塵(원정탁생진):

渠柳陰草合(거유음초합):

園花落漸頻(원화락점빈):

經時來往絕(경시내왕절):

敢謂有交親(감위유교친):

◆ 양곡(陽谷)에게 보냄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소식이 어긋나고

천지(天地)의 봄철은 저물고자 하는구나.

경치는 아름다워 시(詩) 읊으니 흥이 나고

집안은 조용한데 평상에 먼지 나네.

버들은 그늘지고 풀잎은 어우러져

동산의 꽃들은 자주 떨어지는구나

시일이 갈수록 내왕이 끊기는 데

감히 어찌하여 친하다 하오리까.

19. 偶吟(우음)

佳木千章午影斜(가목천장오영사):

境偏渾似野人家(경편혼사야인가):

興來緩步綠芳草(흥래완보록방초):

一院風香樹樹花(일원풍향수수화):

◆ 우연히 읊음

고운 나무 천(千)그루에 한낮을 맞아

경내는 혼연(渾然)히 시골 사람 집이로다.

흥이 나서 걸자하니 방초(芳草)는 푸르렀고

나무마다 꽃이 피니 한 집안이 향기로다.

※ 혼연(渾然)히 : 조금도 딴 것이 섞이지 않는 또는 차별이 없음.

20. 館中睡起(관중수기)

秋樹扶疎院宇清(추수부소원우청):

蕭蕭黃葉下空庭(소소황엽하공정):

日斜睡起無人到(일사수기무인도):

枝上寒蟬獨坐聽(지상한선독좌청):

◆ 객관(客館)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가을나무 우거진 곳, 원우(院宇)는 맑고

쓸쓸한 가랑잎 빈 마당에 떨어지네.

해 기울자 잠을 깨니 아무도 없어

나뭇가지 매미소리 홀로 앉아 듣노라.

※ 원우(院宇) : 원(院) 집, 관헌들이 공무로 숙식하던 객사(客舍).

21. 月下散步(월하산보)

月華如練近人流(월화여련근인류):

滿洞砧聲夜未休(만동침성야미휴):

散步吟詩殊有興(산보음시수유흥):

一天風露政高秋(일천풍로정고추):

◆ 달밤의 산보

비단 같은 달빛이 사람에게 다가오고
마을 가득 다듬질 소리 밤에도 안 그치네.
거닐면서 시(詩) 읊으니 별다른 흥이 나고
한 하늘 이슬 가득 가을이 한창이네.

22. 夜坐有感(야좌유감)

獨坐懷千慮(독좌회천려):

燈殘俗二更(등잔속이경):

斷鴻霜外苦(단홍상외고):

寒杵夜深鳴(한저야심명):

薄宦身何補(박환신하보):

長歌氣不平(장가기불평):

年華空復暮(연화공복모):

鬱鬱壯心驚(울울장심경):

◆ 밤에 앉아 느끼는 감상(感想)

홀로서 앉아 온갖 생각하노라니
등불 가물가물 밤은 깊은데
홀쳐 나는 기러기 서리에 고생하고
차가운 공이소리 깊은 밤에 들리누나.
불행한 벼슬살이 무엇으로 보충할꼬
장가(長歌)를 불러봐도 편안치 않네
한 해도 공연히 다시 저무는데
장한 뜻 못 이루어 우울하구나.

※공이소리 : 절구에 곡식 찧는 소리
장가(長歌) : 길게 부르는 노래.

23. 讀書(독서)

苔扉元不近塵喧(태비원불근진원):

靜裏詩篇左右紛(정리시편좌우분):

終日讀來才數紙(종일독래재수지):

居然睡著卽昏昏(거연수착즉혼혼):

◆ 책을 읽으며

이끼 낀 사립문엔 진원(塵喧)이 멀고
고요히 지내자니 시편(詩篇)만 쌓이네
슬기 담긴 책만 온 종일 읽다가
거연(居然)히 졸면서 모든 생각 잊노라.

※진원(塵喧) : 속세(俗世)의 시끄러운 소리.

시편(詩篇) : 시(詩) 원고 책

거연(居然) : 사물에 동(動)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지내면서 꿈쩍하지 않는 모양.

24. 臨津渡(임진도):

蘆花楓葉暮江濱(로화풍엽모강빈):

兩箇扁舟渡水頻(양개편주도수빈):

砂上白鷗誰與狎(사상백구수여압):

年年愁殺往來人(년년수살왕래인):

◆ 임진강 나루터

해 저문 강가에 갈대꽃, 단풍잎이 한창인데
짜지은 조각배, 자주 왕래하누나.
모래 위의 흰 갈매기 누구랑 친압(親狎)하여
해마다 오가는 이의 근심을 없애주리.

※친압(親狎) -- 사이가 가까워 짐

25. 初冬雨夜(초동우야)

旅窓冬夜靜(여창동야정):

危坐轉悠哉(위좌전유재):

夢斷三更雨(몽단삼경우):

心驚十月雷(심경십월뢰):

壁燈熏散秩(벽등훈산질):

爐火沒深灰(로화몰심회):

少壯須勤力(소장수근력):

光陰自解催(광음자해취):

◆ 초겨울 비 오는 밤에

여행 중 묵는 집에 겨울 밤 고요한데
무릎 꿇고 앉아서 이것저것 생각하네.
한 밤중 빗소리에 꿈은 끊어지고
시월의 우레 소리 마음이 놀라겠네.
벽에 걸린 등불이 산질(散秩)을 비추고
화롯불은 식어서 재만 쌓이네.
혈기가 왕성할 때 부지런히 힘써야지
세월은 내 절로 해명만 재촉하네.

※산질(散秩): 질(秩)로 된 책의 일부가 흩어져 없어진 책.

26. 睡起(수기)

茆簷日靜小窓明(묘첨일정소창명):

窓外靑山作盡屏(창외청산작진병);

宿醉醒來時政午(숙취성래시정오):

手開爐火煖茶瓶(수개로화난차병):

◆ 졸다가 일어나서

묘첨(茆簷:자기 집의 겹처마)이 고요한데

작은 창이 밝아오고
창 밖의 푸른 산은 병풍을 이루었네
숙취에서 깨어나면 때는 한낮이고
화롯불 뒤져겨서 오차를 댈한다.

27. 宿安積寺(숙안적사)

獨登安積寺(독등안적사):

一徑轉雲岑(일경전운잠):

古樹籠晴藹(고수룡청애):

連峯下夕陰(연봉하석음):

石泉喧客夢(석천환객몽):

松月冷僧心(송월냉승심):

惆悵明朝別(추창명조별):

還爲俗事浸(환위속사침):

◆ 안적사(安積寺)에 묵으면서

안적사(安積寺)를 찾아서 홀로 오르니
한 가닥 지름길이 구름 속에 꼬불꼬불
늪어진 수풀에는 맑은 놀 가두었고
연이은 봉우리엔 석양빛이 내리누나.
돌 틈의 물소리에 나그네 꿈 어지럽고
소나무에 달이 뜨니 스님 마음 차갑겠다.
내일 아침 쓸쓸히 이별하고 나오면
다시금 숙된 일이 찾아 들겠지.

28. 偶題(우제):

寓居龍鳳寺(우거용봉사):

白晝掩苔扉(백주엄태비):

歲月丹青高(세월단청고):

風霜樹木奇(풍상수목기):

壁燈熏佛坐(벽등훈불좌):

山翠映僧衣(산취영승의):

城市高堂在(성시고당재):

思之却自悲(사지각자비):

◆ 우연히 생각나서 쓴다.

용봉사(龍鳳寺)에 부처서 기거하면서
한 낮인데도 문을 닫았네
세월 겪은 기둥은 높이 서 있고
풍상 겪은 수목들은 기이(奇異)도 자라
벽에 걸린 등불은 부처님을 지키고
푸르런 산 빛은 스님 옷에 비치네
복잡한 성내의 높은 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갑자기 슬퍼지누나.

29. 鳶魚(연어)

鳶魚分上下(연어분상하):

自是天機動(자시천기동):

道在穹壤間(도재궁양간):

須知人物共(수지인물공):

◆ 술개, 물고기

하늘에 술개 날고 물에 고기 뛰는 것은
스스로 천기(天機)의 동작일세
하늘과 땅 사이에 도(道)가 존재하여
모름이 알겠노라 사람, 만물 같다는 것을.

※ 천기(天機) : 천지조화(天地造化)의 심오한 비밀,
도(道) : 도학(道學)의 일부, 천(天) 인(人) 만물(萬物)의 통일시킨 사상.

30. 偶吟(우음)

萬物元來只一身(만물원래지일신):

前脩多是貴爲仁(전수다시귀위인):

却徒箇裏須知本(각도개리수지본):

先自齋家乃及人(선자제가내급인):

◆ 우연히 읊다.

만물(萬物)은 원래부터 한 몸인데도
많은 전수(前脩)들은 귀하고 어질었네
개중에는 모름지기 근본(根本)을 알고
자기 먼저 스스로 다스린다면
그것이 곧 남에게 미치느니라.

※ 전수(前脩) : 옛날의 사물에 통달한 사람, 곧 선철(先哲) 군자(君子)를 지칭함.

31. 衍日(아일)

壽寧宮殿鬱嵯峨(수녕궁전울차아):

千載松都氣勢嘉(천재송도기세가):

玉漏已殘催曙色(옥루이잔취서색):

滿庭冠屨正相磨(만정관용정상마):

◆ 대궐을 지키던 날

수녕(壽寧)의 궁전(宮殿)들이 울쭙불쭙 솟아있는
천년(千年) 송도(松都)의 기세가 아름답네
시간은 이미 새벽을 재촉하는데
마당 가득 벼슬아치 학문 서로 갈고 닦네

※ 수녕(壽寧) : 수복강녕(壽福康寧), 즉 오래 살고 복되며 건강한 몸으로 편안하는 것

송도(松都) : 고려조(高麗朝)의 수도, 지금의 개성.

32. 雨夜憶黃生員(우야억황생원)

孤吟疎雨不堪聽(고음소우불감청):

燈火悠悠夢未成(등화유유몽미성):

憶昔共尋龍鳳寺(억석공심용봉사):

臥聞終夜打窓聲(와문종야타창성)

◆ 비오는 밤에 황생원(黃生員)을 생각하며
홀로 읊자하니 빗소리 못 참겠네
등불은 가물가물 잠 못 이루고
그 옛날 우리 함께 용봉사(龍鳳寺) 찾아가서
온 밤을 창 빗소리를 누워서 들었었지.

33. 午吟(오음)

綠樹陰濃近午天(녹수음농근오천):

白雲當戶正如綿(백운당호정여면):

鳥啼花落茅齋靜(조제화락모재정):

剩得蒲團盡日眠(잉득포단진일면):

◆ 한낮에 읊음

푸른 나무 짙은 그늘 낮 하늘을 가리고
흰 구름 창에 뜨니 솜과 같구려
새는 울고 꽃은 지고 집은 고요한데
부들자리 누워서 낮잠 싫건 자겠네.

※ 부들자리(蒲團): 부들조로 엮은 자리

34. 觀音屈(관음굴)

聖居山東天磨西(성거산동천마서)

觀音之屈幽且清(관음지굴유차청):

朴淵水下垂玉虹(박연수하수옥홍)

倚祥塙迺于青冥(의상각형우청명):

兩箇石佛是真象(양개석불시진상):

白頭老僧非世情(백두노승비세정):

生平遊歷未曾有(생평유역미증유):

殷勤掃壁題姓名(은근소벽제성명):

◆ 관음굴(觀音窟)

성거산(聖居山) 동쪽이요 천마산(天磨山) 서쪽에
관음굴(觀音窟) 자리하여 그윽하고 깨끗하네
박연폭포 밑에는 무지개 드리웠고
의상(倚祥:산이름) 높은 봉은 푸른 하늘 솟았구나.
두 개의 석불엔 참된 모습 드러났고
흰머리 늙은 스님 세속(世俗)을 벗어났네
한평생 찾아봐도 처음 보는 경치라
은은히 벽을 닦고 성명(姓名)을 써보네

35. 病中(병중)

幽棲地僻客來遲(유서지벽객래지):

門掩苔痕欲上扉(문엄태흔욕상비):

巢燕似應憐我病(소연시용련아병):

簷前終日語還飛(첨전종일어환비):

◆ 병환 중에

후미진 곳 깊숙이 숨어살자니
찾아오는 손님도 걸음 드물고
가리운 대문에 이끼 자라서
문짝 위에 은근히 번지는구나
제비도 응당히 내 병을 아는 듯
처마 밑에 돌아와 온 종일 지저귀네.

36. 遣興(전흥)

寂寞家何事(적막가하사):

清明日漸長(청명일점장):

暖風吹午夢(난풍취오몽):

幽草自春香(유초자춘향):

遣興披書帙(전흥피서질):

寬心索酒觴(관심색주상):

向來眞趣足(향래진취족):

誰復憶羲皇(수복억희황):

◆ 흥취(興趣)를 즐기면서

적막한 집에 무슨 일 있겠는가
 清明(清明) 가절(佳節)이라 해만 점점 길어지네
 따뜻한 바람 불어 낮잠자기 좋은데
 그윽한 풀들은 봄 향기 품어내네
 흥취 즐기면서 책들을 펴서 놓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술상을 들어보네
 여태까지 참된 취미 만족했거늘
 누가 다시 희황세(羲皇世)를 생각하겠나.

※가절(佳節) : 청명 때 봄의 좋은 시절.

희황세(羲皇世) : 복희(伏羲)와 황제(皇帝), 즉 태평시대를 지칭.

37. 宿金神寺(숙금신사)

金神洞府深復深(금신동부심복심):

時有老僧邀獨尋(시유노승요독심):

鹿麋穩眠草如織(녹미온면초여직):

蝙蝠亂飛山正陰(편북난비산정음):

石根崑泉碎玉斗(석근암천쇄옥두):

風吹蘿月散黃金(풍취라월산황금):

曉來俗覺聞鍾坐(효래속각문종좌):

當日少陵知此心(당일소릉지차심):

◆ 금신사(金神寺)에 묵으면서

금신동(金神洞) 골짜기 마을 깊고도 깊은데
 홀로 찾는 나를 늙은 스님 맞아주네
 비단 같은 풀숲에는 사슴 노루 숨어 자고
 그늘진 산에는 박쥐들 난비(亂飛)하네
 암석에 솟는 샘물 옥두(玉斗)가 부서지듯
 라월(蘿月)에 바람 불어 황금빛 흩어지네
 새벽에 잠깨어 종소리 앓아 들으니
 소릉(少陵)도 그 옛날 이런 심정 했으리라.

※ 난비(亂飛): 흩어져 나는 모양.

옥두(玉斗): 옥으로 만들어진 술을 거르는 그릇.(이것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면 물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것과 같으리라)

라월(蘿月): 담장이 덩굴에 걸려 보이는 달

소릉(少陵): 성당(盛唐) 시인(詩人) 두보(杜甫)의 호(號)인데 소릉(少陵)에 살
 았기 때문임.

38. 題龜山寺鐘樓(제구산사종루):

病裏駸駸歲月過(병리침침세월주):

滿山紅葉又高秋(만산홍엽우고추):

十年螢雪窓前志(십년형설창전지)

獨倚龜山寺裏樓(독의구산사이루):

◆ 구산사(龜山寺)의 종각(鐘閣)을 두고

병든 몸 침침(駸駸)히 세월만 가고
 단풍잎 산에 가득 또 가을 맞았네
 십년의 형설(螢雪)은 창(窓)가의 뜻이었만
 내 홀로 구산사(龜山寺) 종루(鐘樓)에 기대었네.

※ 침침(駸駸) : 세월 빠른 모양

형설(螢雪) : 차운(車胤)은 형광(螢光: 반딧불)으로 책 읽고 손강(孫康)은 설광(雪光: 흰 눈빛)으로 글 읽었다는 고사(古事)의 면학(勉學)을 뜻함.

39. 仲秋月(중추월)

斗牛彩已滅(두우채이멸):

蝦蟆明正生(하마명정생):

關山幾萬里(관산기만리):

風露欲三更(풍로욕삼경):

老衲坐無睡(노납좌무수):

騷人吟不停(소인음불정):

南飛鵲繞樹(남비작요수):

久容亦心驚(구용적심경):

◆ 8월 보름달

북두성(北斗星) 견우성(牽牛星)은 빛이 죽어가고
하마(蝦蟆) 달의 밝은 빛이 생겨났도다.

관산(關山)이란 고향 땅은 몇 만리이나
한밤에 바람 이슬 맑기도 해라.

늙은 스님 앉아서 졸음 잊었고
시인(詩人)의 읊는 소리 그칠 줄 몰라
남비(南飛)하던 까치들 수풀을 에워쌌고
오랫동안 쳐다보니 마음 또한 깨어나네.

※ 하마(蝦蟆) : 두꺼비 달의 다른 지칭

관산(關山) : 고향이란 뜻

남비(南飛) : 적벽부(赤壁賦)의 「월명성희(月明星稀), 오작남비(烏鵲南飛)」에서 나온 말.

40. 題中房寺(제중방사)

一宿中房寺(일숙중방사):

眞堪解積愁(진감해적수):

好花偏向日(호화편향일):

綠竹早知秋(록죽조지추):

樓迴星河近(루형성하근):

園深樹木稠(원심수목주):

自憐多病客(자련다병객)

吟嘯未能休(읍소미능휴):

◆ 중방사(中房寺)에서

중방사(中房寺)에서 하루를 묵다 보니
쌓인 시름 진정코 다 녹이도다
아름다운 꽃들은 해를 향해 피어났고
푸른 대 수풀 가을 먼저 아는구나.
누(樓)는 높아 은하수에 가깝고
동산은 깊어 수목이 뻗뻗하네
많은 병객(病客)들이 가련히 여겨
소리 높여 읊는 소리 끊이지 않네.

※ 병객(病客): 아픈 손님 즉 속세(俗世)를 근심하는 사람, 속세에 시름하다
병든 사람이란 뜻.

41. 登南山(등남산)

輪蹄九陌漲紅塵(윤제구맥창홍진):

滿目紛紛名札入(만목분분명찰입):

浮世百年渾似夢(부세백년혼사몽):

一回登眺一傷神(일회등조일상신):

◆ 남산(南山)에 올라서

구맥(九陌)을 살펴보니 홍진(紅塵)이 넘쳐나고
눈에 가득 분분(紛紛)하게 명찰(名札)이 들어오네
덧없는 한 평생이 꿈과 같거늘

한 번 올라 바라보며 상심(傷心)하도다.

※구맥(九陌) : 아홉 저자거리, 즉 서울 시가지를 지칭.
홍진(紅塵) : 시끄럽고 변화한 속세(俗世)를 비유함.
명찰(名札) : 여기저기 간판 표식 물.

42. 雪中(설중)

晚來飛雲正漫天(만래비운정만천):

閒倚南窓興杳然(한의원창흥묘연):

帶病豈堪驢背詠(대병기감로배영)

擁爐開酒憶樊川(옹로개주억번천):

◆ 눈 가운데서

저물어 나는 구름 하늘에 질편한데
남창(南窓)에 기뻐자니 흥취(興趣) 그윽하네
병을 지녀 나 어찌 나귀 타고 시 읊으리
난로 껴안고 술 대피며 번천(樊川)이나 생각도다.

※번천(樊川) -- 만당시인(晩唐詩人) 두목(杜牧)의 호(號).

43. 幽棲(유서)

幽棲自寂寞(유서자적막):

竟日無招携(경일무초휴):

黃鳥忽飛來(황조홀비래):

綠楊深處啼(록양심처제):

淸音互相答(청음와상답):

獨坐意還述(독좌의환술):

且復出門望(차복출문망):

街頭車馬嘶(가두차마시):

◆ 조용히 살면서

조용히 살자니 적막하운데
 은 종 일 있어도 부르는 이 없네
 찢꼬리 갑자기 날아 들어와
 버들가지 우거진 데 울러대누나
 맑은 소리 서로서로 화답을 하니
 홀로 앉아 그 뜻을 새겨듣다가
 또다시 문을 나가 바라보자니
 가두에 지나는 차마(車馬) 소리 시끄럽네.

44. 渡漢江(도한강)

跨馬出城郭(과마출성곽):

停鑣下釣臺(정광하조대):

落照數帆來(낙조수범래):

樵爨依灘集(초찬의탄집):

茅茨傍岸開(모자방안개):

平生湖海志(평생호해지):

渡了却徘徊(도료각배회):

◆ 한강을 건너면서

말을 타고 성곽을 벗어나서
 낚시터로 내려와 머뭇거리네
 두어 척의 배들은 석양에 뜨고
 땔나무 해 다가 여울 가에 모아둔
 언덕 가에 초가집 대문 열어 두었네
 평생으로 민간 세상 살아갈 뜻으로
 그지없이 목적 없이 배회 하도다.

45. 入舊京(입구경)

水口門前斜日時(수구문전사일시):
 春風獨向舊京歸(춘풍독향구경귀):
 從然撲地悶悶在(종연박지여염재):
 終是長途車馬稀(종시장도차마희):
 幾處杏花紅寂寂(기처행화홍적적):
 滿城烟柳綠依依(만성연류록의의):
 可憐五百年間事(가련오백년간사):
 空蜀征人一首詩(공촉정인일수시):

◆ 옛 서울에 들어가서

수구(水口) 문전에 저녁 햇살 비치고
 봄바람 부는데 옛 서울 홀로 찾네
 하나 가득 짐들만 쓸쓸히 남았고
 길에는 끝내 차마(車馬) 드물구나
 몇몇 곳 붉은 살구 적적(寂寂)도 하고
 성(城)에 가득 버들 잎 옛 같이 푸르구나
 500년 간 일들이 가련도 하여
 나그네 공연히 시 한 수 읊어보네.

46. 病中秋思(병중추사)

西風黃葉落繽紛(서풍황엽락빈분):
 庭院無人日又曛(정원무인일차훈):
 何處笛聲吹未已(하처적성취미이):
 月明直到夜深聞(월명직도야심문):

◆ 병중에 가을 생각

가을 바람 떨어지는 낙엽은 어지럽고
 집에는 해 저물어 오는 이 없네

어느 곳 피리소리 그칠 줄 모르는가
달 밝은 깊은 밤에 들려오누나.

47. 向夕(향석)

精舍窮秋夜(정사궁추야):

孤吟望白河(고음망백하):

山園寒氣早(산위한기조):

葉盡月華多(엽진월화다):

絕塞征鴻叫(절새정홍규):

空林宿鳥過(공림숙조과):

客懷殊寂寞(객회수적막):

鬱鬱奈愁何(울울내수하):

◆ 해가 저물어

정사(精舍)에 가을밤은 깊어 가는데
외로이 읊조리며 은하수 바라보네
산이 들렸기에 한기(寒氣) 빨리 오고
잎이 다 지니 달빛 더욱 밝네
절새(絶塞)엔 기러기 울며 날아가고
빈 숲에는 자던 새 지나가네
나그네의 회포는 별나게 적막한데
담담한 이 심사 시름한들 무엇하랴.

※ 정사(精舍): 학문이나 정신 수양하는 곳, 또는 중이 불도를 닦는 곳.
절새(絶塞): 멀리 떨어진 국경의 요새(要塞).

48. 十月見菊(시월견국)

一叢陶菊映逢簫(일총도국영봉교):

粲粲堪將泛白醪(찬찬감장범백요):

惆悵霜風大情薄(추창상풍대정박):

吹殘佳色不曾饒(취잔가색불증요):

◆ 10월에 국화를 보다

도연명(陶淵明)이 사랑하던 한 떨기 국화
쑥발을 비추는데
막걸리 두루미에 곱게 곱게 띄우리
슬프다 서릿바람 정(情)도 박하지
남은 가색(佳色)에 붙어대니 너그럽지 못하네.

※가색(佳色): 아름다운 색.

49. 漫興(만흥)

爲客崇陵寺(위객승능사):

沉綿不出門(침면불출문):

片心包宇宙(편심포우주):

佳興在風雲(가흥재풍운):

世故多翻覆(세고다번복):

塵幾正糾紛(진기정규분):

渺然伊呂背(묘연이여배):

千載揖餘芬(천재읍여분):

◆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

승능사(崇陵寺)에 묵고있는 한 나그네
병이 낫지 않아 문밖 출입 아니했네
한 조각 작은 마음 우주를 포용하고
아름다운 흥취가 풍운(風雲)에 있네
세상의 연고(緣故)는 번복도 많고
티끌만 이리저리 얹혔구나
이려(伊呂)가 죽은 지 아득하지만
남겨진 향기만은 영원하리라.

※ 풍운(風雲) : 변화 무상한 기운.

연고(緣故) : 사유, 인연.

이러(伊呂) : 은(殷)나라 명상(名相) 이윤(伊尹)과 주(周)나라 명상(名相) 여상(呂尚:姜太公).

50. 偶吟(우음)

自信眞兒背(자신진아배):

那堪號丈夫(나감호장부):

長吟詩却拙(장음시각졸):

緩步杖仍扶(완보장잉부):

病久容顏改(병구용안개):

天寒歲月徂(천한세월조):

功名在老大(공명제노대):

不必歎窮途(불필탄궁도):

◆ 우연히 읊음

믿었던 진아(眞兒)가 등을 돌리니
어찌 장부(丈夫)라 이르겠는가
시(詩) 지어 읊어봐도 졸작일 뿐
천천히 걷는데도 막대 잡아야 하네
오랜 병에 시달리어 얼굴이 달라졌고
날씨 차가운데 세월만 가네
공명이야 나이 많아도 있을 진데
하필이면 궁도(窮途)만을 탁하오리까.

※ 궁도(窮途) : 곤경(困境)한 처지.

◇춘정선생의 시문(詩文)은 전체의 학문적 배경으로 볼 때 시대적 상황과 인과관계의 보편적 감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중 특이하게 은거 생활 중 고독한 심정을 노래했고, 특히 양곡(陽谷)과의 인연을 많이 맺었다. 평생의 환인(宦人:벼슬)생활에서 바쁜 일정 때문에 남겨진 글들은 주로 휴양 차 산사(山

寺)를 찾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의 작품으로 추측되며, 당대의 인간수명으로 보아 60여 년의 생애(生涯)에서 지닌 신양(身恙)은 가끔씩 한 시정(詩情)의 고통으로 베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말년에 이르러서는 문한(文翰), 실록편찬(實錄編纂) 등 주어진 정사(政事)에 골몰(汨沒)하면서 왕(王:세종)이 선생의 건강을 염려하여 조회(朝會) 및 정기입궐(定期入闕)을 생략케 하는 등 깊은 배려가 있었음을 역사는 전하고 있다.

<편집자>

나. 書, 遺墨(서, 유묵) 해설

- (1) 與或人(己丑八月二十七日出 趙判書寅永家藏)
여혹인 기축8월 27일출 조판서인영가장

※ 유묵(遺墨) -- 원문(原文) 필적(筆跡) 별지

前後書於已入覽矣卽今新秋(전후서어기입람의즉금신추)
令監政履何若仰溯區區就懷(영감정이하약앙소구구취회)
春官姜員外今方受由下去令(춘관강원의금방수유하거령)
監能記認舊否遭其妻喪及同(감능기인구부조기처상급동)
氣之憾四樞同枉一室其情境(기지척사구동왕일실기정경)
令人慘然辛令監拔例顧見如(영인참연신영감발예고견여)
何如何姜員外年少有文才親(하여하강원외년소유문재친)
舊之所愛熏者況是令監土民(구지소애훈자황시영감토민)
無待第一二談也餘留此友口(무대제일이담야여류차우구)
伸一一姑此不宣伏惟令監下(신일일고차불선복유영감하)
察謹拜上候狀.

(찰근배상후장)

◆ 어떤 이와 더불어 오간 서찰(書札)

(己丑(1409)태종9)8월27일. 조관서 인영가 소장)

전후(前後)의 서(書)는 이미 받아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곧 초가을이 되는데 영감(令監)정이(政履:정치하는 몸)는 어떠한지요. 양삭구구(仰朔區區)히 생각나옵니다. 춘관(春官) 강(姜) 의원(外員)은 금방 수유(受由:말미)로 내려갔는데 영감(令監)께서는 옛정을 기억하시나이까. 그가 처상(妻喪:아내의 죽음)과 동기(同氣:형제, 자매)들의 사망으로 네 개의 날이 한 집에 있으니 그 정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참연(慘然:슬프고 참혹한 모양)케 합니다. 영감께서 발예(拔例:종전의 예)로 돌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강 의원(姜外員)은 년소(年少:어린)한 문재(文才:문학도)로서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있거늘 하물며 영감께서야 사민(士民:사족과 평민, 백성)의 한 두 마디를 들어주지 않겠나이까. 여(餘:여타, 나머지)는 이 벗의 구신(口伸:부탁)에 유의해 주기 바라며 일일이 다 편지를 못하겠나이다. 오직 영감의 하찰(下察:보살핌)을 바라옵고 삼가 안부의 글을 올리나이다.

※양소구구(仰朔區區): 잡다한 일 우러러 봄(편지에만 씀)

춘관(春官): 주대문관(周代文官)의 하나로 예법(禮法), 제사(祭祀) 담당관.(여기서는 예조(禮曹)에 속한 관직)

의원(外員): 원외부(員外部)의 약자(略字). 곧 랑관(郎官)의 후보(候補).

<1> 與或人(여혹인)

遺墨

前後如斯

一覽之如今新故

全其故故行如以漸而終

株春官善其外之可慶

由少玄 今早能認四圍
 時氣毒者及同氣者一減四
 能回生一室其情境
 人
 停此
 今早援例
 能見如何
 三美

多爲年少言多牙 親四之語
書香古沈芳
今學世民時之統緒一二條
女好留此友只伴下
此聖金以標

金谷夢 日軒夢
世有夢 夢中人
李良弼

(2) 答或人 (出東國名賢遺墨)

※ 유묵 원문(遺墨原文) 별지

自君南下後吾懶不能問君亦(자군남하후오란불능문군역)
 如之惟戀積于心也忽此使至(여지유연적우심야홀차사지)
 得書仍審侍餘學況迺膺新休(독서영심대여학황아용신희)
 慰滿不容言也此間才過終身(위만불용언야차간재과종신)
 之祀罔極如新不知所言何間(지사망극여신부지소언하간)
 當上洛計春前必一作洛行是(당상락계춘전필일작락행시)
 企是企奴便促書略草不盡惟(기시기노편촉서략초부진유)
 祝侍讀不怠. (축시독불태)

丁元月十九日 卞季良 狀謝(정원월19일 변계량 장사)

◆ 어떤 이에게 보낸 답장(동국명현집에서 발해 유묵)

자네가 남하(南下)한 이후 나는 게을러서 안부를 묻지 못했지만 자네 또한 한가지라 오직 그리움만 마음에 쌓여가다가 갑자기 편지를 받아 살펴보니 어른 모시고 학문하는 근황이 날로 새롭다 하니 위로의 말 형용할 수 없구나. 나는 종신토록 제사 모셔도 한없는 슬픔이 날로 새로운지라 할 말이 없구나. 언제 한 번 락동(洛東:서울 동쪽 지명)으로 갈 계획이며 춘전(春前:봄 앞)에 반드시 가리라 계획 세워놓고 노편(奴便:아랫사람, 종)에 편지를 보낸다. 간략하게 마치고 오직 모시고 글 읽는 일 개으르게 하지 말게나.

1427년(丁未) 정월 19일

변계량 서찰(書札) 사례(謝禮)

※당시는 세종9년 춘정선생이 판우군도충제부사(判右軍

都摠制府事)겸 세자이사(世子貳師)를 역임하던 때임

(3) 答或人(出名家筆譜)

餉額外諸賤亦綽然有以(항액외제천역작연유이)

應之其餘以施及市民受(응지기여이시급시민수)

貨通值賤之益(화통치천지익)

<卞季良 述(변계량술)>

◆ 어떤 이에게 보낸 답장

(명성 가문의 서필 보첩 발췌)

군량(軍糧)외 양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천민들이 또한 침착하고 여유 있는 자세로 욕심부리지 않고 응하는지라 그 여분을 백성들에 보급하니 재화의 통용가치가 천민에게 쓰일수록 그 값이 더 하도다.

<변계량 지음>

※ 위 글은 춘정선생이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로 있으면서 군영(軍營)의 발전을 위하여 진법(陳法)을 연구 계발(啓發)하고 군사훈련에 적용하여 강병육성(强兵育成)에 힘쓰고 있을 때이며 군량미를 아껴 천민구호(賤民救護)를 한 내용을 술회하고 있다.

<2> 答或人(답혹인) - 出東國名賢遺墨(동국명현유묵)

自 其 南 六 后
吾 慙 不 如 不 甚 心
如 是 以 爲 懷 乎 可 太
矣 在 海 上 得 此 何

讀書
待作學說連君
新休賦詩不
言此何事還
終

身之能同如
事如子以
中如王以
子如心以
是

心之故也
子石居
侍讀
下元月
乃

<3> 答或人(답혹인) - 出名家筆譜(출명가필보)

李良弼

餉額外諸賤亦綽然有以
應之其餘以施及市民受
貸通值賤之益

卞季良述

V. 편집후기(編輯後記)

평소 인생(人生)이란 삼단연계(三段連階:유년교육기, 성년기, 노년기)로 편승된 역정(歷程)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삶, 마지막 소중한 봉사의 종착단계를 아름다운 마무리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갑술년(1994)을 기점으로 뿌리의 원천(源泉)을 찾아 가꾸고 훌륭한 조상의 음덕(蔭德)을 기려야 함을 신앙으로 삼고 실천하여 온 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돌아보면 분주한 나날이었다. 가문의 자존(自尊)을 항상 키워주신 존경하는 춘정(春亭) 할아버지의 그 문집 속에 가려진 온화한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에 와 닿는 계시(啓示)에 따라 영정실기(影幀實記)의 영상(影像)을 도출(圖出)하였고 숭모비명(崇慕碑銘), 문약사(門略史) 발간, 종문(宗門)의 구심탑(求心塔)인 봉양서원(鳳陽書院)의 서재중건(西齋重建) 및 기타 정비 등 그 밖의 많은 위선(爲先)의 정성이 만분의 일이라도 남겨졌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위로를 느낀다.

또 관향(貫鄉:(龜龜里):밀양시 초봉면) 선대 6위의 제단(祭壇) 설립과 더불어 역사적인 인물로 우뚝 선 밀양 변씨 삼현(三賢:諱,玉蘭,仲良,季良)의 중후(重厚)한 유적(遺蹟)들을 가꾸기 위해 연차 사업으로 중수(重修) 정비하는 한편 이에 일환(一環)으로 아쉽고 부족하지만 이 책자를 엮으며 힘들어 부대끼는 과정에 도움을 주신 전 경산대학교 변정환(延煥)총장님, 밀양변씨 대종회 형식(亨植)회장님과 대구 향교 한시 강사 김상진(金相進)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癸未) 12월 일

春亭公 十七世孫 秉永(興壽) 謹識

부 록(附錄)

1. 유적문헌초(遺跡文獻抄)

- 가. 봉명대(奉命台)
- 나. 패인정(掛印亭)
- 다. 춘정선생 가훈(家訓)

2. 밀양변씨 삼현유허비명(三賢遺墟碑銘)

- 諱 玉蘭(휘 옥난 : 판서공 六世)
- 諱 仲良(휘 중량 : 밀직사좌승지 七世)
- 諱 季良(휘 계량 : 승정대부 문형 七世)

3. 시비(詩碑) : 춘당공(春堂公), 춘정공(春亭公)

4. 후손세거 내력(後孫世居來歷)

- 가. 세계도표(世系圖表)
- 나. 문헌기록(文獻記錄)

(1) 종가문(宗家門 : 함양, 함안)

- 柱山齋記(주산제기)

(2) 중가문(仲家門 : 청도 금곡)

- 兩世祭壇 : 諱 光胤, 怨(양세제단 : 휘 광윤, 서)
- 墓碣 : 諱 德基, 諱 應富(묘갈 : 휘 덕기, 휘 응부)

(3) 계가문(季家門 : 청도)

- ▶ 鳳陽書院(봉양서원), 祭壇(제단), 崇慕碑(승모비) 등
유적(遺蹟) 301쪽 참조

- 入鄉祖(입향조) 墓碣 : 諱 寶(묘갈 휘 보)

▶ 興善書院(흥선서원)

- 鼓鳴齋記(고명제기)
- 鼓鳴齋上樑文(고명제상량문)
- 春亭追慕碑銘(춘정추모비명)

5. 문집목록표(文集目錄表)

1. 유적 문헌초(遺跡文獻抄)

가. 봉명대(奉命垓) 곡지(曲池)

奉命垓曲池 卞文肅公季良奉 (봉명대곡지변문숙공계량봉)

王命必於此臺曰奉命又鑿池 (왕명필이차대왈봉명우작지)

爲流觴曲水故曰曲池至今尙 (위유상곡수고왈곡지지금상)

存也 --密州勝覽 古跡條-- (존야) : 밀주승람 고적조

▷ 봉명대 곡지는 변문숙공(휘 계량)께서 왕명이 내려지면 필히 이 대(垓)에서 봉명(奉命)하고 또 못(곡지)에서 뚫어 구부러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운 곡수(曲水) 등 그 유적지(遺跡址)가 지금도 상존하다.

-밀주승람 고적조-

나. 괘인정(掛印亭)

龜爲茂草鞠寥寥幾百載奉命 (구위무초국요요기백제봉명)

垓掛印亭尙可以指認而士林 (대괘인정상가이지인이사림)

無羹牆寓慕之地行人興山水 (무갱장우모지지행인흥산수)

徒見之歎吁可悲也 (도견지탄간가비야)

-三賢遺墟碑銘-

-삼현유허비명-

▷ 구령리(龜齡里)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서 수백 년 동안 적막하였고 봉명대(奉命垓) 괘인정(掛印亭)은 아직도 가리켜서 알아 볼 수 있는데 사림(士林)이 제사를 받들어 추모할 곳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 부질없이 산수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탄식할 뿐이니 아! 슬프도다.

※ 구령리 : 밀양변씨 삼현(三賢)의 선대들이 전거(僦居)하면서 산세(山勢)가 거북을 닮았다 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다. 춘정선생 가훈(家訓)

人生非金石 : (인생비금석)

少年能幾時 : (소년능기시)

既壯不努力 : (기장불노력)

白首而無知 : (백수이무지)

勤儉書之訓 : (근검서지훈)

雪螢窮聖學 : (설형궁성학)

▷ 인생이 금과 돌이 아니어든

소년 시절 몇 때나 될까

젊어서 노력 아니하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부지런과 검소함은 상서(尙書)의 가르침대로 하고

형설(螢雪)의 공으로 배우고 성학(聖學)을 연구하라.

◇ 근면(勤勉)과 검소(儉素)를 몸소 실천하여 검고능광(儉故能廣)을 이룩하고 형설(螢雪)의 공으로 학문을 닦고 지식을 쌓아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내용이다.

※ 상서(尙書) : 서경(書經)의 별명(삼경(三經), 오경(五經)의 하나)

설형(螢雪) : 가난하여 등불이 없어 여름이면 반딧불과 겨울이면 흰 눈빛으로 책을 읽고 큰 인물이 되었다는 고사(古事).

성학(聖學) : 성인(聖人)이 가르친 학문.

검고능광(儉故能廣) : 검소(儉素)하여야만 여유 있게 풍부하여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 수 있다는 내용.

◆ **密陽卞氏 三賢遺墟碑閣** (경남문화재 제27호)
밀양 변씨 삼현 유허비각

▶ 卞玉蘭 {考:1322-1395(吏曹判書, 贈議政府左贊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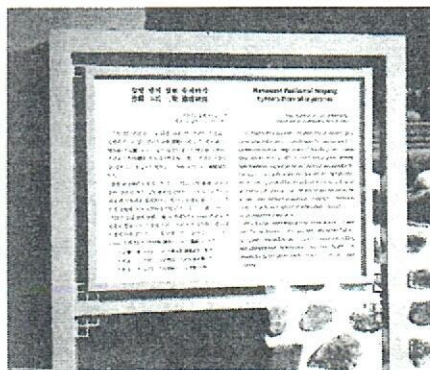
卞仲良 {子:1345-1398(密直司左丞旨, 贈資憲大夫)}

卞季良 {子:1369-1430(崇政大夫, 大提學, 文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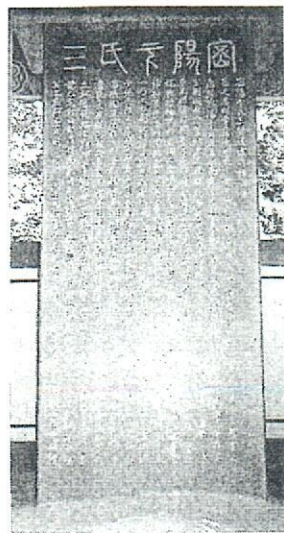
이 비각은 고려 말(1140년경) 태학진사 변고적(卞高迪)이 입향한 곳으로 밀양 변씨의 관향(貫鄉)이며 그의 5세손 판서공 변옥란(卞玉蘭)과 두 아들인 밀직사 좌승지 변중량(卞仲良), 조선초기 유신(儒臣)이며 대제학 문형(文衡)인 변계량(卞季良)등 삼부자(三父子)의 행적을 기록한 유허비각(遺墟碑閣)이다

춘정 변계량은 문장가로서 나라의 대소 사명(辭命)과 외교문서, 고려사 개수, 실록편찬에 참여하고 국초의 문물정비와 세종 때 집현전을 설치하여 20여 년의 문형을 맡으면서 민족문화 창달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이곳은 밀양 변씨 삼현(三賢)의 출생지로서 1944(甲申)년에 문중과 향림에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으며 맞배지붕의 목조와가로서 비각 안에 비석은 높이186cm, 너비75cm, 두께 34cm에 대좌(臺座)는 귀부(龜趺)의 조각이다.



<현판사진>



<비석글>

2. 密陽卞氏三賢遺墟碑銘(밀양변씨삼현유허비명)

三賢遺墟碑銘

密之爲州當嶺中淑氣之會名卿鉅公彬彬有作文獻風韻至今猶未歇焉直府西三十里有里曰龜齡密陽卞氏舊居也高麗末判書公諱玉蘭自其五代祖進士高迪始居是州而公之生是在是里剛明仁祖駕於孝友既釋褐歷敎華要入爲禮賓寺丞典法正郎典農判事兵戶吏判書出知水原忠州清州郡事又嘗按廉全羅道直道而行不以聲名貨利榮懷至誠奉公夙夜匪懈及聖祖龍興授檢校判中樞不受以乙亥正月年七十四卒于家贈議政府左贊成春堂春亭其二子也春堂諱仲良受學於國隱鄭文忠公文章彪炳道義純備弱冠登第官至密直司左丞旨麗政日非與文忠一盡心力固扶社稷及太祖麾下土之謀去文忠也先生直告以豫防事不諧而文忠遇害先生亦流于絕島後七年戊寅卒壽五十四春亭諱季良字巨卿天資卓越六歲能綴文十五七中小大科遊國隱陶隱陽村之門學問精博華聞傾一世丁卯補典校主簿辛巳拜成均學正轉司宰少監乙酉遷藝文應教丙戌陞藝文直提學丁亥擢重試特拜禮曹右參議庚寅與河嶺柳觀鄭以吾等修太祖實錄撰文廟碑壬辰陞世子右副賓客丁酉拜藝文大提學戊戌由禮曹判書遷議政府參贊己亥訂正鄭道傳高麗史壬寅撰進獻陵碑丙午判右軍都摠制府事兼世子貳師戊申撰箕子廟碑庚戌修定宗太宗兩朝實錄是年四月歿享年六十二計聞上震悼撤朝減膳遣官致祭贈東宮亦如之賜諡文肅命刊遺文後人俎豆于屏巖祀先生兄弟嗚呼是龜齡里之一家三賢也夫以春堂先生之聰明英達當是時豈不知小往大來之運而白水真人適我列岳之觀也使先生從容坐視於其間則彼桓圭袞冕特指顧間事耳乃洩其謀躬遭竄逐而不之悔焉蓋只知網常之爲重而不知有一身之利害其心卽文忠百死之心也豈可以生死顯晦而殊觀哉至若春亭先生

文章德業之盛實開國之元良也魚水契合贊襄至治伯仲於黃許之間而典文衡二十年大小詞命皆出其手敷奏天朝而獨世貢飛文邊隣而懽頌首金石之述律呂之作無所處而不得其宜有以鳴國家之盛矣然有子若是寔自義方之授也於是乎益知判書公之賢而其家庭淵源之正有不可誣也二先生後承不恒厥居散住列郡而龜爲茂草之鞠寥寥幾百載奉命臺掛印亭尚可以指認而士林無羹牆寓菽之地行人興山水徒見之歎吁可悲也春堂後孫永殷春亭後孫鍾台斗星與閭閻家謨將伐石以表其遺墟遣昌夏謁銘於浚弼辭不獲撮其狀而銘曰

凝川蟲蟲凝水粼粼毓精會粹世降哲人允矣冢宰盡忠王國歷敷中外爛其聲績翩翩鳳毛金昆玉季大義遺姻清翰動世先後殊天其歸則藏滾滾風範百世靈長斯文天喪俎豆久廢沉厥宅里秋草蕪穢爰伐貞珉有疑其崇鄉公有鄉過者必恭

冶城

宋浚弼

撰

夏山

成者愚

篆

達城

徐周鉉

書

鄉都廳

密城

朴瑩穆

監役

慶州

安秉禧

密城

朴熙璟

昌寧

曹喜俊

本宗有司

相沃

甲申 四月 二十三日

▷ 密陽卞氏三賢遺墟碑銘(밀양변씨삼현유허비명) 해설

밀양(密陽) 땅은 영남의 맑은 정기가 모인 곳에 해당하여 명경거공(明卿鉅公)이 찬란하게 배출되었고, 문헌(文獻)과 풍운(風韻)이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곧바로 관부(官府) 서쪽 삼십리(三十里)에 나아가면 한 마을이 있어 구령리(龜齡里)라 하니 밀양변씨(密陽卞氏)의 오랜 거주지(居住地)이다. 고려말에 판서공(判書公) 휘(諱) 옥난(玉蘭)의 5대조(五代祖)이신 진사(進士) 휘 고직(諱 高迪)으로부터 이 고을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판서공(判書公)이 이 마을에 태어나셨으니 강직(剛直)하고, 총명(聰明)하고, 인자하고, 너그러웠으며, 효심이 독실(篤實)했고, 우애가 두터우셨다. 벼슬에 나아가서 빛나는 요직을 두루 역임하셨으니, 예빈사승(禮賓寺丞), 전법정랑(典法正郎), 전농판사(典農判事), 병조판서(兵曹判書),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조판서(吏曹判書) 등을 지내셨고, 수원(水原), 충주(忠州), 청주(淸州)를 다스렸으며, 또 일찍이 전라도 안렴사(按廉使)가 되시어 바른 도로서 행하고 명성(名聲)과 재화(財貨)와 이익(利益)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지성(至誠)으로 공무에 봉사하시며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이태조(李太祖)가 개국함에 이르러서 검교판중추부사(檢校判中樞府事)를 제수(除授)하였으나 받지 않았으며 을해년(乙亥年:1395) 정월에 향년(享年) 七十四세로 돌아가시니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을 추증(追贈)하였다. 춘당(春堂)과 춘정(春亭)은 그 두 아드님이시다.

춘당(春堂)의 휘(諱)는 중량(仲良)이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선생에게 배우시어 문장이 훌륭하고 도의(道義)를 순수(純粹)하게 갖추어서 약관(弱冠)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밀직사 좌승지(密直司左丞旨)에 이르렀다. 고려의 정치가

날로 잘못되어 감에 문충공(文忠公)과 더불어 일심진력(一心盡力)하여 사직(社稷)을 붙들여 지킬 계책을 도모(圖謀) 하셨다. 태조의 휘하(麾下) 인사들이 문충공(文忠公)을 제거하려는 모의(謀議)를 선생이 아시고 문충공(文忠公)에게 바로 알려서 미리 방지하려 하였으나 일이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문충공(文忠公)은 해를 당하고 선생도 또한 외딴 섬으로 유배(流配)되셨다. 그 후 7년 뒤인 무인(戊寅:1398)년에 돌아가시니 향년(享年) 54세였다.

춘정(春亭)의 휘(諱)는 계량(季良)이요, 자(字)는 거경(巨卿)이니 타고난 자질이 탁월하여 6세 때 능히 글을 지을 수 있었으며, 15세, 17세 때 과거시험(過舉試驗)의 소과(小科)와 대과(大科)에 모두 급제하시고,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선생,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선생, 양촌(陽村) 권근(權近)선생의 문하에서 교유(交遊)하시어 학문(學問)이 정밀(精密)하고 해박(該博)하시며 빛나는 명성(名聲)이 일세(一世)를 기울었다. 정묘(丁卯)년에 전교주부(典校主簿)에 보직되시고, 신사(辛巳)년에 성균학정(成均學正)이 되시고 이어서 사재소감(司宰少監)으로 옮기셨다. 을유(乙酉)년에 예문응교(藝文應敎)가 되셨다가 병술(丙戌)년에 예문직제학(藝文直提學)으로 승진(陞進)하시고, 정해(丁亥)년에 중시(重試)에서 수석으로 발탁(拔擢)되시어 특별히 예조우참의(禮曹右參議)를 제수(除授)받으셨으며, 경인(庚寅)년에 하륜(河崧), 유관(柳觀), 정이오(鄭以吾) 등과 더불어 태조실록(太祖實錄)을 수찬(修撰)하시고, 또 문묘비문(文廟碑文)을 지으시고, 임진(壬辰)년에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에 승진(陞進)하시고, 정유(丁酉)년에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오르셨으며, 무술(戊戌)년에 예조판서(禮曹判書)를 거쳐서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으로 옮기시고, 기해(己亥)년에 정도전(鄭道傳)이 수찬(修撰)한 고려사를 수정하셨다.

임인(壬寅)년에 헌릉(獻陵:태종의 능)의 비문(碑文)을 지어 올

리셨으며, 병오(丙午)년에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겸 세자이사(世子貳師)가 되시고, 무신(戊申)년에 기자묘비문(箕子墓碑文)을 지어시고, 경술(庚戌)년에는 정종(定宗), 태종(太宗) 두 임금의 실록(實錄)을 수찬(修撰)하셨습니다. 이해 4월에 돌아가시니 향년(享年) 62세였다. 부음(訃音)을 들으시고 임금께서 크게 슬퍼하시어 조회(朝會)를 열지 않으시고 반찬가짓수를 줄였으며 관원(官員)을 보내시어 제사(祭祀)를 지내도록 하시고 부의(賻儀)를 내리시니 왕세자(王世子)도 또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시호(諡號)를 내려 문숙(文肅)이라 하시고 왕명으로 선생께서 남기신 글을 모아서 문집(文集)을 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병암서원(屏巖書院)에 배향(配享)하여 선생 형제의 제사(祭祀)를 지내고 있다.

오호(嗚呼)라! 이분들이 구령리(龜齡里) 한 집안의 삼현(三賢)이시다.

대저 춘당선생(春堂先生)과 같이 총명(聰明)하고 영민(英敏)하신 분이 그와 같은 때를 당하여 어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일어나며 이태조(李太祖)가 개국성조(開國聖祖)가 되실 줄을 모르셨으리오 가령 선생께서 그 사이에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계셨더라면 손가락 한번 가리키고 고개 한번 돌릴 사이에 손쉽게 높은 벼슬을 하실 수 있었을 것이지만 도리어 그 모의(謀議)를 알려서 쫓겨나 유배(流配)를 당하면서도 후회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는 오직 강상(綱常)이 중한 것만 알 뿐 일신(一身)의 이해를 생각지 않으신 것이니 그러한 마음은 곧 문충공(文忠公)의 백사지심(百死之心)과 한가지라 어찌 생(生)과 사(死)의 드러나고 숨는 것으로써 다르게 볼 것인가!

춘정선생(春亭先生)은 문장(文章)과 덕업(德業)이 성대하시어 진실로 개국원량(開國元良)이셨습니다. 물고기와 물처럼 임금과 의기(意氣)가 합치되었고 국왕을 도와서 훌륭한 치적을 올리게 하신 것은 황희(黃喜), 허조(許稠) 등과 백중(伯仲)을 다

투셨다. 대제학(大提學)으로서 문형(文衡)을 장악(掌握)한 2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사명(詞命)이 모두 선생의 손에서 나와서 중국에 보낸 글로 세공(歲貢)을 감면(減免) 받았고 이웃 나라 일본에 글을 보내서 완악(頑惡)한 야만인(野蠻人)들의 두목을 두렵게 만들었다. 금석(金石)에 새긴 문장과 법령(法令) 제도(制度)의 제작은 대처하는 바마다 마땅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국가의 성대한 위세(威勢)를 드날렸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드님이 계신 것은 진실로 아버님의 교훈(敎訓)을 물려받은 결과라 할 것이니 여기에서 더욱 판서공(判書公)의 현명(賢明)하심과 그 가문의 연원(淵源)이 바른 것이 속일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분 선생의 후손이 항상 그 곳에 거주하지는 못하고 여러 고장으로 흩어져 살게 됨으로서 구령리(龜齡里)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서 수백년 동안 적막하였다. 그러나 봉명대(奉命垓)와 괘인정(掛印亭)은 아직도 가리켜서 알아볼 수 있는데 사림(士林)이 제사(祭祀)를 받들어 추모(追慕)할 곳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 산수(山水)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탄식(歎息)할 뿐이니 아! 슬프도다.

춘당(春堂)선생의 후손 영언(永殷)과 춘정(春亭)선생의 후손 종태(鍾台), 두성(斗星)이 온 집안과 더불어 비(碑)를 세워 그 유적지(遺墟地)를 표시하기로 합의하고 창하(昌夏)를 보내어 준필(浚弼)에게 비문(碑文)을 짓도록 부탁하니 사양(辭讓)했으나 마지못하여 그 행장(行狀)을 가려 뽑아 기록하고 명(銘)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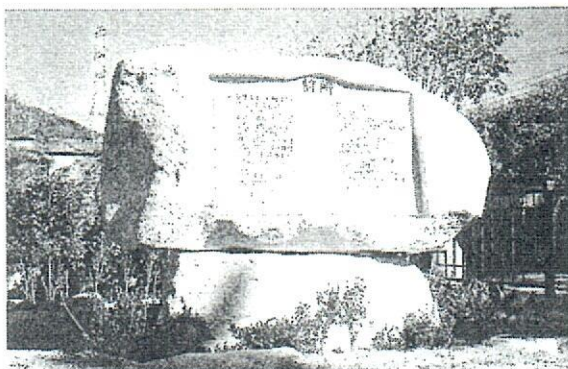
응천(凝川:밀양)의 산은 우뚝하고 우뚝하며
정기(精氣)를 기르고 정수(精髓)가 모여져서
대대로 철인(哲人)이 나셨도다.
진실하시도다!. 총재(冢宰:대제상)시여!

임금과 나라에 충성(忠誠)을 다하시고
 안팎으로 요직(要職)을 거치시매
 명성과 업적이 찬란(燦爛)하셨도다.
 편편(翩翩)히 봉모(鳳毛)처럼 뛰어난 사장(詞章)이시며
 금(金)같은 형(兄)과 옥(玉)같은 아우로다.
 대의(大義)를 위하여 인척(姻戚)을 멀리하시고
 청아(清雅)한 문翰(文翰)은 세상을 흔들었도다.
 비록 섬기신 왕조는 선후(先後)가 다르지만
 그 돌아가는 바는 곧 장선(藏善)이로다.
 당당한 풍채(風采)와 드리워진 규범(規範)은
 영원토록 백세(百世)의 영장(靈長)이 되리라.
 사문(斯文)을 잃고 우리의 도(道)가 무너져서
 제사(祭祀)가 오랫동안 끊어지고
 더욱이 그 고택(古宅)과 마을에는
 가을 풀만 무성하게 묵어 있도다.
 이에 돌을 깎아 비(碑)를 세우니
 그 위용(偉容) 높이 솟았도다.
 대현(大賢)이 고을에 계시오니
 지나는 사람이 반드시 공경하리라.

갑신(甲申)년 4월 23일

治城(야성) 宋浚弼(송준필)이 글을 짓고
 夏山(하산) 成耆憲(성기덕) 篆字(전자)를 쓰고
 達成(달성) 徐周鉉(서주현)이 글씨를 쓰고
 鄉校(향교) 典校(전교)는 密城(밀성) 朴瑩穆(박영목)이고
 慶州(경주) 安秉禧(안병희) 密城(밀성) 朴熙頃(박희경)
 昌寧(창녕) 曹喜俊(조희준)과 本宗門(본종문) 有司(유사)
 相沃(상옥)이 役事(역사)를 監督(감독)했다.

3. 시비(詩碑: 춘당공(春堂公)·춘정공(春亭公))



↑ 春堂, 春亭公詩碑

삼현유허비각(三賢遺墟碑閣) 경내에 위치 (2003(癸未). 10. 15 건립)

송산(松山)이 애워싸고

물 돌아 흐르니

(문득 적막감을 나타냄)

허다한 주문(朱門) 모두

푸른 이끼 덮였구나

오직 저 봄바람이

비를 몰고 지나가니

성남 성북 곳곳마다

살구꽃이 피어나네

(가옥은 전부 폐허되고 춘광(春光)만
옛 같으니 가장 감회가 짙는 부분)



<춘당(春堂) 선생>

※ 춘정(春亭)선생 시문(詩文) - 학문세계 178, 179쪽 참조

춘당(春堂)선생은 1365년 등과(登科) 이후 밀직사좌승지(密直司左承旨)에 이르렀고 이태조(李太祖)의 형 이원계(李元桂)의 사위이면서도 이태조의 개국에 불시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스승인 정몽주(鄭夢周)선생과 함께 한 고려 충신이다. 1차 고려 유신(遺臣) 숙청 때 이성계의 배려로 죽음을 면하고 귀양살이(7년) 끝에 찾아간 옛집, 물 돌아 흐르는 송악산 기슭에 붉은 대문(朱門:大家집)은 이끼만 덮이고 폐가의 언저리엔 봄빛만 옛 같아 살구꽃이 피어 있었다.(1398 10월,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회생됨)

4. 후손 세거내력(世居來歷)

춘정공파(春亭公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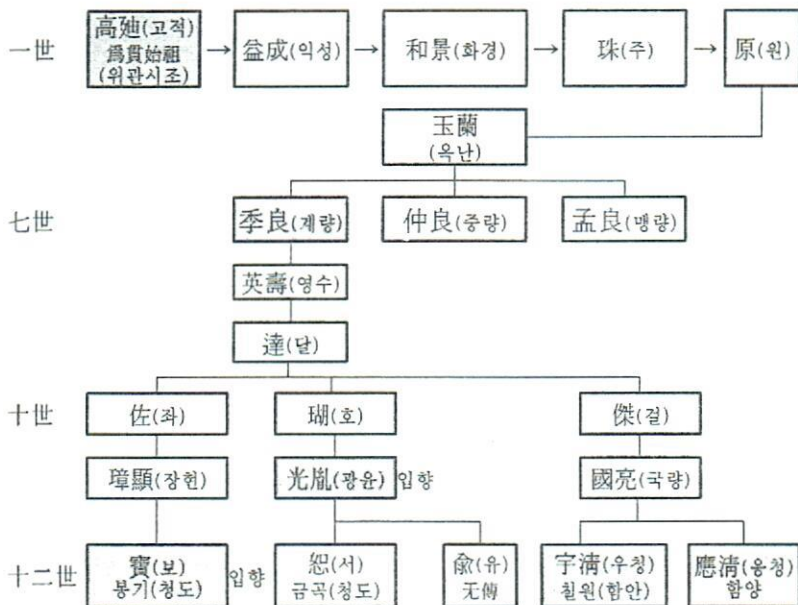
가. 세계도표(世系圖表: 종가(宗家), 중가(仲家), 계가(季家))

▷ 세계도표(世系圖表)

1. 종가(宗家: 휘 절(諱 傑)) -- 함양, 함안(칠원)
2. 중가(仲家: 휘 호(諱 瑚)) -- 금곡(청도)
3. 계가(季家: 휘 좌(諱 佐)) -- 봉기(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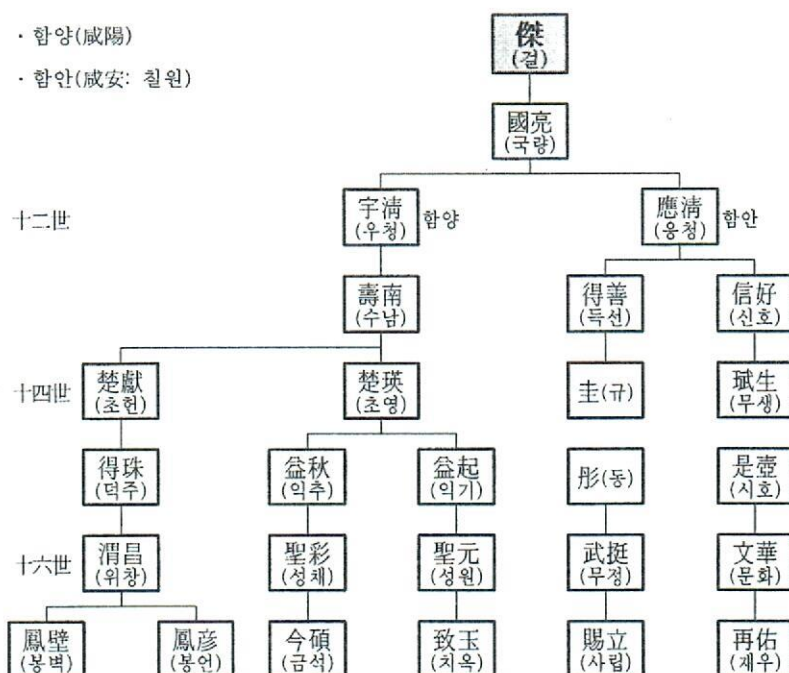
▷ 문헌 기록(文獻紀錄)

1. 함안 세거지 : 주산재(柱山齋)
2. 금곡 세거지 : 양세제단(兩世祭壇:入鄉祖), 묘갈(墓碣)
3. 봉기 세거지 : 봉양서원(鳳陽書院), 제단(祭壇), 기타
 - 봉기 입향조(諱 寶) 묘갈(墓碣)
 - 흥선리 : 鼓鳴齋記, 上樑文, 追慕碑文(春亭)



(1) 종가(宗家:諱 傑)

- 함양(咸陽)
- 함안(咸安: 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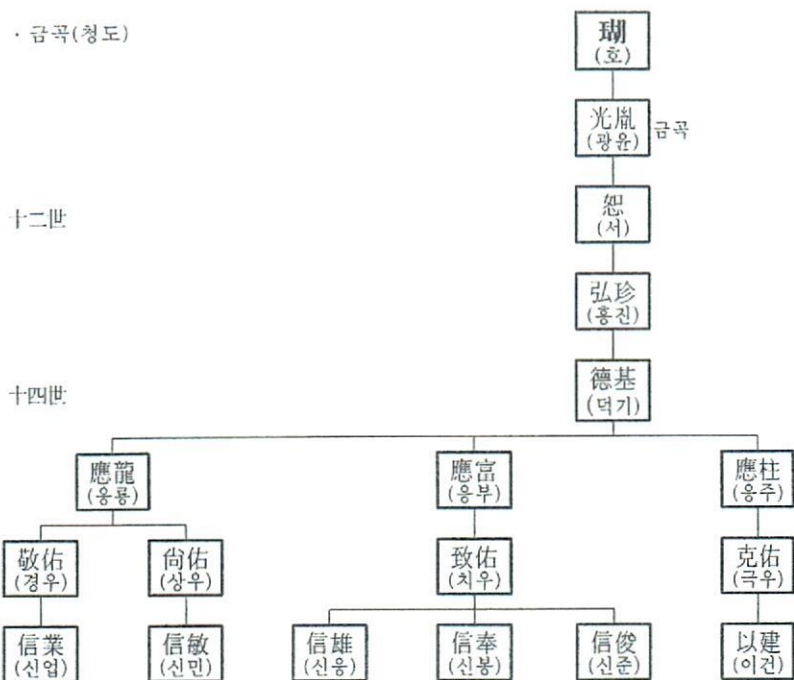
밀양변씨(密陽卞氏) 시조공의 12세(世) 후손에서 1560년(명 중조)경 밀양(관향)에서 응청(應淸) 조(祖)는 안심에서 十四세(世)에서 함양으로, 우청(宇淸:1541-1592) 조(祖)는 함안(칠원)으로 이거(移居) 입향(入鄕)하였다.



<우청(宇淸) 조 입향지(칠원면 예곡리) 입구 전경>

(2) 중가(仲家:諱 瑚)

· 금곡(청도)



▷ 1530년(중종조)경 十一世(世) 광윤(光胤:1505-1576) 조(祖)께서 밀양변씨의 관향(밀양 초동)에서 이곳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로 이거하였다. 그 후 1930년대까지 약 400여 년 간 변창한 종문(宗門)을 이루었으나 해방이후 각지 산거(散居)로 현재는 일부 유적(遺蹟)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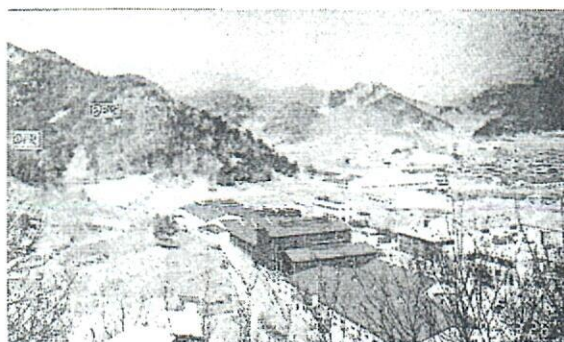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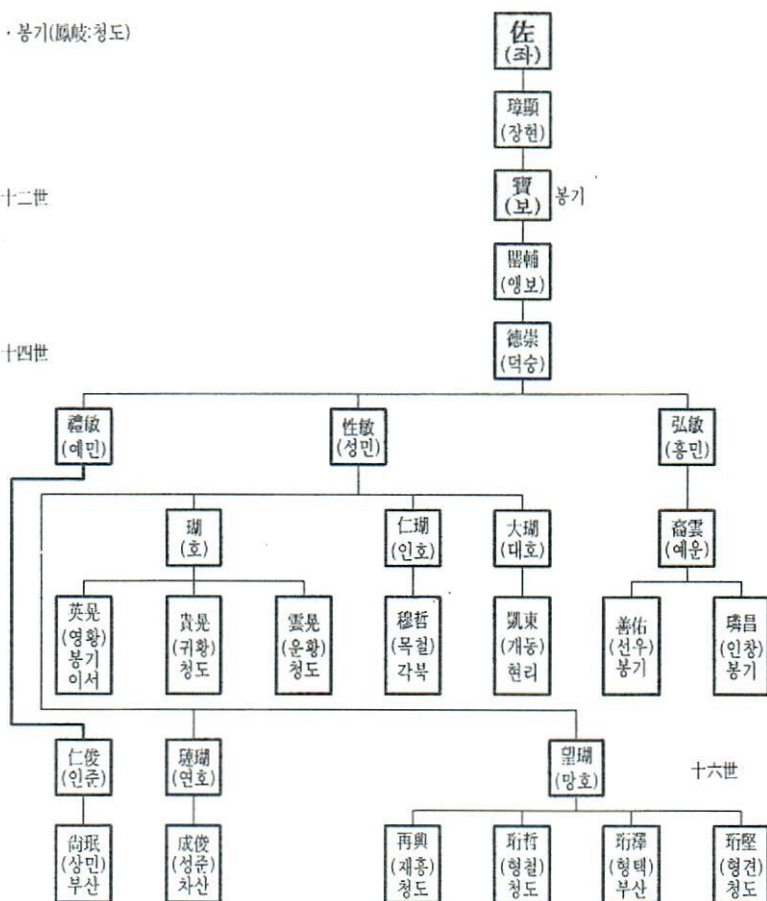
<금곡 세거지 원경(遠景)>

(3) 계가(季家:諱 佐)

· 봉기(原岐:청도)

十二世

十四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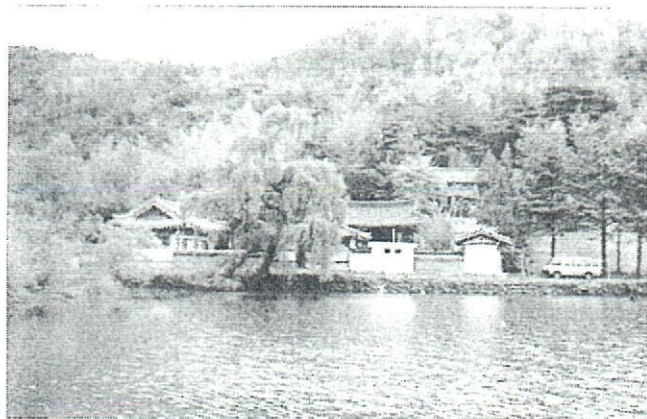
<입향(入鄕) 봉기리 세거지(世居地) 전경>

▷ 1570(선조)년 경 十二세(世) 보(寶:成均進士 號 龜巖) 조께서 관향인 밀양 구령리(龜齡里:밀양시 초동면 성만리)에서 풍산현 동곡(豐山縣桐谷:청도군 풍각면 봉기리(부곡(釜谷:가마실))으로 이거(移居)하였다.

1930년 일제하(日帝下) 국세조사표(國勢調査表)에 의하면 봉기리(鳳岐里)의 밀양 변씨(密陽卞氏) 취락(聚落)의 호구수(戶口數)는 90호로서 당시 대가족 형태의 가구를 감안할 때 인근 동리 취락을 합치면 매우 큰 규모였고 1940년 대 까지 절정을 이루어 봉양서원 및 관향(밀양 초동) 유허비각(遺墟碑閣)등 기타 부수 유적 창건에 결정적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6.25동란과 1960년대 산업사회의 등장으로 후손들은 전국 각지로 산거(散居)하였으나 봉양서원 및 부수 유적과 선대 묘소는 종산(宗山)과 더불어 그대로 보존하고 세사(歲祀)를 봉행(奉行)하고 있다.



<입향조(諱 寶) 묘소>



<부곡(釜谷) : 가마실 봉양서원 전경>

鳳陽書院(懸板)

이곳은 密陽卞氏 文肅公(諱 季良, 號 春亭, 官職
밀양변씨 문숙공 휘 계량 호 춘정 관직
 大提學, 文衡 1369-1430)을 配享하고 先代를 기리기 위
대제학 문형 배향 선대
 하여 1905년(乙巳)에 創建된 卞門의 祠堂이다.
을사 창건 변문 사당

앞의 釜谷池는 1929년(己巳)에 築造되었고 그 이전부
부곡지 기사 축조
 터 地勢가 오목하게 둘러싸여 釜谷 또는 가마실로 불리
지세 부곡
 였고 오동골(桐谷)이라고도 하였다.
동곡

瑟瑟靈山の 精氣가 남쪽으로 이어받은 이곳 明堂은
비슬명산 정기 명당
 卞門始祖公(文烈公, 諱 庭實, 草溪, 高麗成宗, 985)의
변문시조공 문열공 휘 정실 초계 고려성종
 曾孫이신 太學進士公(諱 高廸)께서 密陽고을에 世居하면
증손 태학진사공 휘 고익 밀양 세거
 서 草溪로부터 密陽卞氏로 分籍하였고 그 후 11代孫이신
초계 밀양변씨 분적 대손
 成均館進士公(諱 寶, 號 龜岩)께서 1570년 경(李朝宣祖)
성균관진사공 휘 보 호 구암 이조선조
 에 密陽龜齡洞(초동면)에서 豊山縣 桐谷 산 7번지(봉기
밀양구령동 풍산현 동곡
 리)로 移居하신 곳이며 오늘도 釜谷山嶺 入口에 永眠하
이거 부곡산등 입구 영면
 시고 안 밖 자락에 累代의 후손들을 抱擁하고 계신
누대 포옹
 由緒깊은 골(谷)로서 謙虛한 마음 다짐할 일이다.
유시 곡 겸허

1997年(丁丑) 10월 일. 密陽卞氏 文肅公派 宗親會

▶ 춘정공(春亭公) 후손 근대 인물사(人物史)

세(世)	휘(諱)	구분	행적(行蹟)
八世	德基(덕기)	仲家	兪正(첨정) 宣武從勳二等(선무종훈이등:임진난 의병 녹훈(錄勳))
九世	應富(응부)	"	嘉善大夫(가선대부) 肅宗(숙종) 乙亥(1695)년 12월 8일, 특진
九世	璉瑚(연호)	季家	嘉善大夫(가선대부) 龍驤衛同知中樞府事(용양위동지중추부사: 군사직)
十世	成俊(성준)	"	折衝將軍副護軍五衛屬(철충장군부군오위속: 군사직)
十三世	尙瑗(상원)	"	通政大夫(통정대부) 吏曹參議(이조참의)
十六世	鍾千(종천)	"	司馬公(사마공) 龍驤衛副護軍(용양위부호군: 군사직) 知中樞府事(지중추부사)
"	鍾台(종태)	"	儒道會褒彰社薦有(유도회포창사천유) 孝跡碑(효적비: 위치(부곡동(釜谷洞) 입구))

▶ 춘정공 十六세손(諱 鍾千) 후손들은 세거지(世居地: 청도군 이서면 흥선리)에서 흥선서원(興善書院)을 창건하였는데 대구에서 최초 한의대를 설립하고 경산대학교 초대총장을 역임한 정환(廷煥: 諱 鍾千, 曾孫)의 주동으로 춘정선생 추모비와 아울러 중후한 유적을 건립하였다.



<興善書院(흥선서원 1996 창건)>

나. 문헌기록(文獻記錄)

(1) 종가(宗家) : 함안(咸安) 칠원면 예곡리 세거지(世居地)



<주산재실>

◆ 柱山齋記

卡域中之名姓聞公巨卿文藝行義繼世不乏而至李氏朝鮮太宗朝春亭先生諱季良以德義文章位登樞要而事業聲望爲世推重赫赫然爲一代巨匠裕後之令德錫類不匱而及其五世孫思亭諱字清自密陽奠居禮谷至于今八九世不甚繁夥而且厥居不恆先世墳塋近在相望前人遺跡猶有餘澤而尙爾齋宿之無所則不無後續之發心矣迺者九世孫光祚與其胃孫龍飛詢謀閭族合心協力相地於洞隅여凱處起役於辛酉之春首而迄功於其年流火之末經始之艱功不無超例之出力戶尋人排各盡其誠厥心厥力之갈盡無餘罔比於巨門閥族之所事也則今日之記實宜資後日述古之誠矣衆議所同

使光祚龍飛求其文於余余以不文固辭不獲則遂欽祗而書曰難矣哉所事也世降俗渝人心移下罔知追慕之爲甚事而家道稍潤則華其居而侈其身朝得暮失比有之而況君家勢不豐贍數亦不夥而有此美學者不者比其敦風易俗報本追遠之實使世之罔祖之人觀之悚縮而警省乎吾亦有祖之心而勃然奮發者在乎何其壯也人亦爲然況爲是齋之後承者乎然報本追遠之誠實自敦睦中出來也則非孝友而安有且敦睦者乎然則孝友是敦睦之本而敦睦能遂報本追遠之事之本也則卞氏後承之登斯齋者看記實之文知乃祖創始之極艱而永守勿替之誠自不能已也孝友之心安得不油然而也是其爲卞氏而唱頌者乎且禮谷卞氏之昌盛之朕豈不在茲矣乎幸勉旃哉以是爲柱山齋記齋以名柱山者爲是因齋後之山名也

乙丑二月清明節 盆城 裴文準 記

※ 주산제(柱山齋) 기록문

변씨(卞氏)는 나라 안에서 이름난 성(姓)이다. 높은 벼슬을 비롯하여 문장(文章)과 선행이 대대로 이어졌는데 조선 태종조 시대에 춘정선생 휘(諱) 계량공(季良公)이 덕의(德義)와 문장으로 높은 지위에 계셨기에 사업과 성망(聲望)이 세상에 드러나 한시대의 큰 어른이 됨에 훗날이 크게 일어나더니 그 후세손 사정(思亭) 휘(諱) 우청공(宇淸公)이 밀양으로부터 예곡(禮谷)으로 이거한지 어언 八, 九세(世)에 심히 번성치 못할 뿐만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되어 윗대 선산(先山)이 가까이 있고 옛 선조의 흔적도 아직 남아 있지마는 추모하여

재계(齋戒)할 곳이 없는지라 자손 된 도리에 어찌 생각이 없으리요 九세손 광조(光祚)가 종손(宗孫) 용비(龍飛)씨와 종회를 열어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 동네 옆 밝은 터에 신유(辛酉:1981)년 봄에 착수하여 그 해 가을에 마치니 이 사업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있어도 집집마다 정성을 쓰니 그 심력(心力)의 애씀이 어찌 큰 집안의 일함에 비유하리요? 그러나 오늘에 기록을 남김이 후생(後生)들에게 정성 담긴 자료가 되리라 믿고 의논이 통일되어 광조(光祚) 용비(龍飛)를 보내 나에게 글을 구하니 내 비록 불문하나 사양하기 어려워 글을 써서 장한 일을 하였다고 세상이 인심 넉넉지 않고 고 풍속이 투박하여 사람들은 추모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므로 살기 조금 나으면 자기 집이나 잘 꾸미고 자기 몸이나 사치하다가 금방 패가하는 자가 보통인데 군가(君家)는 세(勢)도 넉넉하지 못하고 수(數)도 많지 아니한데 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조부(祖父)님과 아버님을 모시는 자가 볼 때에 마음에 큰 충격이 되어 나도 조부(祖父)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껴서 분발하지 않겠는가. 어찌 이렇게 장할꼬?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거늘 하물며 이 재실(齋室)의 후손이라. 그러나 근본을 아는 정성은 화목에서부터 나오는데 효우(孝友)가 아니면 어찌 화목함이 있으리요? 그런즉 효우(孝友)가 화목의 참뜻이고 화목이 능히 그 일을 아는 이치가 될 것인즉 변씨의 후손으로 이 재실에 올라 이 글을 볼 때 조상(祖上)님이 애쓰신 것을 알아 길이 보존할 정성을 능히 알지 못하겠느냐? 효우(孝友)의 마음이 어찌 유연하지 않으리요. 변씨를 위해 고함이고 또 예곡 변씨 창성할 징조가 이에 있을 것이니 여러분은 힘쓸 지어다. (주산재기(柱山齋記)의 주산(柱山)의 이름은 재실 뒷산의 이름이다.)

을축(乙丑:1985)년 2월 청명절 분성 배문준 기

(2) 중가(仲家): 금곡(金谷) 세거지(世居地) 제단(祭壇)

금곡(金谷) 입향조(入鄕祖) 휘 광운(諱 光胤:충정공 五세손) 선대(先代)의
 기적명(記跡銘)을 수록한 양세(兩世:
 휘 광운(諱 光胤) 휘 서(諱 恕)) 제단비(祭壇
 碑)가 1973(己丑)년에 현지에서 세워
 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密陽卞氏兩世祭壇>

▼ 금곡(金谷) 입향조(入鄕祖:諱 光胤:1530년경)

◆ 密陽卞氏兩世祭壇

清道之豐角坊金洞祭湯谷有卞氏世葬地阡卞氏之先
 出高麗侍中草溪君庭實而至其曾孫生員高迪始居密
 陽仍以爲貫至大提學文肅公春亭季良益大著春亭之
 玄孫學生光胤與其子內禁恕自密始遷于金洞沒而因
 葬於是子孫亦多繼葬其下顧公歿未幾值龍蛇之亂兩
 世之塋域失守雖有譜乘之錄與古墓之可認而不可辨
 惟以下諸墓俱傳其祥而得修歲祭於是諸後孫慨然而
 相與議曰同在一罔薦於下而闕於上豈神理人情之所
 安耶塋域雖莫辨壇以祭之不亦可呼乃卽其地設壇爲
 位以資薦享又豎碑其上以紀其事問辭於余 〃謂望墓
 爲壇禮經所許追遠德厚曾子所訓卞氏之舉固無可議
 而能篤追遠之誠於倫常敗壞之日者豈非可敬而可尙
 耶故不能辭而書之如此是役也特狷其誠者成煥請余
 文者達煥洛煥也.

癸丑三月 日 後孫永煥謹書
 壬子 菊秋 花山權龍鉉述

※ 밀양변씨 양세 제단

청도의 풍각방(豐角坊) 금동(金洞)의 제탕골(祭湯谷)은 변씨의 대대의 무덤 땅이다. 변씨의 선조는 고려조 시중(侍中)벼슬을 지내신 초계군(草溪君) 정실(庭實)로부터 시작되어 증손(曾孫)에 이르러 생원(生員)인 고적(高迪)께서 처음으로 밀양 땅에 살게되어 관향(貫鄉)이 되었다.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문숙공(文肅公) 춘정(春亭) 계량(季良)께서 크게 들어 나셨고 춘정(春亭)의 현손(玄孫) 광윤(光胤)께서 그의 아들 내금(內禁)을 지낸 서(恕)와 더불어 밀양에서 금동(金洞)으로 옮겨 살다가 돌아가시니 여기에서 장례를 치루었다. 자손들이 또한 많이 이어서 그 아래쪽에 장사를 치루었고 공(公)이 졸(卒)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 때 양세(兩世)의 무덤을 잃어버렸고 비록 족보에 기록이 있지 마는 고묘(古墓)를 가히 인정은 하나 판별이 불가하고 이하 여러 묘가 그러하니 여기에서 세제(歲祭)를 지내면서 후손들이 개연(慨然: 슬프고 탄식함)히 여기고 서로 상의하여 이르기를 “모두 같은 조상인데 아래는 받들고 위를 빠뜨린다면 어찌 신과 인정이 편안하리요 비록 분별할 수는 없지만 단(壇)을 설치 해서 제사(祭祀)를 지낸다면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하고는 즉시 그 땅에 단(壇)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한 비(碑)를 세워 그 위에 그 사실을 기록하는 글을 나에게 물어 왔다.

“묘(墓)를 바라보고 단(壇)을 설치하는 일은 예경(禮經)에 있고 조상의 덕(德)을 사모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증자(曾子)의 교훈(敎訓)”이라 했다. 변씨(卞氏) 모두가 진실로 옳은 의논이 없고서야 윤상(倫常: 사람이 지켜야 할 상도(常道))이 패괴(敗壞: 깨어져 무너짐)된 오늘날에 조상을 추모하는 정성이 돈독하겠는가 가히 공경할만하고 숭상할만한 일이기에 사양할 수가

없어 써다보니 위와 같이 되었다. 이 역사(役事)에 특히 정성을 기우려 성금을 낸 사람은 성환(成煥)이고 나에게 글을 청해 온 사람은 달환(達煥), 낙환(洛煥)이다.

癸未(1973)년 3월 일 후손 영환 쓰고
壬子(1972)년 가을 화산 권용현 글짓다.

◆ 墓碣(僉正 諱 德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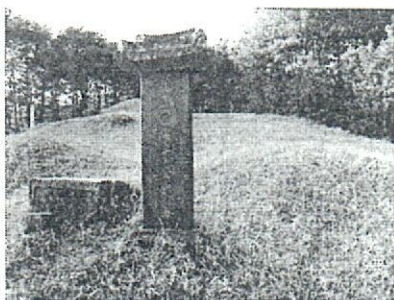
公諱德基字道彦卞氏上祖曰戶長庭實草溪人至曾孫進士高迪始貫密陽進士六世孫曰季良號春亭大提學諡文肅公於公間七世曾祖光胤祖恕內禁考弘珍定虜衛○穆陵壬辰公舉義討賊授僉正錄宣武從勳二等均葬清道豐角面金洞負亥阡配密陽朴氏祔四男應柱應南應富嘉善應龍應柱男克祐應南男得祐振祐應富男致祐應龍男尙祐敬祐嗚呼公既奮身循國至叅勳券則必多卓卓可傳於後者而惜乎家逸蹟史闕文莫由攷證耳然之券也將與天地長存赫赫照人耳目其所以不朽公者顧不在茲歟諸後孫概公墓無表相與謀石既具斗聖君奉世譜要余書辭不獲遊休次如右俾後人知公衣冠之藏在是云.

癸未 十月 日 昌寧 成耆惠 撰

※ 묘갈(墓碣(묘 비석 글) : 첨정 휘 덕기)

공(公)의 휘(諱)는 덕기(德基)요, 자(字)는 도연(道彦)이며
변씨 상조(上祖)이신 호장(戶長) 정실(庭實)은 초계인(草溪人)
이시다.

그 증손인 진사 고적(高迪)께서 처음으로 밀양의 관향을 삼았고, 그의 6대손 계량(季良)은 호를 춘정(春亭)이라 하며 대제학을 역임하셨고, 문숙(文肅)이란 시호(諡號)가 내렸고, 공(公)과는 7세간(七世間)이다. 증조의 휘(諱)는 광윤(光胤)이



요, 조부(祖父) 서(恕)께서는 내금(內禁)을 역임하셨고 부 홍진(弘珍)께서는 정로위(定虜衛)를 역임하셨다.

선조 임진년(壬辰年)에 공(公)이 창의(倡義:국난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킴)하여 토적(討賊:적을 무찌름)하니 첨정(僉正) 벼슬이 내렸고 선무종훈2등(宣武從勳二等)으로 등록되었다. 청도군 풍각면 금동(金洞) 해좌(亥坐) 둔덕에 장사(葬事)를 지내니 부인 밀양박씨(密陽朴氏)도 부장(附葬)하였다. 아들 넷을 두어 응주(應柱), 응남(應南), 응부(應富), 응룡(應龍)은 품계가 가선(嘉善)이다.

응주(應柱)의 아들은 극우(克祐)요, 응남(應南)의 아들은 득우(得祐)와 진우(振祐)요, 응부(應富)의 아들은 치우(致祐)요, 응룡(應龍)의 아들은 상우(尙祐)와 경우(敬祐)이다.

아! 공(公)이 이제 분신보국(奮身報國:나라를 위하여 몸바침)하시어 세운 많은 공훈이 탁탁(卓卓:높고 뛰어나)하며 후세에 전해져야 할텐데 애석하게도 종문(宗門)에서는 사적(事蹟)을 잃어버렸고 글이 결실(闕失:어지러져 없어짐)되었으니 고증(考證)이 어렵도다. 그러나 훈록(勳錄) 만으로도 천지를 더불어 길이길이 사람의 이목(耳目)을 혁혁하게 비추어 줄 것이며 공(公)의 이름이 썩지 않을 것이다.

후손들이 공(公)의 묘소에 표전이 없음을 개탄하여 상모(相謀)하고 돌을 구비해놓고 두성(斗星)군이 세보(世譜)를 들고

와서 나에게 글을 청하거늘 사양하지 못해 써다 보니 위와 같도다. 공(公)의 의관(衣冠)이 여기에 묻혀 있음을 후인들이 알 것이다.

계미(癸未:1943)년 10월 일
창녕(昌寧) 성기덕(成耆億) 지음

◆ 墓碣(嘉善大夫諱應富)

嘉善大夫密陽卞公諱應富字敬五之墓在清道豐角花山蕃德負亥原配慶州金氏合附焉○卞氏之先出自高麗門下侍中八溪君庭實而至生員高迪始居密陽因以貫焉七傳至大提學文肅公春亨季良以文衡勳業鳴於國朝四傳至光胤又遷于清道金洞是爲公高祖○曾祖恕內禁衛祖弘珍定虜衛考德基以壬辰義勳除僉正錄宣武原從勳二等妣密陽朴氏公生光海主己酉卒以肅宗乙亥十二月八日壽八十七嘉善之秩以憂老也○一男致祐孫男信俊副護軍信奉信雄曾玄以下甚繁公墓久未有顯刻至是後孫將伐石表之達煥抱譜棄謁余文以世代已遠累經兵燹家傳散佚無以考其行治之詳爲恨余謂是固然矣然古語有曰仁者必壽又有曰根培而枝達公壽躋大耋得蒙思典則可驗其德之仁矣後嗣克昌歷世繁衍則可驗其根之培矣凡其爲胎母垂範之實則何恨其莫詳哉是可以揭於阡而禾後是役也特捐其誠者十一世孫祚煥也.

丙辰菊秋 花山 權龍鉉 述
達城 徐錫俊 書

※ 묘갈(묘 비석 글)(가선대부 휘 응부)

가선대부(嘉善大夫)이신 밀양(密陽) 변공(卞公)의 휘(諱)는 응부(應富)요, 자(字)는 경오(敬五)인데 그 묘(墓)는 청도군 풍각면 화산동 번덕(蕃德)골 해좌(亥坐) 둔덕에 부인 경주 김씨와 합장(合葬)하였다.



변(卞)씨의 선조는 고려 때 「문하시중(門下侍中)」 벼슬을 지낸 팔계군(八溪君) 휘 정실(諱庭實)로부터 이어져 왔으며 생원이신 휘 고적(諱高迪)께서 처음으로 밀양에 살게 됨으로서 관향(貫鄉)이 되었다.

칠세(七世)에 이르러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춘정 계랑께서는 문형(文衡)과 훈업(勳業)으로 나라에 들 났으며 사세(四世)에 이르러 휘 광윤(諱光胤)께서 청도 금동으로 옮겨 살았으니 이 분이 공(公)의 고조(高祖)이시다.

증조(曾祖)의 휘 서(諱恕)께서는 내금위(內禁衛)를 역임하셨고, 조(祖) 휘 홍진(諱弘珍)께서는 정로위(定虜衛), 고(考) 휘 덕기(諱德基)께서는 임진난 때 창의(倡義:국난(國難) 때 의병을 일으킴)한 공적으로 첨정(僉正)으로 제수(除授)되어 선무원종훈이등(宣武原從勳二等)으로 등록되었다. 비(妣:모)는 밀양박씨이며 광해주(光海主) 을유(乙酉)년에 졸(卒) 하였고, 숙종(肅宗) 을해(乙亥)년 12월 8일에 87세의 장수(長壽)로서 품계(品階) 가선(嘉善)에 특진되었다.

1남을 두니 치우(致祐)요, 손자 신준(信俊)은 부호군(副護軍)을 지냈고, 다음 손자는 신웅(信雄)이고, 증손(曾孫) 이하는 심히 번성(繁盛)하도다.

공(公)의 묘에 오랫동안 비(碑)를 세우지 못하다가 후손들이 석물(石物)을 갖추어 놓고 달환(達煥)이 세보(世譜)를 들고 나를 찾아와 글을 써달라 하면서 하는 말이 「이미 세대가 멀고 여러 번 병선(兵燹:난리로 인한 불)을 겪다 보니 집에 전하는 문서가 흩어지고 없으니 그 행치(行治)를 상세히 고증(考證)할 길이 없어 한이 된다」 하기에 내 이르기를 “참으로 그렇기는 하다마는 옛말에 이르기를 인자(仁者)는 필수(必壽)한다 하였고 또한 뿌리를 복돋아야 가지가 뻗는다고 했으니 공(公)이 장수(長壽)하여 나라의 은전(恩典)을 입었으니 그 덕(德)과 인(仁)을 가히 짐작할 수 있고 후손들이 번성하니 그 뿌리의 튼튼함을 고증(考證)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인데 어찌 상세하지 못함을 한하리요 이로서 무덤 둔덕에 나타내고 후세에 전하리라. 이 일을 맡아 특별히 정성을 다한 사람이 11세손(世孫) 조환(祚煥)이다.

병진(丙辰:1976)년 국추(菊秋:음 10월)

화산 권용현 지음

달성 서석준 쓰다

(3) 계가(季家) : 봉기(鳳岐) 세거지(世居地)

{봉양서원(鳳陽書院: 숭현사(崇賢祠))}

春堂, 春亭公 配享

▼ 봉양서원(鳳陽書院) 및 부수(附隨) 문헌(文獻)

- ▷ 봉양서원기(鳳陽書院記) : 87쪽 참조
- ▷ 영정봉안(影幀奉安) 고유문(告由文) : 94쪽 참조
- ▷ 숭모비(崇慕碑) 제막식 고유문(告由文) : 95쪽 참조
- ▷ 숭모비명(崇慕碑銘) : 97쪽 참조

▷ 문숙공춘정변선생제단(文肅公春亭卞先生祭壇)

- 부곡제단상향문(釜谷祭壇尙享文) : 90쪽 참조
- 〃 비음기(碑陰記) : 90쪽 참조

▼ 봉기(鳳岐) 입향조(入鄉祖:1570년경)

成均進士龜巖卞公之墓

豊角縣舊屬密陽中爲大邱令入清道管割坐移版籍凡三度可知世代之久而變幻無常桐谷洞釜谷山乾坐原有望其墳之牽如者故上舍卞公衣履之藏至于今守護而歲一祭歷五百年而樵牧不入實後裔之父紹子承相傳不替然無匠石之可語尙恐失深目之徵每履霜露怵惕之感自不能禁思欲豎貞珉以表遺蹟無他文獻可籍譜乘書諱下只載性令剛毅不求聞達八字此筆紀實而言甚約噫春亭先生當韓盛際二十餘年爲國文衡有光於東史公雖生於澤斬之世薪大之氣尙有傳襲之餘韻餘周愼齋先生有妹婿之誼亦必有功俎之道而俱無可考宜有慈孫之齋恨後乎此而時隨移世漸遠人事變遷山谷陵夷尤難免桑海之嘆所以沒汲於報本之誠圖永世而不忘者莫若伐石以護衛闔門議同送秀弘君來謁碣銘余已耄荒且識短辭拙何以能鋪敘半千載前古蹟之萬一哉屢辭不獲有一說焉禮曰祖無美而稱之誣也有善而不知不明也今諸子寧受不明之責不欲犯誣先之科溢美而稱之何患無辭只以八字靠實而期傳儘君子之仁況爲其報魄者不必專在於業蹟之顯晦乎無已則因此而演其義夫子曰人不知而不愠又曰隱居而求其志吾聞其言又曰剛毅木納近仁於欺數者足以觀爲

人之道公實有之奚貴乎膚列百行之爲也且龜者是靈通之物上降象天下平法地轉運應四時是以賢人逸士多尙之寧爲生龜而掉尾於途中公持有孚干衷取以自號歟然則公之心推可想也公之世始自中國唐天寶間禮部尙書諱源以帝命渡新羅卽八學士之一也至諱龜年高麗金紫光祿大夫雪陵府院君子攝侍中以上十世載先系諱庭實門下侍中諡文烈封八溪君箸代爲鼻祖至曾孫高迪移居密陽仍改貫三傳有春軒春堂春亭三兄弟遂大闢公諱寶初諱瑗字仁價進士配尙州周氏吏參文備女繼配密陽孫氏國基女墓皆合附考諱璋顯祖諱佐曾祖諱達高祖諱英壽司正文肅公春亭諱季良卽其五世子曰罍輔進士女適載寧李夢祥有子雲龍息城君孫曰德崇佐郎光海朝見政亂避禍晦跡上下世生卒墓所配位多失傳文籍之散扶抑以是故歟惟幸公墓在求顯刻不可已世秀弘於公十三世孫與之終始同其心力者萬永窩永秀克也錄世系以塞孝孫之請念其八字不可無銘銘曰茲性剛以毅仁隱居求志義也仁義俱而未有行不備令其人之庶幾見也久而不變者道何關乎升替之人事也雲仍之追慕而欲永世者卽仁義求心之傳畀也後欲有考而述銘詩孰能使我辭無愧也

柔兆敦祥小滿節下澣星山李基元撰

檀紀四千三百十年三月日達城徐源碩謹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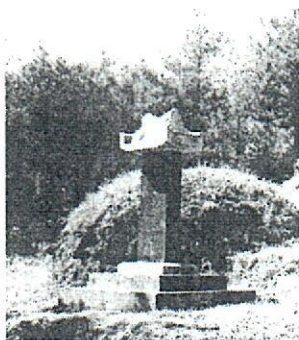
監役 芮珠基・李鍾性

蔣炳宇・李秉河

※ 성균진사 구암 변공지 묘

풍각현(豐角縣)은 밀양에 속해 있다
가 중간에 대구의 령(令)을 받았다.

청도의 관할에 들어와서 판적(版籍:
토지 및 백성에 관한 기록)을 세 번이나 옮
겼으니 가히 세대(世代)가 오래 되었
으며 변환(變幻:급변)이 무상함을 알
수 있도다.



동곡동(桐谷洞), 부곡산(釜谷山) 건
좌(乾坐) 둔덕에 고여(壘如:높과 같이 질편 모양)한 무덤이 있으니
여기에 고(故) 상사(上士) 유덕인(有德人) 변공(卞公)의 옷과
신을 감추어 두고 지금까지 수호하고 있다.

일년에 한번 제사를 지내온 지 500년이 되도록 초목(樵牧:나
무꾼과 목동)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후손들이 부소자승(父紹子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으로 상전(相傳)하여 폐함이 없도다.

그러나 장석(匠石:비석 글)의 읽을 글이 없어 아직도 심목(深
目:깊은 안목)의 징거(徵據)를 잃어버릴까 두렵고 매양 상로(霜
露:서리 이슬 계절)를 밟을 때마다 출척(怵惕:두렵고 근심 불안)한 느낌
으로 능히 사모함을 금할 수 없었다가 정민(貞珉:비석 돌)의 유
적(遺蹟)을 나타내고자 하나 달리 문헌이 없고, 족보의 휘자
(諱字) 밑에 「성령강각불구문달(性令剛毅不求聞達:성품이 강직하여
입신 문달(聞達)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여덟 자만 쓰여있으니 이 붓대
로는 사실을 기록하기에는 심히 간략해 질 수밖에 없도다.

아! 춘정선생께서 성제(盛際)에 20여 년이나 나라의 문형
(文衡:대제학)이 되시어 동사(東史)에 빛났고, 공(公)이 비록 춘
정선생의 혜택이 끊긴 시대에 태어났으나 신대지기(薪大之氣:
벼슬 않고 농사지음)를 전습(傳襲:전하여 돌려 받음)되어 주신재(周愼齋)
선생과 매서(妹婿:여동생의 사위)로 정의를 맺었고, 만드시 공시(功

愧:교우함에 서로 간절히 선행을 권려(勸勵)함의 도가 있었을 진데 참고 할 것이 없으니 의당 후손들의 재한(齎恨:품고있는 한)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다 세상은 달라지고 세대는 멀어지고 인사는 변천되어 산곡능이(山谷陵夷:산곡과 언덕이 평평해진 뜻으로 사물의 쇠퇴를 말함), 상해(桑海:상전벽해)의 탄식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도다.

보본(報本: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갚음)의 정성으로 영세(永世)토록 잊지 않으려면 벌석(伐石:비석을 세움)하여 호위함과 같음이 없으리라 하여 문중이 합의하여 수홍(秀弘)군을 보내와서 나에게 묘갈명(墓碣銘:비석 글)을 써 달라 하거늘, 내 이미 모황(耄荒:나이 많은 늙은이)이고, 또한 식견이 짧고, 글이 웅졸한지라 무엇으로 500년 전의 고적(古蹟)을 만의 하나라도 서술(敍述)하리요.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끝내 허락 받지 못하였다.

일설(一說)의 예(禮)에 이르기를 「조상이 아름다운 업적이 없다는 것은 무언(誣言:없는 일을 꾸며서 남을 해치는 말)이라」 했다 선행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여 밝히지 못할 뿐이다. 이제 제자(諸子)들은 밝히지 못한 책임을 지고 선조를 잘못 이해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남긴 글이 없음을 어찌 근심하리요. 다만 팔자(八字)만 해도 사실의 근거가 충분하여 군자(君子)의 어짐을 다 전할 수 있을 진데 하물며 보답하는 길이 반드시 사적(事蹟)의 현회(顯晦:세상에 알려짐과 알려지지 않음)에만 있으리요. 부자(夫子;공자) 말씀하시기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성내지 아니한다」 라고 했으며, 또 이르기를 “은거(隱居)하면서 그 뜻을 구(求)한다” 라고 했다. 공자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의지(意志)가 굳고 기품(氣品)이 과감하고 성질이 질박하면서 언어가 지둔(遲鈍:언행이 둔하고 영리치 못함)하면 인(仁)에 가깝다” 라고 했으니 사람이 도리를 살필 수 있는 말로 공(公)이 실천하여 백행(百行:모든 행위)의 근본으로 삼았다. 또 거북은 영통(靈通)한 동물인지라 천하의 평등한 법을 상징하고 땅이 사시(四時)로 돌아감을 상징한다. 이런 까

답으로 현인일사 [賢人逸士: 초속지사(超俗之士)]들이 많이 숭상하게 되었다. 살아가는 도중에 거북이 꼬리를 흔들듯 믿는바가 있어 이를 취(取)하여 자호(自號)로 삼았으리라. 그러기에 공(公)의 마음을 추측해서 가상(可想)할 수 있도다.

공(公)의 세계(世系)가 중국 당나라 천보시대(天寶時代)에 시작되었는데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역임한 휘(諱) 원(源)이 제명(帝命: 황제의 명)으로 신라에 건너오니 곧 팔학사(八學士)의 한 분이시다.

휘(諱) 구년(龜年)께서는 고려조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요 설능부원군(雪陵府院君)을 지냈으며, 그 아들 섭(攝)은 시중(侍中)벼슬을 역임하였다.

이상 십세(十世)를 이어 휘(諱) 정실(庭實)은 문하시중(門下侍中) 벼슬을 역임했고, 시호(諡號)는 문열(文烈)이며, 팔계군(八溪君)으로 봉(封)해진 들어 난 비조 [鼻祖: 원조(元祖)] 이시다.

증손(曾孫) 고적(高迪)께서 밀양에 옮겨 살게 되어 밀양(密陽)이 관(貫)으로 바꾸게 되었다.

셋 분으로 전하는 춘헌(春軒), 춘당(春堂), 춘정(春亭)의 3형제분이 크게 들어 났도다. 공(公)의 휘(諱)는 보(寶)요, 초휘(初諱)는 원(源)이다. 자(字)는 인가(仁價)이며, 진사(進仕)를 지냈다. 배(配)는 상주(尙州) 주(周)씨로 이참(吏參) 문보(文輔)의 따님이요, 계배(繼配)는 밀양 손(孫)씨 국기(國基)의 따님이다.

묘는 모두 합봉(合封)하였고, 고(考)의 휘(諱)는 장현(璋顯)이요, 조(祖)의 휘(諱)는 좌(佐)요, 증조(曾祖)의 휘(諱)는 달(達)이요, 고조(高祖)의 휘(諱)는 영수(英壽)이며, 사정(司正)을 지냈다.

문숙공(文肅公) 춘정(春亭)의 휘(諱)는 계량(季良)이었고, 그(高祖)의 5세자(五世子) 앵보(嬰輔)는 진사(進仕)를 지냈고, 공(公:寶)의 따님은 제녕이씨(載寧李氏) 몽상(夢祥)에게 시집갔

다. 아들을 두니 식성군(息城君)을 지낸 운룡(雲龍)이다.

공(公)이 손자를 두니 이름이 덕숭(德崇)이며, 좌랑(佐郎)벼슬을 하다가 광해조(光海朝)에 정란(政亂)을 보고는 화(禍)를 피해 자취를 감추었다.

상하 세대의 생졸일(生卒日), 묘소(墓所), 배위(配位) 등 많이 실전(失傳)되고 문적(文籍)도 흩어졌으나, 다행히 공(公)의 묘소만은 구할 수가 있어서 비(碑)를 세울 수가 있도다.

수홍(秀弘)군은 공(公)의 13세손으로 만영(萬永), 준영(鰥永), 수극(秀克)과 더불어 심력을 같이 하였다.

효손(孝孫)들의 청을 들어 세계(世系)를 기록하고 그 팔자(八字)를 생각해서 명(銘)을 얻을 수 없기에 명(銘)을 지어 가로되, 성품(性稟)은 강(剛)하고 굳세고 어질며 은거(隱居)하면서 그 굳은 뜻을 구하였고, 인(仁)과 의(義)를 갖추어 행위가 아름다웠으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도다.

오래오래 불변하는 것은 도(道)일진데 인사의 승체(升替:홍방성체)와 모든 관계가 있으리요. 후손들이 추모하는 것은 영세(永世)의 인의(仁義)를 구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뒷날 고찰(考察)하는 이가 있어 지은 명(銘)을 보고 누가 능히 내 말을 부끄럽지 않다고 할는지…….

1977년 3월 일

성산(星山) 이기원 찬(李基元 撰)

달성(達城) 서원석 서(徐源碩 書)

▼ 흥선서원{興善書院(鼓鳴齋):청도군 이서면 흥선리}

鼓鳴齋記

淸道伊西面興善之里有新築齋舍一棟面陽而額鼓鳴齋者盖以其所主山之名爲鼓鳴也亦以其所居里之古

號爲鼓鳴也是齋密陽卞氏諸公爲護其高曾祖以下諸昆季府君之墓而設其規模制度總五間前退而齋宿飲福之所皆有裕也始役於民國之再辛未春至翌年壬申之春三月而告功梓樹若增輝阡隴亦改觀況孝子茲孫追慕之心乎謹按其高祖諱尙圭之墓在鼓鳴山大谷戊坐而夫人芮氏祔曾祖副護軍諱鍾千之墓在三聖山南麓戊坐而端人全氏祔是生五子伯公諱代永墓在先山下酉坐仲公諱盛永墓在凡內谷艮坐叔公諱孝永墓在八助嶺戊坐季公鼓山諱錫永墓在先塋下面辰原夫人李氏墓在佛墨谷戊坐術士稱仙人舞袖形云又季公諱竣永墓在興善山在谷癸坐鼓山公之子青隱諱秀參之墓在迎日九龍浦之訥臺負壬原夫人愛日堂禹氏之墓在大月山艮坐術士稱玉兔望月形云又按其高曾以下諸君子皆以孝以友各盡其職又能胎謨燕翼以範一鄉足可曰有是祖有是孫有是父有是子矣旣以之而不墜夫文肅公之由來舊規亦以之而克啓夫群子姓之新進義方斯其非永有頌於來後者耶今諸賢裔之設齋而護墓也亦非出夫報本之道者耶且竊惟玄孫廷煥甫之間記於余寔有由焉在昔文肅公於吾先襄景公之母氏有輓一切曰嗟嗟何恃淚長流屈指星霜十二周踽踽賴蒙猶子視忍聞哀輓向山邱爲吾兩家裔者安得無百世不忘之感耶敢樂爲之記賀諸公護先墓之盛舉兼作吾異日講世誼之資。

檀紀四三二六年民國再癸酉中秋節

順天 金喆熙 謹記

※ 해설

고명재 기록문

청도 이서면의 홍선리에 새로 지은 재사(齋舍:제실) 일동(一棟)이 있어서 양지를 향하여 고명재(鼓鳴齋)라 이름한 것은 대개 그 주산(主山)의 이름이 고명(鼓鳴)이요, 또 그의 사는 마을이 고명(鼓鳴)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 재실은 밀양변씨의 제공(諸公)들이 그 고조(高祖) 증조(曾祖)의 이하 여러 곤계부군(昆季府君)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하여 창설한 것이니 그 규모와 제도가 모두 오간전퇴(五間前退)로서 제숙(齋宿)하고 음복(飮福)하는 장소가 모두 넉넉하다. 대한민국의 재신미년(再辛未年) 봄에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이듬해 임신년(壬申年) 봄에 이르러 준공을 고(告)하니 재수(梓樹)가 빛을 더하는 것과 같고 천룡(阡隴)이 또한 관상을 고치거든 하물며 고자(考子)와 자손(慈孫)들의 추모하는 마음이겠는가 삼가 안찰(按擦)하니, 그 고조(高祖:諱 尙圭)의 묘는 고명산(鼓鳴山) 대곡(大谷) 술좌(戌坐)에 있고, 부인(夫人) 예(芮)씨는 쌍분이며, 증조(曾祖:副護軍 諱 鍾千)의 묘는 삼성산(三聖山) 남쪽 술좌(戌坐)에 있고, 단인(端人) 김씨가 쌍분이다. 이 분이 오자(五子)를 출생하니 백공(伯公:諱 大永)의 묘는 선산하(先山下) 유좌(酉坐)에 있고, 중공(仲公:諱 盛永)의 묘는 범내곡(凡內谷) 간좌(艮坐)에 있고, 숙공(叔公:諱 孝永)의 묘는 팔조령 술좌(戌坐)에 있고, 계공(季公:鼓山諱 錫永)의 묘는 선영의 하면(下面) 진좌(辰坐)에 있고, 부인 이씨의 묘는 불묵골(佛墨谷) 술좌(戌坐)에 있으니, 술사(術士)가 선인무유형(仙人舞袖形)이라고 호칭하며 또 계공(季公:諱 竣永)은 묘가 홍선산 좌곡(左谷) 계좌(癸坐)에 있고, 고산(鼓山)공의 아들 청은(靑隱:諱 秀參)의 묘는 영일 구룡포의 놀대(訥臺) 임좌(壬坐)에 있고, 부인 애일당(愛日堂) 우(禹)씨의 묘는 대월산 간좌(艮坐)에 있으니 술

사(術士)가 옥토망월형(玉兔望月形)이라고 호칭(呼稱)한다.

또 안찰(按察)하니 그 고증조(高曾祖) 이하 여러 군자(君子)들이 모두 효도와 우애로서 각각 그 직분을 다하고 또 능히 연익(燕翼)으로 자손의 행복을 위하는 모책(謀策)을 지켜서 일향(一鄉)의 모범이 되니 이것이 가히 이러한 조부가 있으니 이러한 손자가 있고 이러한 아버지가 있으니 이러한 아들이 있다고 하겠다. 이미 이로서 문숙공(文肅公)의 유래한 구규(舊規)를 떨어트리지 아니하고 또 이것으로서 여러 자손들이 신진(新進)하는 의방(義方)을 능히 열어주니 이것이 그 길이 오는 후세에 칭송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겠으며 지금 여러 현손(賢孫)들이 재실을 설립하여 묘소를 수호함이 또한 뿌리를 보답하는 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또 가만히 생각하건데 현손(玄孫) 정환보(廷煥甫)가 나에게 기문(記文)을 청하는 것이 진실로 유래가 있다. 이전에 문숙공(文肅公)이 나의 선조 양경공(襄景公)의 모씨(母氏)에게 만사일체(萬事一切)가 있어 말씀하되, 「슬프고 슬프다 누구를 믿어야 할고 눈물이 길이 흐르니 손가락을 꽂아보니 세월이 12주년이 되었도다. 홀로선 이 몸 유자(猶子)같이 봄을 무릅쓰니 차마 슬픈 상여노래가 산으로 향하는 것을 듣겠는가.」 하니 우리 양가의 후예들이 어찌 백세(百世)토록 잊지 못할 감상이 되지 아니하랴 감히 즐거이 기문(記文)하여 제공(諸公)들의 선묘(先墓)를 수호하는 성대한 거사(舉事)를 축하하고 겸하여 나의 이일(異日)에 세의(世誼)를 강론(講論)하는 자료를 삼노라.

단기4326년 대한민국 재 계유(1995) 중추절(음8월)

순천(順天) 김철희(金喆熙) 삼가 기문함

※ 주(註)

- 재수(梓樹) : 고향을 지칭함(詩經:維桑與梓)
- 천릉(阡隴) : 묘소(墓所)의 별칭(別稱)
- 연익(燕翼) : 선조가 후손을 위하여 행복을 모책(謀策)한다는 뜻.(詩經:燕翼胎母)

· 유자(猶子) : 형제의 자녀(子女)를 별칭(別稱)하는 문자.

<陝川 李相學 譯註>

鼓鳴齋上樑文

伊西古國降爲道州嘆史籍之無徵琵琶雄峯走作三聖
靈脈之有自興善古洞尙存民淳而俗厚鼓鳴嘉名亦證
禮立而樂成惟茲卞氏一門實是春亭苗裔本鄉密城不
過莽蒼之境仁里喬遷已成桑梓之村畊鑿自食謀不出
外詩禮相承樂在其中至夫香山博士之崛起始見鼓鳴
閭里之生輝誠孝根天性篤學倍輿人志存博濟攻岐黃
於東醫(東洋醫藥大學)仁術大著意在育英創辟雍于翹楚
乃作社會之辭表猶是謙讓不居謂之先蔭所賴伐石豎
丘墓紀蹟之碣拓地開里巷車轍之途已卜宅地於舊業
之傍新營齋舍于坊里之中將以霜露之辰治蘋蘩而永
慕又用春秋之暇娶宗族而講歡傳之子傳之孫肯講肯
堂歌於斯樂於斯苟完苟美既安且好日吉辰良俾贊偉
舉載陳頌辭阿郎偉拋樑東春亭百世仰高風此山轉入
曾何日遙望先鄉一路通阿郎偉拋樑西前後農疇散不
齋先入遺業知斯在點點汗珠繡長堤阿郎偉拋樑南華
岳山高積翠嵐山下祠堂遺像儼濯纓高躅此中探阿郎
偉拋樑北世間變化誰會得須看博士坐焚香淨几明窓
演義易阿郎偉拋樑上咫尺松楸盡人望其奈春秋霜露
辰薦馨奠掃倍悽悵阿郎樑下勝地秘藏知者寡高鳴堂
屹世皆驚却怕門前五車馬伏願上樑之後山川增輝雲
物改觀壬風一變知孝悌禮讓以成俗宗族團合講敦本
裕後以垂訓一心無數百世可竣。

歲癸酉仲秋 西河 任昌淳 撰並書

※ 고명재(高鳴齋) 상량문(上樑文)

이서고국(伊西古國)이 강등하여 도주(道州)가 되니 사적의 징거(徵據)가 없음을 탄식하고 비슬 웅봉이 달아나서 삼성산(三聖山)이 되니 영맥이 붙어움을 우러리한다. 흥선 고동이 오히려 있으니 백성이 순박하고 풍속이 두텁고 고명(高鳴)의 아름다운 이름이 또한 증거하니 예법이 서고 음악이 이루어졌다. 오직 이 변씨일문(卞氏一門)이 실로 춘정(春亭)의 후손이로다. 본 고을 밀성(密城)이 풀이 무성한 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어진 마을에 교천(喬遷:이사(移舍)) 함이 이미 상재(桑梓)의 마을 이루어도다. 밭을 갈고 샘물을 파서 스스로 먹으니 생계가 밖에 나지 아니하고 시경(詩經)과 예법(禮法)이 서로 이어지니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도다. 향산(香山) 박사의 높이 일어남에 이르러서 비로서 마을(고명)의 빛이 남을 보겠노라 효성은 천성에서 나오고 독학(篤學)은 여인(輿人)에 배나했다. 뜻을 널리 건지는데 두었으니 기황(岐黃)을 동의(東醫)에 익혀서 인술(仁術)이 크게 들어 나고 뜻을 영재 기름에 두어서 벽옹(辟雍)을 경산에 창설하니 문풍(文風)이 크게 일어났다. 어찌 오직 족당(族黨)들의 교초(翹楚) 뿐이리요. 이에 사회의 사표(師表)가 되었도다. 오히려 겸양(謙讓)하여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선조 음덕을 힘입음이라고 말했다. 돌을 다듬어 구묘(邱墓)에 기(紀)하는 표갈(表碣)을 세우고 땅을 개척하여 마을 골목에 차가 들어오는 길을 열었다. 이미 택지(宅地)를 구업(舊業)의 곁에 잡았고 새로 재사(齋舍)를 마을의 가운데 지었다. 장차 상로(霜露)가 내릴 때에 빈번(蘋蘩)을 작만 하여 기리 생각하고 또한 춘추(春秋)의 여가에 종족(宗族)을 모아서 기쁨을 강론했다.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전하여 궁구하고 궁당(苜蓿肯堂)하며 여기서 노래하고 여기서 즐거워하여 구완(苟完)하고 구미(苟美)했다. 이미 편안하고 또한 좋으며 날이 좋고 때가 열도다. 하여금 건들 보를 올릴 때 비

로소 송축하는 말을 배푸노라.

어기여차 들보 줄을 동쪽으로 던져주니 춘정선생 일백세(一百世)를 우러러보네 이 산에 들어움이 일찍이 어느날고 선조 고향 멀리 보니 한길이 통했구나 어기여차 들보 줄을 서쪽으로 던져주니 앞과 뒤에 농사들이 흩어져서 같지 않네 선인들의 끼친 업이 알과라 여있으니 점 점한 땀 구슬이 긴 둔덕을 수놓았네 어기여차 들보 줄을 남쪽으로 던져주니 화악산(華岳山)이 높았는데 푸른 기운 쌓여있네 산하의 사당(祠堂) 안에 기친 화상 점잔 하니 탁영(濯纓)선생 높은 발굽 이 가운데 탐구하네 어기여차 들보 줄을 북쪽으로 던져주니 세상에 변화함을 누가 알아볼까 모름지기 변박사가 분향함을 차려 보라 맑은 궤와 맑은 창에 주역을 강연하네 어기여차 들보 줄을 지붕위로 던져주니 지척간에 송추(松楸)들이 한 눈에 들어오네 봄과 가을 서리 이슬 내릴 때 제사하고 벌초할제 배나 슬픔 어찌할까 어기여차 들보 줄을 지붕 아래 던져주니 좋은 땅에 비장함을 아는 자가 적었노라 고명당이 높은 것을 세상 모두 놀라보니 도리혀 대문 앞에 시끄러운 차마가 분담함에 급을 내네 옆드려 원하건데 상량 한 그 뒤로 산천빛을 더하고 운물(雲物)은 모양을 고치며 선비 풍(風)이 한번 변함에 효제(孝悌)와 예양(禮讓)으로서 풍속을 이루고 종족(宗族)들이 단합(團合)함에 뿌리를 돈독하고 후손을 넉넉히 함을 강론하여 교훈을 드리우며 한마음 싫어함이 없고 일백대(一百代)를 가히 기다리도다.

계유(癸酉:1995)년에 서하 임창순이 짓고 아울러 쓰다.

주(註)

- 천교(遷喬) : 생활터전의 이사(移徙)를 뜻하는 말.
- 상재(桑梓) : 선조(先祖)의 고향을 뜻함.
- 기황(岐黃) : 의학(醫學)을 창작한 기백(岐伯)과 황제(黃帝)의 약칭(略稱)이다.
- 벽옹(辟雍) : 학교의 별명.
- 교초(翹楚) : 중인(衆人) 가운데 뛰어난 인물.
- 빈번(蘋蘩) : 묘사(墓祀)에 쓰는 제수품(祭需品).
- 궁구궁당(穹構穹堂) : 부자(父子)가 가업을 계승한다는 뜻
- 구완구미(苟完苟美) : 사치(奢侈)하지 않고 검소(儉素)하게 한다는 뜻.

◆ 春亭 卞季良先生 追慕碑文 (춘정변계량선생추모비문)

이 곳 興善里는 慶山大學校의 創設者이며 現在 同校의 總長인 香山 卞廷煥博士의 出生地다.

卞氏는 先鄉인 密陽에서 博士의 高祖 때에 이곳으로 移住하여 十餘戶의 子孫이 살았는데, 지금은 그 절반 정도가 아직 이곳을 지키고 있다.

興善里의 卞氏는 비록 가난하게 살면서도 學問을 繼承하여 鄉中에 알려졌으며 香山에 이르러 家勢가 크게 일어났다.



先世의 德業에 대하여는 이미 鼓山世稿를 發刊하여 世間에 알려졌는데 이제 다시 그의 遠祖로 歷史에 큰 업적을 남긴 春亭先生을 追慕하는 碑를 鼓鳴齋 앞에 세우는 것은 子孫으로 하여금 恒常 先祖의 學問과 德을 思慕하여 生活속에서 先祖의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함과 同時에 일반 人사에게도 先生의 出衆한 業績을 널리 알리고자 함이다. 先生의 姓은 密陽 卞氏요, 이름은 季良, 字는 巨卿, 諡는 文肅, 春亭은 그의 號다.

아버지는 高麗의 判中樞院事 玉蘭이요, 어머니는 昌寧曹氏다. 一三六九(高麗恭愍王一八)年에 出生하여 一四三〇(朝鮮世宗12)年에 六二歲로 세상을 떠났다. 先生은 香山博士의 一八代祖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十四~十五歲에 進仕와 生員試에 合格하고 十七歲에 文科에 올랐다.

高麗朝에서 여러 벼슬을 지냈고, 朝鮮朝에 들어와 成均館 藝文館, 修文殿, 世子侍講院, 春秋館, 禮曹 등에서 주로 活動

하면서 國家의 文字를 찬술하는 知製敎와 國王의 講學을 담당하는 知經筵은 恒常 兼職으로 지니고 있었다.

李氏 朝鮮이 開國한 以後 文學으로 國家에 貢獻한 인물로서 선생은 그 첫 손가락에 꼽히는 빛나는 存在다. 文學으로 國家에 봉사하는 것은 後進養成과 文臣登用인데 전자는 成均館 大司成이, 후자는 禮文館 大提學이 이를 관장하며, 이 두 가지를 兼任한 사람을 文衡이라 한다.

文衡은 본시 文科의 科擧를 주관하는 관직으로 禮文館 大提學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이때에 와서 大提學이 大司成까지 지내야만 文衡이란 칭호가 붙었다. 그러므로 朝鮮朝에 第一號로 文衡이 된 분은 春亭이었다.

先生은 科擧와 敎育을 맡은 이외에 知製敎로 王命으로 發刊되는 文章을 도맡아 지었고, 특히 중국인 明朝에 보내는 外交文書는 대부분 先生이 지었는데, 중국사람들도 항상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다.

定宗과 太宗의 陵碑를 지었고 兩 王朝의 實錄을 編纂하여 문학 활동이 일대를 代表하였고 朝鮮館閣文字의 典型을 樹立하였으며, 특히 젊은 文臣들의 學問研究 기관으로 集賢殿을 설치할 것을 建議했고, 世宗이 이를 받아들여 선생이 集賢殿의 初代 大提學이 되어서 초창기의 人選을 관장하여 世宗 一代의 찬란한 문화를 창출한 集賢殿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밖에 高麗史 初稿를 수립함에 있어서 主體意識을 살리게 하였고, 來侵하는 倭寇를 토벌할 것을 주장하여 후환을 제거하도록 한 것 등은 또한 선생의 重要的 業績으로 알려져 있다.

先生의 死後에 世宗의 命으로 文集을 編纂하여 一四四二年에 密陽에서 十三권으로 刊行 되었고 一八二五年에 居昌 屏巖書院 儒林에 의하여 重刊되고 一九三七年에 後孫들이 大邱에서 다시 刊行하면서 原集以外에 여러 문헌을 조사하여 문집에 빠진 작품을 수집하고 王朝實錄에서 先生에 관계되는

자료를 뽑아 年譜를 만들고 기타 관련 자료들을 함께 엮어서 續集4권을 추가 간행하였다.

先生の 經歷은 先生の 門人이며 당시 修文殿 大提學 鄭陟이 지은 行狀이 文集에 실려있다.

여기에 보면 先生の 무덤이 臨江縣 仇和里에 있다고 하였고, 新增輿地勝覽 長端府 臨江縣 陵墓項에는 卞季良墓가 臨江縣 서쪽 仇和里에 있다고 기록되었으나 지금 그 所在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 一九三五年에 자손들이 淸道郡 豐角面 鳳岐里 釜谷에 祭壇을 쌓고 歲時로 先生과 夫人 權氏와 朴氏에게 제사를 드린다.

香山博士는 비석을 마련해 놓고 나에게 碑에 새길 글을 청하였다. 나는 선생의 碑에 이름이 없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어 사양하지 않고 이상과 같이 선생의 업적을 서술하고 다시 짧은 찬사를 지어 이 글을 맺는다.

문학은 새로 건설되는 나라의 꽃을 피웠고
깊은 학문은 새 나라의 교육의 틀을 잡았다.
육 백년 세월 속에 무덤조차 찾을 길 없으나
오직 문장의 향기 생생히 살아있어 후손은
비석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길손도 위대한
업적을 읽으며 영원히 추모하리라.

서기 一九九六年 十二月

翰林大學校 敎授 後學 任昌淳 삼가 짓고 쓰다.

5. 문집목록(文集目錄)

이 문집 목록은 1824년에 간행된 중간집(重刊集)과 1937년에 간행된 속집(續集)을 합본하여 1993년 경산대학교 변정환 총장이 발행한 영인합본(影印合本: 春亭先生文集)의 목록이다. 광범한 문집의 관련 문건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록하였다.

<편집자>

문집 목록 총괄(總括)

구분	내 용	(쪽)	건수	구분	내 용	(쪽)	건수
原集	重刊序	3	1	續集	目錄	631	1
	舊序	9	1	卷一	樂章	639-645	6
	舊跋	11	1		詩	648	2
	重刊職	13	1		疏	648	1
	目錄	17	1		啓	656	1
卷一	辭	47	2		狀	656	1
	詩	51-103	135		傳旨	657	1
卷二	詩	105-153	155		教書	659	1
卷三	詩	155-205	128		冊文	660	1
卷四	詩	209-257	124		箋	661	1
卷五	記	261-275	5		書(遺墨)	665	3
	序	281-293	6		祝文	666	2
	雜著	297	1		爵文	666	1
	設	306	1		誌	667	1
卷六	封事·上書	311-351	3		銘	672	1
卷七	封事·上書	362-401	5		贊	681	1
卷八	對策(殿試對策(題))	403	1	卷二	附錄	683-778	9
	策問	416-422	3		(年譜·祭文·奉安文·其他)		
	教書	424-445	11		遺墨(筆跡)	779	1
卷九	表箋	447-497	48	卷三	附錄	789-791	2
卷十	青詞	499-511	9		(太祖·太宗實錄)		
卷十一	冊文	513-515	4	卷四	附錄	835-954	2
	祭文·祝文	516-557	43		(世宗·仁祖실록)		
卷十二	碑誌	561-604	8		續集識(卞斗星)	957	1
	銘跋	613-618	4		※詩文: 總 544首		
	附錄(行狀)	621	1				

春亭文集目錄(影印本)

※()의 표시는 쪽 수임

卷別	目	錄
序	· 重刊序 沈象奎 (3) · 舊拔 安 止 (11) · 目錄 (17)	· 舊序 權 蹕(9) · 重刊識 金是瓚(13)
卷一	辭 · 內訟辭 (47)	· 維天命辭 (49)
	詩 · 贈權中慮遇 (51) · 感興七首 (53) · 登聖居山今神寺 (56) · 寄陽谷 (56) · 閒齋自遣 (57) · 夜坐有感六首 (57) · 病中寄陽谷 (60) · 夜雨 (60) · 奇清溪山萬行上人 (61) · 夜雨獨坐 (62) · 病起 (62) · 閒中遣意 (63) · 晨興 (63) · 不出 (64) · 夜坐 (65) · 連夜聞笛 (65) · 夜坐 (66) · 送韓先達之錦州 (66) · 除夜呈梅軒 (67) · 山齋寄京都李先達二首 (68) · 夜坐 (69) · 清園 (69) · 次中慮病中詩韻 (70) · 次原鄉韻 (70) · 向夕 (71) · 題清溪山行上入院 (72) · 雪中崔尹兩判書來訪家君于村莊 家君使余卽賦一絕 (72)	· 次陽谷韻 (52) · 寒食 (55) · 睡起 (56) · 夏日卽事 (56) · 杜門贈陽谷 (57) · 月夜訪許正言 (59) · 苦熱 (60) · 登山齋惠上入院 (60) · 次揚谷韻 (61) · 次陽谷韻 (62) · 次陽谷韻 (63) · 新秋雨夜 (63) · 月夜 (64) · 獨坐呈柳先達 (64) · 宿山寺 (65) · 杜門 (65) · 春日奇栢庭 (66) · 送僧還山 (67) · 早春呈中慮 (67) · 題陽谷小樓 (68) · 獨坐呈陽谷 (69) · 秋夜次陽谷韻 (69) · 盲雨道中 (70) · 倚仗 (71) · 登冠岳寺 (71) · 題驢江憶中慮 (72) · 憶京都友人 (73)

卷一	詩 · 讀孟子至子曰知我者其春秋罪我者其春秋感而成詩	(73)
	· 題百華寺	(74)
	· 過友人閒居	(75)
	· 用陽谷韻呈中慮約	(75)
	庚申夜會飲	(75)
	· 仲春卽事呈子剛	(76)
	· 夜坐對月憶李先達	(76)
	宅連梅花因起	(77)
	· 落花	(78)
	· 送新進士還鄉	(78)
	· 寄中慮	(79)
	· 寄陽谷	(80)
	· 陽谷中慮會于禁內	(80)
	中慮有詩次韻	(80)
	· 館中睡起	(81)
	· 月下散步	(81)
	· 寄陽谷兼呈許直長	(82)
	· 翫月	(83)
	· 夜坐有感	(83)
	· 窮秋卽事	(84)
	· 臨津渡	(85)
	· 果州村舍	(85)
	· 晨興有感	(86)
	· 村居卽事寄京都李先達	(87)
	· 寄京都楊都事	(88)
	· 雪暗	(88)
	· 睡起	(89)
	· 冬至	(89)
	· 題倫上人詩卷三首	(90)
	· 題李觀察使貞幹壽親詩卷	(95)
	· 贈別人朝京	(98)
	· 左百華寺望京都	(74)
	· 朝望	(75)
	· 暮春寄陽谷	(76)
	· 天壽寺西嶺送友人	(76)
	· 早春二首	(76)
	· 次子剛夜坐韻	(77)
	· 春雨	(77)
	· 責友人學琴	(78)
	· 春事	(79)
	· 遊聖知寺	(79)
	· 偶吟	(80)
	· 八月十二日權知中事入	(80)
	直尹壯元有詩次韻	(80)
	· 禁中雨夜同孟史官宿	(81)
	· 寄冠岳山百華寺覺上人	(82)
	· 寄中慮	(82)
	· 登樓	(84)
	· 讀書	(84)
	· 寄題清溪山觀音寺	(84)
	· 過友人山居次壁上韻	(85)
	· 向夕	(86)
	· 夜坐	(86)
	· 自遣	(87)
	· 初冬雨夜	(87)
	· 十月初四日有雪且雷	(88)
	獨酌有感	(88)
	· 八關大會	(89)
	· 送人歸寧	(90)
	· 盆地貯寒泉詩并序	(90)
	· 題夏亭柳政丞寬詩卷	(96)
	· 贈全羅按廉二首	(99)

卷一	· 癸巳六月初五日書呈邸下 (101) · 卓四宰愼挽二首 (102) · 贈鄭判漢城鎮朝京 (103) · 送權史翰孟孫曝賦中原行 (103)	· 柳宰臣元顯挽 (102) · 鄭貳相易妻權氏挽 (102) · 權先達孟孫行寄甫州李使君惠 (103)
卷二	· 早春有懷寄友人 (105) · 寄陽谷兼呈中慮 (105) · 睡起 (106) · 宿安積寺 (107) · 郭外道中 (107) · 宿復興寺 (108) · 醉時謔二首 (109) · 重送 (110) · 題五原龍鳳寺 (111) · 夜坐 (111) · 客中示黃金兩生員 (112) · 奇陽谷 (113) · 中秋夜憶陽谷 (113) · 送禹博士 (114) · 九日登石房南嶺次陽谷韻 (115) · 偶吟 (115) · 夜坐呈中慮陽谷二友 (116) · 戊辰十一月初二日三更雨且雷震 (117) · 次東窓家泳梅韻 (118) · 次前韻 (118) · 贈陽谷 (118) · 次陽谷韻二首 (119) · 冬至日早朝 (120) · 無題 (120) · 觀音屈 (121) · 寄陽谷 (122) · 病中 (122)	· 登金神寺 (105) · 寄清溪山惠上人 (106) · 送僧還山 (106) · 有感 (107) · 巨蠶 (108) · 苦熱行 (108) · 送禹喬之榮州 (109) · 郭外道中示黃生員 (111) · 偶題 (111) · 登龍縛山絕頂 (112) · 寺樓晚望 (112) · 薦魚 (113) · 夜坐二首 (114) · 次陽谷約重九登高韻 (114) · 病起寄陽谷約重九 (115) · 黃生員別後對有感 (116) · 衙日 (116) · 雨夜憶黃生員 (117) · 中慮月夜携酒房角之上 人僕與焉翌日寄角之上人 (117) · 哭崔侍中瑩 (119) · 上卽位明朝受朝賀 (119) · 試闕 (120) · 午吟 (121) · 睡起二首 (121) · 寄東窓 (122) · 層峰裏 (123)

卷二	· 次靈通寺壁上韻 (123)	· 道興 (123)
	· 暮春卽事 (124)	· 雨中看梨花 (124)
	· 偶吟呈李典書二首 (124)	· 示原中 (125)
	· 宿金神寺 (125)	· 將赴京都長湍途中寄呈鼎谷 (125)
	· 西江卽事 (126)	· 題龜山寺鍾樓 (126)
	· 金神洞 (126)	· 蓬城途中次酒谷韻 (127)
	· 題興德樓 (127)	· 將赴新都曉發邱河驛臨津途中 ... (128)
	· 八一村用酒谷韻 (127)	· 遊泉寺 (128)
	· 郭外途中 (128)	· 約束窓遊天摩山洛山寺 (129)
	· 解上人自楓岳山來詩以贈之 (128)	· 無題二首 (130)
	· 中秋月 (129)	· 題華庵淵月軒詩卷 (131)
	· 次漢江濟川亭詩韻 (130)	· 次東窓韻 (132)
	· 題中房寺 (131)	· 登南山 (133)
	· 次陽谷韻 (132)	· 節陶淵明歸去來辭句 (133)
	· 送石崇上人白雲山 (133)	· 次贈朴先生免詩韻5首 (134)
	· 將之平州留別原中 (133)	· 寄陽谷 (136)
	· 霧 (134)	· 送李仲平出按全羅 (137)
	· 遊安積寺 (135)	· 渡漢江 (138)
	· 幽棲 (137)	· 送朴檢參議丞奉使之日本 (139)
	· 號萬事逢舊知僧 (138)	· 送李三寄奉使金陵 (140)
	· 題禪興寺 (139)	· 奉次陽村先生詩韻三首 (141)
	· 題械融上人明正菴詩卷二首 (140)	· 奉次青城君詩韻二首 (142)
	· 奉次兩亭先生詩韻二首 (141)	· 奉次永嘉君詩韻二首 (143)
	· 奉次鷄城君詩韻二首 (142)	· 奉賡御製韻四首 (144)
	· 奉次僕摠制詩韻二首 (143)	· 立春帖字 (145)
	· 次頤齋詩韻 (145)	· 題吉處士再詩卷五首 (146)
	· 題書筵詩卷二首 (146)	· 到辛安村舍 (148)
		· 夜坐 (148)
	· 乙酉三月以試員同樞中憲人留後司經十餘日始花之未開者且落矣感時咏懷呈中憲兼東西館諸友三首 (147)	

	· 月下懷堂後 (149) · 朴宰臣永忠挽章 (150) · 李宰臣舒源挽章 (150) · 姜參議淮仲母氏挽章 (151) · 次酒谷韻約重九會二首 (152) · 偶成 (153) · 己巳十一月十五日夜茂松尹公兄弟來宿 (153)	· 寄陽谷 (149) · 李宰臣玖妻氏挽章 (150) · 尹代言須挽章 (151) · 延英殿 (151) · 呈李左郎 (152) · 送張判事 (153)
卷三	詩 · 詠柳先達宅梅花 (155) · 次梅軒韻 (155) · 次禹府使詩卷 (156) · 次鄭宗誠韻八首 (158) · 題許漢城詩卷 (159) · 次金參知九德奉使詩韻 (160) · 聞罵 (161) · 有感 (161) · 送雨亭相國巡問西都 (162) · 題徐績正郎詩卷二首 (166) · 送曹翰林之中原曝曬 (167) · 送許中書樹之寧越 (168) · 送朴獻納軒赴全羅節制使 為經歷兼簡完山府尹 (169) · 月陽郡事李原卿烏玉十三 丁見惠以詩答之二首 (169) · 喜雨走筆在館中 (170) · 寄江西寺許義郎咳鄭正 郎宗誠二首 (171) · 次韓高城 二首 (172) · 次酒谷人家詩韻 三首 (173) · 送融上人還山仍書一絕寄 千峯老僧二首 (174) · 大醉走筆送鐵城君尹于西都 (175) · 題黃相國之西京詩軸 (176) · 遊進鳳山寺 (155) · 李寺丞次點與諸公會于許正言宅 僕與焉寺丞為詩次甚韻 (156) · 寄大司憲三首 (160) · 題送判事蘆雁圖詩卷次漁村韻 ... (161) · 送柳直提學斗明出牧羅州 (162) · 次頤齋及金代言詩韻七首 (164) · 題姜淮仲萬戶義州詩卷 (167) · 次容軒詩韻二首 (167) · 送金獻納益精赴忠清道 觀察使為經歷兼簡 公州牧伯契兄麻谷道人二位 (168) · 南陽府使尹愷以紅柿百箇見 惠以詩答之 (170) · 題兩街懶菴之金剛山詩卷 (171) · 金甘露雨千峯以貼扇 見惠以詩答之 (171) · 謝惠林檎 (172) · 入舊京 (173) · 奉送驪城君奉使金陵 (174) · 奉送漁村先生 (175) · 送吉川君如京次鷄城君李來韻 ... (175) · 題獨谷賀金承旨科詩卷 (176) · 屬散 (177)	

	・同年會于王輪設宴余有 故不赴以詩寄 (177) ・題上洛伯詩卷 (178) ・題清湖詩卷 (181) ・金宰臣漢老妻氏挽章 (182) ・題金峙廬墓詩卷二首 (184) ・題李佐使彬重赴忠清道都 節使詩卷 (185) ・送李相國觀察全羅 (185) ・次金注簿久問詩韻 (191) ・容軒使相惠天鵬以詩謝之二首 (192) ・送槐庭權先生澹判牧公 州二首 (197) ・同年携壺會于永嘉君宅 僕與焉 (197) ・次陽村詩韻送金議郎端 出按右道 (198) ・題獨谷詩卷二首 (200) ・題領完山府尹朴經詩卷 (200) ・哭李士謂 (201) ・哭頤齋 (201) ・金令公承霍母氏挽章 (202) ・題孝友堂詩卷 (203) ・題尹上將向詩卷五首 (203) ・設分離宴于神孝寺二首 (178) ・訪僕司藝僦不遇 (178) ・題柳茂典書詩卷 (181) ・王惠妃挽章 (182) ・題尹侯詩卷 (182) ・題朝廷使臣馬麟思親圖詩卷 (184) ・送黔毛浦水軍僉節制使鄭復 周次韻 (185) ・次廣州牧使安魯生詩韻十首 (187) ・寄慶尚道使相容軒 (191) ・得此字 (192) ・奉和御製遼上王賞蓮詩韻五首 (195) ・次漆原君尹子當節制蛤浦 景釀臺詩韻 (197) ・吳令陞妻氏挽章 (198) ・題延山府使禹博詩卷二首 (198) ・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 王挽章二首 (199) ・許還母氏挽章 (200) ・李卜祥挽章 (201) ・刈薑寄呈尹愷敬止 (202) ・挽朴完山 (202) ・題樂天亭 (203) ・無題 (205)
卷四	詩 ・奉慶壽寧杖詩卷元韻 (209) ・次清城君鄭權送西北 面都巡問使兼平壤尹 金三宰順天君承澤詩韻 (210) ・送金府尹尹干完山兼節 制二首 (213) ・題延城君金輅巡問西京 詩卷 (215) ・走筆送李肅州中之官二首 (210) ・覺佛寺 (211) ・奉次趙大司成庸詩韻 (211) ・勤政殿二首 (211) ・奉次韓山文靖公賀太祖捷 雲峯凱還詩韻二首 (213) ・題姜寺丞盧墓未畢拜將軍 如京詩卷 (216)

· 瓊花圖圖上有詩次韻二首 (216)	· 題玉瑞琛詩卷次獨谷桂庭
· 瓊花之圖若詩俱佳且其書	韻三首 (217)
法之妙與之相稱即古人所	· 題吉注書詩卷次獨谷韻 (218)
謂三絕也復用首篇韻謹題	· 題河獻納得孚詩卷二首 (218)
一首 (217)	· 哭朴提學宜中 (219)
· 寄禹府使均二首 (219)	· 上洛府院君輓章 (220)
· 安城君母氏輓章 (220)	· 鄭判書矩母氏輓章 (220)
· 柳謙母氏輓章 (221)	· 金繼守輓章 (221)
· 題金令公廷雋觀察全羅詩	· 趙政丞妻氏輓章 (222)
卷次獨谷韻 (221)	· 權陽村輓章二首 (222)
· 奉呈鄭三峯 (223)	· 題鄭勿齋安道詩卷 (223)
· 訪辛使戲贈 (224)	· 益妃輓章 (224)
· 次稚叔韻 (224)	· 崇陵寺壁畫山水歌 (224)
· 病中秋思 (226)	· 向夕 (226)
· 寺樓晚晴聞笛走筆 (226)	· 十月見菊 (226)
· 漫興 (227)	· 送僧南歸 (227)
· 夜坐 (227)	· 寄東窓四首 (228)
· 首陽行 (229)	· 莘野行 (229)
· 送李養中奉使日本 (230)	· 送李館擔之江南 (231)
· 送驪城君閔相奉使江南 (231)	· 呈方議郎與權請促作靴 (231)
· 題慶源村金議郎軒農舍 (232)	· 偶吟 (232)
· 送陸主事斗林行人士英	· 送監生還京師 (233)
還京四首 (232)	· 送祝少卿孟獻還京師 (234)
· 贈容軒觀察使 (235)	· 贈咸觀察使兼簡麻谷 (235)
· 贈朴觀察使 (235)	· 送栗監生 (236)
· 奇題澄心菴 (236)	· 送章寺丞謹還京師 (237)
· 送周監生 (237)	· 義安大君母氏輓章 (237)
· 韓議郎承顏母氏輓章 (238)	· 奇贈江陵李廉使之直 (238)
· 送慶尙安廉許周二首 (238)	· 哭遷亭 (238)
· 成宰臣石略輓章二首 (240)	· 次閔佐郎義生詩韻二首 (240)
· 次獨谷詩韻送申都觀	· 靖簡公權信輓章 (241)
察使概二首 (241)	· 朴丞相誦丈祖母輓章 (242)

	· 題辛總制有定兵馬使于慶源詩卷 (242) · 次獨谷賀漁隱詩韻 (243) · 題趙宰相詩卷 (244) · 次樓亭先生詩韻 (245) · 呈高泉富山張判事 (248) · 西京使相容軒李公惠石銑以詩答之四首 (249) · 辛武節公有定範章二首 (253) · 山川壇祭樂章五首 (256) · 題安監司詩卷 (242) · 次端木智太史詩韻送董監生還京師 (243) · 中亭養母範章 (244) · 次崔典書詩韻三首 (246) · 詠懷奉呈浩亭大人 (248) · 題成判書石印呈浩亭詩卷 (250) · 送黃令公子厚觀察公忠道 (252) · 紫典曲 (253) · 先蠶祭樂章七首 (257)
卷五	記 · 健元陵碑陰記 (261) · 喜雨亭記 (265) · 樂天亭記 (275) · 梅軒記 (263) · 四佳亭記 (270) 序 · 送廉參議序 (281) · 送禮部主事陸公(邕頁)伯瞻使還詩序 (287) · 送參贊議政府事柳公奉使朝京詩序 (292) · 送東北面都巡問察理使咸公傳霖詩序 (285) · 送行人易公節還京序 (290) · 圃隱先生詩藥序 (293) 雜著 · 陳說問答 (297) 說 · 孝寧大君字說 (306)
卷六	封事·上書 · 永樂七年八月日封事 (311) · 請築堤堰上書 (351) · 永樂十三年六月日封事六條 (351)
卷七	封事·上書 · 永樂十三年封事 (357) · 永樂十七年七月日封事三條 (372) · 永樂十九年月日封事四條 (378) · 永樂十四年丙申六月初一封事 (362) · 科學試製述上書 (401)
卷八	對策 · 殿試對策并題 (403)

卷九	策問	
	· 策問題 (416) · 策問題 (419)	
	· 殿試策問題 (422)	
	敎書	
	· 有旨敎六條 (424) · 冊世子敎 (427)	
	· 上上王尊號敎 (429) · 諭對馬州宣旨 (430)	
	· 再諭對馬島宣旨 (435) · 有旨敎書 (438)	
	· 求言敎 (440) · 永樂七年己丑八月二十	
	· 慎刑敎 (443) 七日知申事安缺 (441)	
	· 敎卒誠寧大君某書 (444) · 敎忠清道觀察使書 (445)	
表箋		
	· 謝賜珊瑚問茄籃香帽珠織金	· 謝恩表 (448)
	貯絲書簪藥材象牙犀角表 (447)	· 謝恩表 (448)
	· 謝恩表 (449)	· 謝恩表 (450)
	· 謝恩表 (451)	· 謝恩表 (452)
	· 謝賜樂器表 (453)	· 謝恩表 (454)
	· 謝恩表 (455)	· 謝恩表 (456)
	· 謝放還人表 (457)	· 謝賜鸚哥表 (458)
	· 壽康殿謝書賜宴表 (459)	· 謝賜鸚哥表 (460)
	· 謝恩表 (461)	· 擬宋程頤謝復經筵侍講官表 (462)
	· 謝恩榮宴箋 (463)	· 武科及第謝恩榮宴箋 (465)
	· 謝恩榮宴箋 (464)	· 謝恩箋 (466)
	· 人日謝箋 (465)	· 壽康宮謝書賜宴表 (470)
	· 平陽君臣朴錫命等謝賜祿碑箋 ... (470)	· 賀平安南表 (472)
	· 賀駕幸北京表 (473)	· 賀瑞雲靈芝慶雲瑞水表 (474)
	· 賀瑞象白鳥甘露醴泉天花園	· 賀皇太子箋 (476)
	光浙江潮緩滬河水退表 (475)	· 賀建都北京龍馬出現松柏
	· 節日賀表 (478)	· 擬脂表 (477)
	· 賀皇太子正位箋 (479)	· 賀皇太子正位箋 (480)
	· 議政府賀親祀太廟箋 (480)	· 賀冊世子箋 (481)
	· 議政府賀正朝箋 (482)	· 賀正朝表 (482)
	· 京畿道觀察使賀誕日箋 (483)	· 京畿道觀察使賀誕日箋 (484)
	· 冬至賀箋 (484)	· 議政府賀誕日箋 (485)

	· 無題 (486)	· 陣情箋 (486)
	· 請諡表 (488)	· 請諡表 (489)
	· 請上太上王尊號箋 (490)	· 請免金銀箋 (493)
卷十	青詞 · 親試文武科合行本命醮年例 (500) · 通行青詞 (499) · 北斗醮禮青詞 (501) · 太陰獨醮青詞 (504) · 昭格殿行祈雨兼流星祈禳太一醮禮三獻青詞 (505) · 昭格殿行祈雨兼星變祈禳醮禮三獻青詞 (507) · 福源宮太一移排別醮禮青詞 (500) · 昭格殿行雨雹山崩久雨雷震心星犯月太白晝見月犯南斗之魁祈禳兼消災度厄太一醮禮青詞 (501) · 祈雨昭格殿行醮禮青詞 (509) · 昭格殿行雷電流星祈禳醮禮三獻青詞 (511)	
卷十一	冊文 · 神懿王后玉冊文 (513) · 大行太上王謚冊文 (514) · 祭文·祝文 · 祈雨霽社園壇祭文 (516) · 祈雨霽社園壇祭文 (522) · 祈雨霽社園壇祭文 (524) · 朴淵晝龍祈雨祭文 (529) · 北郊祈雨諸海神祭文 (530) · 議政府行益安大君祭文 (533) · 受命告太廟兼冬享大祭三室祝文 (535) · 祭仁昭殿文 (537) · 祭仁昭殿文 (538) · 宗廟祈雨祭祝文 (539) · 大行皇后祭文 (540) · 太上殯殿大欽祭文 (541) · 祭厚德王大妃文 (543) · 應奉司祭雙梅堂文 (545) · 柳摠制習祭陽村文 (548) · 祭晉山府院君河浩亭先生文 (550) · 太上王封崇玉冊文 (513) · 上王封崇玉冊文 (513) · 祈雨霽社園壇祭文 (520) · 祈雨霽社園壇祭文 (523) · 天地壇祈雨祭文 (528) · 開城大井德津祈雨祭文 (529) · 北郊諸山神祈雨祭文 (532) · 太廟祭四室祝文 (534) · 齊陵欄牆修築安陵祭文 (535) · 祭仁昭殿文 (536) · 祭翼王文 (538) · 親幸宗廟春享大祭一室祝文 (539) · 太上殯所小欽祭文 (541) · 貞陵告遷祭文 (542) · 祭聖德神功太上王文 (543) · 祭陽村先生文忠公文 (545) · 門生等祭高麗門下侍中朝鮮贈諡文忠閣隱先生宅主→계속	

	· 祭先妣贈貞淑夫人曹氏文 (552) · 祭先舅文 (552) · 社 (553) · 諸山 (554) · 戶曹判書朴臣等祭座主高麗門下侍中烏川圃隱先生朝鮮贈諡文忠公鄭公宅主鳳陽郡夫人李氏文 (554)	· 鳳陽郡李氏文 (549) · 還願宗廟祭文 (553) · 稷 (554) · 諸水 (554) · 契盟文 (555) · 金蘭契文 (556) · 祭亡耦吳氏文 (556) · 晉州五臺寺重修文 (557)
卷十二	碑誌 · 箕子墓碑銘并序 (561) · 有明贈諡恭定朝鮮國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獻陵神道碑銘并序 (570) · 有明朝鮮國贈忠純德輔祚贊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驩興府院君修文殿大提學諡文度閔公墓誌銘并序 (588) · 有明朝鮮國贈忠勤翊戴愼德守義協贊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晉陽府院君河公神道碑銘并序 (604) 銘·跋 · 光化門鐘銘并序 (613) · 小簡儀銘 (617) 附錄 · 行狀(鄭陟) (621)	· 有明朝鮮國學新廟碑銘并序 (564) · 有明朝鮮國溫仁恭勇順孝大王厚陵誌 (585) · 有明朝鮮國大匡輔國誠寧大君卞韓昭頃公神道碑銘并序 (595) · 有明朝鮮國贈資憲大夫議政府參贊徐公墓誌銘并序 (599) · 大學衍義篇字跋 (616) · 四書五經性理大全跋 (618)
續集 卷一	· 目錄 (631) 樂章 · 獻壽樂章二首 戊戌十一月 (639) · 賀皇恩曲并序 己亥正月 (641) · 賀聖明歌并序 己亥十二月 (642) · 華山曲乙巳四月 (645) 詩 · 謹次朴松隱天翊畫象韻 (647) 疏 · 請科制罷講經用製述疏戊申四月 (648) 啓 · 請分遣校書權知于郡縣啓丁酉六月 .. (656)	· 上尊號樂章二首 戊戌十一月 (640) · 宴享歌甲辰十二月 (644) · 次朴忍堂昭居官白警韻 (648)

	狀 · 朴訟隱請謚狀 (656) 傳旨 · 下春秋館傳旨乙未十二月 (657) 教書 · 傳世子教書戊戌八月 (659) 冊文 · 上大妃尊號玉冊文戊戌十一月 ... (660) 箋 · 辭檢校判漢城府事箋壬辰六月 ... (661) 書 · 與或人已丑八月 (664) · 答或人 (665) 祝文 · 廣孝殿大享祭祝己卯十二月 (666) 辭文 · 朴松隱墓文 (666) · 答或人 (665) 誌 · 獻陵誌庚子八月 (667) 銘 · 朝鮮國王師妙嚴尊者塔銘并序庚寅 .. (672) 贊 · 朴松隱畫像贊 (681)	· 廣孝殿朔望祭祝 (666)
卷二	附錄 · 年譜 (683) · 賜祭文文宗在東宮時 (766) · 屏巖書院常享文(李敏輔) (767) · 屏巖書院重修記 (771) · 釜谷祭壇常享文 (778) 遺墨 (779)	· 賜祭文世宗庚戌六月(765) · 屏巖書院奉安文(召鍊行)(767) · 屏巖書院上樸文(卞赫祚)(767) · 釜谷祭壇碑陰記(成善惠)(776)
卷三	附錄 · 太祖實錄 (789)	· 太宗實錄 (791)
卷四	附錄 · 世宗實錄 (835) 續集識(卞斗星) (957)	· 仁祖實錄 (954)

春亭 卞季良 先生

印 刷：2003年 12月 日

發 行：2004年 1月 日

編 著：卞秉永(興壽):文肅公派宗親會長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3가 383-5(4층)
053) 765-5850 /011-812-5850

發行處：鳳 陽 書 院

印刷處：경 후 사 053)951-0474
